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윤진·김혜진·박은영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저 자

김지현, 김동훈, 조미라, 배윤진, 김혜진, 박은영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지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동 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박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 2021-2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10-7 93330



머리말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로써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족, 기관(학교), 정책, 지역사회 등 환경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일패널을 유지하고 있고, 패널아동 뿐만 아니라, 패널아동의 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각 년도의 담임교사까지 조사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올해 14년차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육아정책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한 패널아동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로 척도들로 일부 수정하였고, 보호자 및 어머니가 아이의 발달상태에 대해서 응답하던 문항들을 아동이 직접 응답할 수 있도록 다수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패널아동들이 만 19세가 되는 해까지 이어질 아동패널의 데이터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지속해서 조사에 참여해주고 있는 패널아동과 패널가족의 참여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의미있는 데이터 수집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코로나19시기에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연구자들에게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아동과 가족의 발달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제 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도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화상회의로 이루어진 논문발표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1,400여 패널아동과 가족, 항상 조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전국 조사원분들, 그리고 아동패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연구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7
2. 연구내용(사업내용)	18
3. 연구방법	23
4. 선행 연구	25
II.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41
1.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43
2. 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48
3. 사용자편의를 위한 문항정리작업	52
III. 14차년도(2021년) 조사	55
1. 14차년도 조사 내용	57
2. 14차년도 조사 준비	74
3. 14차년도 실사 진행	78
IV. 13차년도(2020년) 조사결과 분석	85
1. 13차년도 조사 개요	87
2. 아동 특성	89
3. 부모 및 가구 특성	171
4.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213
5. 가중치 산출	244

V. 주요 변인 종단적 추이분석	249
1. 한국아동패널 1-13차 추이분석	251
2. 한국아동패널 초등시기 추이분석	261
VI. 한국아동패널 특성정리 및 시사점	295
1. 2020년(13차 조사) 대상별 특성 결과요약	297
2. 초등시기의 추이변화 결과요약	304
3. 정책적 시사점	307
4. 실사 진행관련 시사점	310
참고문헌	315
Abstract	321
부록	323
부록 1. 14차년도(2021) IRB 승인통지서	323
부록 2. 한국아동패널 위촉장 샘플	324
부록 3. 13차년도(2020) 질문지	325



표 목차

〈표 Ⅰ-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실시 계획	19
〈표 Ⅰ-3-1〉 14차 조사 설문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일정	24
〈표 Ⅰ-3-2〉 2021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25
〈표 Ⅰ-4-1〉 2016-2020년 청소년 대상 연구 주요 변수 정리	25
〈표 Ⅰ-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개요	29
〈표 Ⅰ-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 및 한국아동패널 간 조사항목 비교	30
〈표 Ⅰ-4-4〉 해외 청소년 패널 조사 개요	36
〈표 Ⅰ-4-5〉 해외 청소년 패널 변수내용 정리	38
〈표 Ⅱ-1-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수	43
〈표 Ⅱ-1-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연구 수: 2011-2021년	44
〈표 Ⅱ-1-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1년	45
〈표 Ⅱ-1-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0년 발간 논문 기준	46
〈표 Ⅱ-1-5〉 한국아동패널 언론보도	47
〈표 Ⅱ-2-1〉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49
〈표 Ⅱ-2-2〉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49
〈표 Ⅱ-2-3〉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50
〈표 Ⅲ-1-1〉 14차년도 질문지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응답자	59
〈표 Ⅲ-1-2〉 13,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61
〈표 Ⅲ-1-3〉 13,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62
〈표 Ⅲ-1-4〉 13,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	64
〈표 Ⅲ-1-5〉 13,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	66
〈표 Ⅲ-1-6〉 13,14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69
〈표 Ⅲ-1-7〉 13,14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70
〈표 Ⅲ-1-8〉 13,14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72
〈표 Ⅲ-1-9〉 13,14차년도 지역 정책 특성 조사변인	73
〈표 Ⅲ-2-1〉 14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77
〈표 Ⅲ-2-2〉 14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표	78
〈표 Ⅲ-3-1〉 2021년 14차년도 조사를 위한 패널가구 연락 일정 및 과정	80
〈표 Ⅲ-3-2〉 한국아동패널 2008~2021년 조사 가구 수	83

〈표 IV-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건강, 종교활동	117
〈표 IV-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118
〈표 IV-2-30〉 컴퓨터 사용 능력 1	119
〈표 IV-2-31〉 컴퓨터 사용 능력 2	120
〈표 IV-2-32〉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가족과의 시간	122
〈표 IV-2-33〉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	123
〈표 IV-2-34〉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숙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124
〈표 IV-2-35〉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125
〈표 IV-2-36〉 아동의 신체 치수(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126
〈표 IV-2-37〉 아동의 특성별 신체 치수	126
〈표 IV-2-38〉 아동의 시력 보정 도구 착용 시기	127
〈표 IV-2-39〉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128
〈표 IV-2-40〉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128
〈표 IV-2-41〉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 상태	128
〈표 IV-2-42〉 신체적 자아상	129
〈표 IV-2-43〉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130
〈표 IV-2-44〉 체중조절 경험	131
〈표 IV-2-45〉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132
〈표 IV-2-46〉 아동의 장애여부	133
〈표 IV-2-47〉 아동의 만성 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134
〈표 IV-2-48〉 아동의 알러지 관련 증상 경험	135
〈표 IV-2-49〉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및 치료 여부	135
〈표 IV-2-50〉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136
〈표 IV-2-51〉 비속어 사용	137
〈표 IV-2-52〉 집행기능	138
〈표 IV-2-53〉 다요인지능	140
〈표 IV-2-54〉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141
〈표 IV-2-55〉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평균)	142
〈표 IV-2-56〉 학업 스트레스	143
〈표 IV-2-57〉 아동의 과목선호도: 1순위	144
〈표 IV-2-58〉 아동의 과목선호도: 1+2순위	144
〈표 IV-2-59〉 아동의 학습태도	144

〈표 IV-2-60〉 아동의 학교적응	146
〈표 IV-2-61〉 아동의 학교생활느낌: 긍정적 요소	147
〈표 IV-2-62〉 아동의 학교생활느낌: 부정적 요소	148
〈표 IV-2-63〉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149
〈표 IV-2-64〉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150
〈표 IV-2-65〉 아동의 친구 수 및 이성친구 유무	151
〈표 IV-2-66〉 아동의 또래애착	152
〈표 IV-2-67〉 아동의 자아존중감	153
〈표 IV-2-68〉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154
〈표 IV-2-69〉 아동의 GRIT(끈기)	155
〈표 IV-2-70〉 아동의 인성 1	156
〈표 IV-2-71〉 아동의 인성 2	157
〈표 IV-2-72〉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1	159
〈표 IV-2-73〉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2	160
〈표 IV-2-74〉 아동의 미래기대(장래희망)	161
〈표 IV-2-75〉 아동의 진로성숙도	162
〈표 IV-2-76〉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163
〈표 IV-2-77〉 아동의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164
〈표 IV-3-78〉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시 액수	165
〈표 IV-3-79〉 아동의 용돈 사용처	166
〈표 IV-2-80〉 아동의 저축 실태	167
〈표 IV-2-81〉 아동의 저축 방식	168
〈표 IV-2-82〉 아동의 공동체 의식	169
〈표 IV-2-83〉 아동의 안전 체감도 및 대처인식	170
〈표 IV-3-1〉 13차년도 부모 특성 변인	171
〈표 IV-3-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172
〈표 IV-3-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173
〈표 IV-3-4〉 부모의 자아존중감	173
〈표 IV-3-5〉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174
〈표 IV-3-6〉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175
〈표 IV-3-7〉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	176
〈표 IV-3-8〉 모의 삶의 만족도	177
〈표 IV-3-9〉 부의 삶의 만족도	178

〈표 IV-3-10〉 정서조절곤란: 어머니	179
〈표 IV-3-11〉 정서조절곤란: 아버지	180
〈표 IV-3-12〉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181
〈표 IV-3-13〉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182
〈표 IV-3-14〉 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183
〈표 IV-3-15〉 부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184
〈표 IV-3-16〉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185
〈표 IV-3-17〉 부모의 부부갈등	186
〈표 IV-3-18〉 부모의 행동유형	187
〈표 IV-3-19〉 모의 미디어기기 중독	188
〈표 IV-3-20〉 부의 미디어기기 중독	189
〈표 IV-3-21〉 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	190
〈표 IV-3-22〉 부의 주관적 건강 상태	191
〈표 IV-3-23〉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191
〈표 IV-3-24〉 부모의 음주 실태	192
〈표 IV-3-25〉 부모의 흡연 실태	192
〈표 IV-3-26〉 부모 취/학업 상태	193
〈표 IV-3-27〉 모의 취/학업 상태(집단별 분석)	193
〈표 IV-3-28〉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194
〈표 IV-3-29〉 부모의 종사상 지위	195
〈표 IV-3-30〉 취업모 근무일 및 시간	195
〈표 IV-3-31〉 취업모 일자리 만족도	196
〈표 IV-3-32〉 부모의 성취압력	197
〈표 IV-3-33〉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198
〈표 IV-3-34〉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199
〈표 IV-3-35〉 부모 감독 및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200
〈표 IV-3-36〉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201
〈표 IV-3-37〉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202
〈표 IV-3-38〉 사회적 지원 정도	203
〈표 IV-3-39〉 사회적 지원 인원	204
〈표 IV-3-40〉 모의 양육스트레스	205
〈표 IV-3-41〉 부의 양육스트레스	206
〈표 IV-3-42〉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208

〈표 IV-3-43〉 아동의 단독 방 여부	208
〈표 IV-3-44〉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어머니 근로소득	208
〈표 IV-3-45〉 월평균 지출	209
〈표 IV-3-46〉 가구 자산 및 부채	209
〈표 IV-3-4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210
〈표 IV-3-48〉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210
〈표 IV-3-49〉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212
〈표 IV-3-50〉 돌봄서비스 주당 이용 형태(학기 중)	212
〈표 IV-3-51〉 돌봄서비스 주당 이용 형태(방학 중)	213
〈표 IV-4-1〉 13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	214
〈표 IV-4-2〉 13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 변인	214
〈표 IV-4-3〉 전학 여부 및 결석 정도	215
〈표 IV-4-4〉 설립유형	216
〈표 IV-4-5〉 학교 유형	216
〈표 IV-4-6〉 전체 학급 수 및 해당 학급 학생 수	216
〈표 IV-4-7〉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217
〈표 IV-4-8〉 교사 성별 및 연령	217
〈표 IV-4-9〉 교사 경력 및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	218
〈표 IV-4-10〉 교사 최종학력	218
〈표 IV-4-11〉 교사 업무 스트레스	219
〈표 IV-4-12〉 아동과 교사 관계	220
〈표 IV-4-13〉 창의적 학교 환경	220
〈표 IV-4-14〉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	221
〈표 IV-4-15〉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	222
〈표 IV-4-16〉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223
〈표 IV-4-17〉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224
〈표 IV-4-18〉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225
〈표 IV-4-19〉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225
〈표 IV-4-20〉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226
〈표 IV-4-21〉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비용	226
〈표 IV-4-22〉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227
〈표 IV-4-23〉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228
〈표 IV-4-24〉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229

〈표 IV-4-25〉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230
〈표 IV-4-26〉 지역규모	230
〈표 IV-4-27〉 6개 권역 구분	231
〈표 IV-4-28〉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231
〈표 IV-4-29〉 여가 공간·시설 편리성	232
〈표 IV-4-30〉 문화시설 편리성	234
〈표 IV-4-31〉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235
〈표 IV-4-32〉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236
〈표 IV-4-33〉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237
〈표 IV-4-34〉 양육환경 안전성	238
〈표 IV-4-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240
〈표 IV-4-36〉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중복응답)	241
〈표 IV-4-37〉 지난 1년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이용 비율(중복응답)	242
〈표 IV-4-38〉 학교정책 수혜 여부	243
〈표 IV-4-39〉 학교정책 만족도	244
〈표 IV-5-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246
〈표 IV-5-2〉 13차년도 횡·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248
〈표 IV-5-3〉 13차년도 최종 횡·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248
〈표 V-1-1〉 아동의 체중	252
〈표 V-1-2〉 아동의 신장	253
〈표 V-1-3〉 아동의 BMI	254
〈표 V-1-4〉 부모의 취/학업 상태	255
〈표 V-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256
〈표 V-1-6〉 부모의 결혼만족도	257
〈표 V-1-7〉 부모의 부부갈등	258
〈표 V-1-8〉 사회적 지지	260
〈표 V-1-9〉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260
〈표 V-2-1〉 초등시기 추이분석 예상 변수표	261
〈표 V-2-2〉 일일 생활시간 - 평일	262
〈표 V-2-3〉 일일 생활시간 - 주말	263
〈표 V-2-4〉 학습시간 - 평일	264
〈표 V-2-5〉 놀이·활동시간 - 평일	266
〈표 V-2-6〉 놀이·활동시간 - 주말	266

〈표 V-2-7〉 미디어 이용시간 - 전체	268
〈표 V-2-8〉 미디어 이용정도 - 상세	268
〈표 V-2-9〉 아동의 인터넷 중독	269
〈표 V-2-10〉 주평균 독서량 및 운동량	270
〈표 V-2-11〉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 및 즐겨하는 운동 유무	271
〈표 V-2-12〉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272
〈표 V-2-13〉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 및 또래 애착	274
〈표 V-2-14〉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275
〈표 V-2-15〉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275
〈표 V-2-16〉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276
〈표 V-2-17〉 주관적 건강상태	276
〈표 V-2-18〉 부모감독 관련	277
〈표 V-2-19〉 모 일자리 만족도	279
〈표 V-2-20〉 소득별 취업모 일자리 만족도	279
〈표 V-2-21〉 모 일-가정 양립,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280
〈표 V-2-22〉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282
〈표 V-2-23〉 과목별 학업수행능력 추이	283
〈표 V-2-24〉 소득 특성별 학업수행능력	284
〈표 V-2-25〉 학업 스트레스 추이	285
〈표 V-2-26〉 소득별 학업 스트레스	285
〈표 V-2-27〉 학교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이용 여부	286
〈표 V-2-28〉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전체아동)	288
〈표 V-2-29〉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이용아동)	288
〈표 V-2-30〉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전체아동)	290
〈표 V-2-31〉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이용아동)	291
〈표 V-2-32〉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비용부담	292
〈표 V-2-33〉 교육 만족도	293



그림 목차

[그림 Ⅰ-2-1] 2021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구성	19
[그림 Ⅱ-2-1]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51
[그림 Ⅱ-2-2] 제12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개최 포스터	52
[그림 Ⅲ-1-1] 14차년도 조사 진행절차	57
[그림 Ⅲ-3-1] 2021년 가정의 달 선물	79
[그림 Ⅲ-3-2] 2021년 가정의 달 선물 발송 및 조사 예고 안내문	79
[그림 Ⅲ-3-3] 한국아동패널 2008~2021년 조사 참여율	82
[그림 V-1-1] 아동의 체중	252
[그림 V-1-2] 아동의 신장	253
[그림 V-1-3] 아동의 BMI	254
[그림 V-1-4] 부모의 취업상태	255
[그림 V-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257
[그림 V-1-6] 부모의 결혼만족도	258
[그림 V-1-7] 부모의 부부갈등	259
[그림 V-2-1] 일일 생활시간 - 평일/주말	263
[그림 V-2-2] 학습시간 - 평일	265
[그림 V-2-3] 놀이·활동시간 - 평일/주말	267
[그림 V-2-4] 미디어 이용시간(전체) 및 이용정도(상세)	268
[그림 V-2-5] 인터넷 중독 분류	269
[그림 V-2-6] 주평균 독서량 및 운동량	270
[그림 V-2-7]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 및 즐겨하는 운동 유무	271
[그림 V-2-8]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273
[그림 V-2-9]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 및 또래 애착	274
[그림 V-2-10] 부모감독 및 부모 학업관심도	278
[그림 V-2-11]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및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278
[그림 V-2-12] 취업모 일자리 만족도-전체/소득별	280
[그림 V-2-13]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281
[그림 V-2-14]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281
[그림 V-2-15] 직장내 육아지원제도 이용비율 - 전체	282
[그림 V-2-16] 모·부 육아지원제도 이용비율 - 제도별	283

[그림 V-2-17] 소득별 학업수행능력 - 전체/소득별	284
[그림 V-2-18] 학업 스트레스 - 전체	285
[그림 V-2-19] 아동성별 및 지역규모 별 학업 스트레스	286
[그림 V-2-20] 학교수업 외 교육 및 사교육 이용 여부	287
[그림 V-2-21] 학교수업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전체/이용아동)	289
[그림 V-2-22]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전체/이용아동)	291
[그림 V-2-23] 학교수업 외 교육비용 부담정도(이용아동)	293
[그림 V-2-24] 교육 만족도(각 영역 이용아동)	294

1. 서론

가. 연구목적과 필요성

-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장기종단연구로서 2008년생 2,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음.
-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6년 기획하고 2008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조사를 14년째 이어 진행해오고 있으며, 한국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이고 귀중한 자료로 자리 잡았음.
-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부터 시작하여 추적하여 아동의 발달을 조사하는 유일한 종단패널 연구임.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기를 거친 성장발달 과정,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의 특성, 또한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파악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수집하고 있음.
-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에 지금까지 참여한 패널아동들은 2021년 만 13세가 되었고, 대부분 중학교로 진학하였음.
 - 제14차 조사는 패널아동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첫해로서, 중·고등학생 시기에 걸친 청소년기에 진행될 조사의 전반적인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나. 연구내용

- 첫째, 한국아동패널 제14차년도 조사를 실시함.
 - 패널아동들은 2021년 만 13세가 되었고, 대부분 중학교로 진학하였음.
 - 패널아동들이 중학생으로 진학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활용될 수 있는 문항 내용과 척도를 사용하여 개발함.

- 둘째, 제 13차년도 (초등 6학년 시점)에 실시된 조사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함.
 - 2020년에 조사된 13차 조사에 대해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학교 및 정책 특성을 설명함.
 - 1-13차에 이어서 지속해서 조사된 아동특성, 부모특성 추이분석을 실시함.
 - 8-13차에 조사된 초등학생 시기의 아동특성 및 부모특성 추이분석을 실시함.
- 셋째, 2019년 조사된 제 12차년도 조사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준비와 이를 활용한 제12차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기획 및 진행함.
- 넷째, 올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1-13차까지 아동이 성장하면서 각 차수마다 달라진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변인들과 설문지, 코드명, 도구프로파일 등을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변인 지도를 구축함.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을 통해 14차년도 설문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청소년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단연구의 설계와 조사내용을 분석하였음.
 - 또한, 1차에서 11차까지 현재 공공데이터를 통해 공개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논문 통계 분석을 통해, 활용현황을 분석하였음.
- 청소년 시기 조사방향 및 설문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14차년도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를 실시하였음.
 - 14차 조사는 청소년시기 조사의 틀을 잡고, 수행 및 심층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조사만 실시하였음.

라. 선행연구

- 청소년 시기의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연구의 주요변수 및 최근 청소년 연구의 흐름을 파악함.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종단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파악함.
- 미국 SECCYD, 미국 PSID-CDS, 미국 Add Health, 영국 Next Steps, 호주 LSAY의 해외의 청소년 대상 종단연구의 조사 설계 및 내용을 파악하여 참고하였음.

2.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가.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현황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수를 파악한 결과 2010년-2021까지 발간된 학술논문 기준으로 698편의 논문이 출간되었고, 2020년에 123편, 2021년에 108편의 논문이 출간되었음.
- 종단연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다양한 종단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음.
- 2020년 발간된 논문 기준으로 아동특성의 경우 아동의 사회성발달, 인지에 대한 활용이 높았고, 부모 특성의 경우 양육특성, 심리적 특성을 활용한 논문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나. 12회 아동패널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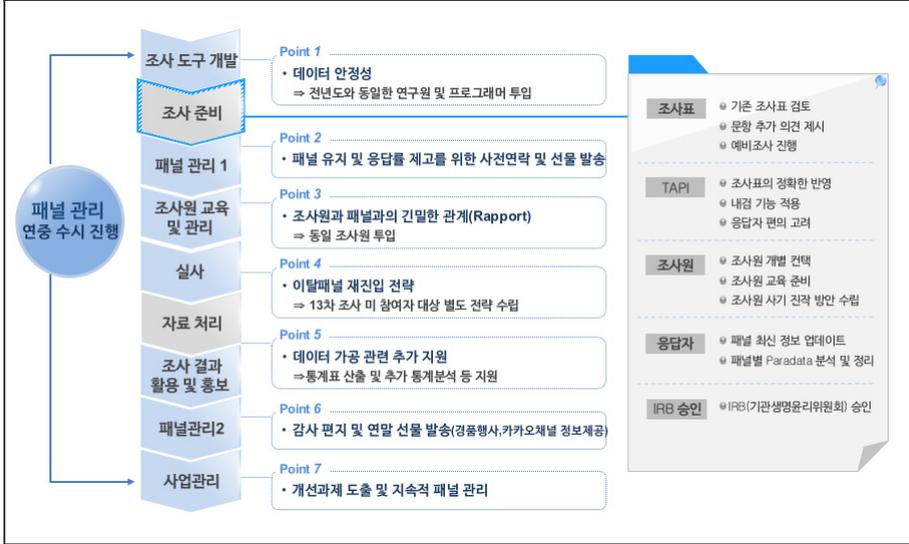
-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2021년 10월 1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음.
- 1부 개회식 및 시상식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2부 논문발표는 사전 등록 후 Zoom 웨비나로 진행되었음.
- 2부 학술대회 발표는 ‘아동발달 1, 2’, ‘학교생활 및 적응 1, 2’, ‘부모양육’, ‘미디어’의 6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세션에 3개씩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최종원고 제출에서는 일반부문 20편, 학생부문 23편으로 총 43편이 제출됨.

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문항정리작업

- 1-12차에 걸친 조사 변수를 조사차수별로 정리하여 설문지와 변수를 매칭시킨 자료를 2022년 초에 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 초등시기 사용자 지침서를 개발하여 2022년 초에 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3. 제14차년도(2021년) 조사

□ 14차년도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 14차년도 조사내용

□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조사, 보호자 조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담임교사 총 5종의 질문지를 통해 실시됨.

□ 아동용 질문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TAPI(대면면접)을 통해 이루어짐.

- 아동특성 중 생활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취미, 신체특성, 실내외 활동, 인지 발달, 학습스트레스,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사회 관련 의식, 미래/진로 등의 질문에 응답함.
- 부모 특성 중 양육행동, 부모애착, 아동학대 등을 포함함.
- 학교 및 교육 특성 중 학교 환경 및 사교육 인식 등을 포함함.

□ 보호자용 질문지는 주양육자(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TAPI(대면 면접)을 통해 이루어짐.

- 14차 조사부터 아동특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했던 다수의 설문은 아동용으로 이동하였고,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및 치료 등을 포함함.

- 부모 특성 중 부부 특성, 질환 및 장애 등, 가구 특성 중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소득, 지출, 자산 등), 가정환경 특성 등을 포함함.
 - 학교·사교육 특성에서는 학교 이용, 사교육 특성,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및 지역 특성 중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 등, 정책 특성 중 국가적 지원,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코로나19 정책만족도 등을 포함하였음.
- 어머니 아버지 질문지에서는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의 부모특성을 포함하여 지필식 설문으로 진행함.
- 교사용 질문지에서는 학업수행능력, 아동의 교사와의 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 학교의 물리적 특성, 교사특성, 가정협력 등을 포함하였음.

나. 14차년도 조사준비

- 중학교 1학년 발달 수준에 맞는 조사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조사변인을 선정함.
- 첫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아동이 응답할 경우 문항응답의 정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기존의 보호자 문항에서 아동문항으로 변경(ex. 생활시간 조사, 취미생활 등)함.
 - 둘째, 초등학생 대상으로 타당화되었던 기존 문항의 경우 청소년 대상으로 타당화된 문항으로 변경함.
 - 셋째, 학교급이 바뀌면서 생기는 학교 관련 문항들을 변경함(ex. 학교 종류, 학업성취도 측정방법, 과목선호도 과목명 변경 등).
 - 넷째, 청소년이 되면서 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따른 변화가 반영되도록 변경함. (ex. 용돈 사용처 보기 추가, 생활시간의 여가생활 내용 추가 등).
- 조사 진행을 위해 IRB 승인을 받고,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하였음.

다. 14차년도 실사진행

- 설날 및 어린이날 선물 제공 및 위촉장 수여 등 패널 유지관리를 실시함.
- 14차년도 실사 진행 결과는 기준 1,348가구(아동 1,328명)가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작년 대비 96.5%의 유지율을 나타냄.

4. 13차년도(2020년) 조사결과 분석

가. 13차년도 조사개요

-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 수는 보호자 기준 1,397가구, 아동 1,359명, 어머니 1,380명, 아버지 1,352명임.
- 가구특성은 평균 가구원수 4.7명, 자녀수 2.2명, 평균 소득 571.4만원, 평균 가구지출 462.4만원임.

나. 아동 특성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의 일상생활 특성을 살펴보았음.
 - 식생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우유섭취 높은 편이나, 채소와 과일 섭취가 낮았고, 튀김/볶음요리 섭취, 카페인 섭취 및 인스턴트식 섭취빈도도 더 높게 나타났음.
 - 생활시간을 살펴본 결과 초등 6학년 아동의 수면시간은 주중 8.8시간, 주말 9.5시간이었으며, 주중에는 남학생이, 주말에 여학생이 더 많이 자는 경향을 보였음.
 - 취미활동으로는 악기를 취미로 하는 아동 47.0%(여학생 60.4%), 운동을 취미로 하는 아동 60.8%(남학생 72.7%)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를 보였음.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의 신체 및 건강 특성을 살펴보았음.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의 평균 신장은 155.4cm, 평균 체중은 50.0kg로 나타나고, 안경을 쓰는 아동은 45.7%이었으며 평균 9.1세에 안경을 처음 쓴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의 학습관련 특성을 살펴보았음.
 - 학업 스트레스는 5점 척도 중 2.3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학교성적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의 아동이 외동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음.
 - 소득에 따라라도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주관적 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의 사회 및 정서 발달특성을 살펴보았음.
 - 포래애착에서 의사소통, 신뢰는 4점 척도 중 각각 3.1점, 3.2점으로 높은 편이고, 소외정도는 1.9점으로 중간 정도를 나타냈음.
 - 미래기대로는 돈 잘 버는 사람 31.3%,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41.8%가 결혼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전체의 36.7%가 자녀양육 의사가 있다고 하였음.
 - 경제관념 및 경제행동에서 패널아동들이 생각하는 가정형편은 평균 6.6/10점이었으며,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의 자녀의 경우 7점 정도로 나타났음.
 - 용돈 지급 여부는 41.1%정도가 정기적 지급, 49.6%가 필요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주일 용돈은 평균 약 7천원임.

다. 부모 및 가구 특성

- 초등 6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개인 및 부부 특성을 살펴보았음.
 - 어머니 평균연령 43.1세, 아버지 평균연령 45.5세로 나타났으며, 초혼 유배우 비율 94.3%, 재혼 유배우 비율 1.2%, 이혼율 3.4%로 나타남.
 -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 중 3.8점 전후, 주관적 행복감은 7점 척도 중 5.2점 전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7%이었으나, 아버지의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1.9%로 나타났음.
- 초등 6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직업특성 및 양육 특성을 살펴보았음.
 - 아버지는 95.0%가 취업, 어머니는 58.2%가 취업 중이었으며, 어머니는 주중 기준 평균 4.9일 근무, 하루 평균 7.8시간 근무를 하고,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는 3.8/5점으로 나타났음.
 - 아동이 응답한 부모의 양육특성을 알아보았는데, 부모의 성취압력은 2.3/5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아동학대의 경우 9.1%가 신체적 학대경험, 21.9%가 언어적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초등 6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가구특성을 살펴보았음.
 -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은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86.5%로 나타나고, 평균 가구원수는 4.6명으로 나타났음.

-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71.4만원, 월평균 어머니 소득은 247.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비성 지출은 262.9만원임.
- 자녀에게 쓰는 소비성 지출은 109.5만원이며, 비소비성 지출 전체 200.1만원 중 자녀에게 쓰는 비소비성지출은 46.6만원으로 나타났음.
- 초등 6학년인 패널아동이 학기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총 13.0%이며,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은 10.4%임.

라. 학교 및 사교육 특성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의 학급 및 교사특성을 살펴보았음.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의 평균 학급 수는 5.7개이며 반 학생 수는 평균 24.3명임.
- 교사특성은 여교사가 60.5%이었으며, 평균교사연령은 36.1세,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은 182.6시간(22일 근무기준)으로 일일 평균 8.3시간이었으며, 대졸이 60.7%로 가장 많았고, 석사도 25.8%로 높은 편이었음.
- 교사가 응답한 아동-교사 관계는 친밀정도는 5점 척도 중 3.8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갈등은 1.4점으로 낮은 편이었음.

□ 초등 6학년 패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특성을 살펴보았음.

-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는 교사응답으로 3.73/5점으로 참여가 보통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음.
- 부모 응답에서 부모참여 행사 개최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운동회, 학부모 공개수업, 부모교육 등의 행사는 개최 정도가 55.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의 사교육 특성을 살펴보았음.

- 사교육을 이용하는 정도는 89.8%로 높은 편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 때, 사교육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 사교육 이용과목으로는 중복응답으로 영어가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70.2%, 국어 40.9%, 체육 31.6%, 과학 21.1%, 음악 16.9%, 한자 13.5%, 미술 6.9%, 컴퓨터 5.9% 순으로 나타났음.
-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은 학원이 평균 8.7시간,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5.5시간, 인터넷 화상 강의 4.5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 (과외) 4.1시간,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4.0시간, 교내 방과후 교실 3.5시간, 학습지(방문교사) 1.4시간 순으로 나타났음.

마.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지역사회 환경에 따른 교육, 의료, 복지시설의 편리성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는 대체로 편리성이 높은 편이었음
 - 읍면의 경우, 교육·의료·복지시설 모두 2점대로 편리성이 낮은 편으로 지역차가 나타났음.
- 놀이공원, 실내외 체육시설도 읍면의 경우 편리성에서 낮게 나타났고,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영화관, 관람 및 체험시설, 공연시설에서 읍면이 낮게 나타나 지역차이를 보였음.

5. 주요변인 종단적 추이분석

가. 한국아동패널 1-13차 추이분석

- 아동특성
 - 아동 체중의 경우 초등 6학년에 남학생 평균 52.2kg, 여학생 평균 47.7kg으로 초등 5학년 대비 평균 남학생 7.5kg, 여학생 4.7kg의 증가가 있었음.
 - 아동 신장의 경우 초등 6학년에 남학생 평균 155.9cm, 여학생이 평균 154.9cm로, 평균 남학생 7.8cm, 여학생 6.2cm의 신장 증가를 보였음.
 -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의 경우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였음.
- 부모특성
 - 어머니의 취업률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아버지의 취업률은 시간에 따라 큰 변동은 없으나 약간의 감소세가 있었음.
 -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정규직 비율이 0세 이후 점차 낮아져 초등 1학년이후 62% 안팎으로 정체한 경향을 보였음.
- 지역사회특성
 - 육아 관련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나. 한국아동패널 초등시기 추이분석

1) 아동 생활특성

□ 생활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학습시간은 초등 1학년에서 초등 5학년까지 상승하다 6학년 코로나19 시기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놀이 및 활동시간 세부시간에서 평일의 경우 게임 시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스포츠 및 레저 활동시간이 줄어들었음.

- 미디어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초등 2학년 이후 매해 20분 정도의 꾸준한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시기인 초등 6학년에서는 초등 5학년시기 보다 평균 1시간 이상의 급격한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를 보였음.

- 주 평균 독서량은 초등 2학년 8.6시간에서 초등 6학년 2.8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 사이에는 보다 급격한 감소를 보였음.

□ 패널아동의 초등 1학년에서 초등 6학년까지의 심리적 특성 추이를 살펴보았음.

-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였음.

-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도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 사이에 현저한 감소가 있어,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수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등교상황에서도 학생들 사이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친구들 교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패널아동의 초등 1학년에서 초등 6학년까지의 학습특성 추이는 학업수행능력에서는 꾸준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득분위별 차이를 보였음.

-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보다 학업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하위 20%인 소득수준의 경우 학업수행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2) 부모특성

□ 부모의 양육특성을 알아본 결과, 초등 1학년에서 초등 6학년까지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초등 6학년(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가 인식한 친구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을 살펴본 결과, 일-가정 양립, 일-양육 양립 모두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이점이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임.
- 취업 부모 육아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서도 초등 3학년(2017)에서 초등 4학년(2018)사이에는 감소의 경향을 보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쳐 202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아버지의 경우 초등 3학년(2017)에 0.3%에 지나지 않던 유연근무제 활용비율이 초등 6학년(2020)에는 8.5%를 나타내어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사교육 이용특성을 살펴보면, 초등 1학년(90.1%)에서 초등 4학년(94.1%)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감소하여 코로나19 시기인 초등 6학년에서는 89.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학교 방과후를 제외한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사교육)은 이용하는 아동 기준으로 이용비용이 초등 1학년 때 26.5만원에서 초등 6학년 때 44.3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

6. 아동패널가구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 미디어 사용 증가의 심각성
- 생활시간 조사를 바탕으로 초등 6학년 기준 인터넷 통신 수업 평균 1.2시간, 영상시청 시간 평균 1.4시간, 게임시간 평균 1.3시간으로 주중 평균 3.9시간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스마트폰, PC 등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고 있으며, 생활시간에서도 아동들의 취미생활 및 운동, 레저 시간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아동들의 여가시간 활용이 점차 미디어 이용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임.

- 점차 낮은 연령의 아동들이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 데이터를 이용한 심화된 분석을 통해 부모나 교사의 중재 등 아동들의 미디어 이용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 알릴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시기의 생활 습성의 형성

- 초등시기의 생활시간 추이분석을 통해 아동들의 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생활 패턴의 변화를 보임.
- 식생활에서 인스턴트 음식 및 카페인 섭취가 높아지고, 수면시간도 점차 줄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독서, 여가 및 취미, 레저 및 악기나 운동을 하는 취미시간 또한 줄어들었음.
- 점차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학습에 대한 부담도 커져,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도 높아졌으며, 이로 인한 운동시간의 부족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운동시간과 외출시간, 레저 활동 등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집안에서의 시간 사용이 많아진 상황에서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임.

□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 특성 차이

- 초등 6학년 패널아동의 횡단 분석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특성별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음.
- 아동의 식생활에 있어서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섭취 자제 권장 식품의 경우도 섭취 및 다양한 식품섭취 정도가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학교 급식 등의 식사에서 섭취 권장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학습수행에 있어서 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소득이 높은 가구의 아동의 경우 스스로의 학습태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나. 실사 진행관련 시사점

□ 패널아동 조사 참여 어려움

- 패널아동이 청소년 시기에 진입하여, 시간이 맞지 않아 조사일정을 잡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오랜 기간 지속된 조사로 인해 피로감이 증대하였고, 아동들의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조사를 회피하며, 패널아동 주변의 확진자 발생으로 조사 일정이 미루어지거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 비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가구가 있어 일부 허용이 불가피해보이며, 그 수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항 관련 시사점

- 보호자 대상으로 진행하던 아동에 대한 질문을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동용 질문지의 양이 증가하여 아동의 조사량 부담이 늘어난 상황임.
- 아동발달 측정을 위해 1세 때부터 지속해오던 체중 및 신장, 허리둘레 등 아동 신체 계측에 대해 거부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직접계측보다는 기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사례 및 보상관련

- 패널 유지 차원에서 한국아동패널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편이었음.
- 봉사활동점수부여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외부 봉사활동이 인정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점수부여에 제한이 있어 적용하지 않았음.
- 아동 대상 카카오톡채널을 운영하여 청소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대상 기프티콘 발송 등의 추가보상 및 지속적 연계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I

서론

- 0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02 연구내용(사업내용)
- 03 연구방법
- 04 선행 연구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II)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장기종단연구로 2008년생 2,150명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다. 애초에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매년 조사, 초1, 초3, 초6의 초등시기 세 번의 조사를 포함하여 총 9회의 조사가 예정되었으나(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 2016년부터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II)로 명명되고 조사 완료시기가 연장되면서 초등시기 6년 매년 조사를 포함하여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 다음 해인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조사가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는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부터 시작하여 추적하여 조사하는 유일한 종단패널 연구이다. 이에, 영유아 시기의 성장발달 과정, 어머니, 아버지 모두를 포함한 부모의 특성,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여러 양상, 보육 및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파악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수집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유아시기의 아동의 양육환경 및 교육환경이 아동의 인지적·신체적·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기 전반을 포괄하는 자료의 축적으로 아동들의 특성이 어떠한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것인지, 이러한 아동의 특성이 또한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향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06년 기획하고 2008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조사를 14년째 이어 지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한국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이고 귀중한 자료로 자리 잡았으며, 패널아동들이 만 19세가 되는 해까지 원활히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데이터 축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적한 데이터가 정책입안자, 학계 연구자 등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어 의미있는 결과들을 산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18년에는 국가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 등록하여 현재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매해 새롭게 조사된 데이터가 공개되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매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자들이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아동의 발달과 변화에 관심이 있는 학계 학자들이 서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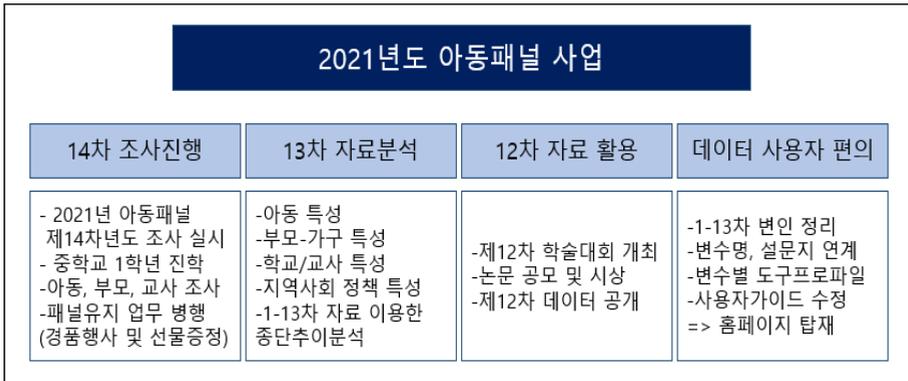
한국아동성장발달 중단연구에 지금까지 참여해온 패널아동들은 2021년 만 13세가 되었고, 대부분 중학교로 진학하였다. 제 14차 조사는 패널아동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첫해로서, 중고등학교에 걸친 청소년기에 진행될 조사의 전반적인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측정해온 아동특성 중 신체적 발달, 언어적/인지적/자아 발달, 사회적 발달, 부모 특성, 가구 특성, 학교 특성, 지역사회 특성의 전반적인 문항이 청소년 시기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인지를 중점적으로 재점검하여, 청소년 시기의 발달특성, 환경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항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 시기를 맞으면서 예년에 비해 높은 패널 이탈이 예상되는데, 이는 중단연구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1 조사가 이루어지는 제 14차 조사의 표본유지율은 향후 계획된 2027년까지의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므로, 패널 유지 및 조사협조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동원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사업내용)

한국아동패널의 2021년도 연구사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아동패널아동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에 14차년도 조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 13차년도(초등 6학년 시점)에 실시된 조사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한다. 세 번째, 2019년 조사된 12차년도 조사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준비와 이를 활용한 제12차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기획 및 진행한다.

네 번째, 올해 추진한 내용으로 1-13차까지 아동이 성장하면서 각 차수마다 달라진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변인들과 설문지, 코드명, 도구프로파일 등을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변인 지도를 구축한다.

[그림 I-2-1] 2021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구성



가. 2021년 14차년도 조사 실시

1) 조사 절차

한국아동 종단연구 2021의 조사절차는 1)조사회사 입찰공고를 통해 조사회사 선정, 2)조사에 활용될 설문지 작성, 3)설문지 확정 후 IRB 승인심사, 4)설문지 TAPI/Web 구축, 5)조사원 선발 및 교육, 6)실사 실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표 I-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실시 계획

구분	만 0~2세	만 3~6세	만 7~9세 (초등1~3)	만10~12세 (초등4~6)	만13~15세 (중 1~3)	만16~18세 (고 1~3)	만 19세 (대1, 진학사)	심층 조사
시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초기	아동중기	아동후기	청소년기	성년기	
2008년	1차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2011년		4차						
2012년		5차						
2013년		6차						2차
2014년		7차						

구분	만 0~2세	만 3~6세	만 7~9세 (초등1~3)	만10~12세 (초등4~6)	만13~15세 (중 1~3)	만16~18세 (고 1~3)	만 19세 (대1, 진학시)	심층 조사
시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초기	아동중기	아동후기	청소년기	성년기	
2015년			8차					
2016년			9차					3차
2017년			10차					
2018년				11차				
2019년				12차				
2020년				13차				4차
2021년					14차			
2022년					15차			
2023년					16차			
2024년						17차		5차
2025년						18차		
2026년						19차		
2027년							20차	6차

2) 조사 내용-청소년 문항 개발

2021년도는 2008년생인 패널아동들이 중학생이 되는 해로 2021년도에 시행될 14차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을 개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지금까지 조사해온 문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시기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항들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문항을 살펴보고, 변수는 지속되더라도 도구가 청소년에 적합한 도구인지를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시기 발달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만 12세 아동의 발달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한 변인을 찾되, 2017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도남희 외, 2017)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응답 도출을 위한 응답대상 변경도 함께 이루어졌다.

3) 코로나19 상황 및 중학교 진학을 고려한 조사 독려 고안

2021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에 대한 불편감 및 중학교 진학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독려 방안이 필요하였다. 먼저, 면담원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대면조사를 나가기 전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조사결과와 신뢰도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선물 발송 등 지속적인 패넬관리를 진행하였고, 올해는 가정 방문 조사 시 패넬아동에 대한 패넬 위촉장을 발급하여, 면담 시 전달하였다.

나. 13차년도 (2020년 실시) 조사 자료 분석 및 결과 보고

2020년에 실시된 13차년도 조사의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주요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초등 6학년 시점의 아동특성, 부모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13차년도 조사인 2020년 조사는 초등 6학년까지의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코로나19라는 외적 변수가 있었던 해라는 점에서 아동과 가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13차 조사의 기초분석과 함께, 초등 1학년(2015년 조사)부터 초등 6학년(2020년 조사)까지의 추이분석을 통해서 초등 학교 6년 동안의 아동의 신체적, 행동적, 심리적 변화와 코로나19 시기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제12회 아동패넬 학술대회 개최

1) 제12회 아동패넬 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사전준비

2021년 10월 1일에 개최되는 제12회 학술대회에는 12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자에게 내년 초에 공개할 제12차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진행을 위하여 5월 13일까지 연구계획서를 모집하였고, 일반부문 31편, 학생부문 36편으로 총 67편의 연구계획서가 공모 심사결과를 통과하였다.

7월 30일까지 제출된 최종 논문은 일반부문 20편, 학생부문 23편으로 총 43편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제12회 아동패넬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선정하고 학생부분 논문공모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2) 제12회 학술대회 개최

12차년도 데이터(2019년 수집)를 포함하여 2019년도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제12회 한국아동패넬 연구논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2021년 10월 1일 비대면 진행).

이를 통해 신생아 때부터 데이터가 수집된 국내 유일한 종단연구인 한국아동발달 패널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다양한 종단연구 활용의 실례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자간의 학문적 교류는 물론 연구결과 활용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학생논문 중 우수논문 3편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학생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독려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진의 한국아동패널 소개, 초등학교 추이분석 발표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제고 작업

1) 12차년도 데이터 공개

2019년에 수집된 12차년도 데이터를 가공하여 12월 말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이용자들의 데이터 활용을 고려하여, SPSS, SAS, STATA, EXCEL의 다양한 형태로 공개 작업을 진행한다. 2019년도 수집된 12차년도(패널아동 초등학생 5학년)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중치 산출 등의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2) 패널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웹페이지 관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되어 있는 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패널 자료 분석이 보여주는 여러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시각적으로 게시하고,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종단 및 횡단 분석 연구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3) 사용자가이드 업데이트 및 변인지도 작업

2008년 조사된 1차 데이터부터 2019년 조사된 12차 데이터(2021년 초 데이터 공개)까지 아동이 성장하면서 각 차수마다 달라진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변인들과 설문지, 코드명, 도구프로파일 등을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변인 지도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2022년 12차 데이터 공개시점에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8차에서 12차까지의 초등학교 시기의 사용자 지침서를 작성하여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이 데이터와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1) 14차년도(2021년) 설문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14차년도 청소년기 설문개발을 위해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 조사와 그 패널들에서 이용하고 있는 조사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5년간의 국내 논문 분석을 통해 최근 청소년 대상 연구 동향과 이에 사용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아동패널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수행검사 및 검사종류를 파악하고, 청소년 시기에 맞는 적합한 수행검사 및 조사변인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2) 한국아동패널 활용도 조사를 위한 논문 분석

2021년 현재 공공데이터를 통해 공개된 한국아동패널 1~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종단, 횡단)별 논문편수, 각각의 변수별로 사용된 논문 수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1) 청소년 시기 조사방향을 위한 전문가 자문

새롭게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의 조사를 앞두고 기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청소년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패널연구 진행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자문을 받아 조사방향에 반영하였다.

2) 청소년 시기 설문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중학교 신규 조사 변인 제안 및 기존 문항의 적절성 검토, 추가 변인 및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1차 자문으로 국내외 청소년 패널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청소년 시기의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2차 자문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 교사 면담을 통해, 중학교 시기의 아동 특성 및 학교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3차 자문으로는 서면 자문형태로 14명의 아동학 및 사회복지학, 가족학, 청소년 복지학 등의 전문가 자문진을 선정하여, 논의 및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였고, 4차 자문에서는 3차 서면자문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중 5인을 대상으로 비대면회의를 진행하여, 문항 선정 및 변경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조사 문항을 최종결정하였다.

〈표 I-3-1〉 14차 조사 설문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일정

	일정	참석 전문가 (전문 분야)	비고
1차	2021. 3.	국내외 청소년 패널 진행 경험자 2인	조사 계획 검토
2차	2021. 3.	중학교 1학년 담당 교사 2인	중학교 커리큘럼 관련 검토
3차	2021. 4.	아동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청소년 복지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14인 서면자문	조사문항 방향에 대한 의견
4차	2021. 5.	아동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분야 5인	조사문항 확정에 대한 의견

다. 14차년도(2021) 일반 조사 실시

1) 조사대상 및 규모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 아동이 다니는 교육기관의 담임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2008년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4~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로(제주도 제외), 1차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30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신생아 가구 2,562가구이며, 최종 구축된 표본은 1차 표본 중 1~3차년도 조사에 1회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2,150가구이다. 이 중 2021년 연구에서는 사망, 이민, 연락처 유실, 명단에서 삭제를 요청한 패널가구를 제외한 1,589가구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2021년 아동패널 조사는 다음 <표 I-3-2>와 같이 구성된다.

<표 I-3-2> 2021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아동	부모	담당 교사
조사대상	초기 구축된 2,150패널 중 조사 거부 및 연락처가 두절된 패널을 제외한 유효패널 1,600가구 /중학교 1학년 아동 당사자, 부모 및 담당 교사(matching sample)		
표본크기	1,600명	가구 당 부모 중 1명씩 1,600명	아동의 학교 담당 교사 : 1,600명
표본추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2008년) : 다단계 층화 다단계 표본 추출법 ● 2차(2009년) 이후 : 전수조사 		
조사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우편 또는 온라인조사, 가구 방문 면접조사	온라인 또는 우편조사
본조사 기간	조사원 교육 후 약 16주 내외 (7월 ~ 10월) 본조사 실시 부재 및 소극적 거절 패널에 한해 약 4주간(11월) 추가조사 진행		
자료수집 방법	TAPI 및 수행 검사, CAWI	TAPI 및 지필조사, CAWI	CAWI 또는 지필조사
패널관리 조사	전화조사 최소 연 2회(2021년 5월, 12월 예정) <small>* 사전 안내 전화, 연말 해피콜 등</small>		

4. 선행 연구

가. 청소년기 주요변수

14차-20차에 예정된 중고등학교 대상 조사를 위해 최근 5년간 청소년관련 연구들을 찾아 주요변수들을 정리하였다.

<표 I-4-1> 2016-2020년 청소년 대상 연구 주요 변수 정리

저자(년도)	가족변수	개인변수	친구 및 학교	주제
김영미 (2016)	한부모가족, 가구 경제수준	폭력피해 경험, 비행문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존감 등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김지혜 (2021)		도박문제, 자살생각, 자살 시도		학교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의 도박문제 및 자살문제
김청송 (2021)		성격강점, 자기존중감	학교적응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학교적응

저자(년도)	가족변수	개인변수	친구 및 학교	주제
노총래·김소연 (2016)	부모양육태도	우울, 공격성, 스마트폰 의존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박민희·임소연 (2020)	경제적 상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성별, 연령, 일주일 평균 용돈, 흡연경험 시기, 신체활동, 아침식사,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금연교육		학교밖 청소년의 금연 시도
박지순 (2016)		진로정체감, 삶의만족도, 학습습관, 정서문제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 영향요인
배상률·이창호 (2016)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SNS	소셜미디어, 청소년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
안지혜·윤유동·임희석 (2016)	형제자매 유무	삶의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행동통제, 주의집중, 성적만족도, 진로정체감, 지역사회 인식, 연간 비행피해, 신뢰		중학생 삶의 만족도
유지희·황숙연 (2016)		성별, 우울, 행복감, 스트레스, 흡연, 폭력경험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경험과 관련요인
이시연 (2017)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 역량, 삶의만족도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과 삶의 만족도
이중하 (2016)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도래애착, 학교생활적응,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모형
이진혁·송인한 (2021)	보호자 방임 및 학대	여가활동시간, 수면시간, 건강상태, 삶의만족도, 성적만족도		여가시간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장유진·이승연·송지훈·홍세희 (2020)	부모 학력, 경제수준	사교육 참여시간,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부모학력 및 경제수준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전명숙·박선녀 (2016)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공동체의식
전혜숙·전종설 (2020)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인권의식, 우울		아동학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미나·노자은 (2016)	부모애착, 부모 진로지지, 부모와의 분리개별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정서조절능력, 불안, 학습된 무기력, 진로관련 자기효능감, 진로지도 경험, 소명	학업성적, 교사애착, 친구지지	청소년 진로성숙 영향요인
정준수·이혜경 (2020)	부정적/ 긍정적 양육행동, 보호자의 잠재적 위험, 주관적 경제수준	성별, 공격성, 학업열의, 사회적 위축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보호자의 스마트폰 중독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저자(년도)	가족변수	개인변수	친구 및 학교	주제
조창호 (2021)	가족영향, 가정환경영향		친구영향 디지털미디어 게임 과의존, 스마트폰 영향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청소년들의 게임시작 동기
하문선 (2020)	어머니의 스마트 폰 중독, 어머니의 부정적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 사회적 위축, 우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의 스 마트폰 중독
한세영·임혜은· 한아름 (2020)	어머니의 도덕적 이탈	직접공격성 및 전위공격성	교사의 도덕적 이탈	어머니, 교사, 청소년 의 도덕적 이탈
황여정 (2021)		청소년참여경험, 자기표 현능력		청소년참여 경험과 자기표현능력

- 자료: 1) 김영미(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70-481.
 2) 김지혜(2021).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465-474.
 3) 김청송(2021).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167-184.
 4) 노총래·김소연(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87-114.
 5) 박민희·임소연(2020).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4(3), 380-390.
 6) 박지순(2016).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49-64.
 7) 배상률·이창호(2016).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페이스북을 활용한 청소년 집단지성 토론단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3), 189-218.
 8) 안지혜·유유동·임희석(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9) 유지희·황숙연(2016).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10) 이시연(2017).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역량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445-454.
 11) 이종하(2016).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33-442.
 12) 이진혁·송인한(2021). 여가시간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중단 연구: 교정효과모형 분석. 청소년학연구, 28(2), 323-351.
 13) 장유진·이승연·송지훈·홍세희(2020). 부모 학력과 경제 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시간과 학업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2), 249-273.
 14) 전명숙·박선녀(201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28-237.
 15) 전혜숙·전종철(2020).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2(4), 37-62.
 16) 정미나·노자은(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17) 정준수·이혜경(2020).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2(4), 211-241.
 18) 조창호(2021).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청소년들의 게임 시작 동기에 관한 질적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17.
 19) 하문선(2020).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21(4), 1001-1035.
 20) 한세영·임혜은·한아름(2020). 어머니, 교사,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의 직접공격성과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809-821.
 21) 황여정(2021). 청소년참여 경험이 자기표현능력 함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1(4), 719-748.

나. 국내 청소년 대상패널 주요 변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은 인간의 생애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올바른 역량과 인성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및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자 관련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비전 설정,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2003~2008; 이하 KYPs 2003)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2010~2016; 이하 KCYPS 2010)의 후속 조사로,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및 발달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CYPS 2018의 표본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총 5,197명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발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조사영역과 항목으로 구성되었다¹⁾.

한국교육종단연구는 교육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로, 첫 번째 패널인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가 조사 2단계에 이르러 이전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보 유용성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비교 가능한 새로운 초등학교 종단연구를 구축하기 위해 두 번째 패널인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에 초등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표본을 추출하여 2030년까지 초·중등교육 기간과 고등교육 기간 및 직업생활 기간으로 나누어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표본은 1차년도 기준 242개교 7,324명의 패널로 시작하였으며, 표집학교별로 연구협력교사를 위촉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1)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 아카이브,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52> (2021년 3월 15일 인출).

〈표 I-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개요

구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조사명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조사목적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및 발달 양상을 파악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 1~2차년도: 학생, 학생의 학부모, 학생의 담임 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 학생의 소속 학교 - 3~6차년도: 학생, 학생의 학부모, 학생의 소속 학교
조사 시기	- 대상: 초4 코호트: 초4에서 고1 시점까지 중1 코호트: 중1에서 대학1 시점까지 - 조사연도: 2018~20204년(매년 조사)	제1단계 - 대상: 초5에서 고등 졸업시점까지 - 조사 연도: 2013~2020년(매년 조사) 제2단계 - 대상: 고등 졸업시점에서 만 28세까지 - 조사 연도: 2022~2030년(대1, 대2, 매1년: 대4, 대4+2, 대4+4 매 2년)
샘플수	2018년 기준 전국 초등 4학년 2,607명, 중학교 1학년 2,590명	1차년도 기준 242개교 7,324명
조사방법	아동·청소년: 개별 면접 조사 보호자: 개별 면접 조사	표집학교별로 연구협력교사를 위촉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 실시
조사내용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제1단계: 인지적·비인지적 성취와 발달, 가정의 교육적 지원, 초·중등학교 교육 수준, 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 중·고등학교 진학 과정, 교육정책 효과 분석 등 - 제2단계: 인지적·비인지적 성취, 대학진학 및 대학 생활, 중등교육 이후 교육 경험과 수준, 진로 및 초기 직업 획득, 향후 직업 포부, 사회이동, 삶의 수준 등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52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SurveyDBFormNewAll.do

자료: 1)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 아카이브,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52> (2021년 3월 15일 인출).

2)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SurveyDBFormNewAll.do> (2021년 3월 15일 인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및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은 중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한 패널조사로서 그 조사 목적 및 주최기관의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변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발달 및 발달환경 및 발달배경전반의 영역으로 조사영역을 이루고 있다. 〈표 I-4-3〉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및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조사변인을 정리하고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영유아시기부터 조사가 이루어져 해마다 조사변인이 달라짐에 따라 한국아동패널 2020년도에 조사된 13차 조사의 변인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I-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 및 한국아동패널 간 조사항목 비교

조사영역			조사항목	아동 청소년 패널	교육 종단 패널	한국 아동 패널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아동· 청소년 개인발달	생활시간	하루일과	수면시간(취침/기상)과 질, 부모님 대화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		○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 만족도	●		■
			기초능력검사, 전국연합학력 평가, 기초학력 미달 정도		● ■	
	학업태도	학업 열의, 학업 무기력	●	■		
		자기주도 학습태도		●	●	
	진로	교육포부	교육포부		●	
		진로 성숙도	자기이해, 진로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	●
		진학계획	고교 진학계획, 고교 진학준비, 재학중 고교유형, 대학 진학계획		●	
		진로계획	장래희망 교육수준, 장래직업 결정여부, 취업후 기대소득	●	●	●
		진로관	진로 관련 대화상대/빈도	●		
	사회/정서/ 역량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	●		●
		행복	행복감	●		●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		●
			자아개념(사회, 가족, 신체, 학업)		●	●*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타인배려, 협력학습, 협동심	●	●	●
		다문화 수용성	외국인에 대한 인식, 다문화 이웃/친구와의 관계			●
			정신건강,			●
		창의성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	●	
			창의적 성격	●		●*
		끈기	그릿(Grit)	●		●*
	규칙	규칙준수		●		
	관리	자기관리		●		
	비행	비행 I	현실비행(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		●
		비행 II	사이버비행(비행경험 유무 및 빈도)	●		●
	신체발달	건강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	●	○
		신체	키, 몸무게, 몸정/초경 시작 시기	●		○
	아동· 청소년 발달환경	매체 활동/문화 환경	스마트폰	사용여부, 사용 목적별 빈도, 의존도	●	●
독서활동			독서량, 독서향유 정도		●	●
공부활동			공부시간, 선행학습		●	○
청소년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		
동아리 활동			연간 참여 횟수 및 만족도	●	●	
팬덤 활동			선호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팬덤 활동 빈도	●		
여가활동	여가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참여여부 및 인식		●			

대영역	조사영역		조사항목	아동 청소년 패널	교육 종단 패널	한국 아동 패널	
	중영역	소영역					
학교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아르바이트 이유		●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		●	
	친구		도래애착				●*
			친구관계, 친구와 잘 지내는 정도	●	●■		
	교사		교사관계, 교사지원, 성취압력, 교사열의	●	●	■	
			수업전반	수업방식(개별화, 상호작용), 수업분위기		●	
	수업참여		수업이해도, 수업집중도, 수업참여 정도, 수업분위기 방해 정도		● ■		
			학교폭력	학교 내 폭력정도, 자신의 폭력피해 경험		●	●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	●	
			자치활동	학생회/학급활동		●	
	학생의견		학생의견 반영정도		●		
			진로관련 프로그램	진로 및 직업관련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	○	
			영재교육	영재교육 참여 여부		■	
	교육복지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 학생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		■		
			지역연계	지역연계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여부 및 반 편성, 수준별 이동수업 만족도		●		
			자유 학기제	자유학기제 확대의견		●	
	전학		전학여부, 전학 이후 만족도		●	○	
			가정	부모관계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양육태도, 상호작용, 부모의 애착, 소외	●	●
형제자매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는 시간	●				○	
양육태도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	가정	구성원	가구 구성원	○		○	
		구성원 역할	조사대상(자녀)에 대한 역할별 구성원	○			
		가족규칙	가족규칙의 유무		○		
		보호자 관점	조사대상(자녀)의 학업성취 정도, 학교 성적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희망 교육 수준에 대한 의견, 부모 교육관	○	○		
		조사대상 관계	조사대상(자녀)과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주말), 가족식사 횟수,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		○	

대영역	조사영역		조사항목	아동 청소년 패널	교육 종단 패널	한국 아동 패널	
	중영역	소영역					
		교육지원	학업적 지원, 정서적 지원, 교육 및 진학에 대한 지원, 상급학교 진학계획 및 지원, 진로 및 진학결정을 위한 활동,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 학교 재학, 자녀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과의 관계		○	○	
		학교 만족도	학교교육 전반적 만족도, 학교 만족도, 학교의 안전		○		
	학교참여 및 정보제공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 전반적 정보제공, 학교 홈페이지 이용,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학생상담을 위한 학교방문 정도			○	○	
		취학전 교육	취학전 교육			○	○
	교육	사교육	조사대상(자녀)의 사교육 유무, 사교육 받은/받지 않은 이유, 월평균 교육비, 입시컨설팅 학습코칭, 방과후 사교육활동(학원, 과외, 학습지/인터넷), 교육비 마련 부업 여부				○
		방과후 자기보호	방과후 자기보호 주당 일수, 방과후 자기보호 일일 시간	○	○		
		방과후 교육활동	월평균 교육비, 방과후 교육활동 -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참여 이유, EBS 교육 이용 정도,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이용 정도			○	○
		전학	전학 경험/횟수			○	○
		교육기대	고등학교 진학계획, 자녀 기대학력, 대학교 진학포부			○	
	보호자 개인	사회/정서/ 역량	만족도	삶의 만족도	○		○
			행복	행복감	○		○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		○*
창의성			창의적 성격	○			
끈기			그릿(Grit)	○			
매체		스마트폰	사용여부, 사용 목적별 빈도, 의존도	○		○	
신체		건강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		○	
	체격	키, 몸무게	○				
	배경변인	출생지(자녀와 보호자), 최종학력, 근로여부, 직업, 지위, 주당 근무일수, 근무형태, 일일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의 경제수준	○	○	○		

주1: 아동응답:●, 부모응답:○, 교사응답:■

주2: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연구 13차 변인을 기준으로 작성.

*격년문항

- 자료: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조사영역.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52> (2021년 3월 15일 인출).
 2) 박경호·권희경·김정아·백승주·최인희·송승원·최유리·이수현·정민주·최은아(2019). 2019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VII): 조사개요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3) 김은실·배윤진·김근진·조혜주·김혜진(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러한 분석으로 보았을 때, 아동패널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교사, 아동의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아동의 발달을 보다 세밀한 영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 국외 청소년 대상패널 연구 및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패널의 주요사례를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미국의 SECCYD(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는 아동의 돌봄 경험과 아동돌봄의 특성,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사로 미국 내 10개 지역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SECCYD는 1991년에 0~3세 1,364명 아동에 대한 1단계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단계는 1994~1999년에 걸쳐 54개월부터 1학년이 된 1,226명의 아동을 조사하였고, 3단계는 2000~2004년에 걸쳐 2~6학년까지의 1,061명 아동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4단계는 2005~2007년에는 7~9학년이 된 1,00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4단계의 조사는 청소년 중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관계, 건강, 적응, 상호작용, 학업성취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15세에는 가정방문과 실험관찰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3.5세~15.5세의 3개 시점에는 건강 및 신체발달 파악을 위해 학교의 성적증명서와 교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두 번째, 미국 PSID-CD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는 1968년부터 실시된 PSID(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부가조사로 1997년과 2002/2003년의 두 차례에 걸쳐 아동기의 건강, 발달, 삶의 질과 관련된 자료축적을 위해 시행되었다²⁾. 1997년의 PSID-CDS-I는 PSID 조사대상 중 0~12세 아동 3,563명³⁾이 포함되었으며, 2002/2003년에는 5~18세가 된 이들 아동 중 2,907명이 PSID-CDS-II에 응하였다.

PSID-CDS는 아동과 부모와 주양육자(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부모도 포함), 교사(초등, 유치원, 홈스쿨링), 기관장을 조사대상으로 포괄한다. 특히 PSID-CDS는 격년으로 시행되는 PSID 본조사와 연계하여 부모와 조부모, 기타 확대가구원과의

2) PSID-CDS-I, PSID-CDS-II의 두 차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The PSID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CDS)는 성인기로의 전환기 부가조사(Transition into Adulthood Supplement: TAS)로 이어진다.

3) 한 가구당 2명 이하 자녀에 한해 조사되었다.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세 번째,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Add Health)는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이상 진행된 패널조사로 청소년기의 건강과 건강행동, 의료환경이 성인기의 다양한 맥락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Add Health는 총 5개의 웨이브로 구분된다. Wave I은 1995년의 조사로 7학년부터 12학년(12~19세)의 청소년 20,7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Wave I에는 학교장 144명과 부모 중 1인 17,670명의 조사를 추가하였다. 1996년에는 WaveII가 8학년에서 12학년이 된 14,73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때에도 128명의 학교장 조사가 함께 시행되었다. WaveIII는 5년 후인 2001~2002년 18세에서 26세의 초기성인기에 들어선 15,197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조사대상자의 파트너 1,507명(배우자 및 동거인, 연인)도 조사에 포함하였다. WaveIV는 2008~2009년 24~32세가 된 15,701명을 조사하였으며, WaveV는 2016~2018년에 32~42세가 된 12,000명을 조사하고 부모 중 1인 3,006명의 조사를 추가하였다.

Add Health은 건강과 보건에 초점을 맞춘 조사이기에 표집방법에 있어 소수집단과 유전학적 비교집단(genetic samples)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12,105명의 코어샘플에 더해 소수인종 및 장애 등의 집단을 과대표집하였으며, 유전적 비교표본으로써 일란성 쌍생아, 이란성 쌍생아, 동일부모 형제자매, 한부모일치 형제자매, 부모불일치 동거가구원을 포함하였다.

네 번째, 영국의 Next Steps은 영국의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연구(SYPE;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로 1989~1990년에 태어난 16,000명을 대상으로 정규교육에서 다른 형태로의 교육, 훈련, 고용 등 기타 활동으로의 전환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Next Steps은 2004년 Sweep1부터 2021년 Sweep9까지 9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첫 조사는 2004년에 14세(9학년)가 된 청소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20세가 되는 2010년까지 7년간 매해 추적 조사 되었다(Sweep1 ~ Sweep7). 이후 5년의 기간을 두고 25세가 된 2015년에 Sweep8이 시행되었고 31세가 되는 2021년에 Sweep9가 시행된다. 조사대상자들이 14세부터 17세인 초기 4년간은 부모조사가 병행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조사대상자들만 조사에 참여하였다.

Next Steps은 조사대상자들의 개별적 학업점수를 제공하는 국가학생데이터베이스(National Pupil Database: NPD)외에도 고등교육통계청(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대학입학서비스(Universities and College Admissions Service), 학생대출회사(Student Loans Company: SLC) 등의 교육 관련 기관과 과 연계되어 확장된 교육경험 자료수집이 가능하며, 영국정부의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및 예산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 국가건강서비스(NHS) 등과 연계되어 고용 및 건강관련 정보로의 확장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LSAY)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대표적인 종단연구로 청소년들의 학업, 훈련, 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성취와 삶의 질 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조사는 코호트별 표집방식으로 설계되어, 1995년 첫 번째 코호트인 Y95 코호트를 시작으로, 1998년(Y98 코호트), 2003년(Y03 코호트), 2006년(Y06 코호트), 2009년(Y09 코호트), 2015년(Y15 코호트)의 6개 코호트가 표집되었으며, 코호트별 약 14,000명의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LSAY에 참여하는 청소년·청년들은 15세(9학년)부터 연구에 참여하여 25세가 될 때까지 매해 조사에 응하게 된다. LSAY는 자체 조사 외에도 2003년부터 OECD의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와 결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제공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PISA는 주요조사로 수학, 독해, 과학영역의 성취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더해 학생에 대한 기본사항(가족배경, 학습에 대한 태도, 학습동기와 흥미 등), 학업 및 취업관련설문을 실시하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에 대한 활용능력도 측정한다. 또한 LSAY는 PISA 조사의 일환으로 학생에 더하여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정보수집도 포괄한다⁴⁾.

4) PISA는 교육성취도와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조사 외의 '부모', '교사', 'ICT', '학업 및 취업' 영역 조사는 참여국의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호주는 부모 영역은 선택하지 않았다.

〈표 I-4-4〉 해외 청소년 패널 조사 개요

구분	미국 SECCYD	미국 PSID-CDS	미국 Add Health	영국 Next Steps	호주 LSAY
조사명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	Next Steps (LSYPE;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	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
조사목적	아동의 돌봄경험, 돌봄특성과 아동의 발달 간의 관계 파악	포괄적이고 미국 전체를 대표하며, 종단적인 아동과 가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청소년기 건강과 건강관련 행동의 원인을 다양한 맥락의 효과를 중심으로 파악	청소년 표본을 의무교육 마지막까지 추적, 의무교육에서 다른 형태의 교육, 훈련, 고용 등 기타 활동으로의 전환 파악	청소년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청소년의 학업, 직업, 그리고 다양한 목표에 관한 정보 제공
조사대상	아동, 부모, 교사, 교장, 의사	아동, 보호자, 교사, 기관장	청소년, 부모, 교장	청소년, 부모	청소년, 교사
조사시기	1991: 0세	1997:1-12세	1994	2004-2021	1995년부터 코호트별 10년간 조사
청소년 연령 및 샘플수	2005-2007 7th-9th	2002/2003: 5-18 yrs.	grade 7-12 (12-19yrs.)	14-31살	15-25세
	1,009 명	2,907 명	20,000 명	15,770명	코호트별 14,000명
조사방법	1. 가정방문(15세) 2. 실험관찰(15세) 3. 전화면담 (14, 15세) 4. 설문지 (14, 15세) 5. 건강 및 신체발달검사 (12.5, 13.5, 14.5, 15.5세)	(격년 실행) 1. 양육자 면담 2. 아동 면담 3. 검사 4. 시간일지 5. 관찰	1. 방문면담 (Wave I~V) 2. 설문지 (Wave I) 3. 건강검사 (Wave III~V)	(매년 실행) 1. 설문(웹, 전화, 면대면) 2. National Pupil Database 등과 연계	매년 실행 (2003년부터 PISA와 연계조사) 1. 학생 설문 2. 진로커리어 3. ICT (정보 통신기술측정) 4. 학교 설문 5. 교사 설문
홈페이지	https://www.nichd.nih.gov/research/supported/seccyd/overview	https://psidonline.isr.umich.edu/CDS/questionnaires/cdscover.pdf	https://addhealth.cpc.unc.edu/wp-content/uploads/2021/03/CohortProfile2019.pdf	https://cls.ucl.ac.uk/cls-studies/next-steps/	https://www.lsay.edu.au/publications/user-support-and-documentation

자료: 1) 미국 SECCYD 홈페이지, <https://www.nichd.nih.gov/research/supported/seccyd/overview> (2021년 3월 11일 인출).
 2) 미국 PSID-CDS 홈페이지, <https://psidonline.isr.umich.edu/CDS/questionnaires/cdscover.pdf> (2021년 3월 11일 인출).
 3) 미국 Add Health 홈페이지, <https://addhealth.cpc.unc.edu/wp-content/uploads/2021/03/CohortProfile2019.pdf> (2021년 3월 11일 인출).
 4) 영국 Next Steps 홈페이지, <https://cls.ucl.ac.uk/cls-studies/next-steps/> (2021년 3월 11일 인출).
 5) 호주 LSAY 홈페이지, <https://www.lsay.edu.au/publications/user-support-and-documentation> (2021년 3월 11일 인출).

아래는 해외패널의 주요사례의 조사영역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표이다⁵⁾. 해외의 패널조사는 설계목적과 타겟팅 된 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SECCYD’는 설문지 응답 외에도 가정방문과 실험실에서의 관찰을 병행하고 건강 및 신체발달검사를 청소년기 4차례(12.5세, 13.5세, 14.5세, 15.5세)에 걸쳐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며, 타액, 코르티솔 검사 등을 통해 심층적인 건강 및 신체발달정보를 수집한다. 미국의 ‘Add Health’ 조사 역시 건강과 보건 영역 조사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신체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특히 대상자 연령에 따라 타액, 소변검사, DNA 검사 등으로 의학적정보를 수집한다. 더불어 공원과의 접근성, 대기질 등 청소년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PSID-CDS’는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부가조사라는 특성에 부합되게 청소년의 지출이나 자금계획 등 경제적 상황과 전망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특히 PSID-CDS는 PSID 본조사와 결합하여 가구원 전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및 학교 정보는 지리데이터나 학교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와 연계되어 수집되고 확장된 활용이 가능하다. 영국의 패널조사 ‘Next Steps’ 역시 외부데이터와의 연계가 잘되어 있어 확장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Next Steps의 본 조사에서 교육 및 고용, 경제 상황, 가정생활, 신체 및 정서적 건강 및 복지, 사회적 참여 및 태도의 주요영역을 다루면서도 교육과 고용의 주된 행정데이터는 물론, NHS(국가건강서비스)까지 연계되어 조사의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Next Steps은 청소년에서 성인기까지를 추적조사하는 패널조사로 교육과 훈련, 일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호주의 ‘LSAY’도 Next Steps과 비슷하게 청소년기에서 초기성인기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사로, 학교상황과 근로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에 더해 OECD의 PISA는 조사와 결합하여 성취도 평가 및 학교, 교사 특성을 수집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5)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한 조사의 경우 2021년도 아동패널의 대상자 연령과 비슷한 연령대 대상의 조사지로 분석하였다.

〈표 I-4-5〉 해외 청소년 패널 변수내용 정리

대영역	조사영역		미국 SECCYD	미국 PSID -CDS	미국 Add Health	영국 Next Steps	호주 LSAY
	중영역	소영역					
신체 발달	신체건강	키, 몸무게	○	○	○		
		천식 등 기저질환	○	○	○		
		병원진료경험		○	○	연계	
		코르티솔, 타액, 소변, 혈압	○		○		
		질환의 가족력	○				
	건강행동	주식단, 패스트푸드		○			
		수면시간 및 질	○	○			
		건강위험행동(음주, 흡연, 약물)		○		○	
		운동		○		○	
		다이어트		○		○	
		주관적건강상태				○	
정서	정신건강	우울		○	○		
		상담경험		○	○		
		자아존중감, 사회성, 정서, 사회적, 심리적 웰빙상태, 반사회행동, 자기결정	○	○	○		
	태도	학업 및 일에 대한 태도			○		
		위험감수			○		
		자기효능감			○	○	
생활	시간사용	24시간 시간사용		○			
	활동시간	독서, PC, TV 등	○				
		방과후활동, 주말활동, 게임	○		○		
관계	부모관계	부모 친밀도, 모 통제, 부 통제	○	○		○	
	형제자매 관계	친밀도				○	
	친구관계	친구관계, 왕따, 학교폭력경험, 데이트경험	○	○		○	
	파트너	관계형성 및 지속기간, 관계만족도, 성관계	○			○	
	교사 등	교사와의 관계, 멘토	○		○		
지역 사회	지리	지리 정보		연계			
	안전 등	안전, 이웃의 질, 밀착도		○			
	물리적 환경	공원과의 접근성, 낮길이, 자연환경, 대기오염			○		

대영역	조사영역		미국 SECCYD	미국 PSID -CDS	미국 Add Health	영국 Next Steps	호주 LSAY
	중영역	소영역					
교육	학교교육	학교특성	○	연계	○	○	○
		출석, 결석, 전학 및 휴학여부		○		연계	
		학교 과제		○			
		학업성취(독해, 수학), 단기기억		○		연계	○
		학습시간				연계	○
		학교에 대한 인식					○
		협력활동, 자원봉사		○			○
		부모의 학교참여	○				
	지원	학교지원프로그램참여 (head start, 급식 등)			○		
		교육의 장애					○
진로	전망	결혼, 이혼, 출산에 대한 전망		○			
		경제적 상황, 직업, 학업에 대한 전망		○			
	계획	진로계획					○
고용	고용상태	경제활동상태, 일만족도, 근로시간, 근로환경			○	○	○
	경제상황	소득, 저축, 부채		연계		○	○
		지출(지난1년간, 3개월간)		○			
		미래를 위한 저축		○			
	훈련	취득자격증				○	○
	직업계획	직업계획				○	○
사회 참여	정체성	성역할인식				○	
	참여	정치적인식				○	
		사회참여, 자원봉사		○		○	○
		정치적 흥미, 행동				○	
사회 지원	사회지원	정부지원 소득				연계	○
		사회적 지원				연계	○

- 자료: 1) 미국 SECCYD 홈페이지: <https://www.nichd.nih.gov/research/supported/seccyd/overview> (2021년 3월 11일 인출).
 2) 미국PSID-CDS 홈페이지: <https://psidonline.isr.umich.edu/CDS/questionnaires/cdsover.pdf> (2021년 3월 11일 인출).
 3) 미국 Add Health 홈페이지: <https://addhealth.cpc.unc.edu/wp-content/uploads/2021/03/CohortProfile2019.pdf> (2021년 3월 11일 인출).
 4) 영국 Next Steps 홈페이지: <https://cls.ucl.ac.uk/cls-studies/next-steps/> (2021년 3월 11일 인출).
 5) 호주 LSAY 홈페이지: <https://www.lsay.edu.au/publications/user-support-and-documentation> (2021년 3월 11일 인출).

II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 01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 02 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03 사용자편의를 위한 문항정리작업

II.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1.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을 데이터 활용 논문과 언론보도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데이터 활용 논문은 발간형태에 따른 전반적인 현황, 종단·횡단 연구 여부의 분석방식, 데이터 활용 차수, 그리고 활용 변인에 대해 정리하였다. 언론보도 현황의 경우 2017~2019년도의 현황을 김은설, 최정원, 장혜원, 조혜주, 김희수(2019: 35-38)에서 보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2018년에 공공데이터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현재 2018년도에 조사한 11차 데이터까지 개방이 된 상태이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비롯하여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II-1-1〉 참조),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은 총 1041편으로, 그 중 학술논문으로의 활용이 698편으로 가장 많았다. 패널아동의 영유아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2016년도, 그리고 초등저학년 시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활용 논문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2021년에는 학술논문으로 108편, 학위논문으로 19편,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II-1-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수

단위: 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공개자료	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1~10차	1~11차	1~12차	
전체	39	53	40	52	77	87	131	83	93	69	170	147	1041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공개자료	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1~10차	1~11차	1~12차	
연구보고서	3	3	2	1	2	2	2	1	-	-	-	-	16
세미나 등	-	2	2	1	1	1	-	1	-	-	-	-	8
학위논문	-	2	2	5	8	9	12	4	1	16	18	19	96
학술대회	36	29	9	18	22	3	12	18	16	11	29	20	223
학술논문	-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3	108	698

주: 1) 데이터 활용 사실을 보고하거나 검색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기준일: 2021. 12. 24.

한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1년도에 발간된 108편의 학술논문 중에서 횡단연구는 60편, 종단연구는 48편이었다(〈표 II-1-2〉 참조). 횡단연구 이나 종단연구이냐의 분석방식에 따른 연구 수는 지금까지 매년 다르게 나타나서 일정한 경향이나 어떤 특징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1년도 올해에는 12차(초등 5학년), 그리고 내년에는 13차(초등 6학년) 데이터가 학술대회를 통해 공개되므로, 향후 횡단연구뿐만 아니라 패널아동의 영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를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 기대한다.

〈표 II-1-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연구 수: 2011-2021년

단위: 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전체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3	108	698
횡단연구	17	24	23	36	48	61	40	44	17	67	60	437
종단연구	0	1	4	8	24	44	19	32	25	56	48	261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년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 차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II-1-3〉 참조), 2017~2019년 도에는 패널아동이 유아기에 해당하는 5~7차 데이터의 활용이 많으며, 특히 2018 년도와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진학 직전인 7차 데이터를 다수의 논문에서 활용 하였다. 2020~2021년도에는 7차 데이터를 비롯한 다른 차수의 데이터와 더불어 패널아동이 초등학령기가 된 8차 이후 데이터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종 단연구의 경우 1차부터 최근 공개되는 데이터까지 매년 활용되고 있다.

〈표 II-1-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1년

단위: 편

년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논문수
2011	횡단	16	1	-	-	-	-	-	-	-	-	-	17
2012	횡단	17	7	-	-	-	-	-	-	-	-	-	24
	종단	1	1	-	-	-	-	-	-	-	-	-	1
2013	횡단	3	9	11	-	-	-	-	-	-	-	-	23
	종단	4	4	3	-	-	-	-	-	-	-	-	4
2014	횡단	2	6	9	19	-	-	-	-	-	-	-	36
	종단	7	8	6	3	-	-	-	-	-	-	-	8
2015	횡단	1	3	7	15	22	-	-	-	-	-	-	48
	종단	12	17	21	17	9	-	-	-	-	-	-	24
2016	횡단	-	2	1	6	29	22	1	-	-	-	-	61
	종단	24	27	31	31	22	10	-	-	-	-	-	44
2017	횡단	-	-	2	-	7	14	16	1	-	-	-	40
	종단	9	8	10	12	16	14	9	-	-	-	-	19
2018	횡단	-	-	1	1	2	4	23	13	-	-	-	44
	종단	11	11	9	9	16	19	21	13	-	-	-	32
2019	횡단	-	-	-	-	1	-	10	3	1	2	-	17
	종단	5	2	4	3	11	15	20	16	4	2	-	25
2020	횡단	-	-	1	1	4	1	27	17	2	15	-	67
	종단	9	10	11	14	23	21	31	36	20	19	1	56
2021	횡단	-	1	-	-	2	1	21	6	4	12	13	60
	종단	7	6	6	9	17	21	31	33	18	21	8	48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 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년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종단연구의 경우 중복 기입.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발간된 논문에서 연구문제 분석에 활용한 변수가 무엇인지 아동 특성, 부모 특성, 돌봄, 학교/사교육,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표 II-1-4〉 참조). 그 결과,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여러 변수들 중 아동 특성(455회)과 부모의 양육 특성(179회)을 활용하는 논문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 특성 중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등에 해당하는 사회성발달 변수를 분석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160회), 인지언어발달(94회), 자아정서발달(76회) 순으로 분석에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종속변수로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아동 특성 변수를 분석하였으며(179회), 독립변수 등의 기타변수로는 부모의 양육특성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고(166회), 그 외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60회)이나 심리 특성(60회), 아동의 기타특성(74회)과 사회성발달(67회), 교사 특성(56회), 가구의 경제적 특성(57회) 등을 분석에 활용하고 있었다.

〈표 II-1-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0년 발간 논문 기준

단위: 회

구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일상 생활 ⁽¹⁾	신체 건강 ⁽²⁾	인지 언어 ⁽³⁾	자아 정서 ⁽⁴⁾	사회성 발달 ⁽⁵⁾	기타 ⁽⁶⁾	인구학적 특성 ⁽⁷⁾	심리적 특성 ⁽⁸⁾	부부 특성 ⁽⁹⁾	신체 건강 특성 ⁽¹⁰⁾	직업 특성 ⁽¹¹⁾	양육 특성 ⁽¹²⁾
전체	38	13	94	76	160	74	60	66	37	12	37	179
종속변수	10	5	43	28	93	-	-	6	6	-	-	13
기타변수	28	8	51	48	67	74	60	60	31	12	37	166

구분	돌봄		학교/사교육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기관 ⁽¹³⁾	교사 특성 ⁽¹⁴⁾	학교 특성 ⁽¹⁵⁾	사교육 특성 ⁽¹⁶⁾	인구학적 특성 ⁽¹⁷⁾	물리적 특성 ⁽¹⁸⁾	경제적 특성 ⁽¹⁹⁾	가정 환경 특성 ⁽²⁰⁾	일반적 특성 ⁽²¹⁾	양육 환경 ⁽²²⁾	위탁 가구 ⁽²³⁾	지원 정책 ⁽²⁴⁾
전체	13	58	10	5	7	2	57	33	9	19	-	2
종속변수	-	2	-	-	-	-	-	1	-	-	-	-
기타변수	13	56	10	5	7	2	57	32	9	19	-	2

주1: 기타변수는 종속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 등의 변수를 의미함.

주2: 각 영역별 포함 변수는 다음과 같음.

- 1) 일상생활: 식습관 특성, 미디어 이용시간, 모유수유 여부, 배변/씻기 습관특성, 수면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실내 놀이 일, 바깥놀이 및 외출일, 미디어 이용정도
- 2) 신체건강: 체중, 신장,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진단 여부, 대근육/소근육운동, 운동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3) 인지언어: 인지발달,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문제해결, 언어발달, 의사소통, 학습준비도, 창의성, 발화능력, 학업 능력, 학교준비도
- 4) 자아정서: 기질,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육아지원기관, 교사선호도
- 5) 사회성 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발달, 사회적 유능감, 개인-사회성
- 6) 기타: 성별, 출생순위, 출생순위, 종교참여 횟수
- 7) 인구학적 특성: 연령, 직업, 학력
- 8) 심리적 특성: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주관적행복감, 자기효능감, 일가정 양립/갈등
- 9) 부부 특성: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 10) 신체건강 특성: 음주, 흡연
- 11) 직업특성: 취업여부, 취업/학업상태, 근무시간
- 12) 양육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상호작용,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분담, 양육 스트레스, 후속출산 계획, 양육 시간, 양육관, 자녀가치, 자녀의 미래기대, 사회적 지원정도
- 13) 기관: 이용 여부 및 유형, 이용시간, 설립유형, 자원 아동 수, 학급 수, 학급 내 교사 및 아동 수, 교실 규모 적절성,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유무, 기관 규모
- 14) 교사특성: 아동과의 상호작용, 교수효능감, 교실환경, 주관적행복감, 기관선호도, 교사선호도, 특별활동 이용 횟수,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여부
- 15) 학교 특성: 가정기관 소통, 부모 학교생활 관심정도, 방과 후 교육시간
- 16) 사교육 특성: 사교육 참여 횟수
- 17) 인구학적 특성 : 조부모 동거 여부
- 18) 물리적 특성: 개인 방 여부
- 19) 경제적 특성: 가계 소득, 소비성 지출 비용
- 20) 가정환경 특성: 가족상호작용,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가족유연성
- 21) 일반적 특성: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17개 시/도 구분
- 22) 양육환경 특성: 교육 의료 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 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 23) 위탁가구 특성
- 24) 지원정책: 국가지원, 근로 직장의 육아지원제도, 알·가정 양립 지원 제도

나. 언론보도 현황

2020년도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아동패널에 관하여 언론에 보도된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5>와 같으며, 총 세 가지 주제의 보도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한 3건의 보도이다(김진원, 2020. 1. 4.). 이 기사에서는 영유아기 보육·교육시설의 공급률이 추가 임신 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공공주택에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김진원, 2020. 1. 4.). 둘째, 한국아동패널과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임신기간 중 폭염에 노출된 날 수가 많을수록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며,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의 문제로 냉방기구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보도이다(박용주, 2020. 7. 19.). 이 내용은 총 9개의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셋째,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알리는 기사가 있었다(이미숙, 2020. 9. 24.).

<표 II-1-5> 한국아동패널 언론보도

보도일자	제목	출처	주요변인
2020-01-04	[아유경제_부동산] 박찬대 의원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아유경제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 추가 임신 의사
2020-01-06	박찬대, 공공주택에 양육친화 환경 조성 법안 발의	인천일보	
2020-01-07	[4·15 총선] 인천·경기 정가 이모저모	인천일보	
2020-07-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낳아…저소득층 더 위험”의 내용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중앙일보, MBN 위클리굿뉴스, 헤럴드 경제	체중, 소득
2020-07-20	폭염에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출산…소득 낮을수록 위험	경북일보	
2020-07-22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내외경제TV	
2020-09-24	육아정책연구소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강사신문	

주: 1)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한국아동패널”, “아동패널”로 검색된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함.

2) 기준일: 2021. 03. 14.

자료: 1) 김진원(2020. 1. 4.). 박찬대 의원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아유경제.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59> (2021년 3월 14일 인출).

2) 이상우(2020. 1. 6.). 박찬대, 공공주택에 양육친화 환경 조성 법안 발의.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457> (2021년 3월 14일 인출).

- 3) 김신호(2020. 1. 7). [4·15 총선] 인천·경기 정가 이모저모.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584> (2021년 3월 14일 인출).
- 4) 박용주(2020. 7. 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낳아…저소득층 더 위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8026900002?input=1195m> (2021년 3월 14일 인출).
- 5) 이진혁(2020. 7. 19). 소득 낮을수록 폭염 속 저체중아 낳을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7191409035880> (2021년 3월 14일 인출).
- 6) 한민수(2020. 7. 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출산…“저소득층 더 위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1942337> (2021년 3월 14일 인출).
- 7) 함민정(2020. 7. 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낳는다…저소득층은 더 위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28060> (2021년 3월 14일 인출).
- 8) MBN 온라인뉴스팀(2020. 7. 19). 폭염 속 임신부 저체중 아이 낳을 확률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 MBN. <https://www.mbn.co.kr/news/life/4220973> (2021년 3월 14일 인출).
- 9) 조유현(2020. 7. 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낳아”. 위클리굿뉴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0807 (2021년 3월 14일 인출).
- 10) 헤럴드경제DB(2020. 7. 19). “소득 수준 낮을 수록 폭염에서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 커져”.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19000143> (2021년 3월 14일 인출).
- 11) 류희진(2020. 7. 20). 폭염에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출산…소득 낮을수록 위험.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037> (2021년 3월 14일 인출).
- 12) 정인성(2020. 7. 22).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내외경제TV.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380> (2021년 3월 14일 인출).
- 13) 이마숙(2020. 9. 24.). 육아정책연구소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50> (2021년 3월 14일 인출).

2. 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가. 학술대회 일정 및 개요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1년도에는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10월 1일(금)에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추어 전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1부 개회식 및 시상식은 유튜브 생중계, 2부 논문발표는 사전등록 후 Zoom 웨비나로 진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일정은 다음 <표 II-2-1>과 같이 진행되었다. 2021년 5월 13일까지 마감한 논문공모를 통해서는 일반부문 31편, 학생부 36편으로 총 67편의 연구계획서가 공모 심사결과 통과되었다. 또한, 중단연구 계획서가 일반부문 22편, 학생부 30편으로,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중단 연구 계획서가 제출된 연구 계획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7월 30일까지 마감한 최종원고 제출에서는 일반 부문 20편, 학생부 23편으로

총 43편이 제출되었다. 이 논문들을 대상으로 외부 심사자 및 아동패널 연구진의 심사를 거쳐 18편의 최종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선정하였고, 학생부문의 논문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의 세 팀을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표 II-2-1〉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내용	2021년 일정
연구계획서 공모 마감	2021. 5. 13
연구계획서 공모 심사 결과 발표	2021. 5. 18
최종 원고 마감	2021. 7. 30
최종 원고 심사결과 발표	2021. 8. 13
학술대회 개최	2021. 10. 1

나. 학술대회 개최 내용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2021년 7-8월 경 더욱 심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1부 행사는 유튜브 온라인 송출방식을 이용하여 실시간 송출로 방송하였고, 2부 논문발표는 Zoom 웨비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장,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가 모두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발표하고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대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표 II-2-2〉와 같다.

〈표 II-2-2〉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시간	프로그램
1부 개회식 - 유튜브 송출	
13:10 - 13:30	개회사 및 축사
13:30 - 13:4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3:40 - 13:50	한국아동패널 소개
13:50 - 14:20	초등시기 추이분석 발표
2부 논문발표 - Zoom 웨비나를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참여	
14:30 - 15:50	아동발달 1
	학교생활 및 적응 1
	부모양육
15:50 - 16:00	휴식
16:00 - 17:20	아동발달 2
	학교생활 및 적응 2
	미디어
17:20 - 17:30	폐회

학술대회 내용으로는 1부 개회식에서는 소장님의 개회사와 축사,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이 있었으며,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소개 및 패널 연구진의 초등시기 추이분석 발표를 진행하였다. 축사자 및 논문 수상자는 Zoom을 통하여 참석하여 축사 및 논문 수상을 진행하였다. 2부 논문발표 세션은 아동발달, 학교생활 및 적응, 부모양육, 미디어 4개의 주제를 6개의 세션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8개의 다양한 아동패널 연구논문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Zoom 웨비나로 진행하였음에도 각 세션별로 약 30명 내외의 청중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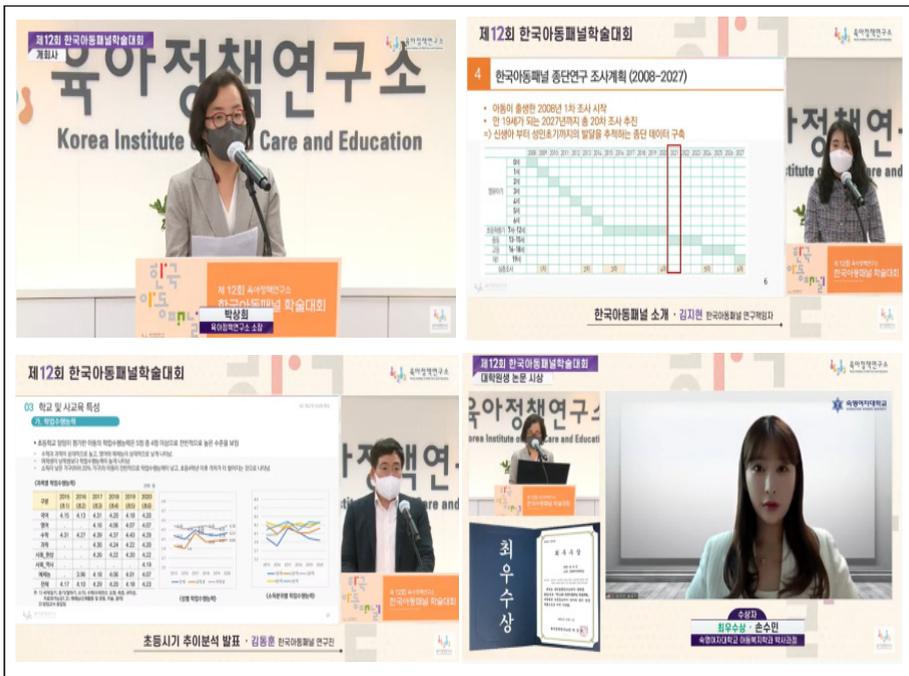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등 5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디어 중독 및 미디어 이용 시간의 변화추이 및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학교 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 분석 연구, 부모의 일-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유형을 분석한 연구,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 등 아동발달 및 가족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표 II-2-3>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구분	내용	
세션 1	아동발달 1	1.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발달계적 및 특성과 예측 효과 검증: 성격유형, 학교폭력 피해경험, 미디어중독의 차이분석과 부모 요인의 예측효과
		2. 영유아기 가정폭력 노출과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의 관계: 아동기 내재화 문제로 인한 공격행동의 중단적 매개효과
		3. 초등 여학생의 성숙시기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아동발달 2	1. 식품알레르기와 아동 행동 및 정서발달의 연관성 2. 초등학교 4학년 아동 화용언어 능력 예측 변인으로서 학령전 사회적 기술의 역할 3. 주 양육자의 양육 질적 및 양적 특성과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발달에 관한 중단 연구
세션 2	학교생활 및 적응 1	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단매개효과 검증
		2.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주의집중 문제의 매개효과
		3. 초등학교 시기 부모 맞벌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차이와 배경, 부모, 학교 변인의 조절 효과
	학교생활 및 적응 2	1. 아동의 학교 만족감의 개인별 변화계적 분류에 대한 예측요인: 성향혼합모형
		2.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연구
		3. 스마트기기 의존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 차이 분석

구분	내용	
세션 3	부모 양육	1. 부와 모의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심으로
		2. 부모의 심리적특성과 양육적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
		3. 아동의 정서충격 수준에 따른 성취압력, 학업 스트레스, 적대감, 외현화 문제 행동 간의 구조분석
	미디어	1.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이용목적과 집행기능 곤란이 스마트 기기 중독의 변화 유형에 미치는 영향
		2.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 개인별 변화계적 분류 및 영향 요인
		3. 미디어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교사-아동 관계, 사회적 위축, 삶의 만족도 간 구조분석

[그림 II-2-1]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주: (상좌) 육아정책연구소장 개회사. (상우) 한국아동패널 연구책임자 한국아동패널 소개. (하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 초등시기 추이분석 발표. (하우) 대학원생 최우수상 논문 시상

첫째, 1-12차에 걸친 조사 변인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차수별로 어떤 변인이 측정되었으며, 누가 응답했는지를 설문지 형태와 설문지 번호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1-12차 설문지 각각에 변수명을 표시하였다. 둘째, 차수별 도구 프로파일을 척도별로 정리하여 변수지도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 아동패널 홈페이지에는 1-7차 사용자 지침서가 업로드 되어 있고, 그 이후 차수에 대해서는 각 해의 보고서를 통해 조사 상황 및 변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패널 데이터 사용자가 아동패널 보고서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12차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에 맞추어 8-12차 사용자 지침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III

14차년도(2021년) 조사

01 14차년도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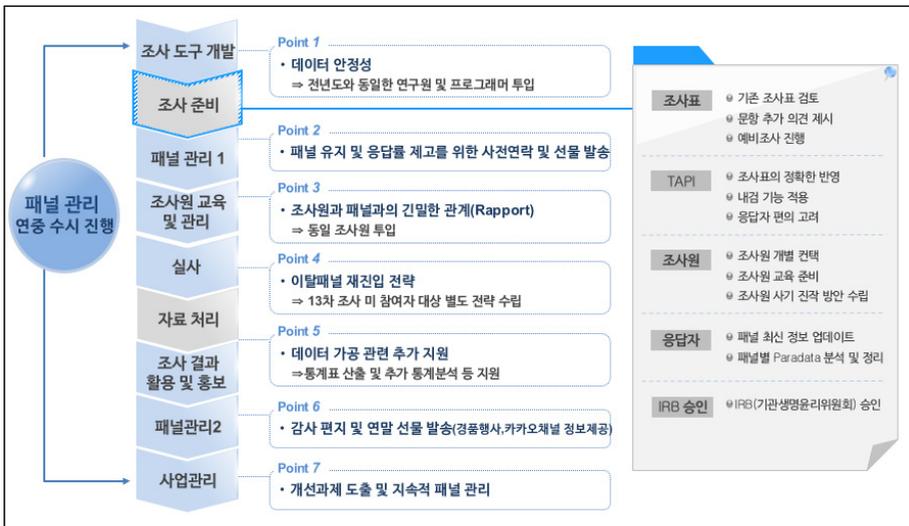
02 14차년도 조사 준비

03 14차년도 실사 진행

Ⅲ. 14차년도(2021년) 조사

본 장은 1년간의 한국아동패널 연구사업 중 2021년에 진행되는 14차년도 (중학교 1학년 대상) 조사 진행을 위한 준비작업, 진행과정,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았고, [그림 Ⅲ-1-1] 은 14차년도 조사를 위한 전체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1절에서 중학교 1학년 조사에 맞게 구성한 조사내용 선정 과정, 2절에서 조사를 위한 조사 준비과정, 그리고 3절에서 조사 실사 등 조사 진행상황을 설명하였고, 4절에서 조사 진행과 패널 유지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Ⅲ-1-1] 14차년도 조사 진행절차



1. 14차년도 조사 내용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조사, 보호자 조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담임교사 총 5종의 질문지를 통해 실시된다. 질문지별로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소요시간, 조사 도구 등의 차이가 있으며, 변인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14차년도 질문

지별 응답자, 주요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은 <표 III-1-1>과 같다.

아동조사는 신체계측의 경우 조사원이 직접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등 신체 성장정도를 측정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인면접방식(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으로 설문이 진행된다. 보호자 조사의 경우 가구전반적인 질문이 포함되며 주로 어머니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보호자 조사도 TAPI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자 조사의 경우 가족구성, 직업유무, 장애진단 여부 등 매해 바뀌는 특성이 아닌 경우 중단값을 구현하여, 기존 데이터에 대비해 현재 데이터 변화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항응답에 대한 피로도를 줄인다. 부모대상(어머니 대상 및 아버지 대상) 조사의 경우 부부 간 상호 특성 및 어머니 아버지 각각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부담이 적은 편이라,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에 출력본을 가정으로 송부하여, 미리 어머니, 아버지 각각 응답을 작성하여 면접원 방문 시 수거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은 패널아동이 중학생이 되는 해로 설문 내용과 설문응답자에 있어서 변화가 많은 해이다. 기본적으로 2017년에 작성된 한국아동패널 연구 중장기 계획에 따라(도남희 외, 2017) 응답대상 변경, 변수 추가 등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참고하였고, 14차년도 조사 문항선정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생활시간, 미디어 중독, 미디어 사용시간, 취미, 용돈 사용처 등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응답하였던 문항들을 아동이 스스로 응답할 경우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문항에 대해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있던 척도를 가져와 측정하였던 경우, 기존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타당화되었던 척도에 대해 청소년 시기(중학교, 고등학교 포함)에 지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문항인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세 번째, 학교급이 바뀌면서 바뀌어야 하는 학교 종류, 학교행사 참여 종류, 학업성취도, 과목 선호도 등의 보기 및 질문 방식 등에 변화가 있었고, 사교육 관련 문항, 사교육 이용 이유 등 학업 관련 질문을 추가하였다. 네 번째, 청소년이 되면서 변화되는 생활변화에 따라 취미/여가문항 보기 추가, 용돈소비 보기 문항 등을 추가하였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응답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모행동을 아동관점에서 응답하는 문항 등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15명 대상의 서면 자문을 통해 기존에 묻고 있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부 문항,

기준에 넣지 않았지만 청소년기에 추가되어야 할 문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삭제 및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III-1-1〉 14차년도 질문지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응답자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조사방법	응답자
아동용 질문지	- 신체 측정: 신장, 체중, 허리둘레	측정	아동
	- 아동특성: 생활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취미, 신체특성, 실내외 활동, 인지 발달, 학습스트레스,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사회 관련 인식, 미래/진로, 학교 환경 및 사교육 인식 등 - 부모특성: 양육행동, 부모애착, 아동학대 등	TAPI (대면 면접)	아동
보호자용 질문지	-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및 치료 등 - 부모 특성: 부부 특성, 질환 및 장애 등 -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소득, 지출, 자산 등), 가정환경 특성 등 - 학교·사교육 특성: 학교 이용, 사교육 특성,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등 -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 등 - 정책 특성: 국가적 지원,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코로나19 정책만족도, 기타 지원 등	TAPI (대면 면접)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
어머니 질문지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어머니
아버지 질문지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아버지
교사용 질문지	- 아동 특성: 학습수행능력, 교사와의 관계 -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 운영, 가정 협력 등	Web 기반 설문	담임교사

가. 아동 특성 조사 변인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든 패밀아동의 특성은 일상생활 영역,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의 주요한 변인과 신규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 영역

14차년도 아동 특성 내 일상생활 영역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설문응답자의 변경이

많다는 것이다. 기존에 보호자에게 묻던 식생활 진단, 휴대폰 소유 및 미디어 이용시간, 기상 및 취침 등의 생활시간, 실내외 운동 정도, 취미(악기, 스포츠) 여부를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한국아동패널 중장기 계획(도남희 외, 2017)에 의거하여, 보다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 설문응답자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이 응답해야 하는 설문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성별, 출생월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여가 및 교제 활동별 참여 빈도, 가족과의 식사 횟수, 주관적 건강 상태, 시력 보정도구 착용 관련 문항은 보호자 응답으로 유지하였다. 보호자 응답방식을 유지하는 문항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호자가 응답하여도 비교적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변인으로 하였다.

신규 추가된 변인으로는 미디어기기 중독 자기진단척도, 취미 여부 및 종류가 있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여부는 10차년도부터 지속하여 측정해온 문항인데, 12차년도까지는 어머니가 응답하였고, 13차년도에서는 보호자 설문지로 옮겨 주 양육자가 응답하게 하였다. 청소년기로 접어들 14차년도부터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여부를 관찰자 입장의 주양육자가 측정하는 기존의 방식에 추가로 본인 스스로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을 병행 조사하기로 했다. 미디어기기 중독 자가진도 척도는 2011년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S-척도(스마트폰중독 척도) 청소년용⁶⁾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악기연주 및 스포츠경험 종류 문항은 데이터 활용도가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삭제하고, 청소년시기 다양한 관심사와 연관되는 취미 변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취미 여부와 댄스, 웹툰 그리기, 영상제작, 음악 및 영화감상 등의 보기가 포함된 주된 취미활동의 종류를 신규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외에 14차년도에 일부 변경된 문항으로 미디어 이용 정도와 실내외 운동 정도가 있다. 미디어 이용 정도 문항은 기존에 학습/정보검색/게임/엔터테인먼트, SNS 항목별 리커트 척도(①전혀 사용 안함~④매일 사용함)로 묻는 방식에서 이용시간을 10분 단위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실내외 운동은 실내 운동, 실외 운동으로 나누어 조사하던 문항을 실내외로 합쳐 조사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경하였다.

6)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십센터 홈페이지, S-척도(스마트폰중독 척도) 청소년용. https://www.iapc.or.kr/mediaView.do?idx=28&article_id=ICCart_0000000003540&type=A1 (2021년 3월 26일 인출).

〈표 III-1-2〉 13,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출생월, 월령, 출생순위*	○	○
일상생활	식생활	식생활 진단	○	●
		카페인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	●
	미디어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미디어 이용 시간 총합	○	●
		미디어 이용 정도(리커트)	○	삭제
		미디어 이용시간 항목별 세부시간(시간으로 응답)	-	●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진단)	○	○
		미디어기기 중독(자진단)	-	●
		컴퓨터 사용 능력(격년)	●	-
	생활 시간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
		(주중, 주말) 일과 활동 시간	○	●
		여가 및 교제활동별 참여 빈도	○	○
		시간사용만족도	●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실내/외 활동	독서량	●	●
		실내외 운동정도	○	●
		취미(악기연주, 스포츠경험) 여부	○	●
		취미(악기연주, 스포츠경험) 종류	○	삭제
		취미 여부 및 종류	-	●
	참여	가사 참여 여부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2)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아동특성 내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은 기존과 거의 유사한 틀을 유지하지만, 일부 설문문항의 응답자가 변경되고, 추가된 변인이 있다. 아동의 2차 성징 발현 문항은 폐널아동이 4학년이 되던 해인 11차년도부터 보호자가 응답해오던 변인인데, 14차년도 조사부터는 아동 스스로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업수행능력’ 변인 내에서 하위변인으로 담임교사가 평가하던 ‘신체활동 및 운동능력’은 중학교 담임교사가 신체활동 및 운동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사 점수(PAPS)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PAPS)7)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증가와 체력저하 예방을 위해 개발된 관리시스템으로, 필수평가 항목으로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체지방,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종목별 20점, 5개 종목 점수를 합하여 100점 만점인 종합건강체력점수를 산출하게 되어있으며, 아동패널 학교설문지에 서는 담임교사가 전체점수와 등급만을 입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중조절 방법’ 변인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13차년도에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변인을 처음 조사하면서, ‘체중조절 방법’ 변인도 차년도에 추가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13-14차년도에 추가된 체중조절 관련 문항은 2016년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용 설문지)의 비만 및 체중조절에서 발췌하였다8).

〈표 III-1-3〉 13,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체중, 신장, 허리둘레*	●	●
		주관적 건강 상태	○	○
		시력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
		신체활동 및 운동능력	■	삭제
		체력검사 결과 (PAPS)	-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
		신체적 자아상	●	●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	●
	체중조절 방법		●	
	질환 및 치료	장애 판정 여부, 유형 및 급수*	○	○
		만성 질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아산병원 알려지 심층문항	●	-
		응급실, 입원치료여부 및 이유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7)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 (2009. 2. 5.).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확대 시행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C&s=moe&m=0302&opType=N&boardSeq=13755> (2021년 6월 4일).

8)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국민건강영양조사>원시자료 다운로드> 2016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제7기 2016-2018, 해당 문항은 청소년용 질문지 보기문항으로 사용) 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3/sub03_02_05.do (2021년 6월 4일).

3) 인지 및 언어발달 영역

아동의 인지 및 발달 영역으로는 학업 수행 능력(중등), 학업이해도, 과목 선호도, 학업스트레스, 자기조절학습, 비속어 사용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다.

인지발달 중 집행기능은 격년으로 진행하여 13차년도에 조사하였으므로 올해는 조사하지 않으며, 창의성 또한 한국아동패널 중장기 계획(도남희 외, 2017)에 따라 유아기, 10차 조사 이후 각 학교급별로 1회씩 측정할 예정으로 올해는 진행되지 않는다.

학습 관련 사항에서 적성과 다중지능도 한국아동패널 중장기계획(도남희 외, 2017)에 따라 학교급별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는 진행하지 않고 해당 변인에 대한 조사는 중학 2년 또는 중학 3년에 진행하고자 한다.

패널아동이 중학생이 됨에 따라 중학생에 맞는 학업 수행능력(중등)이 신규 변수로 추가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시험이나 순위성적이 별도로 없고, 교과별로 교사가 달라지는 시기이므로, 답임이 세부 교과와 학업 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주요과목의 교과 교사에게 물어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이 응답하는 ‘학업 이해도’ 변인도 추가되었는데, 이는 앞서 ‘학업 수행능력’과 동일한 문항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는 공식적인 성적이 없어 학업수행능력 점수 응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동에게도 스스로 판단하는 학업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 문항은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III) 학생 설문지 중 수업이해도 문항을 활용하였다(김양분 외, 2015). 또한, 학업스트레스 변인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을 추가하였다.

작년에 신규 추가된 ‘학습태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격년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중장기 계획(학습과 관련된 내적 과정인 자기주도 학습 등)과, 13차년도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계획한 바 있는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추가하였다. 해당 변인은 신현숙·염시창(2017)의 중학생용 학교생활참여척도 단축형 중 자기조절학습 5문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III-1-4〉 13,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집행기능(격년)	●	-
	학습 관련	다중지능(학교급별)	● 수행	-
		학업 수행 능력 (초등) 1.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2. 영어 3.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4. 과학 5. 사회 6. 예체 (운동, 미술, 음악) 7.전반	■	
		학업 수행 능력 (중등) 1.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5. 과학	-	■
		학업이해도	-	●
		과목 선호도	●	●
		학업스트레스	●	●
		학습태도(격년)	●	-
		자기조절학습(격년)	-	●
	언어 발달	의사소통	삭제	삭제
		비속어 사용	●	●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4)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은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미래/진로, 경제/사회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아 발달 부문의 ‘자아존중감’은 8차년도에 초등학생 버전으로 도입되어 매년 조사되다가 11차년도 실시 이후 격년 조사 문항으로 변경되어 12차년도에는 미조사 되고 13차년도에 조사된 문항이다. 14차년도 연구진들은 논의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활용도가 높은 기본 변인으로 보고 14차년도부터 매년 측정 문항으로 복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자아개념으로 분류되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정체감’ 문항은 격년 조사 문항으로 12차년도에 도입되어 실시되었으며 13차년도엔 미조사 되고 14차년도에 조사하기로 하였다. 13차년도에 조사되었던 ‘학교생활느낌’은 14차년도부터 학교급이 달라지고 신규 도입되는 학교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14차년도부터는 영구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14차년도에는 자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써 정책개입의 근거로 활용도가 큰 ‘우울’ 항목을 추가하였다. ‘우울’ 항목은 국내 청소년 우울 척도로 빈번히 사용되는 CES-DC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hildren) 20개 문

항을 11개 문항으로 축약한 허만세, 이순희, 김영숙(2017)의 척도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외 자아 발달 영역의 매해 조사 문항인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는 13차년도에 연이어 14차년도에도 조사하며, 격년 조사 문항인 ‘GRIT(끈기)’과 ‘자율성’의 경우 ‘GRIT(끈기)’는 13차년도에 조사되었으므로 14차년도에 조사하지 않고, ‘자율성’은 13차년도 미조사에 이어 14차년도에 조사하기로 하였다.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의 ‘친구 수’는 청소년기의 사회성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거쳐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격년 조사 문항으로 12차년도에 미조사 되었으나 13차년도에 조사되었던 ‘또래애착’ 변인을 14차년도부터는 매해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간 사용되었던 ‘학교적응’ 척도는 초등학생용 대상의 문항이었기에 이규미(2005)가 개발한 중학생 대상의 학교적응 척도로 대체하였다. 이는 총 38개 문항으로 학교공부(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학교교사(교사호감, 교사친밀감), 학교생활(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의 4개 영역, 8개 요인을 포괄한다. ‘인성’ 항목은 13차년도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이기에 14차년도에는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 및 정서 발달의 긍정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변인으로 14차년도부터는 ‘공감’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공감’ 변인은 홍예영, 김유숙(2015)이 개발한 것으로, 표현적 공감 7문항, 인지적 공감 5문항, 정서적 공감 5문항을 포괄하는 총 17개 문항의 청소년 공감 척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문제행동’은 격년 조사 문항으로 12차년도에 이어 14차년도에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와 학교의 담임교사가 응답하는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를 통해 파악하기로 하였다. 비행과 폭력에 관련된 항목들 중 ‘사이버비행 인식’ 항목은 14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집단괴롭힘 피해’ 문항과 ‘사이버폭력 피해’ 문항은 기존에 피해 경험만 묻던 것에서 확장하여 가해 경험까지 포괄하는 온오프라인의 ‘폭력 피해’ 문항과 ‘폭력 가해’ 문항을 새로 도입하여 흡수·조사하기로 하였다. 즉, 신규 문항인 ‘폭력 피해(온/오프)’와 ‘폭력 가해(온/오프)’ 문항은 기본적으로는 서울교육종단연구의 2013년 4차년도 조사⁹⁾의 문

9) 2013년도 4차년도는 서울교육종단연구의 초등학생 조사대상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시기로 본 조사 패널의 학교급과 일치하므로 이때의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serii.re.kr/fus/MI0000000000000000495/board/BO00000222/CD020/view0010v.do>. 2013년 서울교육종단연구 4차년도 조사 학생설문지(중학교) (2021년 6월 8일 인출).

항들로 조사하되, 오프라인의 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1~7번은 본 조사 13차년도와 '집단괴롭힘 피해' 문항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문항의 연속성을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의 5점 척도는 6점 척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정형편의 인식 수준을 묻는 '상대적 박탈지수'와 이성친구 유무를 묻는 '이성관계'는 전년도에 이어 동일하게 조사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성관계에 대해 성인식 및 성역할 등으로 확장해 조사하는 것을 논의한 결과 15차년도부터는 확장된 항목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래/진로의 항목들은 14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경제사회 관련 부문의 '저축관'과 '용돈관련 문항'들도 유지하되, 용돈관련 문항들은 과거 보호자에게 묻던 것을 아동에게 묻고 '용돈 사용처'의 예시 항목들은 중학교 급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패널아동들의 성장을 반영하였다. 한편 13차년도에 조사되었던 '공동체의식'은 격년 문항으로 14차년도에는 조사하지 않으며 '안전의식 및 대처'는 매해 조사문항으로 14차년도에도 조사하기로 하였다.

〈표 III-1-5〉 13,14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자아존중감	●	●
		자아개념(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격년)	-	●
		학교생활느낌 (교사선호도, 학교선호도 포함)	●	삭제
		전반적 행복감	●	●
		삶의 만족도	●	●
		우울(자살생각 포함)		●
		GRIT(끈기)(격년)	●	-
		자율성(격년)	-	●
	사회성 발달	친구 수	●	삭제
		또래 애착(의사소통, 신뢰, 소외)	●	●
		학교 적응 (초등학교학년)	●	삭제
		학교 적응 (중·고등학교)	-	●
		인성(공감, 정서조절, 자기존중)	● 심층	-
		공감	-	●
		사이버 비행(인식)	●	●
		문제행동(격년)	-	○■
		집단괴롭힘(피해) ->폭력 피해문항에 흡수	●	-
		사이버폭력(피해)	●	-
		폭력 피해(온/오프)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폭력 가해(온/오프)	-	●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	●
		이성관계	●	●
	미래/진로	미래직업 인식	●	●
		장래희망	●	●
		진로성숙도	●	●
		미래에 대한 인식	●	●
		결혼관/자녀관	●	●
	경제사회 관련	저축관	●	●
		용돈 지급여부, 지급액	○	●
		용돈 사용처	○	●
		공동체 의식(격년)	●	-
		안전의식 및 대처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나. 부모 특성 조사 변인

부모 특성으로는 개인 및 부부 특성,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 양육 특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개인 및 부부 특성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우울은 격년문항으로 13차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4차 조사에 추가되었고, 자아존중감 역시 격년문항으로 13차 조사에는 포함되었으나, 14차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13차 심층조사로 측정되었던 문항은 14차년도에는 측정되지 않았다. 개인 및 부부 특성 중 부부특성에 해당되는 변수 중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은 격년문항으로 14차년도에는 결혼만족도가 포함되고 부부갈등 변수가 제외되었다.

직업 특성 중 근무일수, 근무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는 지금까지 어머니에게만 물어왔지만, 공동양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아버지 질문에도 포함시켜서, 어머니/아버지 둘 다 응답하는 문항으로 변경되었다.

양육특성 중 부모애착척도(IPPA)¹⁰⁾는 12차(2019) 조사에서 측정되었고 격년으로 계획된 문항이나, 부모관계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각각 응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어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14차부터 매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정하였다. 양육행동(부모감독), 양육행동(합리적설명) 문항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아동이 평

10) Armsden & Greenberg(1987)의 IPPA(Inventory of Parents and Peers' Attachment) 척도를 이정림 외(2017)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함.

가하는 부모양육행동을 추가하면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양육 행동(부모감독), 양육행동(합리적설명)은 허묘연(2004)의 아동이 측정하는 부모양육행동 문항 중 하위 문항으로 현재 측정하고 있는 성취압력, 아동학대, 부모애착 등의 하위요인과 구분되는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추가되었다. 아동학대의 경우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언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다수의 자문 의견에 따라, 13차 조사에 사용되었던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에 추가하여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정서적 학대)¹¹⁾,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방임)¹²⁾의 두 문항을 추가하였다. 두 문항은 각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연구진 외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선정되었고, 각각 한국복지패널 13차 조사 아동용 설문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부모설문지에서 발췌하였다.

또한, 양육실제 중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문항은 해외의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문항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4차 조사부터 삭제하고, ‘부모의 학업적 교육적 지원’ 문항을 14차 조사 신규 문항으로 추가함으로써 청소년기의 학부모의 학업적 교육적 지원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3차년도 조사(김양분 외, 2015)에 사용된 문항으로,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녀의 학교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등을 포함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은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3차 조사)부터 고등학교 3학년(8차 조사)까지 사용한 문항으로, 중고등시기에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양육특성 중 지원특성에서 ‘지원특성’은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도움을 주는 인원을 묻는 질문으로 청소년기부터는 성인이 함께 있어야 하는 돌봄의 중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하지만, ‘부모감독’ 및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등의 문항은 기존처럼 유지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김태완 외(2018).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55. 에서 해당 문항 발췌

12)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연구지. 12(2), 170-189. p. 180. 에서 해당 문항 발췌

〈표 III-1-6〉 13,14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	○
	심리적 특성	우울(격년)	-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	●
		자아존중감(격년)	●	-
		행동유형	●	●
		부모 미디어 중독	●	●
		자기조절(정서조절곤란)	● 심층	-
	부부 특성	성격검사	● 심층	-
		부부 특성	결혼 상태, 결혼 상태 유지 기간*	○
결혼만족도(격년)			-	●
부부갈등(격년)	●		-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	●
	질환/장애	1·2급 장애 유무*	○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 횟수, 양, 과음 횟수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취/학업 상태*	●
취업 특성		채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지위, 직업분류*	●	●
		근무일수, 근무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
양육 특성	양육 실제	양육방식(성취압력)	●	●
		부모애착척도(IPPA)	-	●
		양육행동(부모 감독)	-	●
		양육행동(합리적 설명)	-	●
		부모 감독	○	○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
		아동학대	●	●
		양육스트레스	●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	○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	삭제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	○
		지원인원	○	삭제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다. 가구 특성 조사 변인

가구 특성 조사 변인에서는 크게 가구의 인구학적, 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경제적 특성에서 소득, 지출, 취업 자산 등을 파악한다. 지금까지는 가구소득 이외에 모의 근로 소득만 보호자 문항에서 물어왔으나, 올해에는 부, 모가 각각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부모로부터 각각 수집하기 위해 아버지 문항에 '부의 근로 소득'을 추가하였다.

〈표 III-1-7〉 13,14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이)와 부모의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	○
	구성원 특성	성별, 생년월일, 결혼 여부, 합가 사유*	○	○
물리적 특성	주거 환경	○○(이) 개별 방 여부*	○	○
	생활환경	애완동물(반려동물) 수	○	○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 소득	○	○
		취업 모 근로 소득	○	○
		취업 부 근로 소득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빈도	●	●
	지출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자산 및 부채	부동산, 금융자산*		○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라.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

학교 및 사교육 특성은 크게 학교특성과 사교육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13차년도 조사에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으로 조부모/친인척, 비혈연 대리 양육자,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었으나, 14차년도에는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돌봄서비스 수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에서도 제외되었다.

먼저 학교 특성으로는 중학교 1학년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관련 이용 특성, 학

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운영, 가정협력에 대해 조사한다. 이용 특성에는 13차년도의 아동의 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이용기관, 전학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학교 상황에 맞게 일부내용이 수정되었고, 결석여부 문항은 14차년도에는 제외되었다.

학교 일반특성으로 14차년도에는 학교소재지, 학교종류, 남녀공학 여부, 시범학교 유형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종류는 일반중학교,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 국제중학교, 대안중학교로 분류하였고, 14차년도에 남녀공학 여부 문항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학교의 물리적 특성에서는 기존의 학급수와 성별 학생수, 학교 환경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학교 만족도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학교 만족도 문항은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의 3차년도 조사에 포함된 문항을 수정한 것으로 기초능력 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진로 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습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시설환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등 9개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 특성으로는 13차년도와 같이 담임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근무시간, 학력, 업무 스트레스 등 기존문항을 조사하고, 14차년도에 담임교사 담당과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또한 학급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와 아동 간 관계, 창의적 학교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정 협력 관련 조사문항은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 및 정도, 학교생활 관심 정도 등 기존문항을 유지하고, 자녀의 학업,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을 알기 위하여 학교에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를 묻는 학교생활 연락정도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또한 패널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향후 희망하는 고등학교 진학유형과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진학유형과 진학계획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둘째, 사교육 특성은 사교육 이용현황 및 특성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교육 이용 특성으로는 아동이 학교 이외에 다니고 있는 사교육 종류 및 기관, 시간, 비용, 비용부담정도, 이용만족도 문항에 대해 아동 보호자가 응답하게 하고, 14차년도부터 사교육 이용 이유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특히 사교육 문항은 패널아동의 중학교 진학과 맞물려 14차년도에 과목에 논술을 포함하거나, 청소년 수련관 등 일부 사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등 사교육 과목과 이용기관 유형을 일부 조

정하였다. 또한 14차년도부터는 사교육기관 중심의 전체 비용 및 만족도를 조사하던 기존 조사를 확대하여, 사교육기관별·과목별로 사교육 비용 및 만족도를 조사한다. 사교육 관련해서 아동에게도 별도로 사교육 개수나 사교육 부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14차년도에는 사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을 신규로 조사한다.

〈표 III-1-8〉 13,14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학교	이용 특성	학교 진학 여부, 대체 이용 기관	○	○
		미진학 사유	-	○
		전학 여부	○	○
		결석 여부	○	삭제
	학교 특성	소속 지역, 소속 교육청	■	■
		학교 종류	-	○■
		설립 유형	■	삭제
		남녀공학여부	-	■
		시범학교 유형	■	■
	물리적 특성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	■
		학교 환경	■	■
		교육시설 만족도	삭제	삭제
		학교 만족도	-	○
	교사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	■
		교사 담당 과목	-	■
		업무 스트레스	■	■
	학급 운영	교사-아동 관계(친밀, 갈등)	■	■
		창의적 학교 환경	●	●
	가정 협력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 (부모)	○	○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 (교사)	■	■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
		학교생활 연락 정도	-	■
		진학계획	-	○
		고교 진학유형	-	○
사교육 특성	이용 특성	이용 종류 및 기관, 시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	○
		사교육 이용 이유	-	○
	사교육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사교육 부담, 사교육 개수 적당)	●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사교육 효과 인식)		-	●	
돌봄 서비스	이용 특성	(학기/방학 중) 돌봄 유형/시간 기관, 빈도, 비용, 만족도	○	삭제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마. 지역·정책 특성 조사 변인

지역·정책 특성 조사는 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환경인 지역 특성과 국가지원정책, 직장지원정책, 기타지원 정책 등을 포함하는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먼저 지역특성 중 일반적 특성은 이사 횟수, 지역규모, 권역 등 행정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묻고 있으며, 14차년도부터 이사한 경우 이사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양육환경으로는 교육·의료·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 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와 양육환경 안전성 문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한다.

정책 특성에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구분을 유지하고 초등시기에 해당하는 국가지원정책의 수혜 여부와 만족도는 삭제하였으며, 14차년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자유학년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체제 단순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교육급여 지원 확대 등 주요 교육현안 및 정책에 대한 동의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새롭게 수정하여 조사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에서의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인식 등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일부 반영하였다.

이외 패널아동의 중학교 진학으로, 패널아동 기준 육아지원제도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이 아니므로, 14차년도부터는 육아지원제도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관련 항목은 부모 응답에서 삭제하였다.

〈표 III-1-9〉 13,14차년도 지역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이사사유		○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17개 시/도 구분	○	○
	양육 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교육·의료·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	○
사회 안전			○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3차 (초6)	14차 (중1)
정책 특성	국가 지원	수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
			정책 수혜 여부 및 만족도	○	삭제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
			코로나19 대응 정책만족도		○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
	직장지원	시행 및 이용	육아지원제도/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삭제
기타지원	시행 및 이용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2. 14차년도 조사 준비

조사준비 과정에는 설문지 작성 및 연구윤리심의 위원회 승인(IRB), 설문지를 테블릿 PC 및 온라인상에 구축하고, 면담조사를 진행할 조사원을 교육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가. 설문지 작성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의 설문지는 패널아동 개인과,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 주양육자, 학교 교사에 대해 조사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정책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아동의 발달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조사항목은 아동패널 조사 모형의 이론적 틀인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과 아동패널 모형의 증장기 계획(도남희 외, 2017)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 항목이 선정되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발달 수준에 맞는 조사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조사변인을 선정하였다. 첫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가 아동의 모든 일과와 행동을 다 알고 응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아동이 응답할 경우 문항응답의 정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기존의 보호자 문항에서 아동문

항으로 변경(ex. 생활시간 조사, 취미생활 등)하였다. 둘째, 초등학생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던 기존 문항의 경우 청소년시기에 사용이 적합할지 판단하여, 현 문항이 청소년시기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 대상으로 타당화된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셋째, 학교급이 바뀌면서 생기는 학교 관련 문항들을 변경하였다(ex. 학교 종류, 학업성취도 측정방법, 과목 선호도 과목명변경 등). 넷째, 청소년이 되면서 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따른 변화로 인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였다(ex. 용돈 사용처 보기 추가, 생활시간의 여가생활 내용 추가 등).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차례의 청소년 대상 종단 패널 연구 경험자,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1차: 서면, 2차: 화상), 한 차례의 교사 자문회의를 통해 수합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한국아동패널연구 14차년도 설문내용을 확정된 후 한국아동패널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¹³⁾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16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부록 1: IRB 승인통지서 참조)¹⁴⁾.

한국아동패널은 주된 연구대상이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위해 연구 참여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계획서의 윤리 및 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획득하였는지,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에 대하여 IRB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다. 조사원 선발 및 교육

1) 조사원 선발

직접적으로 패널가구와 소통하고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원의 중요성은 대규모 패널 조사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국아동패널 담당 조사원은 단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하여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14) 연구(220996-200414-HR-006)에 대한 IRB 승인(KICCEEIRB-2021-제05호, 2021년 6월 16일)

순히 조사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패널가구 관리 등의 업무도 진행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에 조사원 선발은 잦은 조사원 변동으로 인한 응답자 불편 방지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정하고(전년도 본 조사 수행 경험 조사원을 90% 이상 투입), 전담조사원이 1개 패널가구의 진행 현황, 정보변동 등을 일괄 관리하여 에러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당 패널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끔 진행되었다. 또한, 연속 투입되는 조사원의 매너리즘 관리 방안으로 꾸준한 진행률, 높은 성공률, 탈락 패널 복구율 등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우수조사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더욱 책임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10% 범위 내에서 성과가 부진한 조사원은 교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대체되는 신규 조사원은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가구 방문 패널 유경험자로 구성하였다¹⁵⁾.

2) 조사원 교육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아동 발달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특성상, 패널아동, 어머니와 아버지(보호자), 담임교사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이유로 조사원은 각 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사 준비 과정에서 단계별 조사원 교육을 매해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먼저 조사원 전체 대상의 집체교육 전에 각 권역별 실사관리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개별 조사원 교육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슈퍼바이저 대상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조사원 교육은 크게 3단계로 1) 집체 교육, 2) 지방 순회 간담회, 3) 수시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단계별 교육을 통해 개별 조사원의 현장 에디팅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실시되는 집체 교육은 조사 수행기관 담당 연구원의 지역별 순회 교육으로 지역별로 동일한 교육 자료와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패널 관리 방안, TAPI 사용 방식 등을 공통으로 교육하고, 이후에는 그룹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전년도 참여 조사원에게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을 중점으로, 신규 조사원에게 조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에 집중한다. 특히, 올해

15) 2021년 전체 조사원 수 55명, 기존 조사원 수 53명으로 신규 투입되는 조사원은 2명이며, 기존 조사원 유지율은 96.4%이다.

14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기존 보호자 응답 문항이 아동이 스스로 응답하는 문항으로 변경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중점으로 교육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지방 순회 간담회는 실사 진행 60% 정도 경과 시점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조사 진행사항 파악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020년 13차년도 조사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일부 비대면 조사로의 전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마지막 수시 교육은 서울 본사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수시 교육을 의미하는데, 조사완료 후 수거된 조사표의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공유 및 수정 지침 공지가 수시로 이뤄진다.

2021년 14차년도 전체 조사원 대상 집체교육은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로 진행하였으며, 교육 진행 일정(안) 및 상세내용은 <표 III-2-1>, <표 III-2-2>와 같다.

<표 III-2-1> 14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일시	장소	대상자	
		지역	조사원(수퍼바이저 포함)
2021. 6. 25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5명
2021. 6. 28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1명
2021. 6. 28	대구	대구, 경북	10명
2021. 6. 29	대전	대전, 충남, 충북	9명
2021. 6. 29	광주	광주, 전남, 전북	8명
2021. 6. 30	제주	제주	1명
계			64명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조사원 집체교육은 강의식 설명, 실습, 질의응답, 이해도 테스트, 조사원 맞춤형 교육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아동패널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향상을 위해 패널 조사의 목적 및 개요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조사 준비 단계 및 현장조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설문조사 내용에 관한 에디팅 교육으로 조사별 설명, 문항 구성, 문항별 에디팅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실습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각 지역별 집체교육 중 발생한 질의응답은 교육 종료 후 수합하였고 전국적으로 공유하였다.

〈표 III-2-2〉 14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표

교육 시간		일정	세부 내용
09:20~09:30	10	*체온 측정, 출입대장 작성 및 교육 준비	
09:30~09:45	15	연구진 소개 및 조사개요 안내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소개 - 14차년도(2021년) 조사 개요
09:50~10:00	15	조사 준비 단계 설명	- 조사 준비물 설명 - IRB 관련 동의서 설명 - 설문지 종류별 설명
10:00~10:30	30	조사원 현장조사 교육	- 조사원 기본소양 교육 - 조사시 유의 사항 - 13차년도(2020년) 사례 공유
10:30~11:00	30	TAPI(보호자) 에디팅 교육	- 보호자 조사 현장 에디팅 - 문항별 주의사항
11:00~11:20	15	*환기 및 휴식 (간식 제공)	
11:20~12:00	40	TAPI(아동용) 에디팅 교육	- 문항별 주의사항 - 아동 조사 현장 에디팅 - 신체 계측 요령 등
12:00~12:20	20	PAPI(부모) 에디팅 교육 및 담임교사 조사 안내	- 종이질문지 에디팅 - 담임교사 조사 안내 등
12:20~12:50	30	TAPI 조사 시연 및 실습	- TAPI 진행 절차 및 활용법 - 조사 실습
12:50~13:00	10	*질의응답 및 마무리	

3. 14차년도 실사 진행

가. 패널가구 사전 연락 및 패널 유지관리

한국아동패널 사업 내 패널관리 업무를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표 III-3-1〉과 같다. 이에는 조사를 위한 연락과 조사 진행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가구가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를 위한 연락이 병행된다.

먼저 연초에는 전년도에 조사한 수행검사 결과를 보호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 확인 링크로 송부한다. 2020년 조사의 경우는 아동 대상으로 M-FIT(다요인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발송한 링크를 누르면 해당 패널아동의 6가지 지능영역별 프로파일과 결과해석이 담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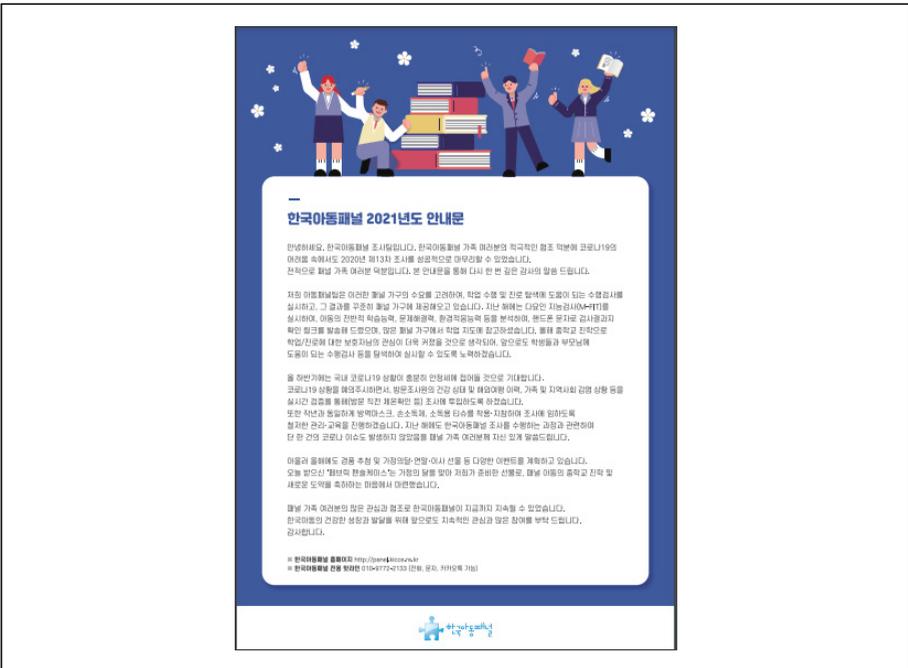
4월 무렵에는 가정의 달 선물 발송을 위해 패널아동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부모 부재 시 법정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가구별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 가정의 달 선물을 발송하였다. 가정의 달 선물 발송과 함께 올해 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여 2021년 한국아동패널 실사 참여를 당부하였다.

[그림 III-3-1] 2021년 가정의 달 선물



6월부터 14차년도 조사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담당조사원이 각 패널가구에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안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참여 의사를 밝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시작 2~3주 전에 조사안내문과 부모 대상 종이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림 III-3-2] 2021년 가정의 달 선물 발송 및 조사 예고 안내문



7월부터는 본 조사가 실시되고, 올해 2021년에는 중학교에 진학한 패널아동들에게 한국패널조사의 패널아동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조사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아동들이 지금까지 아동발달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위촉장을 발급하여 면접조사 시 제공하였다.

모든 조사가 완료되는 12월에는 조사에 참여한 패널가구(주로 어머니에게 연락)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행사 이외에 아동이 중학생이 되면서 조사 과정 중에 수집한 패널아동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가입을 유도하여, 한국아동패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통한 유용한 정보제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시 경품 행사(편의점 쿠폰 등)가 계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해 1월 설 선물을 발송하면서, 14차 조사에 대한 패널관리 업무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학교 진학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패널아동이 자발적으로 패널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표 III-3-1〉 2021년 14차년도 조사를 위한 패널가구 연락 일정 및 과정

일정	연락 내용	세부 내용
3월	전년도 수행검사 결과 송부	- 문자로 결과확인 링크 송부
4~5월	사전 정보 확인 조사	- 전화번호, 주소 등 기초 정보 확인 조사 진행
5월	가정의 달 선물 발송	- 선물 우편 발송 - 가정의 달 선물 발송과 함께 올해 조사에 대한 안내문 송부
6월	사전 컨택 전화	- 담당 조사원 전화 연락 및 조사 일정 안내
7월	조사안내문 및 질문지 발송	- 조사 참여 안내문 및 부모 대상 종이질문지 우편발송
7~11월	조사 실시	- 조사원과 보호자의 시간 약속 후 기간 안에 조사 완료
7~11월	위촉장 수여	-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패널아동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조사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
8~12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연락	-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패널아동 휴대전화를 통해 플러스친구 가입 유도 및 선물 증정
12월	경품 추첨	- 조사 참여 패널 대상 경품 추첨 행사 진행
1월	정보 확인 조사	- 설 선물 발송을 위한 주소 확인 및 조사 참여 감사 인사
2월	설 선물 발송	- 선물 우편 발송

나. 실사 진행 과정

14차년도 조사의 본격적인 실사는 2021년 7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각 가구별로 담당조사원과 일정을 정하여 진행된다. 각 가정에서는 앞서 준비기간에 조사안내 문과 함께 우편 발송된 부모 대상 종이설문지를 수령하여, 조사원 방문 전에 미리 작성해둔다. 조사원은 상호 약속한 시간에 맞춰 가구에 방문하여 보호자용 설문(TAPI-대면 면접조사), 아동용 설문(TAPI-대면 면접조사)을 진행한다. 아동 조사는 조사 초반 신체측정 문항 이후부터는 부모와 분리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조사 순서는 각 가정 상황이나 아동의 컨디션, 조사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원이 부모 대상 종이설문지까지 수거해오면 패널가구 대상 총 4종의 조사가 완료된다.

교사용 설문의 경우는 가구 방문 시 보호자의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담임교사에게 접촉을 시도한다. 먼저 조사원 가구 방문 시 본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 목적이 담긴 육아정책연구소장 발행의 편지글과 조사 참여 공문, 한국아동패널 홍보리플렛 세트를 가구에 맡겨 담임교사에게 전달을 부탁한다. 이후 조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 참여에 동의한 교사는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탑재된 담임교사 온라인조사 안내링크를 통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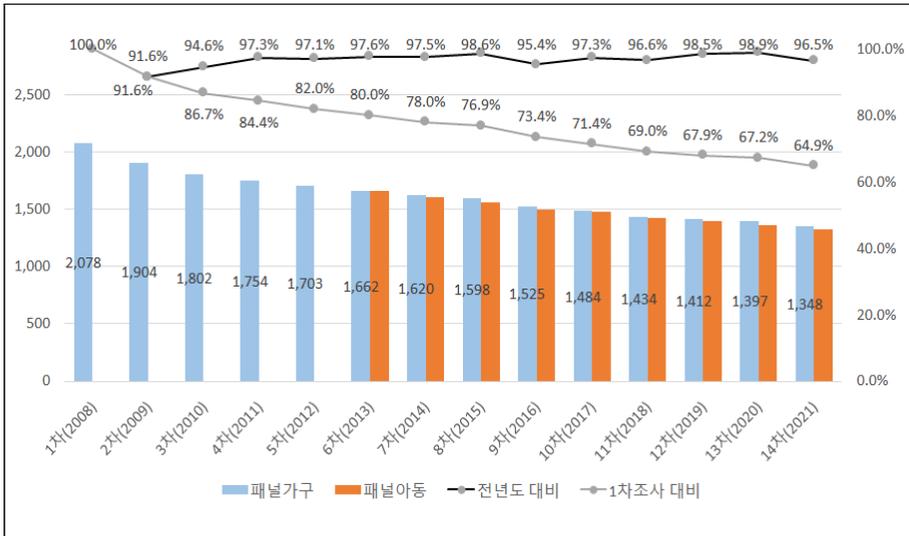
또한,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조사원과 응답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에 수립한 코로나 방역수칙 전략을 유지하고, 이행하고자 하였다. 실사 진행 전체 기간 동안 조사원은 TAPI에 직접 건강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야만 조사 진행이 가능하였다. 가구방문 시 필수적으로 마스크 착용, 응답자-조사원 간 안전거리 확보, 조사 시작 전 응답자-조사원 모두 손소독제 사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였고, 조사 직후에는 매번 스프레이형 소독제를 사용하여 태블릿 PC를 소독하여 사용하였다.

실사 전반의 이 모든 과정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21년 실사 현장 모니터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사업체 담당연구원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1차부터 2020년 실시한 14차년도 조사까지의 연도별 조사 참여율은 [그림 III-3-3], <표 III-3-2>와 같다. 2021년 14차년도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가구는 1,348가구(아동 1,328명)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1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2,078가구의 64.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21년 조사 유효표본 1,589가구 대비 84.8%¹⁶⁾, 작년조사 수인 1,397명 대비는 96.5%의 유지율을 보였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문면접조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법을 고수하여 진행하였고, 코로나19가 극심해진 2021년 12월 후 비대면 조사를 허용하였다. 비대면 조사는 보호자의 경우 종이설문지를 발송한 후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하였고, 아동의 경우 이메일 발송을 통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최종 보호자 72명(전체의 5.3%), 아동 8명(전체의 0.6%)이 비대면으로 참석하였다.

[그림 III-3-3] 한국아동패널 2008-2021년 조사 참여율



주: 전년도 대비 조사 참여율 및 전체 패널 대비 조사 참여율은 패널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16) 2022년 1월 28일 기준임.

〈표 III-3-2〉 한국아동패널 2008-2021년 조사 가구 수

단위: 가구수(아동수)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전체 패널	335	683	281	248	371	232	2,150
1차(2008년)	328	662	272	242	348	226	2,078
2차(2009년)	280	604	275	221	315	209	1,904
3차(2010년)	260	580	251	209	308	194	1,802
4차(2011년)	246	562	243	211	299	193	1,754
5차(2012년)	231	553	234	199	291	195	1,703
6차(2013년)	226(224)	532(531)	223(222)	196(196)	287(287)	198(198)	1,662(1,658)
7차(2014년)	223(221)	508(502)	227(224)	188(188)	281(279)	193(193)	1,620(1,607)
8차(2015년)	209(192)	512(492)	226(226)	179(178)	283(283)	189(189)	1,598(1,560)
9차(2016년)	182(177)	481(265)	222(220)	178(176)	277(274)	185(184)	1,525(1,496)
10차(2017년)	175(174)	480(475)	212(212)	170(172)	261(262)	186(185)	1,484(1,480)
11차(2018년)	166(164)	454(450)	211(211)	163(163)	253(253)	187(187)	1,434(1,428)
12차(2019년)	169(163)	438(431)	208(207)	159(158)	251(251)	187(188)	1,412(1,398)
13차(2020년)	172(158)	443(418)	197(199)	157(157)	247(246)	181(181)	1,397(1,359)
14차(2021년)	166(158)	434(425)	184(183)	147(147)	236(234)	181(181)	1,348(1,328)

라. 조사원 간담회 개최

2021년 1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전체 조사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14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 및 차후조사에서의 개선 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사원 간담회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과 조사회사 연구진, 조사원, 슈퍼바이저 참석 하에 각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별 간담회 일정 및 상세내용은 〈표 III-3-3〉, 〈표 III-3-4〉와 같다.

〈표 III-3-3〉 14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일시	장소	대상자	
		지역	조사원(슈퍼바이저 포함)
2021. 11. 24	대구	대구, 경북	13명
2021. 11. 25	대전	대전, 충남, 충북	12명
2021. 11. 29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0명
2021. 11. 29	광주	광주, 전남, 전북	13명
2021. 11. 30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4명

각 도시에서 간담회가 진행된 날 기준으로 각 지역의 유효표본 대비 서울 69.6%, 부산 72.8%, 대전, 75.4%, 광주 80.7%, 대구 81.5%, 강원¹⁷⁾ 81.5%, 제주도¹⁸⁾ 100%의 조사 진행률을 보였다. 조사가 대부분 진행되었으나, 마무리 시점을 앞두고, 조사 진행 상황 파악과 올해 조사 독려를 위한 방안, 내년 이후의 조사 진행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진행이 어려운 가구들의 특징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조사 기피 가구(대부분 수도권), 수년간 반복거절 가구, 이혼 가구, 유학 가구(부모 해외파견가구 포함), 질병 및 장애 가구, 중학생이 된 패널아동과의 시간 조율이 어려운 가구 등이 있었다. <표 III-3-4>에 간담회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였다.

<표 III-3-4> 14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요약

구분	내용
면접 컨택시 어려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대면 만남을 회피함
	사춘기에 접어든 패널아동들의 조사 거부 현상 증가
	지속된 조사로 인한 패널가구의 피로감 증대
	중학교 진학으로 인한 바쁜 아동 스케줄
면접 진행시 어려움	아동대상 문항증가로 아동조사 부담이 늘어남
	이혼가정의 경우 일부 문항 응답이 어려운 부분 및 조사회피가 심함
	아동의 신체계측(체중, 신장) 거부 의사가 늘고 있음
	반복된다고 느끼는 문항들이 존재함
	면접 약속 후 직전에 약속을 여기거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 존재
사례 및 보상관련 어려움	조사응답보상이 적다고 느낌
	위촉장 수여에 대해 전반적 반응이 좋았으나, 호불호가 있음
개선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가구가 있음
	아동대상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대상 유인책이 필요함

자료: 14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함.

17) 강원 지역 조사원의 경우 서울지역 간담회에 참석함.

18) 제주도 지역 조사원 1명으로 간담회는 생략함.

IV

13차년도(2020년) 조사결과 분석

- 01 13차년도 조사 개요
- 02 아동 특성
- 03 부모 및 가구 특성
- 04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05 가중치 산출

IV. 13차년도(2020년) 조사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2020년 진행된 한국아동패널의 13차년도 조사결과의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장은 13차년도의 조사대상자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고, 아동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기술하였다.

1. 13차년도 조사 개요

13차 조사가 있었던 2020년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많은 패널가구들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에 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해였다.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 13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조사원의 방역수칙 준수, 거리두기 지침 등을 철저히 지켜 조사 중에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없도록 하였다. 조사 진행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표 IV-1-1>에 나타난 것처럼 91% 이상의 가구를 면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조사가 있었던 하반기 코로나 단계가 높았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였다. 비대면 조사의 경우에도 아동설문의 경우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보호자 설문의 경우 전화조사를 통해 면담원이 직접 TAPI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면담식을 유지하였다. 비대면으로 실시된 비율이 매우 낮아 모드효과 분석이 불가하고, 아동패널의 아동 및 보호자의 문항이, 모드효과 민감성이 낮은 주제로 이루어져, 전반적인 조사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백지선·심규호·홍영택·장덕현, 2017).

가. 13차년도 조사 진행

〈표 IV-1-1〉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조사 참여 가구 수

단위: 가구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세종·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라 ·제주	계
13차(2020년)	171	444	197	157	247	181	1,397
대면	136	374	185	156	240	181	1,272
비대면	35	70	12	1	7	0	125

자료: 13차년도 조사 결과.

나. 13차년도 조사 응답자 특성¹⁹⁾

2020년도 13차에 조사한 참여한 패널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IV-1-2〉에 제시하였다.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가구(보호자 응답기준)는 1,397명, 아동 1,359명, 어머니 1,380명, 아버지 1,352명으로, 가구특성으로는 평균 가구원수 4.64명, 자녀수 2.23명, 평균 소득 571.44만원, 평균 가구지출 462.41만원을 나타냈다.

먼저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전체의 50.7%, 여학생이 49.3%였으며,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인 경우가 36.4%, 둘째 이상인 경우는 53.3%, 외동아가 10.3%로 나타났다. 13차년도 아동은 대부분이 경우 초등 6학년으로 조사 당시의 아동 월령을 조사한 결과, 패널아동의 평균 월령은 147.41개월(만 12.28세)였다.

부모의 최종학력으로 어머니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44.3%, 전문대 졸업 29.3%,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26.4%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53.3%의 분포를 보였고, 전문대 졸업 21.1%, 고등학교 졸업은 25.6%로 나타났다. 패널아동 초등 6학년 시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43.07세, 아버지는 만 45.54세로 나타났다.

〈표 IV-1-2〉 13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아동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취·학업 상태		
남	50.8 (690)	취·학업 중	60.2 (822)	96.4 (1,188)
여	49.2 (669)	미취·미학업 중	39.8 (543)	3.6 (44)

19) 2020년(13차년도) 일반조사 결과 분석은, 횡단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구분	아동	구분	어머니	아버지
출생순위		최종학력		
첫째	36.6 (498)	대졸 이상	44.3 (612)	53.3 (721)
둘째 이상	53.0 (720)	전문대 졸	29.3 (404)	21.1 (285)
외동아	10.4 (141)	고졸 이하	26.4 (364)	25.6 (346)
월령		계(수)	100.0 (1,380)	100.0 (1,352)
평균(표준편차)	149.14 (1.56)	연령		
계(수)	100.0 (1,359)	평균(표준편차)	43.07 (3.62)	45.54 (3.91)
구분	가구	구분	가구	
가구 구성 형태			평균	표준편차
부모+자녀	86.5 (1208)	자녀수(명)	2.23	0.83
조부모+부모+자녀	9.2 (129)	가구원 수(명)	4.64	1.89
조부모+부모+자녀+친척	0.4 (6)	가구 소득(만원)	571.44	404.93
부모+자녀+친척	3.7 (52)	가구 지출(만원)	462.41	211.81
기타	0.1 (2)	자녀 지출(만원)	155.88	87.49
계(수)	100.0 (1397)			

2. 아동 특성

가. 아동 특성 관련 변인 구성

13차년도 아동 특성은 크게,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인지 및 언어발달 특성, 사회 및 정서발달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아동 특성과 관련한 조사는 아동이 직접 기입하거나, 보호자가 응답하거나, 어머니, 교사의 응답을 토대로 수집되었으며, 상세한 변인은 <표 IV-2-1>과 같다.

<표 IV-2-1> 13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월령 • 출생순위
일상생활 특성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진단 • 카페인 음료(탄산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생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간, 수면시간 • (주중, 주말) 일과 활동 시간, 활동별 참여 빈도 • 시간사용 만족도(대화시간, 식사시간, 여가활동시간, 숙제시간 등)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가사 참여 여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실내/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량 • 실내외 운동 정도 • 취미(악기연주, 스포츠 경험 등)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이용(휴대폰 소유, 미디어 이용시간, 정도) • 미디어 중독 • 컴퓨터 사용 능력
	외출/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연수 빈도 • 문화체험, 예술감상, 종교활동 •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 장보기, 친척 방문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 신장, 허리둘레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주관적 건강 상태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신체적 자아상 • 체중조절경험
	질환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판정 여부, 유형 및 급수 • 만성 질환별 진단 여부, 병원 치료 여부 • 심리사회적 질환별 진단, 치료 여부 • 응급실 치료 여부, 이유, 입원 치료 여부 • 알레르기 질환 진단, 치료 여부
언어 및 학습 특성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속어사용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능 • 다요인지능검사(M-fit)(수행검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수행능력 • 학업 스트레스 • 과목 선호도 • 학습태도
사회 및 정서 특성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적응 • 학교생활느낌(교사선호도, 학교선호도 포함) • 폭력피해 경험(집단괴롭힘, 사이버폭력) • 친구관계(친구수, 또래애착)
	자아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 GRIT, 인성(공감, 정서조절 등) • 사이버비행에 대한 인식 • 경제개념 및 경제행동
	미래/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대(장래희망) • 미래직업인식 • 진로성숙도
	사회관련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관/자녀관 • 공동체의식 • 안전의식 및 대처

나. 일상생활 특성

1) 식생활

가) 식생활 진단

아동의 보호자에게 섭취 권장 항목의 섭취 정도를 질문하였다.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 ‘과일 1개나 과일주스 1잔을 매일 먹는다’에 1(그런편이다)~ 3(아닌편이다)으로 동의 정도를 묻은 문항으로 역코딩을 실시하여 3점에 가까울수록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유/유제품 섭취의 경우 남학생이, 채소 섭취의 경우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2〉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단위: %, (명), 점

구분	계(수)	우유/유제품		단백질류		채소		과일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22)	1.96	0.76	2.39	0.62	2.10	0.74	2.32	0.72
아동 성별									
남	(659)	2.04	0.75	2.40	0.62	2.04	0.73	2.27	0.74
여	(663)	1.87	0.76	2.38	0.62	2.17	0.74	2.37	0.69
<i>t</i>		4.06*		0.47		-3.13**		-2.45*	
아동 출생순위									
첫째	(476)	1.91	0.76	2.42	0.60	2.15	0.71	2.33	0.71
둘째 이상	(711)	1.99	0.74	2.36	0.63	2.07	0.75	2.30	0.73
외동아	(135)	1.96	0.79	2.44	0.65	2.10	0.76	2.38	0.70
<i>F</i>		1.85		2.31		1.47		0.74	
모 취업 여부									
취업	(783)	1.96	0.76	2.38	0.64	2.09	0.74	2.31	0.74
미취업	(515)	1.95	0.75	2.41	0.60	2.13	0.73	2.34	0.68
<i>t</i>		0.33		-0.93		-1.16		-0.8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57)	1.94	0.73	2.32	0.61	2.07	0.74	2.23	0.71
400~549만원	(443)	1.95	0.76	2.39	0.62	2.09	0.72	2.37	0.69
550~699만원	(231)	1.95	0.75	2.39	0.64	2.17	0.74	2.30	0.76
700만원 이상	(320)	2.00	0.76	2.47	0.62	2.09	0.76	2.37	0.73
<i>F</i>		0.34		2.56		0.89		2.6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1$.

다음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과잉섭취를 자제해야하는 음식에 대한 섭취를 질문하였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식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에 그런편이다(1)~아닌편이다(3)에 동의 정도를 물었는데, 역코딩하여 3점에 가까울수록 섭취가 높은 것을 뜻한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튀김/볶음요리 섭취가 높았으며, 소득이 700만원 이상 집단이 소득 399만원 이하 집단보다, 튀김/볶음요리 및 단순당류의 섭취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3〉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단위: %, (명), 점

구분	계(수)	튀김/볶음요리		지방많은 단백질		짠 음식		단순당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22)	2.43	0.65	2.31	0.69	1.44	0.66	2.43	0.70
아동 성별									
남	(659)	2.48	0.63	2.35	0.69	1.45	0.66	2.46	0.68
여	(663)	2.39	0.68	2.27	0.69	1.43	0.66	2.40	0.71
<i>t</i>		2.51*		2.24		0.58		1.49	
아동 출생순위									
첫째	(476)	2.49 ^b	0.64	2.30	0.71	1.44	0.65	2.45 ^b	0.71
둘째 이상	(711)	2.43 ^b	0.65	2.32	0.68	1.44	0.66	2.46 ^b	0.67
외동아	(135)	2.24 ^a	0.71	2.24	0.68	1.47	0.67	2.25 ^a	0.77
<i>F</i>		7.32***		0.89		0.10		5.05**	
모 취업 여부									
취업	(783)	2.45	0.65	2.34	0.68	1.47	0.67	2.43	0.71
미취업	(515)	2.41	0.66	2.26	0.71	1.41	0.64	2.42	0.69
<i>t</i>		1.09		2.10*		1.41		0.2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57)	2.31 ^a	0.68	2.23 ^a	0.69	1.49	0.66	2.31 ^a	0.73
400~549만원	(443)	2.43 ^{ab}	0.66	2.29 ^a	0.67	1.42	0.66	2.45 ^{ab}	0.67
550~699만원	(231)	2.50 ^b	0.62	2.32 ^a	0.74	1.45	0.68	2.41 ^{ab}	0.73
700만원 이상	(320)	2.47 ^b	0.65	2.39 ^a	0.69	1.43	0.63	2.50 ^b	0.65
<i>F</i>		3.97**		2.71*		0.68		4.0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 대해 응답한 문항으로, 그런편이다(1)~아닌편이다(3)를 역코딩하여 응답하여 3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식생활을 뜻한다.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2.53/3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편식을 하지 않는다)’에는 2.24/3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가 취업상태인 경우 보다는 미취업상태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단위: %, (명), 점

구분	계(수)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2)	2.53	0.64	2.24	0.75
아동 성별					
남	(659)	2.57	0.63	2.21	0.76
여	(663)	2.49	0.66	2.27	0.73
<i>t</i>		2.23*		-1.62	
아동 출생순위					
첫째	(476)	2.58	0.62	2.26	0.75
둘째 이상	(711)	2.50	0.66	2.23	0.75
외동아	(135)	2.58	0.63	2.24	0.74
<i>F</i>		2.62		0.38	
모 취업 여부					
취업	(783)	2.50	0.66	2.23	0.74
미취업	(515)	2.59	0.61	2.25	0.75
<i>t</i>		-2.64***		-0.5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57)	2.50	0.66	2.18 ^a	0.74
400~549만원	(443)	2.49	0.67	2.23 ^{ab}	0.74
550~699만원	(231)	2.59	0.59	2.38 ^b	0.72
700만원 이상	(320)	2.58	0.63	2.21 ^{ab}	0.76
<i>F</i>		1.71		3.34*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01$.

나) 카페인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다음은 아동의 카페인 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에 대해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최근 7일 동안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빈도를 보면 25.64%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주 1~2회가 46.79%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 섭취한다는 응답은 21.15%였고, 주 5회 이상은 6.41%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카페인 음료의 섭취빈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외동아동의 경우, 카페인 음료의 섭취빈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최근 7일간 아동의 카페인 음료(탄산음료) 섭취빈도

단위: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주 1~2회	주 2~3회	주 5회 이상
전체	(1357)	25.64	46.79	21.15	6.41
아동 성별					
남	(689)	22.79	46.73	22.79	7.69
여	(668)	28.59	46.86	19.46	5.09
$\chi^2(df)$			9.82(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27.97	45.67	21.93	4.43
둘째 이상	(719)	21.56	48.40	21.97	8.07
외동아	(141)	38.30	42.55	14.18	4.96
$\chi^2(df)$			25.80(6)***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24.84	46.09	21.24	7.83
미취업	(520)	26.54	48.85	20.19	4.42
$\chi^2(df)$			6.67(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28.90	42.21	22.81	6.08
400~549만원	(458)	22.27	48.25	21.62	7.86
550~699만원	(235)	24.26	46.38	22.55	6.81
700만원 이상	(327)	28.75	47.71	18.35	5.20
$\chi^2(df)$			9.97(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인스턴트식 섭취에 대해서는 평균 주 1-2회 정도 인스턴트식을 먹는 아동의 비율이 55.71%, 주2-3회 정도 먹는 아동의 비율이 30.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스턴트식 섭취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섭취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6〉 최근 7일간 아동의 인스턴트식(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섭취빈도

단위: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2~3회	주 5회 이상
전체	(1357)	7.96	55.71	30.80	5.53
아동 성별					
남	(689)	7.69	53.56	31.49	7.26
여	(668)	8.23	57.93	30.09	3.74
		$\chi^2(df)$ 9.09(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8.05	56.94	30.18	4.83
둘째 이상	(719)	7.37	54.24	31.99	6.40
외동아	(141)	10.64	58.87	26.95	3.55
		$\chi^2(df)$ 5.75(6)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7.58	55.16	32.55	4.72
미취업	(520)	8.46	56.92	27.88	6.73
		$\chi^2(df)$ 5.04(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9.89	50.95	32.70	6.46
400~549만원	(458)	8.08	57.21	30.35	4.37
550~699만원	(235)	5.11	56.17	31.49	7.23
700만원 이상	(327)	8.26	57.19	29.36	5.20
		$\chi^2(df)$ 8.50(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2) 일과 활동시간

일과 활동시간은 아동이 하루 일과 중 각 영역별로 사용하는 시간을 보호자가 응답한 것으로 수면시간, 학교/학교 외를 포함한 교육기관 이용시간, 독서시간, 온라인 학습시간, 게임 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여가교재 시간, 가사 돕기 시간 등이 포함된다.

가) 수면

13차년도 조사결과 6학년 아동의 주중 취침시각은 밤 10시 49분, 기상시각은 오전 7시 35분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각 및 기상시각의 표준편차는 각각 49분, 34분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취침시각은 밤 11시 25분, 기상시각은 8시 53분

으로 나타났는데, 주중의 기상시각 편차가 34분임에 반해, 주말의 기상시각의 편차는 1시간 4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초등 6학년의 주말 기상시각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첫째인 경우가 둘째이상이나 외동아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7〉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계(수)	주중				주말			
		취침시간		기상시간		취침시간		기상시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97)	22:49	0:49	7:35	0:34	23:25	0:53	8:53	1:04
아동 성별									
남	(708)	22:44	0:49	7:34	0:34	23:22	0:53	8:41	1:02
여	(689)	22:52	0:48	7:35	0:34	23:28	0:52	9:05	1:05
<i>t</i>		-2.97**		-0.71		-2.01*		-6.84***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8)	22:37 ^a	0:49	7:33	0:34	23:13 ^a	0:54	8:41 ^a	1:02
둘째 이상	(745)	22:55 ^b	0:47	7:35	0:33	23:31 ^b	0:51	8:59 ^b	1:05
외동아	(144)	22:55 ^b	0:50	7:40	0:37	23:33 ^b	0:50	9:01 ^b	1:04
<i>F</i>		24.89***		2.51		21.21***		12.39***	
모 취업 여부									
취업	(822)	22:50	0:47	7:35	0:34	23:27	0:53	8:56	1:05
미취업	(543)	22:45	0:50	7:35	0:33	23:20	0:53	8:47	1:04
<i>t</i>		1.93		0.02		2.15*		2.6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1)	22:39 ^a	0:53	7:29 ^a	0:31	23:16 ^a	0:56	8:49	1:05
400~549만원	(474)	22:44 ^{bc}	0:47	7:34 ^{ab}	0:32	23:23 ^{ab}	0:52	8:50	1:04
550~699만원	(240)	22:52 ^{cd}	0:45	7:36 ^b	0:31	23:25 ^{ab}	0:50	8:53	0:57
700만원 이상	(337)	23:00 ^d	0:46	7:37 ^b	0:34	23:34 ^b	0:50	8:57	1:08
<i>F</i>		11.48***		3.92**		5.67***		0.91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8〉은 주중, 주말 수면시간을 나타내었는데, 주중 수면시간 평균은 8.77시간(8시간 46분), 주말에는 9.47시간(9시간 28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에 따르면(정익중·박현선·최은영, 2016: 84) 초등

고학년의 경우 9-12시간의 수면시간을 권장하고 있어, 주중 수면시간은 권장 수면 시간에 14분 정도 못 미치며, 주말에는 권장 수면시간의 범위에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말과 주중의 편차는 0.91시간(55분) 정도로 주말에 주중보다 약 1시간 정도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주중에는 더 적게 자지만 주말에는 더 많이 자는 경향을 보였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의 그룹이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그룹보다 수면시간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표 IV-2-8〉 아동의 수면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계(수)	주중		주말		주중-주말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97)	8.77	0.79	9.47	0.95	0.91	0.84
아동 성별							
남	(708)	8.82	0.77	9.33	0.91	0.78	0.75
여	(689)	8.72	0.81	9.62	0.97	1.04	0.91
<i>t</i>		2.51*		-5.81***		-5.88***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8)	8.94 ^b	0.83	9.48	0.92	0.80 ^a	0.76
둘째 이상	(745)	8.66 ^a	0.75	9.46	0.96	0.96 ^{ab}	0.87
외동아	(144)	8.75 ^a	0.81	9.47	1.02	1.02 ^b	0.94
<i>F</i>		20.06***		0.07		6.71**	
모 취업 여부							
취업	(822)	8.74	0.76	9.49	0.95	0.93	0.83
미취업	(543)	8.83	0.84	9.44	0.95	0.87	0.86
<i>t</i>		-1.97*		0.98		1.3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1)	8.82 ^b	0.83	9.55	1.04	1.01 ^a	0.94
400~549만원	(474)	8.83 ^b	0.75	9.46	0.86	0.83 ^a	0.79
550~699만원	(240)	8.73 ^{ab}	0.75	9.46	0.93	0.89 ^a	0.80
700만원 이상	(337)	8.62 ^a	0.78	9.39	0.99	0.94 ^a	0.87
<i>F</i>		5.74***		1.37		3.01*	

주: 1) 9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주중 47.2% 주말 17.7%.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공·사교육 기관 이용시간

〈표 IV-2-9〉는 공·사교육 기관이용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5.18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시간은 평균 2.18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경우 그룹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시간의 경우 소득 550-699만원 이하인 가정의 아동은 평균 2.25시간, 소득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평균 2.31시간으로 소득 399만원 이하인 가정의 아동(평균 1.96시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단위: 시간(명)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95)	5.18	1.23	(63)	2.90	1.75	(1166)	2.18	0.95	(232)	1.93	1.05
아동 성별												
남	(707)	5.19	1.23	(38)	2.97	1.66	(585)	2.15	0.93	(123)	1.99	1.14
여	(688)	5.16	1.23	(25)	2.80	1.91	(581)	2.20	0.98	(109)	1.85	0.94
<i>t</i>		0.38			0.38			-0.81			1.00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7)	5.12	1.19	(19)	2.76	1.77	(447)	2.19	0.98	(88)	1.85	0.94
둘째 이상	(744)	5.21	1.27	(37)	2.85	1.68	(595)	2.14	0.94	(102)	1.96	1.07
외동아	(144)	5.20	1.19	(7)	3.57	2.15	(124)	2.29	0.92	(42)	2.00	1.23
<i>F</i>		0.86			0.58			1.34			0.37	
모 취업 여부												
취업	(821)	5.20	1.24	(40)	2.83	1.84	(684)	2.18	0.98	(125)	1.92	1.08
미취업	(542)	5.14	1.22	(21)	3.00	1.68	(459)	2.17	0.93	(104)	1.95	1.03
<i>t</i>		0.93			-0.36			0.15			-0.1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1)	5.38	1.20	(11)	2.36	1.31	(195)	1.96 ^a	0.95	(32)	1.69	1.11
400-549만원	(472)	5.13	1.24	(23)	3.02	1.81	(396)	2.14 ^{ab}	0.92	(68)	1.97	0.94
550-699만원	(240)	5.16	1.24	(9)	2.22	1.42	(212)	2.25 ^b	0.96	(32)	1.97	1.15
700만원 이상	(337)	5.17	1.25	(16)	3.47	2.07	(295)	2.31 ^b	0.94	(81)	2.04	1.13
<i>F</i>		2.55			1.39			6.23***			0.83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9.86%, 주말 4.51%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3.46%, 주말 16.61%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다) 독서, 숙제 및 학습 관련

아동의 독서시간은 주중 평균 0.76(46분), 주말 평균 1.07(1시간 4분)정도로 조사되었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거의 없었으나, 미취업모 자녀의 경우 주말 독서량이 0.08시간(4.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아동의 책읽기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책읽기 시간					
	주중			주말		
	계(수)	평균	표준편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946)	0.76	0.39	(987)	1.07	0.59
아동 성별						
남	(489)	0.76	0.40	(477)	1.04	0.58
여	(457)	0.77	0.39	(510)	1.10	0.60
<i>t</i>		-0.49			-1.65	
아동 출생순위						
첫째	(372)	0.79	0.40	(383)	1.12	0.61
둘째 이상	(472)	0.75	0.40	(499)	1.04	0.59
외동아	(102)	0.73	0.30	(105)	1.07	0.53
<i>F</i>		1.35			1.96	
모 취업 여부						
취업	(528)	0.75	0.37	(568)	1.04	0.54
미취업	(401)	0.78	0.41	(398)	1.12	0.65
<i>t</i>		-0.95			-2.1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78)	0.76	0.44	(193)	1.06	0.67
400~549만원	(318)	0.73	0.31	(326)	1.02	0.50
550~699만원	(160)	0.81	0.42	(171)	1.12	0.61
700만원 이상	(234)	0.79	0.45	(244)	1.10	0.62
<i>F</i>		1.60			1.48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7.72%, 주말 70.65%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아동의 독서량을 살펴본 결과 주당 1-2권 읽는 아동이 49.29%, 3-4권 읽는 아동이 18.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평균적으로는 주당 2.78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로 보았을 때, 형제가 있는 첫째인 아동이 평균 3.02권, 둘째 이상의 아동이 2.63권, 외동아동의 경우 2.60권으로 형제가 있는 첫째인 아동이 독서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단위: %(명), 권

구분	0권	1~2권	3~4권	5~6권	7~10권	10권 초과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7.86	49.29	18.37	11.12	8.06	5.31	(980)	2.78	1.29
아동 성별									
남	6.79	44.91	19.56	13.17	9.58	5.99	(501)	2.92	1.33
여	8.98	53.86	17.12	8.98	6.47	4.59	(479)	2.64	1.24
$\chi^2(df)/t$			30.88(29)						1.71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8	45.94	17.77	12.69	10.66	7.87	(394)	3.02a	1.39
둘째 이상	8.65	52.95	18.57	9.92	6.33	3.59	(474)	2.63a	1.19
외동아	14.29	45.54	19.64	10.71	6.25	3.57	(112)	2.60a	1.25
$\chi^2(df)/F$			73.06(58)						5.51**
모 취업 여부									
취업	8.30	49.64	19.13	10.65	6.68	5.60	(554)	2.75	1.28
미취업	6.90	48.77	17.98	11.33	10.10	4.93	(406)	2.84	1.30
$\chi^2(df)/t$			30.21(29)						0.21
399만원 이하	9.04	42.94	15.25	16.95	10.17	5.65	(177)	2.93	1.37
400~549만원	6.97	51.82	18.79	9.39	8.79	4.24	(330)	2.74	1.25
550~699만원	10.73	52.54	16.38	9.04	6.21	5.08	(177)	2.63	1.27
700만원 이상	6.67	48.75	22.92	10.00	7.08	4.58	(240)	2.76	1.22
$\chi^2(df)/F$			86.56(87)						0.2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아동들이 숙제 및 학습을 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1.15시간(1시간 9분), 주말 평균 1.48시간(1시간 29분)으로 나타났다. 아동균형생활시간 기준(정익중 외, 2016: 84)에 따르면, 초등 고학년의 권장공부시간은 30~120분으로 나타나, 주중, 주말 모두 권장시간 범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중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지만, 주말의 경우 여학생이 숙제 및 학습시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라 주중 학습시간이 차이가 났는데, 형제가 있는 아동 중 둘째 이상인 아동이 첫째나 외동아동보다 숙제 및 학습시간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모 자녀의 경우 미취업모 자녀의 경우보다 주중/주말 숙제 및 학습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었는데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정에서 월

소득 399만원 이하의 가정보다 주말 학습시간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은 주중 평균 1.20시간, 주말 1.1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이상의 출생순위의 경우 외동아동보다 유의미하게 주중 통신교육의 이용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2〉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아동의 숙제 및 학습시간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01)	1.15	0.58	(1162)	1.48	0.77	(628)	1.20	0.78	(394)	1.19	0.64
아동 성별												
남	(651)	1.14	0.60	(577)	1.44	0.74	(304)	1.20	0.77	(200)	1.19	0.59
여	(650)	1.16	0.57	(585)	1.53	0.80	(324)	1.20	0.80	(194)	1.18	0.69
<i>t</i>		-0.48			-2.02*			0.05			0.15	
아동 출생순위												
첫째	(479)	1.23 ^b	0.64	(435)	1.49	0.77	(229)	1.12 ^{ab}	0.70	(137)	1.09	0.56
둘째 이상	(690)	1.08 ^a	0.52	(606)	1.46	0.76	(331)	1.29 ^b	0.86	(213)	1.24	0.70
외동아	(132)	1.22 ^b	0.64	(121)	1.57	0.84	(68)	1.04 ^a	0.58	(44)	1.20	0.54
<i>F</i>		11.07***			1.01			4.68**			2.34	
모 취업 여부												
취업	(761)	1.12	0.55	(689)	1.45	0.73	(360)	1.18	0.76	(211)	1.25	0.72
미취업	(511)	1.21	0.64	(449)	1.55	0.83	(255)	1.19	0.80	(175)	1.09	0.51
<i>t</i>		-2.86**			-2.16*			-0.06			2.3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39)	1.08	0.54	(226)	1.36 ^a	0.74	(108)	1.05	0.66	(77)	1.10	0.53
400~549만원	(446)	1.16	0.63	(385)	1.50 ^{ab}	0.78	(216)	1.28	0.84	(142)	1.22	0.61
550~699만원	(228)	1.12	0.49	(204)	1.48 ^{ab}	0.68	(107)	1.15	0.71	(68)	1.21	0.71
700만원 이상	(315)	1.21	0.60	(283)	1.59 ^b	0.86	(166)	1.18	0.76	(88)	1.17	0.66
<i>F</i>		2.50			3.87, **			2.26			0.72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3.13%, 주말 83.18%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4.95%, 주말 28.2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미디어 이용

생활시간 조사에서 나타난 초등 6학년 패널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게임 시간을 <표 IV-2-13>에 나타내었다. 그 중, 영상 시청시간은 주중 평균 1.36시간, 주말 평균 2.55시간을 나타내었다. 아동균형 생활시간 기준(정익중 외, 2016: 84)에 따르면, 초등 고학년의 권장 미디어 시간은 2시간 이하로, 주중의 경우 권장범위에 속하나, 주말의 경우 권장범위를 33분 정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 미디어 사용 시간의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여학생이 주중, 주말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영상 시청시간을 나타내었다. 또한, 주중의 경우는 다른 그룹의 차이는 없었으나, 주말의 경우 둘째 이상인 아동이 외동아동이나 첫째인 아동보다,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보다,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의 자녀가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의 자녀보다 영상시청 시간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게임시간의 경우 주중 평균 1.30시간, 주말 평균 2.05시간을 나타내었는데, 주중, 주말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게임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임시간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중, 주말 모두 둘째 이상 아동이 외동아동이나 첫째인 아동보다,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V-2-13>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게임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영상시청 시간						게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68)	1.36	0.74	(1362)	2.55	1.27	(1006)	1.30	0.81	(1183)	2.05	1.27
아동 성별												
남	(634)	1.31	0.68	(685)	2.44	1.17	(571)	1.41	0.85	(652)	2.34	1.38
여	(634)	1.41	0.79	(677)	2.67	1.36	(435)	1.14	0.73	(531)	1.69	1.01
<i>t</i>			-2.65**			-3.28**			5.32***			9.14***
아동 출생순위												
첫째	(456)	1.30 ^a	0.67	(495)	2.50 ^{ab}	1.24	(345)	1.22	0.72	(424)	1.92 ^a	1.21
둘째 이상	(687)	1.42 ^a	0.78	(727)	2.64 ^b	1.31	(560)	1.35	0.86	(643)	2.15 ^a	1.32
외동아	(125)	1.27 ^a	0.75	(140)	2.29 ^a	1.20	(101)	1.24	0.83	(116)	1.94 ^a	1.15
<i>F</i>			4.58*			5.30**			3.20*			4.92**

구분	영상시청 시간						게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759)	1.38	0.75	(804)	2.62	1.26	(597)	1.34	0.81	(698)	2.13	1.35
미취업	(481)	1.31	0.70	(527)	2.44	1.29	(385)	1.20	0.78	(459)	1.90	1.10
<i>t</i>		1.66			2.52*			2.79**			3.0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55)	1.48 ^b	0.80	(267)	2.73 ^b	1.4	(212)	1.41	0.95	(241)	2.14	1.27
400-549만원	(430)	1.38 ^{ab}	0.73	(458)	2.57 ^{ab}	1.31	(347)	1.31	0.81	(407)	2.10	1.28
550-699만원	(214)	1.34 ^{ab}	0.75	(237)	2.58 ^{ab}	1.14	(168)	1.28	0.80	(200)	1.97	1.35
700만원 이상	(299)	1.26 ^a	0.70	(327)	2.40 ^a	1.17	(222)	1.21	0.69	(273)	1.95	1.18
<i>F</i>		4.28**			3.43*			2.27			1.46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영상 시청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0.77%, 주말 97.4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게임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2.01%, 주말 84.68%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표 IV-2-14>에는 아동의 휴대폰 소지율과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 및 시간을 나타내었다. 미디어 이용시간은 13차년도 조사결과 아동의 휴대폰 소지율이 94.34%로 나타났고, 이용시간은 평균 2.8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에 있어 그룹별 유의미한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출생순위에서 둘째 이상의 아동이 형제가 있는 첫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스마트폰 및 PC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휴대폰 소지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 및 시간					
	소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있음	없음	계(수)	미이용	이용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95)	94.34	5.66	(1377)	0.29	99.71	(1373)	2.80	1.54
아동 성별									
남	(707)	92.79	7.21	(700)	0.14	99.86	(699)	2.85	1.51
여	(688)	95.93	4.07	(677)	0.44	99.56	(674)	2.76	1.58
$\chi^2(df)/t$		6.45(1)*			1.07(1)			1.05	



구분	휴대폰 소지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 및 시간					
	소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있음	없음	계(수)	미이용	이용	수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8)	93.70	6.30	(506)	0.40	99.60	(504)	2.57 ^a	1.46
둘째 이상	(743)	94.62	5.38	(729)	0.00	100.00	(729)	2.99 ^b	1.58
외동아	(144)	95.14	4.86	(142)	1.41	98.59	(140)	2.69 ^{ab}	1.49
$\chi^2(df)/F$		0.67(2)			8.44(2)*			11.68***	
모 취업 여부									
취업	(821)	95.37	4.63	(808)	0.12	99.88	(807)	2.84	1.51
미취업	(542)	92.62	7.38	(538)	0.56	99.44	(535)	2.74	1.60
$\chi^2(df)/t$		4.58(1)*			2.05(1)			1.0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1)	93.73	6.27	(269)	0.37	99.63	(268)	2.74	1.57
400~549만원	(474)	94.51	5.49	(466)	0.43	99.57	(464)	2.88	1.56
550~699만원	(238)	95.38	4.62	(239)	0.00	100.00	(239)	2.65	1.29
700만원 이상	(337)	94.07	5.93	(333)	0.00	100.00	(333)	2.82	1.60
$\chi^2(df)/F$		0.75(3)			2.37(3)			1.30	

주: 1) 스마트폰, PC 이용시간(1일 평균)은,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아동 98.28%에 해당하는 수치임.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표 IV-2-15〉는 스마트폰 및 PC 이용을 1)학습, 2)정보검색, 3)게임, 4)엔터테인먼트, 5)SNS 이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를 이용하는 정도를 1점(전혀 사용 안함)~5점(매일 사용함)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조사 결과, 스마트폰 및 PC 이용을 사용하는 정도로 엔터테인먼트가 3.20점으로 가장 높은 이용정도를 나타냈고, 게임 (2.95점), SNS(2.86점)의 순서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PC 사용 정도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정보검색, 엔터테인먼트, SNS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이용 정도를 나타냈고, 남학생의 경우 게임에서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이용 정도를 보였다.

〈표 IV-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수)	학습		(수)	정보 검색		(수)	게임		(수)	엔터테인먼트		(수)	SNS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82)	2.72	1.04	(1381)	2.78	0.85	(1383)	2.95	1.05	(1376)	3.20	0.90	(1376)	2.86	1.08
아동 성별															
남	(698)	2.67	1.05	(699)	2.73	0.85	(699)	3.30	0.89	(697)	3.10	0.94	(700)	2.64	1.08
여	(684)	2.77	1.03	(682)	2.83	0.85	(684)	2.58	1.08	(679)	3.30	0.85	(676)	3.10	1.03
<i>t</i>		-1.73			-2.16*			13.51***			-3.99***			-8.11***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4)	2.72	1.06	(503)	2.77	0.84	(504)	2.81 ^a	1.07	(502)	3.04 ^a	0.94	(503)	2.69 ^a	1.09
둘째 이상	(736)	2.69	1.03	(737)	2.76	0.87	(737)	3.05 ^b	1.02	(733)	3.31 ^b	0.86	(731)	2.98 ^b	1.06
외동아	(142)	2.90	1.02	(141)	2.90	0.83	(142)	2.87 ^{ab}	1.11	(141)	3.23 ^b	0.88	(142)	2.84 ^{ab}	1.10
<i>F</i>		2.55			1.61			8.77***			13.79***			11.17***	
모 취업 여부															
취업	(813)	2.70	1.03	(812)	2.81	0.85	(817)	2.99	1.05	(808)	3.27	0.86	(811)	3.00	1.03
미취업	(538)	2.76	1.05	(537)	2.75	0.85	(535)	2.87	1.06	(536)	3.08	0.96	(534)	2.63	1.13
<i>t</i>		-0.97			1.37			2.07*			3.79***			6.1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68)	2.60 ^a	1.05	(269)	2.77	0.85	(268)	3.07 ^b	1.03	(267)	3.14	0.91	(266)	2.88	1.05
400-549만원	(470)	2.66 ^b	1.07	(467)	2.78	0.90	(467)	2.99 ^{ab}	1.03	(468)	3.24	0.89	(468)	2.94	1.05
550-699만원	(237)	2.76 ^b	1.02	(236)	2.82	0.81	(238)	2.90 ^{ab}	1.04	(235)	3.20	0.93	(235)	2.87	1.10
700만원 이상	(333)	2.88 ^a	1.02	(335)	2.78	0.85	(336)	2.78 ^a	1.09	(333)	3.17	0.89	(335)	2.77	1.11
<i>F</i>		3.30*			0.18			4.48**			0.82			1.72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사용 안함~4.매일 사용함).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이 38.19%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이 42.86%가 미디어 기기 중독 집단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출생순위로는 외동아동의 경우 형제가 있는 첫째아동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미디어기기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93)	52.40	9.40	38.19	27.28	6.54
아동 성별						
남	(707)	47.10	10.04	42.86	28.14	6.70
여	(686)	57.87	8.75	33.38	26.39	6.25
			16.52(2)***		5.05***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6)	55.53	11.66	32.81	26.51 ^a	6.37
둘째 이상	(745)	51.54	7.38	41.07	27.68 ^{ab}	6.61
외동아	(142)	45.77	11.97	42.25	27.87 ^b	6.60
			15.29(4)**		5.48**	
모 취업 여부						
취업	(821)	50.91	9.01	40.07	27.68	6.67
미취업	(540)	54.63	10.19	35.19	26.71	6.35
			3.37(2)		2.6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0)	56.67	5.56	37.78	27.40	6.98
400~549만원	(472)	48.73	12.29	38.98	27.60	6.41
550~699만원	(240)	50.83	9.17	40.00	27.01	5.88
700만원 이상	(337)	57.27	8.31	34.42	26.80	6.83
			14.12(6)*		1.12	

주: 1) 10번, 11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27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 12점 이하, 3요인 : 10점 이하, 4요인 : 9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8~29점,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1요인 : 13점 이상, 3요인 : 11점 이상, 4요인 : 10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 14점 이상, 3요인 : 12점 이상, 4요인 : 11점 이상)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보호자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마) 여가 및 교제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시간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 생활에 참여하는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8.08%, 주말 64.7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패널아동은 주중에는 평균 0.95시간(57분) 동안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하고, 주말에는 평균 1.77시간(1시간 46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주중과 주말 모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주중에 남학생은 평균 약 1시간하는데 반해 여학생은 평균 0.86시간(51.6분)하고, 주말에는 그 차이가 더 커서 남학생은 평균 1.90시간(1시간 54분), 여학생은 1.62시간(1시간 37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동호회 등의 취미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3.69%이고 주말은 36.15%이었으며,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시간과 동일하게,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동호회 등 취미 생활에 주중에는 평균 0.86시간(51.6분), 주말에는 평균 1.32시간(1시간 19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7〉 아동의 스포츠, 집 밖 레저 활동 및 취미 생활

단위: 시간(명)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 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32)	0.95	0.56	(904)	1.77	1.06	(331)	0.86	0.41	(505)	1.32	0.72	
아동 성별													
남	(304)	1.01	0.63	(489)	1.90	1.12	(134)	0.88	0.42	(238)	1.34	0.77	
여	(228)	0.86	0.45	(415)	1.62	0.97	(197)	0.85	0.41	(267)	1.31	0.68	
<i>t</i>		3.27**			3.99***			0.76			0.42		
아동 출생순위													
첫째	(192)	0.96	0.66	(356)	1.76	1.03	(128)	0.85	0.35	(202)	1.35	0.75	
둘째 이상	(277)	0.95	0.52	(454)	1.80	1.11	(165)	0.88	0.48	(243)	1.27	0.69	
외동아	(63)	0.88	0.37	(94)	1.62	0.96	(38)	0.83	0.31	(60)	1.46	0.77	
<i>F</i>		0.49			1.15			0.28			1.84		
모 취업 여부													
취업	(312)	0.95	0.57	(528)	1.82	1.09	(194)	0.88	0.41	(282)	1.30	0.67	
미취업	(204)	0.94	0.57	(353)	1.71	1.04	(131)	0.84	0.43	(220)	1.35	0.79	
<i>t</i>		0.13			1.53			0.86			-0.6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3)	0.99	0.64	(168)	1.76	1.07	(59)	0.78	0.34	(75)	1.23	0.56	
400~549만원	(170)	0.97	0.65	(294)	1.82	1.07	(107)	0.88	0.40	(176)	1.32	0.75	
550~699만원	(92)	0.90	0.44	(154)	1.84	1.16	(58)	0.82	0.45	(99)	1.28	0.59	
700만원 이상	(134)	0.95	0.48	(235)	1.69	0.97	(88)	0.90	0.40	(127)	1.43	0.87	
<i>F</i>		0.48			0.94			1.38			1.43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8.08%, 주말 64.7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취미 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3.69%, 주말 36.15%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친인척, 친구 등과 놀거나 사교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주중 61.99%, 주말 77.88%이고, 주중에는 0.88시간(52.8분), 주말에는 1.66시간(1시간 39.6분) 정도 친인척, 친구 등과 놀거나 사교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패널아동 1,397명 중에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수는 주중 88명, 주말 305명으로 각각 6.30%, 21.83%를 차지한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시간은 주중에는 0.89시간(53.4분), 주말에는 1.74(1시간 44.4분)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표 IV-2-18〉 아동의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등 사교 활동, 종교 활동

단위: 시간(명)

구분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사교 활동						종교 활동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866)	0.88	0.48	(1088)	1.66	1.16	(88)	0.89	0.40	(305)	1.74	1.02
아동 성별												
남	(391)	0.89	0.51	(525)	1.67	1.21	(41)	0.87	0.32	(160)	1.64	0.91
여	(475)	0.87	0.45	(563)	1.64	1.10	(47)	0.90	0.46	(145)	1.85	1.13
<i>t</i>		0.49			0.39			-0.45			-1.78	
아동 출생순위												
첫째	(285)	0.88	0.51	(388)	1.70	1.19	(27)	0.87	0.53	(107)	1.82	0.97
둘째 이상	(495)	0.90	0.48	(584)	1.64	1.14	(52)	0.88	0.31	(169)	1.70	1.07
외동아	(86)	0.80	0.32	(116)	1.60	1.13	(9)	1.00	0.43	(29)	1.71	0.94
<i>F</i>		1.64			0.50			0.40			0.44	
모 취업 여부												
취업	(537)	0.90	0.51	(655)	1.66	1.14	(54)	0.84	0.32	(168)	1.70	1.00
미취업	(305)	0.85	0.43	(404)	1.65	1.19	(32)	0.95	0.51	(129)	1.78	1.03
<i>t</i>		1.30			0.10			-1.23			-0.6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73)	0.86 ^a	0.46	(208)	1.54	1.06	(22)	0.89	0.51	(74)	1.92	1.03
400~549만원	(295)	0.94 ^a	0.50	(372)	1.73	1.19	(31)	0.87	0.41	(103)	1.71	1.13
550~699만원	(149)	0.81 ^a	0.40	(197)	1.57	1.15	(12)	0.88	0.31	(48)	1.71	0.92
700만원 이상	(208)	0.89 ^a	0.52	(260)	1.74	1.16	(15)	0.87	0.23	(63)	1.67	0.98
<i>F</i>		2.64*			2.21			0.01			0.86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사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1.99%, 주말 77.88%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종교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30%, 주말 21.8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보호자의 응답임.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에서 신체 활동 한 날을 조사한 결과,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1.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일 이상' 한다고 아동은 전체의 16.25%였다. 실내 신체활동 일수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남학생은 36.44%, 여학생은 46.73%였고, 반대로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경우에도 남학생은 19.77%, 여학생은 12.63%로 대체적으로 남학생의 실내 신체활동 일수가 여학생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2-19〉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에서 신체활동 한 일수(7일간)

단위: %(명)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전체	41.52	14.75	12.38	9.38	5.73	16.25	100.0(1397)
아동 성별							
남	36.44	13.98	13.70	9.75	6.36	19.77	100.0(708)
여	46.73	15.53	11.03	9.00	5.08	12.63	100.0(689)
$\chi^2(df)$			23.67(5)***				
아동 출생순위							
첫째	39.17	14.96	12.01	9.65	6.30	17.91	100.0(508)
둘째 이상	44.03	14.36	11.68	8.86	5.50	15.57	100.0(745)
외동아	36.81	15.97	17.36	11.11	4.86	13.89	100.0(144)
$\chi^2(df)$			8.88(10)				
모 취업 여부							
취업	41.85	13.63	11.92	10.10	5.72	16.79	100.0(822)
미취업	40.52	16.39	13.26	8.84	5.89	15.10	100.0(543)
$\chi^2(df)$			3.44(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8.01	13.65	14.39	8.86	5.90	19.19	100.0(271)
400~549만원	39.87	16.24	12.03	8.86	5.49	17.51	100.0(474)
550~699만원	44.58	11.25	13.33	11.25	4.17	15.42	100.0(240)
700만원 이상	44.51	16.02	11.28	8.90	5.93	13.35	100.0(337)
$\chi^2(df)$			12.93(15)				

주: 1) 신체 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 활동(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패널아동이 일주일 기준으로 한 번에 30분 이상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한 적이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8.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의 18.32%, 2일 이상은 17.39%였다. 실외 신체활동 일수는 실내 신체활동과 마찬가지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남학생은 31.64%, 여학생은 46.01%였고, 반대로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하는 경우에도 남학생은 13.84%에 반해, 여학생은 5.66%로 조사되었다. 즉, 실내외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일수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표 IV-2-20〉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외에서 신체활동 한 일수(7일간)

구분	단위: %(명)						계(수)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전체	38.73	18.32	17.39	9.59	6.16	9.81	100.0(1397)
아동 성별							
남	31.64	16.81	19.07	10.88	7.77	13.84	100.0(708)
여	46.01	19.88	15.67	8.27	4.50	5.66	100.0(689)
$\chi^2(df)$			55.10(5)***				
아동 출생순위							
첫째	36.61	20.08	17.91	8.66	7.09	9.65	100.0(508)
둘째 이상	41.48	16.78	16.51	9.80	6.04	9.40	100.0(745)
외동아	31.94	20.14	20.14	11.81	3.47	12.50	100.0(144)
$\chi^2(df)$			11.72(10)				
모 취업 여부							
취업	37.71	16.79	18.73	11.07	6.45	9.25	100.0(822)
미취업	39.96	20.07	16.21	7.37	5.89	10.50	100.0(543)
$\chi^2(df)$			8.92(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0.22	16.61	19.56	7.01	7.38	9.23	100.0(271)
400~549만원	39.24	16.67	17.51	9.70	5.27	11.60	100.0(474)
550~699만원	35.42	17.92	17.08	14.17	6.25	9.17	100.0(240)
700만원 이상	37.98	22.55	17.51	7.72	6.82	7.42	100.0(337)
$\chi^2(df)$			19.55(15)				

주: 1) 신체 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 활동(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다음은 초등 6학년 패널아동의 취미생활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표 IV-2-21〉에 나타내었다. 전체 패널아동의 46.96%는 악기연주를 취미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의 60.38%, 남학생의 33.90%가 악기연주를 한다고 보고하여, 여학

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악기연주를 취미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의 경우는 전체의 60.84%가 취미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악기연주와는 반대로 남학생이 취미로 운동하는 비율(남 72.74%, 여 48.62%)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IV-2-21〉 아동의 취미(악기, 운동)

단위: %(명)

구분	계(수)	악기		운동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00.0(1397)	46.96	53.04	60.84	39.16
아동 성별					
남	100.0(708)	33.90	66.10	72.74	27.26
여	100.0(689)	60.38	39.62	48.62	51.38
$\chi^2(df)$		98.30(1)***		85.26(1)***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508)	51.38	48.62	62.60	37.40
둘째 이상	100.0(745)	44.30	55.70	58.12	41.88
외동아	100.0(144)	45.14	54.86	68.75	31.25
$\chi^2(df)$		6.30(2)*		6.75(2)*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22)	45.62	54.38	60.58	39.42
미취업	100.0(543)	49.36	50.64	61.88	38.12
$\chi^2(df)$		1.83(1)		0.23(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71)	43.17	56.83	58.30	41.70
400~549만원	100.0(474)	46.20	53.80	60.97	39.03
550~699만원	100.0(240)	49.17	50.83	59.17	40.83
700만원 이상	100.0(337)	49.26	50.74	63.80	36.20
$\chi^2(df)$		2.85(3)		2.26(3)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피아노가 72.71%로 가장 많았고, 바이올린과 오카리나가 14.79%로 그 뒤를 이었다. 우쿨렐레도 12.96%로 비교적 많이 다루는 악기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피아노, 바이올린, 우쿨렐레, 플룻 등을 다루는 비율이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첼로, 클라리넷, 드럼, 그 외 악기를 다루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2〉 아동의 취미(악기 종류)(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우쿨렐레	클라리넷	플룻	오카리나	드럼	가야금	그외 악기
전체	(656)	72.71	14.79	1.52	12.96	1.68	7.62	14.79	4.42	1.07	20.73
아동 성별											
남	(240)	63.33	10.83	2.50	8.75	2.50	4.17	15.42	8.33	0.00	29.17
여	(416)	78.13	17.07	0.96	15.38	1.20	9.62	14.42	2.16	1.68	15.87

주: 보호자의 응답임.

취미로 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축구(26.24%), 태권도(21.88%), 배드민턴(20.59%), 농구(12.59%), 수영(11.65%)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즐겨하는 운동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농구, 야구, 수영 순이었고, 여학생은 기타 운동, 배드민턴, 태권도, 무용, 수영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3〉 취미(운동 종류)(다중응답)

단위: %(명)

구분	(수)	축구	농구	야구	탁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수영	스케이트	스키	체조	무용	태권도	기타
전체	(850)	26.24	12.59	9.18	4.35	1.65	1.41	20.59	1.18	11.65	4.12	3.06	0.94	5.76	21.88	38.59
아동 성별																
남	(515)	40.39	18.25	14.95	6.21	0.97	1.17	19.03	1.75	12.43	3.30	3.30	0.78	0.00	25.05	31.46
여	(335)	4.48	3.88	0.30	1.49	2.69	1.79	22.99	0.30	10.45	5.37	2.69	1.19	14.63	17.01	49.55

주: 보호자의 응답임.

바) 기본생활 및 가사 돕기

일주일 중에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에 소요하는 시간은 주중에는 평균 1.47시간(1시간 28.2분), 주말에는 평균 1.85시간(1시간 51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생활 시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은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에 대해서는 주중에는 평균 0.61시간(36.6분), 주말에는 평균 0.83시간(49.8분)을 사용하는데, 주말의 시간 사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0.07시간(4.2분) 더 할애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표 IV-2-24〉 아동의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						
	(수)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97)	1.47	0.68	1.85	0.79	(688)	0.61	0.25	(917)	0.83	0.38
아동 성별											
남	(708)	1.41	0.65	1.80	0.78	(338)	0.60	0.25	(441)	0.80	0.32
여	(689)	1.54	0.70	1.90	0.79	(350)	0.62	0.24	(476)	0.87	0.42
<i>t</i>		-3.46***		-2.41*			-1.19			-2.84**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8)	1.44	0.64	1.87	0.79	(246)	0.59	0.25	(342)	0.79 ^a	0.37
둘째 이상	(745)	1.50	0.71	1.84	0.79	(388)	0.63	0.24	(499)	0.86 ^b	0.39
외동아	(144)	1.48	0.68	1.84	0.78	(54)	0.62	0.22	(76)	0.86 ^b	0.34
<i>F</i>		1.09		0.13			1.62			4.56*	
모 취업 여부											
취업	(822)	1.46	0.67	1.84	0.79	(406)	0.61	0.24	(544)	0.84	0.39
미취업	(543)	1.50	0.71	1.87	0.79	(264)	0.61	0.25	(350)	0.82	0.36
<i>t</i>		-1.06		-0.49			-0.08			0.9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1)	1.51 ^a	0.73	1.86	0.77	(161)	0.63	0.24	(194)	0.85	0.40
400~549만원	(474)	1.40 ^a	0.62	1.79	0.78	(235)	0.59	0.21	(329)	0.84	0.37
550~699만원	(240)	1.51 ^a	0.65	1.89	0.79	(108)	0.62	0.25	(154)	0.81	0.38
700만원 이상	(337)	1.55 ^a	0.72	1.93	0.80	(145)	0.63	0.30	(193)	0.82	0.37
<i>F</i>		3.82**		2.15			0.85			0.45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음식 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가 포함된 경우는 주중 49.25%, 주말 65.64%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13차년도 조사에서 초등 6학년이 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가사참여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사참여 여부는 의생활 참여, 식생활 참여, 주생활 참여, 가족돌봄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영역에 참여한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패널아동의 가사 참여도는 4점 만점에서 의생활 부분은 2.35점, 식생활은 2.68점, 주생활 2.35점, 돌봄 관련 가사일은 2.57점으로 네 가지 영역 모두 종종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비교적 식생활 관련 가사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영역에서 두드러졌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돌봄 영역의 가사일에서는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첫째아동이 둘째 이상과 외동아동보다 돌봄 영역의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집단 차이는 의생활 영역의 가사 참여에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의 패널아동이 미취업 가구의 패널아동보다 의생활 영역의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25〉 아동의 가사참여 여부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돌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57)	2.35	0.80	2.68	0.82	2.35	0.78	2.57	0.81
아동 성별									
남	(689)	2.27	0.81	2.61	0.84	2.29	0.81	2.54	0.82
여	(668)	2.42	0.78	2.75	0.79	2.41	0.74	2.60	0.80
<i>t</i>		-3.48***		-3.18**		-2.88**		-1.47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2.34	0.82	2.71	0.81	2.40	0.81	2.69 ^b	0.83
둘째 이상	(719)	2.34	0.77	2.67	0.79	2.33	0.76	2.50 ^a	0.76
외동아	(141)	2.38	0.89	2.65	0.93	2.26	0.74	2.45 ^a	0.91
<i>F</i>		0.16		0.42		2.24		9.35***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2.39	0.81	2.69	0.82	2.37	0.78	2.56	0.80
미취업	(520)	2.28	0.78	2.66	0.81	2.33	0.77	2.57	0.82
<i>t</i>		2.64**		0.80		0.77		-0.2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2.25	0.77	2.66	0.83	2.28	0.79	2.55	0.86
400~549만원	(458)	2.35	0.78	2.69	0.84	2.35	0.80	2.59	0.80
550~699만원	(235)	2.33	0.84	2.66	0.84	2.38	0.75	2.57	0.85
700만원 이상	(327)	2.41	0.81	2.68	0.77	2.38	0.76	2.53	0.76
<i>F</i>		1.88		0.11		0.94		0.4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하지 않음~4. 매일 함).

3) 각 하위영역별 해당 가사일

-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 하기, 전구 갈기) 등
-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 $p < .01$, *** $p < .001$.

3) 외출/활동 참여 빈도

패널아동의 외출, 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를 1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장보기 및 쇼핑 활동은 전체의 88.55%, 친인척 방문 활동은 95.2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활동별 연간 참여 횟수를 분석해보니 장보기 및 쇼핑 활동은 평균 32.76회 참여하였고, 전년도의 36.42회(김은설 외, 2020: 95)에 비해 줄어든 수치였다. 친인척 방문 활동 역시 연간 평균적으로 20.10회 정도 방문한다고 하였는데, 전년도 21.07회(김은설 외, 2020: 95)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장보기 및 쇼핑 활동은 여학생의 참여율이 남학생보다 확연히 높았는데, 여학생의 92.89%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84.32%였고, 연간 참여 횟수도 여학생은 평균 37.97회, 남학생은 27.68회로 차이가 있었다.

〈표 IV-2-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397)	88.55	11.45	32.76	35.73	95.20	4.80	20.10	32.55
아동 성별									
남	100.0(708)	84.32	15.68	27.68	32.40	94.92	5.08	19.22	30.52
여	100.0(689)	92.89	7.11	37.97	38.17	95.50	4.50	21.00	34.51
	$\chi^2(df)/t$	25.27(1)***		1.41		0.26(1)		0.53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508)	91.14	8.86	32.63	32.68	96.26	3.74	21.87	31.29
둘째 이상	100.0(745)	86.58	13.42	32.70	37.99	93.96	6.04	17.57	29.65
외동아	100.0(144)	89.58	10.42	33.51	34.13	97.92	2.08	26.97	46.96
	$\chi^2(df)/F$	6.38(2)*		0.34		6.09(2)*		2.72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22)	88.20	11.80	32.33	33.86	95.50	4.50	20.01	31.65
미취업	100.0(543)	88.95	11.05	33.46	38.52	95.21	4.79	19.86	31.73
	$\chi^2(df)/t$	0.18(1)		-1.44		0.06(1)		-2.0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71)	90.41	9.59	34.41	36.33	93.36	6.64	21.08	38.98
400~549만원	100.0(474)	86.92	13.08	33.66	38.47	94.09	5.91	20.68	33.15
550~699만원	100.0(240)	88.33	11.67	31.81	33.93	97.08	2.92	18.60	21.40
700만원 이상	100.0(337)	88.72	11.28	30.26	30.91	97.63	2.37	20.09	33.35
	$\chi^2(df)/F$	2.10(3)		0.63		9.75(3)*		0.57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당일여행과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연수에 대한 참여 빈도를 1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V-2-27>과 같다. 당일여행에 참여하는 패널아동은 전체의 92.84%, 연간 14.97회 참여, 1박 이상의 국내여행에 참여하는 패널아동은 80.31%, 연간 3.49회 정도 여행가는 것으로 보고했고, 해외여행 및 연수는 패널아동의 14.6%가 참여하고 연간 평균 0.34회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차년도 여행 활동은 전년도 조사에서 67.4%가 참여하고 연간 0.49회 참여했던 것(김은설 외, 2020: 96)에 비해 모든 종류의 여행 참여 여부와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단위의 나들이, 여행 활동이 현저히 감소한 결과로 추정된다.

패널가구의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외동아동 혹은 첫째아동 집단의 경우가 둘째 이상인 집단보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행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연수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397)	92.84	7.16	14.97	16.20	80.31	19.69	3.49	6.39	14.60	85.4	0.34	4.28
아동 성별													
남	100.0(708)	93.79	6.21	14.15	15.98	80.23	19.77	3.57	7.51	13.84	86.16	0.45	5.73
여	100.0(689)	91.87	8.13	15.83	16.40	80.41	19.59	3.41	4.99	15.38	84.62	0.23	1.87
$\chi^2(df)/t$		1.92(1)		0.75		0.01(1)		-0.49		0.67(1)		1.52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508)	95.08	4.92	17.72	15.39	84.45	15.55	4.26	6.02	16.14	83.86	0.21	0.69
둘째 이상	100.0(745)	90.74	9.26	12.78	15.72	76.64	23.36	3.01	6.89	11.81	88.19	0.44	5.83
외동아	100.0(144)	95.83	4.17	16.63	19.57	84.72	15.28	3.27	4.50	23.61	76.39	0.28	0.59
$\chi^2(df)/F$		10.72(2)**		0.44		13.61(2)**		0.62		14.99(2)***		1.62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22)	92.82	7.18	14.76	15.55	80.66	19.34	3.40	5.54	14.11	85.89	0.35	5.05
미취업	100.0(543)	93.19	6.81	15.59	17.33	80.29	19.71	3.65	7.54	15.29	84.71	0.34	2.93
$\chi^2(df)/t$		0.07(1)		-0.04		0.03(1)		-1.16		0.36(1)		0.8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71)	90.41	9.59	13.80 ^a	16.61	69.37	30.63	2.56 ^a	5.39	8.86	91.14	0.09	0.28
400-549만원	100.0(474)	91.77	8.23	14.53 ^a	16.91	78.48	21.52	3.25 ^b	5.25	11.18	88.82	0.15	0.66
550-699만원	100.0(240)	95.83	4.17	14.71 ^a	14.50	83.75	16.25	4.13 ^b	7.86	14.17	85.83	0.96	9.78
700만원 이상	100.0(337)	94.66	5.34	16.53 ^a	16.31	89.02	10.98	4.10 ^b	7.55	24.04	75.96	0.42	2.66
$\chi^2(df)/F$		8.24(3)*		2.62*		39.39(3)***		7.33***		35.86(3)***		1.37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지난 1년간 참여한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에 참여한다는 비율은 57.91%였고, 연간 참여횟수는 평균 3.30회였다.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하는 비율이 27.42%고 연간 평균 12.07회였다.

〈표 IV-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문화체험,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397)	57.91	42.09	3.30	5.92	27.42	72.58	12.07	25.83
아동 성별									
남	100.0(708)	56.78	43.22	3.05	5.68	28.25	71.75	12.15	25.55
여	100.0(689)	59.07	40.93	3.55	6.16	26.56	73.44	11.98	26.13
	$\chi^2(df)/t$	0.75(1)		-1.34		0.50(1)		-0.88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508)	63.19	36.81	3.49	5.77	27.56	72.44	11.19	23.22
둘째 이상	100.0(745)	52.08	47.92	3.02	5.69	27.79	72.21	12.61	27.05
외동아	100.0(144)	69.44	30.56	4.06	7.42	25.00	75.00	12.33	28.05
	$\chi^2(df)/F$	24.06(2)***		0.25		0.48(2)		2.40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22)	55.96	44.04	3.14	5.71	25.79	74.21	10.75	24.27
미취업	100.0(543)	60.59	39.41	3.42	6.11	29.47	70.53	14.00	28.18
	$\chi^2(df)/t$	2.87(1)		0.23		2.23(1)		1.6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71)	54.24	45.76	2.49	4.73	31.73	68.27	16.07	31.66
400~549만원	100.0(474)	55.06	44.94	3.30	5.85	24.89	75.11	11.73	25.52
550~699만원	100.0(240)	66.25	33.75	3.89	6.14	27.50	72.50	11.16	22.51
700만원 이상	100.0(337)	60.53	39.47	3.78	7.00	28.19	71.81	10.09	21.79
	$\chi^2(df)/F$	10.81(3)*		1.76		4.11(3)		1.12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패널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일상생활 내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와 연간 참여 횟수를 알아보았다. 봉사활동은 전체의 8.73%에 해당하는 아동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은 연간 평균 0.8회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아리활동도 10.81%의 아동만이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활동 횟수는 연간 평균 2.54회 활동한다고 하였다. 남녀 차이의 경우 여학생의 동아리활동 참여가 남학생 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397)	8.73	91.27	0.80	5.58	10.81	89.19	2.54	10.48
아동 성별									
남	100.0(708)	8.47	91.53	0.81	5.67	8.62	91.38	2.10	9.56
여	100.0(689)	9.00	91.00	0.78	5.49	13.06	86.94	3.00	11.34
	$\chi^2(df)/t$	0.12(1)		-1.16		7.16(1)**		1.39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508)	8.66	91.34	0.82	5.90	12.80	87.20	3.40	12.39
둘째 이상	100.0(745)	8.59	91.41	0.86	5.83	8.99	91.01	1.78	8.27
외동아	100.0(144)	9.72	90.28	0.40	1.79	13.19	86.81	3.49	12.87
	$\chi^2(df)/F$	0.20(2)		0.29		5.48(2)		0.33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22)	7.66	92.34	0.61	4.14	9.73	90.27	2.39	10.19
미취업	100.0(543)	10.50	89.50	1.13	7.35	12.89	87.11	2.93	11.18
	$\chi^2(df)/t$	3.27(1)		0.65		3.34(1)		-0.1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71)	10.70	89.30	1.39 ^a	8.32	11.44	88.56	2.72	11.64
400~549만원	100.0(474)	7.17	92.83	0.74 ^a	4.78	10.55	89.45	2.53	10.85
550~699만원	100.0(240)	10.83	89.17	0.43 ^a	2.13	10.00	90.00	2.22	9.19
700만원 이상	100.0(337)	8.61	91.39	0.79 ^a	6.13	10.98	89.02	2.48	9.70
	$\chi^2(df)/F$	3.96(3)		2.79*		0.31(3)		1.08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4) 컴퓨터 사용 능력

초등 6학년 시기 패널아동의 컴퓨터 사용 능력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알

아보았다.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능력과 유선/무선인터넷 연결 능력은 각각 3.20점, 3.07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능력 3.00점, 외장기기 연결 능력 2.84점으로 모두 보통 내외 수준이었다. 해당 도구는 격년으로 조사하므로 1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11차년도 조사에서 보다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향상된 결과이다(11차년도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능력 2.52점, 유선/무선인터넷 연결 능력 2.42점,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능력 2.07점, 외장기기 연결 능력 2.06점, 김은설 외, 2019: 107). 아동의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능력과 유선/무선인터넷 연결 능력에서 외동아동이 둘째 이상 아동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장기기 연결 능력은 소득수준 700만원 이상 가구의 아동이 399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 보다 점수가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IV-2-30〉 컴퓨터 사용 능력 1

단위: 점(명)

구분	계(수)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능력		유선/무선인터넷 연결 능력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능력		외장기기 연결 능력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57)	3.20	1.32	3.07	1.34	3.00	1.34	2.84	1.32
아동 성별									
남	(708)	3.42	1.28	3.29	1.30	3.17	1.32	3.01	1.33
여	(689)	2.98	1.33	2.84	1.34	2.82	1.34	2.67	1.30
<i>t</i>		6.24***		6.27***		4.81***		4.72***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8)	3.21 ^{ab}	1.31	3.11 ^{ab}	1.33	3.02	1.34	2.80	1.32
둘째 이상	(745)	3.15 ^a	1.32	2.99 ^a	1.34	2.95	1.32	2.82	1.31
외동아	(144)	3.45 ^b	1.36	3.32 ^b	1.39	3.15	1.45	3.07	1.41
<i>F</i>		3.06*		3.90*		1.38		2.42	
모 취업 여부									
취업	(822)	3.22	1.34	3.08	1.35	3.00	1.34	2.83	1.33
미취업	(543)	3.21	1.30	3.08	1.34	3.03	1.33	2.88	1.32
<i>t</i>		0.17		0.05		-0.40		-0.69	

구분	계(수)	프로그램 설치/삭제/업데이트 능력		유선/무선인터넷 연결 능력		웹브라우저 환경 설정 능력		외장기기 연결 능력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71)	3.13	1.30	2.92	1.31	2.83	1.31	2.62 ^a	1.28
400~549만원	(474)	3.21	1.32	3.09	1.37	2.98	1.33	2.87 ^{ab}	1.34
550~699만원	(240)	3.23	1.36	3.15	1.35	3.05	1.35	2.86 ^{ab}	1.34
700만원 이상	(337)	3.24	1.32	3.12	1.34	3.10	1.38	2.97 ^b	1.33
<i>F</i>		0.43		1.50		2.05		3.5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패널아동의 파일 전송 능력은 평균 2.92점, 악성코드 검사/치료 능력 2.23점으로 보통 이하이고, 문서/자료 작성 능력과 유튜브 동영상 탑재 능력은 각각 3.41점, 3.16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에 처음 포함된 문항인 유튜브 동영상 탑재 능력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지난 11차년도 조사결과(김은설 외, 2019: 108) 보다 조금씩 향상된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패널아동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아동의 세부 특성별로 컴퓨터 사용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파일 전송 능력과 악성코드 검사/치료 능력은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패널아동의 파일 전송 능력에 차이가 있었는데, 월 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아동이 399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보다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2-31〉 컴퓨터 사용 능력 2

단위: 점(명)

구분	계(수)	파일 전송 능력		악성코드 검사/치료 능력		문서/자료 작성 능력		유튜브 동영상 탑재 능력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57)	2.92	1.38	2.23	1.22	3.41	1.38	3.16	1.53
아동 성별									
남	(689)	3.10	1.38	2.48	1.31	3.41	1.33	3.13	1.56
여	(668)	2.74	1.35	1.97	1.06	3.42	1.43	3.19	1.50
<i>t</i>		4.96***		7.79***		-0.05		-0.75	

구분	계(수)	파일 전송 능력		악성코드 검사/치료 능력		문서/자료 작성 능력		유튜브 동영상 탑재 능력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2.91	1.38	2.21	1.23	3.45	1.37	3.17	1.55
둘째 이상	(719)	2.88	1.37	2.22	1.18	3.35	1.39	3.13	1.51
외동아	(141)	3.18	1.41	2.36	1.34	3.60	1.35	3.29	1.56
<i>F</i>		2.74		0.92		2.23		0.66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2.90	1.40	2.23	1.21	3.38	1.40	3.20	1.53
미취업	(520)	2.97	1.35	2.25	1.23	3.51	1.35	3.14	1.54
<i>t</i>		-0.90		-0.33		-1.68		0.6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2.70 ^a	1.32	2.17	1.16	3.23	1.37	2.95	1.53
400~549만원	(458)	2.91 ^{ab}	1.40	2.21	1.25	3.44	1.36	3.21	1.53
550~699만원	(235)	2.96 ^{ab}	1.34	2.2	1.14	3.44	1.38	3.19	1.53
700만원 이상	(327)	3.09 ^b	1.40	2.32	1.28	3.53	1.39	3.24	1.52
<i>F</i>		4.06**		0.94		2.40		2.1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5) 시간사용 만족도 및 가족 식사

패널아동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휴식 또는 여가 활동 시간 등 일상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간들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간사용 만족도를 3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과의 시간을 살펴보면, 가족과 대화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1.96점(전년도 평균 1.99점, 김은설 외, 2020: 99), 가족과 식사 시간은 평균 1.98점(전년도 평균 2.02점, 김은설 외, 2020: 99), 가족과의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 1.78점(전년도 평균 1.84점, 김은설 외, 2020: 99)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 가족과의 시간사용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2-32〉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가족과의 시간

단위: 점(명)

구분	계(수)	가족과 대화시간		가족과의 식사 시간		가족과의 여가 활동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1.96	0.39	1.98	0.37	1.78	0.50
아동 성별							
남	(689)	1.95	0.39	1.99	0.37	1.81	0.50
여	(668)	1.96	0.40	1.97	0.37	1.76	0.50
<i>t</i>		-0.83		1.19		1.8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1.99 ^a	0.39	2.02 ^b	0.37	1.87 ^b	0.49
둘째 이상	(719)	1.93 ^a	0.38	1.95 ^a	0.36	1.73 ^a	0.49
외동아	(141)	1.99 ^a	0.46	2.00 ^{ab}	0.43	1.79 ^{ab}	0.52
<i>F</i>		4.10*		6.43**		11.44***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1.96	0.41	1.96	0.38	1.77	0.52
미취업	(520)	1.96	0.36	2.01	0.36	1.82	0.46
<i>t</i>		-0.11		-2.58*		-1.5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1.96	0.40	1.99	0.35	1.76	0.50
400~549만원	(458)	1.95	0.40	1.98	0.37	1.78	0.50
550~699만원	(235)	1.94	0.38	1.97	0.40	1.77	0.49
700만원 이상	(327)	1.95	0.40	1.97	0.39	1.80	0.51
<i>F</i>		0.12		0.26		0.4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 부족함, 2. 충분함, 3. 지나치게 많음).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이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평균 1.91점(전년도 평균 2.08점, 김은설 외, 2020: 100), 휴식시간은 2.06점(전년도 평균 2.07점, 김은설 외, 2020: 100). 여가활동 시간 평균 1.98점(전년도 2.05점, 김은설 외, 2020: 100)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였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2-33〉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휴식시간		여가활동 (취미, 운동 등)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1.91	0.57	2.06	0.48	1.98	0.48
아동 성별							
남	(689)	1.94	0.59	2.08	0.50	1.99	0.52
여	(668)	1.87	0.54	2.05	0.46	1.96	0.43
<i>t</i>		2.40*		0.95		1.11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1.90	0.56	2.03	0.47	1.98	0.47
둘째 이상	(719)	1.92	0.56	2.09	0.49	1.97	0.48
외동아	(141)	1.87	0.60	2.04	0.45	1.99	0.49
<i>F</i>		0.72		2.50		0.12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1.92	0.56	2.08	0.46	1.98	0.47
미취업	(520)	1.89	0.57	2.03	0.51	1.97	0.48
<i>t</i>		0.93		1.84		0.3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1.94	0.59	2.09	0.51	1.96	0.52
400~549만원	(458)	1.91	0.57	2.03	0.49	1.98	0.48
550~699만원	(235)	1.94	0.54	2.06	0.44	1.98	0.44
700만원 이상	(327)	1.87	0.55	2.07	0.45	1.99	0.46
<i>F</i>		1.09		0.73		0.1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 부족함, 2. 충분함, 3. 지나치게 많음).

* $p < .05$.

패널아동의 숙제하는 시간과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숙제하는 시간은 평균 2.04점(전년도 평균 2.04점, 김은설 외, 2020: 101),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평균 1.91점(전년도 평균 1.94점, 김은설 외, 2020: 101)으로 가족을 돕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4〉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숙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숙제하는 시간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2.04	0.42	1.91	0.47
아동 성별					
남	(689)	2.06	0.44	1.91	0.50
여	(668)	2.02	0.41	1.92	0.44
<i>t</i>		1.81		-0.41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2.02	0.41	1.92	0.47
둘째 이상	(719)	2.04	0.43	1.91	0.47
외동아	(141)	2.10	0.42	1.92	0.51
<i>F</i>		1.74		0.07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2.03	0.43	1.92	0.47
미취업	(520)	2.05	0.42	1.91	0.47
<i>t</i>		-0.53		0.6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2.06	0.44	1.94	0.46
400~549만원	(458)	2.03	0.44	1.91	0.45
550~699만원	(235)	2.04	0.41	1.90	0.50
700만원 이상	(327)	2.02	0.42	1.91	0.50
<i>F</i>		0.53		0.2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 부족함. 2. 충분함. 3. 지나치게 많음).

보호자에게 아동이 일주일 평균 가족과 몇 번 식사를 같이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주 8회 이상이 61.4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주 6~7회 20.11%, 주 3~5회 13.31%, 주 1~2회 4.80%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미취업모의 자녀인 경우 주 1~2회, 주 8회 이상 식사 횟수 비율이 취업모 자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소득이 550만원 이상인 경우 주 1회 이상은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5〉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구분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전체	0.29	4.80	13.31	20.11	61.49	100.0(1397)
아동 성별						
남	0.14	3.67	12.85	20.06	63.28	100.0(708)
여	0.44	5.95	13.79	20.17	59.65	100.0(689)
$\chi^2(df)$			5.81(4)			
아동 출생순위						
첫째	0.39	2.95	11.42	19.49	65.75	100.0(508)
둘째 이상	0.13	5.64	14.09	20.00	60.13	100.0(745)
외동아	0.69	6.94	15.97	22.92	53.47	100.0(144)
$\chi^2(df)$			14.10(8)			
모 취업 여부						
취업	0.12	4.62	15.09	21.90	58.27	100.0(822)
미취업	0.55	5.34	10.87	18.05	65.19	100.0(543)
$\chi^2(df)$			11.70(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0.74	5.90	10.70	18.45	64.21	100.0(271)
400~549만원	0.21	6.12	13.29	23.42	56.96	100.0(474)
550~699만원	0.00	2.08	15.00	14.58	68.33	100.0(240)
700만원 이상	0.00	4.75	14.24	19.88	61.13	100.0(337)
$\chi^2(df)$			22.70(1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다. 신체 및 건강 특성

1) 신체 특성 및 주관적 건강 상태

조사원이 측정한 패널아동의 신체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신장은 평균 155.41cm(전년도 평균 148.38cm, 김은설 외, 2020: 103), 체중은 50.00kg(전년도 평균 43.45kg, 김은설 외, 2020: 103), 허리둘레는 평균 75.51cm(전년도 평균 72.08cm), BMI는 평균 20.61kg/m²(전년도 평균 19.62kg/m² 김은설 외, 2020: 103)로 측정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6〉 아동의 신체 치수(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단위: cm, kg, kg/m², (명)

구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신장	126.40	180.00	155.00	155.41	6.68	(1340)
허리둘레	49.00	111.00	74.00	75.51	10.15	(1223)
체중	25.00	95.00	49.00	50.00	10.44	(1324)
BMI	12.57	35.61	20.11	20.61	3.50	(1318)

패널아동의 신체 치수를 아동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는 취업모의 자녀가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평균적으로 약간 더 컸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신장이 약간 더 크고, BMI 수치도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37〉 아동의 특성별 신체 치수

단위: cm, kg, kg/m², (명)

구분	수	신장		수	허리둘레		수	체중		수	BMI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40)	155.41	6.68	(1223)	75.51	10.15	(1324)	50.00	10.44	(1318)	20.61	3.50
아동 성별												
남	(678)	155.93	7.36	(623)	77.92	10.92	(671)	52.22	11.34	(668)	21.35	3.76
여	(662)	154.89	5.88	(600)	73.00	8.60	(653)	47.72	8.87	(650)	19.85	3.04
<i>t</i>		2.85**			8.72***			8.02***			3.02**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2)	155.59	6.83	(451)	75.35	10.36	(484)	50.25	10.48	(481)	20.66	3.49
둘째 이상	(708)	155.27	6.62	(646)	75.42	9.98	(703)	49.69	10.44	(701)	20.51	3.49
외동아	(140)	155.51	6.48	(126)	76.55	10.25	(137)	50.74	10.27	(136)	20.94	3.61
<i>F</i>		0.35			0.74			0.78			0.36	
모 취업 여부												
취업	(799)	155.57	6.74	(730)	76.04	10.28	(786)	50.24	10.46	(784)	20.68	3.50
미취업	(509)	155.16	6.55	(463)	74.40	9.69	(506)	49.41	10.11	(502)	20.42	3.41
<i>t</i>		1.08			2.73**			1.40			1.1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59)	154.54 ^a	6.93	(244)	75.38	10.21	(256)	49.41	10.55	(254)	20.61 ^a	3.52
400~549만원	(449)	155.24 ^b	6.75	(406)	76.35	10.40	(445)	50.64	11.12	(442)	20.90 ^b	3.74
550~699만원	(234)	155.83 ^b	6.38	(211)	75.41	10.13	(229)	50.53	10.36	(229)	20.71 ^b	3.53
700만원 이상	(324)	156.12 ^b	6.34	(293)	74.39	9.63	(320)	49.15	9.18	(319)	20.11 ^b	3.06
<i>F</i>		3.14*			2.16			1.74			3.02*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의 45.67%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전년도 39.8%, 김은설 외, 2020: 104),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은 3.58%(전년도 3.1%, 김은설 외, 2020: 104)로 전년도에 비하여 안경 및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아동 특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38〉 아동의 시력 보정 도구 착용 시기

단위: 세(명)

구분	안경		계(수)	시력 교정도구		계(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2	1.91	(638)	10.20	1.76	(50)
아동 성별						
남	9.02	1.89	(308)	9.86	2.03	(22)
여	9.21	1.94	(330)	10.46	1.50	(28)
<i>t</i>	-1.21			-1.20		
아동 출생순위						
첫째	9.24	1.87	(222)	10.47	1.28	(17)
둘째 이상	9.05	1.95	(346)	10.48	1.59	(23)
외동아	9.04	1.88	(70)	9.10	2.47	(10)
<i>F</i>	0.68			2.60		
모 취업 여부						
취업	9.06	1.93	(376)	10.09	1.74	(33)
미취업	9.18	1.88	(252)	10.41	1.84	(17)
<i>t</i>	-0.76			-0.6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9.37	1.82	(126)	11.67	0.58	(3)
400~549만원	9.26	1.79	(186)	10.22	1.66	(18)
550~699만원	8.81	2.12	(124)	10.80	0.92	(10)
700만원 이상	9.05	1.80	(165)	10.07	1.49	(15)
<i>F</i>	2.23			1.40		

주: 1) 전체 참여 아동의 45.67%는 안경, 3.58%는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2) 보호자의 응답임.

2차 성장의 발현 여부 및 시기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몽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82.20%(전년도 94.5%, 김은설 외, 2020: 105)였고, 첫 몽정이 발현된 시기에 대하여 2020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72%, 2019년이라는 응답이 5.51%, 2018년이라는 응답이 0.56%로 나타났다.

〈표 IV-2-39〉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명)

구분	계(수)	몽정 발현 여부					나타나지 않음
		나타남 (처음 나타난 시기)					
		(2020)	(2019)	(2018)	(2017)	(2016년 이전)	
전체	100.0(708)	11.72	5.51	0.56	-	-	82.20

주: 보호자의 응답임.

여학생의 경우 초경이 나타났다는 응답이 37.89%로 전년도 25.8%(김은설 외, 2020: 105)에 비해 늘어났다. 초경이 처음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20년이 17.26%로 가장 많았고 2019년 16.29%, 2018년 3.98% 순이었다.

〈표 IV-2-40〉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명)

구분	계(수)	초경 발현 여부					나타나지 않음
		나타남 (처음 나타난 시기)					
		(2020)	(2019)	(2018)	(2017)	(2016년 이전)	
전체	100.0(689)	17.26	16.29	3.98	0.27	0.09	61.11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보호자가 인식한 자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58.84%,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28.20%로 보호자는 아동이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으로는 평균 4.1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IV-2-41〉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43	1.36	11.17	58.84	28.20	100.0(1397)	4.13	0.69
아동 성별								
남	0.42	1.69	11.72	56.64	29.52	100.0(708)	4.13	0.71
여	0.44	1.02	10.60	61.10	26.85	100.0(689)	4.13	0.66
$\chi^2(df)/t$			3.65(4)					0.06
아동 출생순위								
첫째	0.39	2.17	10.04	61.02	26.38	100.0(508)	4.11	0.69
둘째 이상	0.40	0.94	11.41	57.45	29.80	100.0(745)	4.15	0.68
외동아	0.69	0.69	13.89	58.33	26.39	100.0(144)	4.09	0.70
$\chi^2(df)/F$			7.80(8)					0.92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0.61	1.34	10.83	58.27	28.95	100.0(822)	4.14	0.70
미취업	0.18	1.47	11.60	60.77	25.97	100.0(543)	4.11	0.66
$\chi^2(df)/t$			2.95(4)				0.7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0.74	2.21	11.81	55.72	29.52	100.0(271)	4.11	0.75
400~549만원	0.63	1.27	10.55	58.86	28.69	100.0(474)	4.14	0.69
550~699만원	0.00	0.83	10.83	62.92	25.42	100.0(240)	4.13	0.62
700만원 이상	0.30	1.48	10.09	58.75	29.38	100.0(337)	4.15	0.68
$\chi^2(df)/F$			6.50(12)				0.2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패널아동에게 본인의 신체적 자아상을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널아동들은 전체적으로 본인의 신체적 자아상을 2.86점(전년도 3.08점, 김은설 외, 2020: 107)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체적으로 2점 후반대로 응답하였다. 외모에 대하여는 3.0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고, 체중에 대하여는 2.6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 만족에 대하여는 외동아의 경우가 첫째나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모 자녀의 경우 취업모 자녀보다 외모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외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2〉 신체적 자아상

단위: 점

구분	전체		외모 만족		체중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신장 만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86	0.55	3.04	0.70	2.63	0.86	2.99	0.72	2.84	0.92	2.79	0.91
아동 성별												
남	2.96	0.54	3.14	0.66	2.73	0.87	3.06	0.70	2.95	0.89	2.92	0.91
여	2.75	0.55	2.94	0.72	2.53	0.85	2.93	0.73	2.72	0.92	2.65	0.90
<i>t</i>	6.97***		5.40***		4.26***		3.20**		4.77***		5.45***	

구분	전체		외모 만족		체중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신장 만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2.88	0.55	3.06	0.69	2.65	0.86	3.02	0.72	2.85	0.93	2.80	0.93
둘째 이상	2.83	0.55	3.01	0.70	2.61	0.87	2.97	0.71	2.81	0.91	2.76	0.90
외동아	2.93	0.57	3.16	0.70	2.65	0.85	3.04	0.73	2.93	0.92	2.89	0.91
<i>F</i>	2.36		3.06*		0.31		1.29		0.98		1.12	
모 취업 여부												
취업	2.85	0.55	3.04	0.70	2.61	0.86	2.98	0.73	2.79	0.93	2.80	0.92
미취업	2.88	0.55	3.04	0.70	2.67	0.87	3.01	0.71	2.93	0.88	2.77	0.90
<i>t</i>	-1.22		-0.11		-1.15		-0.64		-2.64**		0.6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85	0.57	3.01 ^{ab}	0.72	2.64	0.86	2.94	0.74	2.89	0.9	2.76	0.92
400~549만원	2.88	0.55	3.06 ^{ab}	0.71	2.61	0.86	3.03	0.74	2.85	0.93	2.83	0.91
550~699만원	2.79	0.59	2.93 ^a	0.71	2.6	0.91	2.94	0.71	2.77	0.93	2.71	0.94
700만원 이상	2.89	0.51	3.11 ^b	0.66	2.66	0.86	3.02	0.69	2.86	0.9	2.81	0.9
<i>F</i>	1.80		3.21*		0.32		1.46		0.70		1.08	

주: 1) 아동 응답임.

2) 체중 만족(나는 내 체중에 불만스럽다), 외모교체 욕구(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문항은 역코딩

3)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에게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널아동 46.7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비만 26.68%, 약간 마른 편 15.62%, 매우 비만 6.93%, 매우 마른 편 3.98% 순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인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V-2-43〉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마른편	약간 마른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98	15.62	46.79	26.68	6.93	100.0(1357)	3.17	0.91
아동 성별								
남	5.52	15.97	42.53	28.45	7.55	100.0(689)	3.17	0.97
여	2.40	15.27	51.20	24.85	6.29	100.0(668)	3.17	0.85
$\chi^2(df)/t$				16.28(4)**				-0.17

구분	매우 마른편	약간 마른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2.82	17.51	45.27	29.38	5.03	100.0(497)	3.16	0.87
둘째 이상	5.01	14.74	46.73	25.73	7.79	100.0(719)	3.17	0.94
외동아	2.84	13.48	52.48	21.99	9.22	100.0(141)	3.21	0.89
$\chi^2(df)/F$			14.36(8)				0.18	
모 취업 여부								
취업	4.10	15.28	45.34	28.07	7.20	100.0(805)	3.19	0.92
미취업	3.65	16.35	49.42	24.42	6.15	100.0(520)	3.13	0.89
$\chi^2(df)/t$			3.61(4)				1.1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56	14.83	45.63	28.52	6.46	100.0(263)	3.17	0.92
400~549만원	4.80	14.41	45.85	27.29	7.64	100.0(458)	3.19	0.94
550~699만원	1.28	15.74	51.06	22.13	9.79	100.0(235)	3.23	0.88
700만원 이상	4.89	18.35	46.18	25.99	4.59	100.0(327)	3.07	0.91
$\chi^2(df)/F$			16.81(12)				1.7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마른편이다~5.매우 비만이다).
 ** $p < .01$.

패널아동에게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32.50%가 감량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력 안함 30.80%, 유지 노력 25.20%, 증량 노력 11.5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감량 노력과 유지 노력을 많이 하고, 증량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2-44〉 체중조절 경험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전체	32.50	25.20	11.50	30.80	100.0(1357)
아동 성별					
남	26.42	23.08	16.69	33.82	100.0(689)
여	38.77	27.40	6.14	27.69	100.0(668)
$\chi^2(df)$			55.43(3)***		
아동 출생순위					
첫째	33.80	25.55	10.26	30.38	100.0(497)
둘째 이상	31.15	25.31	12.10	31.43	100.0(719)
외동아	34.75	23.40	12.77	29.08	100.0(141)
$\chi^2(df)$			2.43(6)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33.42	23.98	12.30	30.31	100.0(805)
미취업	31.54	26.73	10.58	31.15	100.0(520)
$\chi^2(df)$			2.18(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1.56	25.86	11.79	30.80	100.0(263)
400~549만원	35.15	22.49	10.92	31.44	100.0(458)
550~699만원	30.64	28.51	12.34	28.51	100.0(235)
700만원 이상	29.66	27.22	11.62	31.50	100.0(327)
$\chi^2(df)$			5.78(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2) 질환 및 치료

패널아동의 보호자에게 지난 1년간 자녀의 응급실 치료 경험 및 입원 경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급실 치료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6.21%였으며, 입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7.07%로 대부분 응급실 치료 및 입원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아동 성별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응급실 치료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인 경우 둘째 이상이거나 외동아에 비하여 입원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5〉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79	96.21	2.93	97.07	100.0(1397)
아동 성별					
남	5.23	94.77	3.67	96.33	100.0(708)
여	2.32	97.68	2.18	97.82	100.0(689)
$\chi^2(df)$	8.07(1)**		2.74(1)		
아동 출생순위					
첫째	4.72	95.28	4.53	95.47	100.0(508)
둘째 이상	3.09	96.91	1.88	98.12	100.0(745)
외동아	4.17	95.83	2.78	97.22	100.0(144)
$\chi^2(df)$	2.28(2)		7.45(2)*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모 취업 여부					
취업	4.26	95.74	3.16	96.84	100.0(822)
미취업	3.13	96.87	2.76	97.24	100.0(543)
$\chi^2(df)$	1.13(1)		0.18(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32	96.68	4.06	95.94	100.0(271)
400~549만원	3.38	96.62	2.32	97.68	100.0(474)
550~699만원	4.17	95.83	4.17	95.83	100.0(240)
700만원 이상	4.45	95.55	2.37	97.63	100.0(337)
$\chi^2(df)$	0.89(3)		3.34(3)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의 장애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지체장애 2명, 뇌병변장애 1명, 시각장애 3명, 심장장애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46〉 아동의 장애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100.0(2)	50.00	50.00
뇌병변장애	100.0(1)	100.00	-
시각장애	100.0(3)	66.67	33.33
청각장애	-	-	-
언어장애	-	-	-
안면장애	-	-	-
신장장애	-	-	-
심장장애	100.0(1)	-	100.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아동의 1.9%(전년도 2.5%, 김은설 외, 2020: 109)가 만성 부비동염(축농증)을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다른 질환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대부분(선천성 심장질환 88.89%, 뇌전증(간질) 100.0%)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만성 부비동염(축농증)은 51.85%가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7〉 아동의 만성 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선천성 심장질환	100.0(9)	0.6	88.89	-	11.11
뇌전증(간질)	100.0(2)	0.1	100.00	-	-
당뇨	100.0(3)	0.2	33.33	33.33	33.33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100.0(27)	1.9	3.70	51.85	44.44
만성 중이염	100.0(9)	0.6	22.22	22.22	55.56
만성 요로감염	100.0(1)	0.1	-	-	100.00

주: 1)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최근 12개월 동안 알려지 관련 증상 및 치료 경험이 있었는지를 어머니에게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8.01%로 가장 많았고,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있으면서 눈이 가렵고 눈을 비빈 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7.55%,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코 가려움증, 코막힘 증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86%, 신발, 손목, 발목 등에 가려워서 긁어야 할 정도의 피부발진이 나타난 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7.57%,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91%로 그 뒤를 이었다.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 쇼크로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0.84%, 숨 쉴 때 가슴에서 짹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0.92%, 운동 시 가슴에서 짹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53%, 천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3%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IV-2-48〉 아동의 알러지 관련 증상 경험

단위: %(명)

구분	계(수)	있음	없음
숨쉴 때 가슴에서 쌉쌉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	100.0(1,303)	0.92	99.08
운동시 가슴에서 쌉쌉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	100.0(1,303)	1.53	98.47
천식으로 치료받은 적	100.0(1,303)	2.23	97.77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코기려움증, 코막힘 증	100.0(1,303)	26.86	73.14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있으면서 눈이 가렵고 눈을 비빈 적	100.0(1,303)	27.55	72.45
알레르기 비염으로 치료 받은 적	100.0(1,303)	28.01	71.99
신발, 손목, 발목 등이 가려워서 긁어야 할 정도의 피부발진이 나타난 적	100.0(1,303)	17.57	82.43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	100.0(1,303)	6.91	93.09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 쇼크로 진단받은 적	100.0(1,303)	0.84	99.16

주: 1) 어머니 응답임.

2)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3) 최근 12개월 동안 해당 증상 및 치료 경험이 있었던 경험 질문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의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알레르기 비염이 18.40%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피부염 7.37%, 알레르기결막염 3.22%, 천식 1.93%, 식품알레르기 1.65%, 기타 질환 0.93% 순이었다. 알레르기 질환별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비율은 기타 질환을 제외하고는 20% 미만으로 높지 않았으나, 천식이 18.52%로 다소 높았다.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는 비율은 알레르기 결막염(82.22%), 알레르기비염(72.76%)과 아토피피부염(62.14%) 순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표 IV-2-49〉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별 의사 진단 및 치료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천식	100.0(27)	1.93	18.52	33.33	48.15
알레르기비염	100.0(257)	18.40	7.39	72.76	19.84
아토피피부염	100.0(103)	7.37	7.77	62.14	30.10
식품알레르기	100.0(23)	1.65	4.35	30.43	65.22
알레르기결막염	100.0(45)	3.22	4.44	82.22	13.33
기타 질환	100.0(13)	0.93	38.46	46.15	15.38

주: 1)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이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는 대부분 1% 미만이었으며, 의사소통 장애가 0.57%, 운동장애 0.5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0.36%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질환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속 또는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는 운동장애 (42.86%)를 제외하고는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V-2-50〉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상담 및 치료 여부		
			지속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의사소통 장애	100.0(8)	0.57	50.00	12.50	37.50
자폐 스펙트럼장애	100.0(2)	0.14	100.00	-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100.0(5)	0.36	60.00	-	40.00
특정 학습장애	-	-	-	-	-
운동장애	100.0(7)	0.50	28.57	14.29	57.14
파괴적, 충동통제 및品行장애	100.0(1)	0.07	-	-	100.00
배설장애	100.0(1)	0.07	-	-	100.00
급식 및 섭식장애	-	-	-	-	-
불안 장애	100.0(3)	0.21	66.67	-	33.33
기타 장애	100.0(3)	0.21	33.33	33.33	33.33

주: 1)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라. 언어 및 학습 관련 특성

1) 언어 관련

패널아동에게 비속어 사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32.65%로 12차년도 47.5%에 비해 낮아졌고(김은설 외, 2020: 111),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이 52.17%,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이 12.45%,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2.73%로, 각각 전년도 조사의 45.7%, 5.5%, 1.4%(김은설 외, 2020: 111)에 비해 높아졌다. 평균은 4점 만점 기준으로 1.85점 수준이었다.

아동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속어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아동 출생순위로 보면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이 첫째인 아동보다 비속어 사용

평균이 더 높았고, 모의 취업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른 비속어 사용 비율이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51〉 비속어 사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가끔 사용함	자주 사용함	매일 사용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65	52.17	12.45	2.73	100.0(1357)	1.85	0.73
아동 성별							
남	27.00	57.18	14.08	1.74	100.0(689)	1.91	0.69
여	38.47	47.01	10.78	3.74	100.0(668)	1.80	0.78
$\chi^2(df)/t$	28.37(3)***					2.71**	
아동 출생순위							
첫째	38.63	50.10	9.46	1.81	100.0(497)	1.74 ^a	0.70
둘째 이상	28.23	53.55	15.02	3.20	100.0(719)	1.93 ^b	0.75
외동아	34.04	52.48	9.93	3.55	100.0(141)	1.83 ^{ab}	0.75
$\chi^2(df)/F$	21.07(6)**					9.78***	
모 취업 여부							
취업	32.67	50.68	13.79	2.86	100.0(805)	1.87	0.75
미취업	33.08	54.23	10.19	2.50	100.0(520)	1.82	0.71
$\chi^2(df)/t$	4.23(3)					1.1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0.42	52.47	13.69	3.42	100.0(263)	1.90	0.76
400~549만원	30.13	53.93	13.76	2.18	100.0(458)	1.88	0.72
550~699만원	31.06	55.32	9.36	4.26	100.0(235)	1.87	0.75
700만원 이상	39.14	46.79	11.93	2.14	100.0(327)	1.77	0.74
$\chi^2(df)/F$	14.32(9)					1.9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사용하지 않음~4. 매일 사용함).

** $p < .01$, *** $p < .001$.

2) 인지 관련

패널아동의 집행기능은 11차년도 이후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머니가 응답한 11차년도와 달리 13차년도에는 아동이 응답하였다. 아동의 집행기능은 계획 및 조직화 곤란, 행동 통제 곤란, 정서 통제 곤란, 부주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집행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집행기능 중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시행해가는 계획 및 조직화에 대하여 평균 1.68점, 아동이 자기 자신 및 주변을 잘 파악하는 행동통제는 1.34점, 정서통제는

1.48점, 아동이 어떤 일에 선택 및 지속적으로 주의집중 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하는 부주의함은 1.51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2점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집행기능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행동통제 곤란에 있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좀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계획-조직화 곤란에서 외동아가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부주의에서는 외동아가 첫째나 둘째 이상 아동에 비해 낮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아동이 행동통제, 정서통제곤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비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52〉 집행기능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계획-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357)	1.68	0.42	1.34	0.33	1.48	0.45	1.51	0.43
아동 성별									
남	100.0(689)	1.70	0.42	1.38	0.35	1.47	0.45	1.51	0.42
여	100.0(668)	1.66	0.41	1.30	0.30	1.49	0.45	1.51	0.44
<i>t</i>		1.70		4.56***		-0.79		0.32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497)	1.66 ^{ab}	0.40	1.33	0.32	1.49	0.45	1.51 ^b	0.43
둘째 이상	100.0(719)	1.71 ^b	0.42	1.35	0.33	1.49	0.45	1.53 ^b	0.44
외동아	100.0(141)	1.61 ^a	0.43	1.29	0.33	1.42	0.46	1.41 ^a	0.42
<i>F</i>		4.30*		2.41		1.62		4.46*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5)	1.67	0.42	1.33	0.33	1.47	0.44	1.51	0.42
미취업	100.0(520)	1.68	0.40	1.35	0.33	1.51	0.47	1.50	0.44
<i>t</i>		-0.41		-0.75		-1.51		0.6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63)	1.73	0.42	1.37 ^b	0.36	1.56 ^b	0.50	1.54	0.44
400~549만원	100.0(458)	1.66	0.42	1.35 ^{ab}	0.33	1.47 ^{ab}	0.45	1.49	0.42
550~699만원	100.0(235)	1.69	0.41	1.36 ^{ab}	0.34	1.52 ^b	0.47	1.54	0.46
700만원 이상	100.0(327)	1.65	0.41	1.29 ^a	0.30	1.41 ^a	0.39	1.49	0.42
<i>F</i>		2.27		4.27**		6.27***		1.3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3. 자주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13차년도에는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인지·학습능력 진단검사인 「다요인지능검사(Multi-Factorial Intelligence Test, M-FIT)」를 실시하였다. M-FIT은 Gardner의 7가지 다중지능요소 중 언어능력, 논리·수학능력, 공간적 능력을, Sternberg의 이론 중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 중 분석적 능력을 반영하였다(이종구·현성용·최인수, 2015). 세부적으로 M-FIT은 언어능력 영역에서는 어휘적용력과 언어유추력, 수학·논리 영역에서 수리력, 공간능력 영역에서 공간지각력, 그리고 귀납적 추론능력과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식화능력 검사 등 총 6개 영역 검사로 지능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는 각 영역별 T점수와 백분위로 제시된다(이종구 외, 2015).

다요인 지능검사(M-FIT) 결과, 조사에 참여한 패널아동들의 학습 지능은 전반적으로 또래 학년에 비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어휘력과 문장의 정확한 이해 및 문맥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어휘적용력 T점수 평균은 52.37점으로 나타났다. 지능검사 결과 패널아동의 18.09%는 어휘적용력 점수가 높았고, 7.54%는 어휘적용력 점수가 낮았다. 어휘적용력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학년의 수준에 비해 어휘력이 풍부하며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다는 것은 이는 일상적 대화보다 추상적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정확한 표현이 강조되는 학문적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종구 외, 2015).

단어 간의 인과관계와 의미간의 위계, 범주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도출해 내는 언어유추력 T점수 평균은 59.42점으로 산출되었다. 조사 참여 아동의 40.95%는 언어유추력 점수가 높았고, 2.38%는 점수가 낮게 산출되었다. 언어유추력 점수가 높다는 것은 쌍으로 제시된 낱말과 낱말 간의 다양한 관계 또는 규칙을 추론한 후 가장 적절한 규칙을 선정하여 다른 관계성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종구 외, 2015).

언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전환하고 세부 그림들을 조직·통합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틀을 만들어 내는 도식화 능력의 T점수 평균은 52.08점으로 측정되었다. 조사 참여 아동의 14.05%는 도식화 능력 점수가 높아, 언어정보를 시각화하고 도식을 심적으로 조작하며 세부도식을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의 전체적 파악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종구 외, 2015).

수와 기초적인 연산개념에 대한 이해와 자동적 처리를 바탕으로 수량을 비교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과 수를 사용하여 실생활에서의 측정문제에 적용하는 수리력의 T점수 평균은 51.8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 아동의 15.47%는 수리력 점수가 높았고, 8.73%는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수리력 점수가 높다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된 문제들을 수학적 문제로 빠르게 전환하여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이종구 외, 2015).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적인 사고력과 공간 환경에서의 적응력인 공간지각력 T점수 평균은 56.19점으로 측정되었다. 조사 참여 아동의 30.00%는 공간지각력 점수가 높았고 5.39%는 낮게 나타났다. 공간지각력 점수가 높다는 것은 과학 기술 및 생활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비언어적 능력이 높고, 공간 내 부분적인 요소들의 위치파악과 전체-부분 간의 관계 파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종구 외, 2015).

구조화된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을 추론해 내는 능력인 추리력 T점수 평균은 53.85점으로 측정되었다. 조사 참여 아동의 18.73%는 점수가 높았고, 4.84%는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추리력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료로부터 규칙을 추론하고, 적정 규칙을 발견하며, 규칙에 대한 검증력이 뛰어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종구 외, 2015).

〈표 IV-2-53〉 다요인지능

단위: 점, %

	T점수					영역별 지능검사 수준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낮음	낮음	보통 하	보통	보통 상	높음	매우 높음
어휘적용력	20.00	73.00	53.00	52.37	10.23	1.35	6.19	16.90	36.59	20.87	16.03	2.06
언어유추력	28.00	85.00	61.00	59.42	10.92	0.32	2.06	8.02	28.49	20.16	18.81	22.14
도식화능력	20.00	82.00	53.00	52.08	9.84	1.59	4.60	18.97	43.10	17.70	9.92	4.13
수리력	20.00	85.00	50.00	51.86	11.42	1.03	7.70	17.46	43.41	14.92	7.06	8.41
공간지각력	20.00	85.00	55.00	56.19	12.92	1.90	3.49	11.43	35.32	17.86	13.41	16.59
추리력	20.00	83.00	53.00	53.85	10.08	0.87	3.97	8.81	37.86	29.76	14.44	4.29

주: 아동 수행검사 결과임.

3) 학습 관련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평가한 전반적인 학업 수행 능력 응답 결과, 상위권(상위 21~40%+상위 20% 이내)에 속한다는 응답은 81.95%, 하위권(하위 20% 이내+하위 21~40%)은 6.24%로 상위권에 속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²⁰⁾. 하위권 중 쓰기는 7.93%, 규칙성은 7.25%, 수와 연산은 7.08%, 미술은 6.58%, 영어는 6.41%로 하위권 평균(6.24%) 대비 하위권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IV-2-54〉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단위: %(명)

구분	하위 20% 이내	하위 21~40%	중간 50% 내외	상위 21~40%	상위 20%이내	계(수)
전반	1.69	4.55	11.80	32.88	49.07	(593)
읽기	1.35	3.71	16.02	29.85	49.07	(593)
듣기/말하기	1.52	2.53	13.83	29.68	52.45	(593)
쓰기	1.52	6.41	17.03	31.37	43.68	(593)
영어	2.87	3.54	17.88	34.91	40.81	(593)
수와연산	2.19	4.89	12.65	27.99	52.28	(593)
도형	1.18	3.20	11.80	27.82	55.99	(593)
측정	1.69	3.71	13.49	26.98	54.13	(593)
규칙성	1.85	5.40	14.00	28.16	50.59	(593)
자료와 가능성1	1.52	2.02	11.13	26.14	59.19	(593)
자료와 가능성2	1.35	2.53	13.83	31.20	51.10	(593)
과학	1.69	2.19	15.51	35.24	45.36	(593)
사회-현상	1.69	2.19	15.01	34.74	46.37	(593)
사회-역사	1.69	2.70	16.02	33.90	45.70	(593)
신체활동 및 운동	1.35	3.37	19.22	33.56	42.50	(593)
미술	1.18	5.40	22.09	29.17	42.16	(593)
음악	1.52	4.38	21.75	34.23	38.11	(593)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응답한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중 국어는 4.20점, 영어 4.07점, 수학 4.29점, 과학 4.20점, 사회 4.21점, 예체능 4.0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의 학업수행 능력이 더 높았고, 아동 출생순위와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학업수행 능력 평균은 통계적

20) 담임교사 조사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 패널 응답아동수(1,397명) 대비 교사응답률은 42.4% 수준으로 낮아, 패널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해석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구 소득에 따라 6개 과목 모두 학업수행 평균에 차이가 있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패널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점수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2-55〉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평균)

단위: 점(명)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93)	4.20	0.89	4.07	0.99	4.29	0.88	4.20	0.90	4.21	0.88	4.07	0.81
아동 성별													
남	(296)	4.03	0.94	3.95	1.04	4.23	0.93	4.16	0.94	4.10	0.91	3.84	0.85
여	(297)	4.37	0.80	4.20	0.93	4.35	0.82	4.25	0.85	4.31	0.83	4.31	0.69
<i>t</i>		-4.76***		-3.13**		-1.64		-1.32		-2.90**		-7.41***	
아동 출생순위													
첫째	(222)	4.28	0.87	4.15	0.97	4.33	0.87	4.23	0.89	4.26	0.87	3.98	0.76
둘째 이상	(317)	4.14	0.88	4.00	1.01	4.26	0.88	4.16	0.90	4.15	0.89	4.10	0.83
외동아	(54)	4.26	1.00	4.19	0.97	4.29	0.93	4.35	0.91	4.32	0.89	4.06	0.80
<i>F</i>		1.79		1.86		0.51		1.28		1.50		0.51	
모 취업 여부													
취업	(354)	4.22	0.87	4.10	0.95	4.32	0.85	4.24	0.86	4.23	0.84	4.08	0.78
미취업	(223)	4.19	0.90	4.06	1.03	4.26	0.91	4.17	0.93	4.19	0.92	4.07	0.84
<i>t</i>		0.43		0.45		0.71		0.82		0.52		0.2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30)	3.95 ^a	1.03	3.75 ^a	1.16	4.02 ^a	1.07	4.00 ^a	1.05	4.01	1.04	3.90	0.88
400~549만원	(215)	4.18 ^{ab}	0.81	4.09 ^b	0.95	4.28 ^{ab}	0.81	4.17 ^{ab}	0.86	4.20	0.82	4.11	0.79
550~699만원	(94)	4.29 ^b	0.87	4.15 ^b	0.94	4.43 ^b	0.85	4.33 ^b	0.91	4.26	0.90	4.02	0.87
700만원 이상	(133)	4.36 ^b	0.83	4.25 ^b	0.90	4.41 ^b	0.78	4.32 ^b	0.79	4.32	0.78	4.16	0.70
<i>F</i>		5.26**		6.32***		5.7***		3.58*		2.88*		2.65*	

주: 1) 답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하위 20% 이내~5. 상위 20% 이내).

* $p < .05$, ** $p < .01$, *** $p < .001$.

학업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중 2.28점이었고, 학교성적 스트레스는 1.91점, 숙제/시험 스트레스는 2.49점, 공부 스트레스는 2.45점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성적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아동 출생 순위별로 보면 학업성적 스트레스에 대해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이 외동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56〉 학업 스트레스

단위: %, 점(명)

구분	계(수)	전체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1357)	2.28	0.91	1.91	0.91	2.49	1.15	2.45	1.15
아동 성별									
남	100.0(689)	2.24	0.92	1.79	0.87	2.45	1.19	2.49	1.19
여	100.0(668)	2.32	0.90	2.03	0.94	2.52	1.11	2.41	1.10
<i>t</i>		-1.63		-5.01***		-1.21		1.29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497)	2.23	0.92	1.85 ^{ab}	0.93	2.45	1.17	2.37	1.16
둘째 이상	100.0(719)	2.33	0.90	1.98 ^b	0.90	2.50	1.13	2.52	1.14
외동아	100.0(141)	2.22	0.90	1.77 ^a	0.87	2.51	1.19	2.40	1.12
<i>F</i>		2.31		4.79**		0.29		2.48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5)	2.28	0.92	1.91	0.89	2.46	1.16	2.46	1.16
미취업	100.0(520)	2.31	0.89	1.92	0.95	2.54	1.13	2.47	1.12
<i>t</i>		-0.64		-0.22		-1.22		-0.1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63)	2.27	0.95	1.93	0.98	2.40	1.13	2.48	1.21
400~549만원	100.0(458)	2.29	0.90	1.92	0.92	2.49	1.13	2.45	1.11
550~699만원	100.0(235)	2.34	0.93	1.95	0.92	2.59	1.19	2.47	1.16
700만원 이상	100.0(327)	2.25	0.89	1.84	0.83	2.48	1.16	2.43	1.15
<i>F</i>		0.43		0.81		1.11		0.1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그런 적 없다~5. 항상 그렇다).

** $p < .01$, *** $p < .001$.

선호하는 과목선호도(1순위)를 보면, 체육이 42.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16.73%, 미술 13.12%, 사회 6.26%, 영어 5.45%, 국어 5.1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체육이 51.67%, 수학 20.75%, 사회 6.39%, 과학 6.10% 순이었고, 여학생은 체육 33.53%, 수학 12.57%, 국어 7.34%, 영어 7.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57〉 아동의 과목선호도: 1순위

단위: %(명)

구분	계(수)	국어	과학	수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영어
전체	100.0(1357)	5.16	4.57	16.73	6.26	0.15	4.05	13.12	1.77	42.74	5.45
아동 성별											
남	100.0(689)	3.05	6.10	20.75	6.39	0.15	2.61	4.21	1.31	51.67	3.77
여	100.0(668)	7.34	2.99	12.57	6.14	0.15	5.54	22.31	2.25	33.53	7.19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선호하는 과목선호도(1+2순위)를 보면, 체육이 6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30.29%, 미술 27.86%, 영어 16.06%, 과학 15.33%, 사회 14.3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체육이 72.71%, 수학 37.88%, 과학 19.59%, 사회 15.97% 순이었고, 여학생은 체육 52.54%, 수학 22.46%, 영어 19.61%, 음악 16.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58〉 아동의 과목선호도: 1+2순위

단위: %

구분	국어	과학	수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영어
전체	9.80	15.33	30.29	14.30	1.40	12.75	27.86	9.43	62.79	16.06
아동 성별										
남	7.26	19.59	37.88	15.97	1.31	8.71	15.82	8.13	72.71	12.63
여	12.43	10.93	22.46	12.57	1.50	16.92	40.27	10.78	52.54	19.61

주: 아동의 응답임.

학습태도는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공부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는 것으로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평균 2.74점으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별로 보면 외동아가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에 비해 학습태도가 더 높았고, 가구소득별로는 70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가구의 아동이 399만원 이하 가구아동보다 학습태도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2-59〉 아동의 학습태도

단위: %, 점(명)

구분	계(수)	학습태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357)	2.74	0.44

구분	계(수)	학습태도	
		평균	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	100.0(689)	2.75	0.47
여	100.0(668)	2.74	0.40
<i>t</i>		0.25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497)	2.78 ^{ab}	0.44
둘째 이상	100.0(719)	2.71 ^a	0.43
외동아	100.0(141)	2.82 ^b	0.45
<i>F</i>		6.63 ^{**}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05)	2.75	0.44
미취업	100.0(520)	2.75	0.43
<i>t</i>		-0.0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63)	2.66 ^a	0.48
400~549만원	100.0(458)	2.77 ^{ab}	0.42
550~699만원	100.0(235)	2.72 ^{ab}	0.44
700만원 이상	100.0(327)	2.79 ^b	0.42
<i>F</i>		5.67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마. 사회성 및 정서적 특성

1) 사회성 발달

가)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만점에 학습활동은 3.03점, 학교규칙은 3.20점, 교우관계는 3.19점, 교사관계는 3.03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아동 성별로 보면 학교규칙과 교우관계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학습활동, 학교규칙 수준에 있어 아동 출생순위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습활동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의 아동이 어머니가 미취업한 경우의 아동보다 학습활동에 더 낮은 수준을 보였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표 IV-2-60〉 아동의 학교적응

단위: 점(명)

구분	계(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57)	3.03	0.45	3.20	0.45	3.19	0.41	3.03	0.59
아동 성별									
남	(689)	3.00	0.46	3.14	0.46	3.16	0.42	3.01	0.60
여	(668)	3.05	0.44	3.26	0.43	3.21	0.40	3.04	0.58
<i>t</i>		-2.03*		-5.15***		-2.47*		-0.86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3.09 ^b	0.46	3.24 ^a	0.46	3.21	0.43	3.08	0.58
둘째 이상	(719)	2.97 ^a	0.44	3.16 ^a	0.43	3.17	0.40	3.00	0.58
외동아	(141)	3.09 ^b	0.47	3.23 ^a	0.44	3.19	0.43	3.02	0.62
<i>F</i>		10.49***		5.55**		1.68		2.75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3.00	0.44	3.18	0.44	3.17	0.41	3.02	0.59
미취업	(520)	3.08	0.45	3.22	0.45	3.20	0.41	3.04	0.58
<i>t</i>		-3.24**		-1.55		-1.06		-0.5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2.95 ^a	0.48	3.15 ^a	0.43	3.14 ^{ab}	0.41	3.04	0.57
400~549만원	(458)	3.04 ^{ab}	0.44	3.20 ^{ab}	0.44	3.20 ^{ab}	0.42	3.05	0.57
550~699만원	(235)	2.97 ^a	0.45	3.17 ^{ab}	0.46	3.14 ^a	0.45	2.95	0.60
700만원 이상	(327)	3.11 ^b	0.44	3.25 ^b	0.46	3.24 ^b	0.38	3.07	0.59
<i>F</i>		7.09***		3.25*		3.89**		2.3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학교생활느낌

패널아동의 학교생활느낌은 3개의 긍정적 요소와 3개의 부정적 요소로 분석되었다. 먼저 학교생활느낌의 긍정적 요소로는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성실성이 있으며 4점 만점에 각각 2.54점, 2.84점, 2.98점을 보여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선호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교사의 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선호도와 성실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별로는 학교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였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성실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IV-2-61〉 아동의 학교생활느낌: 긍정적 요소

단위: 점(명)

구분	계(수)	학교 선호		교사 선호		성실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2.54	0.88	2.84	0.87	2.98	0.71
아동 성별							
남	(689)	2.51	0.89	2.78	0.90	2.93	0.71
여	(668)	2.56	0.86	2.91	0.82	3.04	0.70
<i>t</i>		-1.03		-2.94**		-2.98**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2.64 ^a	0.90	2.88	0.87	3.02	0.73
둘째 이상	(719)	2.46 ^a	0.85	2.83	0.85	2.94	0.70
외동아	(141)	2.54 ^a	0.87	2.77	0.94	3.05	0.67
<i>F</i>		5.89**		1.09		2.30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2.51	0.88	2.87	0.84	2.97	0.70
미취업	(520)	2.58	0.87	2.80	0.91	3.03	0.72
<i>t</i>		-1.42		1.37		-1.6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2.50	0.85	2.79	0.88	2.89 ^a	0.71
400~549만원	(458)	2.59	0.88	2.87	0.85	3.00 ^{ab}	0.70
550~699만원	(235)	2.45	0.85	2.79	0.86	2.95 ^{ab}	0.74
700만원 이상	(327)	2.55	0.90	2.91	0.85	3.06 ^b	0.69
<i>F</i>		1.54		1.62		2.9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학교 선호: '나는 학교를 좋아한다' (4점 척도임: 1. 좋아하지 않는다~4. 매우 좋아한다)

3) 교사 선호: '나는 학교 담임선생님을 좋아한다' (4점 척도임: 1. 좋아하지 않는다~4. 매우 좋아한다)

4) 성실성: '나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4점 척도임: 1. 열심히 한적 없음~4. 항상 열심히 함)

5)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p < .05$, ** $p < .01$.

학교생활느낌의 부정적 요소로는 부정적 기분, 교사와의 마찰, 피로도가 있다. 학교에서 아동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지(부정적 기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아동 평균은 4점 만점에 1.95점,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는지(교사마찰)에 대한 조사 결과는 1.62점, 학교에서 피곤할 때가 있는지(피로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2.23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교사와의 마찰과 학교피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와의 마찰이 더 많았고,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교피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학교피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취업모 가구 아동이 미취업모 가구 아동보다 학교피로도가 더 높았다. 아동 출생순위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62〉 아동의 학교생활느낌: 부정적 요소

단위: 점(명)

구분	계(수)	부정적 기분		교사 마찰		피로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1.95	0.51	1.62	0.54	2.23	0.74
아동 성별							
남	(689)	1.95	0.51	1.77	0.52	2.13	0.74
여	(668)	1.95	0.51	1.46	0.51	2.33	0.71
<i>t</i>		0.00		10.87***		-5.1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1.93	0.51	1.61	0.52	2.18	0.74
둘째 이상	(719)	1.97	0.50	1.64	0.55	2.27	0.73
외동아	(141)	1.96	0.57	1.55	0.50	2.22	0.74
<i>F</i>		0.73		1.75		2.39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1.97	0.52	1.61	0.53	2.29	0.77
미취업	(520)	1.94	0.49	1.62	0.54	2.13	0.68
<i>t</i>		0.87		-0.31		3.8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1.98	0.53	1.67	0.50	2.27	0.78
400~549만원	(458)	1.96	0.52	1.61	0.54	2.25	0.73
550~699만원	(235)	1.97	0.51	1.64	0.58	2.28	0.77
700만원 이상	(327)	1.92	0.50	1.57	0.52	2.17	0.69
<i>F</i>		0.84		1.91		1.2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부정적 기분: '나는 학교에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다' (4점 척도임: 1. 기분 안좋은 적 없음~4. 항상 기분이 안 좋음).

3) 교사 마찰: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 난 적이 있다' (4점 척도임: 1. 혼난적없음~4. 항상 혼남).

4) 피로도: '나는 학교에서 피곤할 때가 있다' (4점 척도임: 1. 피곤한 적 없음~4. 항상 피곤함).

*** $p < .001$.

다) 폭력피해 경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아동의 88.80%는 피해경험이 없었고,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연 1~2회가 7.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여러번이 1.92%,

월 1회 1.03%, 월 2~3회가 0.52%로 나타났다.

따돌림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93.88%는 피해 경험이 없었고,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연 1~2회가 전체아동의 3.02%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여러 번이 1.99%로 나타났다. 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80.47%는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에 비해 경험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연 1~2회 11.57%, 일주일에 여러 번 3.02%, 월 1회 2.21% 순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으로 툽툽침’, ‘심부름’, ‘숙제를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경험 조사결과 96.32%는 피해경험이 없었고,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일주일에 여러 번이 1.84%, 연 1~2회가 0.96%로 나타났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96.90%는 피해경험이 없었고,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일주일에 여러 번이 2.06%로 가장 많았고, 연 1~2회가 0.66%로 뒤를 이었다.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 조사결과 97.13%는 피해경험이 없었고,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일주일에 여러 번이 2.14%로 가장 많았고, 연 1~2회가 0.59%로 그 뒤를 이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 조사 결과 피해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4.47%였고, 피해경험 있는 경우 일주일에 여러 번이 2.43%, 연 1~2회가 2.21%로 나타났다.

〈표 IV-2-63〉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	1.92	0.44	0.52	1.03	7.30	88.80	100(1357)
따돌림 경험	1.99	0.37	0.44	0.29	3.02	93.88	100(1357)
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3.02	1.18	1.55	2.21	11.57	80.47	100(1357)
고의적으로 툽툽침, 심부름, 숙제 를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1.84	0.44	0.07	0.37	0.96	96.32	100(1357)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2.06	0.15	0.15	0.07	0.66	96.90	100(1357)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	2.14	0.07	0.07	-	0.59	97.13	100(1357)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 동을 당한 경험	2.43	0.29	0.29	0.29	2.21	94.47	100(1357)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 공간상에서 욕설 피해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81.21%(전년도 91.7%, 김은설 외, 2020: 133)였고,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1~2회가 12.60%(전년도 5.9%, 김은설 외, 2020: 133), 월 1~2회가 3.91%(전년도 0.7%, 김은설 외, 2020: 133)로 나타나 이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방 따돌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96.39%(전년도 97.0%, 김은설 외, 2020: 134)였고,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1~2회가 1.99%, 주 1~2회가 0.96%로 나타났다.

〈표 IV-2-64〉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계(수)
욕설	81.21	12.60	3.91	1.69	0.59	100(1357)
채팅방 따돌림	96.39	1.99	0.22	0.96	0.44	100(1357)

라) 친구관계

또래관계 척도 중 하나인 친구 수 조사결과, 남자친구는 8.13명, 여자친구는 6.45명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른 친구 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남학생의 경우는 남자친구가, 여학생은 여자친구가 더 많아 이성친구보다는 동성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여부, 가구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추가로 이성친구가 있다는 5.08%, 없다는 94.92%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수치를 보면 이성친구가 있다는 비율은 12.2%(김은설 외, 2019: 150), 7.5%(김은설 외, 2020: 136), 5.08%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아동 성별로는 남학생은 6.39%, 여학생은 3.74%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라 이성친구 유무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표 IV-2-65〉 아동의 친구 수 및 이성친구 유무

단위: 명, %

구분	계(수)	남자친구(수)		여자친구(수)		이성친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있음	없음
전체	(1357)	8.13	10.77	6.45	8.69	5.08	94.92
아동 성별							
남	(689)	12.30	12.34	3.55	7.45	6.39	93.61
여	(668)	3.83	6.51	9.45	8.86	3.74	96.26
$t/\chi^2(df)$		15.73***		-13.29***		4.91(1)*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8.16	11.00	6.32	8.29	5.03	94.97
둘째 이상	(719)	8.20	10.82	6.70	9.23	5.01	94.99
외동아	(141)	7.67	9.76	5.65	7.06	5.67	94.33
$F/\chi^2(df)$		0.15		0.97		0.11(2)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8.17	11.49	6.46	9.00	5.59	94.41
미취업	(520)	8.05	9.70	6.43	8.36	4.04	95.96
$t/\chi^2(df)$		0.20		0.07		1.61(1)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8.04	9.95	6.10	9.03	4.94	95.06
400~549만원	(458)	8.84	12.10	6.76	9.85	5.90	94.10
550~699만원	(235)	7.27	8.41	6.32	7.17	6.38	93.62
700만원 이상	(327)	7.86	10.67	6.13	7.04	3.67	96.33
$F/\chi^2(df)$		1.25		0.48		2.69(3)	

주: 1) 친구 수 중 0명으로 응답한 경우는, 남자 1.31%, 여자 1.35%, 총 1.33%임.

2)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패널아동의 또래애착을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은 4점 만점에 평균 3.09점, 신뢰는 평균 3.16점, 소외는 평균 1.91점으로 나타나, 의사소통과 신뢰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소외는 낮게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 보면 또래애착의 의사소통과 신뢰 하위척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 소외는 아동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또래애착 점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66〉 아동의 또래애착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의사소통		신뢰		소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3.09	0.52	3.16	0.58	1.91	0.62
아동 성별							
남	(689)	3.02	0.53	3.12	0.58	1.90	0.62
여	(668)	3.16	0.51	3.20	0.58	1.92	0.63
<i>t</i>		-4.85***		-2.65**		-0.60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3.11	0.54	3.18	0.59	1.92	0.65
둘째 이상	(719)	3.08	0.51	3.16	0.57	1.89	0.60
외동아	(141)	3.01	0.55	3.09	0.58	1.93	0.66
<i>F</i>		2.36		1.14		0.31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3.09	0.54	3.17	0.58	1.91	0.63
미취업	(520)	3.09	0.50	3.14	0.57	1.91	0.62
<i>t</i>		0.02		1.15		-0.1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3.03	0.52	3.11	0.56	1.94	0.60
400~549만원	(458)	3.10	0.52	3.17	0.59	1.89	0.64
550~699만원	(235)	3.06	0.54	3.15	0.60	1.96	0.59
700만원 이상	(327)	3.12	0.52	3.20	0.55	1.85	0.63
<i>F</i>		1.58		1.29		1.9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2) 자아 발달

가)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아동에게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등으로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점수가 3.38점으로 여학생의 3.25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나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월소득 400~549만원, 700만원 이상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7〉 아동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3.32	0.56
아동 성별			
남	(689)	3.38	0.55
여	(668)	3.25	0.56
<i>t</i>		4.18***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3.33	0.57
둘째 이상	(719)	3.29	0.55
외동아	(141)	3.40	0.54
<i>F</i>		2.49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3.32	0.56
미취업	(520)	3.32	0.55
<i>t</i>		0.1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3.26	0.58
400~549만원	(458)	3.34	0.55
550~699만원	(235)	3.26	0.57
700만원 이상	(327)	3.37	0.53
<i>F</i>		3.2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2.96점으로 나타나 ‘행복한 편이다’ 보다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에 다소 가깝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 모의 취업여부, 가구 소득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아동이 3.00점으로 가장 높고, 외동아 2.99점, 둘째아 이상이 2.93점으로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아동의 삶의 만족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평균 3.13점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 3.19점, 여학생 3.06점으로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출생순위, 모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68〉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2.96	0.48	3.13	0.54
아동 성별					
남	(689)	2.98	0.49	3.19	0.54
여	(668)	2.94	0.47	3.06	0.53
<i>t</i>		1.62		4.28***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3.00 ^a	0.50	3.14	0.57
둘째 이상	(719)	2.93 ^a	0.46	3.10	0.52
외동아	(141)	2.99 ^a	0.50	3.20	0.53
<i>F</i>		3.32*		2.30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2.95	0.48	3.12	0.54
미취업	(520)	2.98	0.48	3.13	0.54
<i>t</i>		-0.92		-0.2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2.93	0.50	3.09	0.54
400~549만원	(458)	2.99	0.49	3.15	0.56
550~699만원	(235)	2.91	0.48	3.06	0.52
700만원 이상	(327)	2.99	0.45	3.17	0.54
<i>F</i>		2.23		2.3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 전혀 행복하지 않다~4. 매우 행복하다).

3) 삶의 만족감: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나) GRIT (끈기)

아동에게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시작 하면 무조건 끝낸다’ 등의 문항으로 아동의 끈기(GRIT)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3.17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3.22점으로 여학생 3.1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별로는 외동아가 3.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첫째아동 3.21점, 둘째아 이상이 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 소득별로는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3.24점으로 가장 높으며, 550~699만원 3.08점으로 가장 낮아 이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69〉 아동의 GRIT(끈기)

단위: 점(명)

구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3.17	0.56
아동 성별			
남	(689)	3.22	0.57
여	(668)	3.12	0.55
<i>t</i>		3.30***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3.21 ^{ab}	0.56
둘째 이상	(719)	3.12 ^a	0.55
외동아	(141)	3.28 ^b	0.59
<i>F</i>		7.12***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3.15	0.56
미취업	(520)	3.20	0.56
<i>t</i>		-1.2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3.12 ^{ab}	0.57
400~549만원	(458)	3.20 ^{ab}	0.55
550~699만원	(235)	3.08 ^a	0.58
700만원 이상	(327)	3.24 ^b	0.54
<i>F</i>		4.7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다) 인성

아동의 인성에 대해 자기존중 외 10개 영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기존중, 자기조절, 정직용기 영역이 공통적으로 50.01점,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이 50.00점, 예의, 지혜, 시민성이 49.99점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정의가 49.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점수임.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각 영역별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존중의 경우 성별로는 남학생이 51.00점으로 여학생 48.9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출생순위별로는 외동아가 51.21점으로 가장 높고 첫째아동 50.66점, 둘째 이상 49.19점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모가 미취업한 경우 51.07점으로 취업한 경우 49.3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50.73점, 400~549만원 50.72점, 399만원 이하 49.22점, 550~699만원 48.07점으로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성실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50.64점, 여학생 49.31점으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외동아 51.95점, 첫째아동 50.57점, 둘째 이상이 49.05점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성실 점수는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나 모가 미취업한 경우가 50.95점으로 취업모의 49.36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배려소통’의 점수는 가구 소득별 로만 차이를 보여 월소득 700만원 이상 구간은 51.58점, 400~549만원은 50.06점으로 50점 이상으로 나타난 데 비해, 399만원 이하 구간은 49.10점, 550~699만원은 48.77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책임도 가구 소득에 따라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51.91점, 400~549만원이 50.36점으로 나타났으며, 550~699만원은 48.88점, 399만원 이하가 48.4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예의 영역 역시 가구 소득에 따라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50.98점, 400~549만원이 50.45점, 550~699만원 48.93점, 399만원 이하가 48.79점으로 나타나,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영역의 점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표 IV-2-70〉 아동의 인성 1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예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03)	50.01	8.14	50.00	7.15	50.00	6.87	50.00	7.74	49.99	6.94
아동 성별											
남	(312)	51.00	7.80	50.64	7.02	49.80	6.78	49.42	7.66	50.23	7.04
여	(291)	48.95	8.38	49.31	7.22	50.23	6.97	50.63	7.79	49.73	6.84
<i>t</i>		3.11**		2.28*		-0.77		-1.92		0.88	
아동 출생순위											
첫째	(235)	50.66	8.12	50.57 ^{ab}	6.79	49.65	6.97	49.86	7.62	49.98	7.04
둘째 이상	(295)	49.19	8.34	49.05 ^a	7.33	50.08	6.79	49.83	8.03	49.74	6.87
외동아	(73)	51.21	7.10	51.95 ^b	6.97	50.83	6.84	51.16	6.89	51.01	6.95
<i>F</i>		3.05*		6.16**		0.87		0.93		0.97	
모 취업 여부											
취업	(344)	49.31	8.45	49.36	7.10	49.79	6.89	49.75	7.64	49.59	7.07
미취업	(253)	51.07	7.65	50.95	7.15	50.36	6.81	50.47	7.82	50.63	6.71
<i>t</i>		-2.62**		-2.69**		-1.02		-1.11		-1.82	

구분	계(수)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예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9)	49.22	8.20	49.76	7.12	49.10 ^a	6.50	48.40 ^a	7.78	48.79	7.83
400~549만원	(213)	50.72	8.04	50.52	7.26	50.06 ^{ab}	7.07	50.36 ^{ab}	7.37	50.45	6.58
550~699만원	(107)	48.07	8.94	48.61	7.41	48.77 ^a	7.78	48.88 ^a	8.53	48.93	7.77
700만원 이상	(131)	50.73	7.21	50.48	6.86	51.58 ^b	5.98	51.91 ^b	7.20	50.98	5.94
<i>F</i>		3.31*		1.95		4.13**		5.39**		3.2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1$.

다음으로 ‘자기조절’ 영역의 점수를 보면 이 역시 가구 소득별로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51.69점, 400~549만원이 50.57점으로 50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399만원 이하가 48.69점, 550~699만원이 48.41점으로 5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정직용기’ 영역은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혜’ 영역의 경우 모 취업 여부에 따라 모가 미취업한 경우 50.76점으로 취업모의 49.4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51.29점, 400~549만원이 50.20점으로 나타났으며 550~699만원 49.40점, 399만원 이하가 48.37점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정의’ 영역에서는 모 취업 여부에 따라 모가 미취업한 경우 51.33점으로 모가 취업한 경우 49.0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민성’ 영역에서는 가구 소득별로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51.37점으로 가장 높고 다른 구간대는 49.1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2-71〉 아동의 인성 2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03)	50.01	7.20	50.01	6.99	49.99	7.46	49.96	7.33	49.99	6.77
아동 성별											
남	(312)	50.42	7.04	50.54	6.78	50.11	7.38	50.28	7.03	49.89	6.91
여	(291)	49.58	7.35	49.44	7.16	49.85	7.55	49.63	7.63	50.09	6.63
<i>t</i>		1.42		1.94		0.42		1.09		-0.36	

구분	계(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235)	50.18	6.76	49.82	6.76	49.54	7.50	49.90	7.33	49.80	6.94
둘째 이상	(295)	49.73	7.41	49.91	7.07	49.87	7.47	49.81	7.21	49.74	6.74
외동아	(73)	50.62	7.71	50.99	7.39	51.91	7.07	50.80	7.80	51.60	6.24
<i>F</i>		0.54		0.83		2.90		0.55		2.36	
모 취업 여부											
취업	(344)	49.84	7.05	49.60	6.98	49.47	7.57	49.04	7.60	49.58	6.83
미취업	(253)	50.30	7.46	50.63	6.97	50.76	7.28	51.33	6.72	50.53	6.68
<i>t</i>		-0.77		-1.80		-2.09*		-3.83***		-1.7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9)	48.69 ^a	7.63	49.46	7.09	48.37 ^a	7.51	49.52	7.55	49.18	7.52
400~549만원	(213)	50.57 ^{ab}	7.42	50.22	6.89	50.20 ^{ab}	7.78	50.08	7.63	49.62	6.76
550~699만원	(107)	48.41 ^a	7.16	49.51	7.14	49.40 ^{ab}	6.95	49.20	7.58	49.64	7.06
700만원 이상	(131)	51.69 ^b	6.19	50.64	6.94	51.29 ^b	7.12	51.03	6.45	51.37	5.74
<i>F</i>		5.97***		0.84		3.49*		1.46		2.6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3) T점수 기준점: 평균 50, 표준편차 10
 * $p < .05$, *** $p < .001$.

라)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우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 받지 않고 이용하기’에 대한 점수는 4.23점으로 아동들은 대체로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은 4.02점인 반면 여학생은 4.44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제정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의 경우 평균 4.1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성별 차이를 보여 남학생은 3.97점인 반면 여학생은 4.34점으로 문제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4.0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성별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3.89점인데 비해 여학생이 4.26점으로 문제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72〉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1

단위: 점(명)

구분	계(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 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4.23	1.39	4.15	1.31	4.07	1.40
아동 성별							
남	(689)	4.02	1.51	3.97	1.40	3.89	1.53
여	(668)	4.44	1.23	4.34	1.19	4.26	1.23
<i>t</i>		-5.56***		-5.31***		-4.88***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4.26	1.36	4.16	1.32	4.07	1.39
둘째 이상	(719)	4.22	1.40	4.15	1.30	4.08	1.39
외동아	(141)	4.16	1.50	4.18	1.34	4.04	1.46
<i>F</i>		0.31		0.03		0.03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4.19	1.43	4.12	1.34	4.04	1.42
미취업	(520)	4.29	1.34	4.20	1.26	4.13	1.36
<i>t</i>		-1.22		-1.13		-1.1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4.23	1.40	4.16	1.29	4.11	1.38
400~549만원	(458)	4.31	1.31	4.22	1.25	4.16	1.34
550~699만원	(235)	4.25	1.36	4.17	1.28	4.05	1.39
700만원 이상	(327)	4.10	1.51	4.06	1.40	3.93	1.49
<i>F</i>		1.40		0.90		1.8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

*** $p < .001$.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의 평균점수는 4.12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3.91점, 여학생 4.34점으로 여학생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의 평균점수는 4.2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남학생 3.99점, 여학생 4.42점으로 여학생의 문제의 심각성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의 평균점수는 4.2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성별 차이를 보여 남학생 4.03점, 여학생 4.46점으로 여학생의 심각성 인지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V-2-73〉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2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4.12	1.37	4.20	1.46	4.24	1.46
아동 성별							
남	(689)	3.91	1.51	3.99	1.60	4.03	1.62
여	(668)	4.34	1.18	4.42	1.26	4.46	1.25
<i>t</i>		-5.81***		-5.48***		-5.58***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4.11	1.34	4.21	1.43	4.25	1.44
둘째 이상	(719)	4.13	1.39	4.19	1.47	4.25	1.47
외동아	(141)	4.12	1.46	4.21	1.52	4.19	1.50
<i>F</i>		0.02		0.02		0.09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4.10	1.40	4.17	1.49	4.22	1.49
미취업	(520)	4.17	1.33	4.26	1.41	4.28	1.41
<i>t</i>		-0.89		-1.10		-0.7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4.13	1.37	4.19	1.43	4.26	1.44
400~549만원	(458)	4.19	1.32	4.28	1.40	4.29	1.42
550~699만원	(235)	4.09	1.33	4.20	1.45	4.27	1.43
700만원 이상	(327)	4.03	1.46	4.11	1.55	4.14	1.55
<i>F</i>		0.95		0.85		0.7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

*** $p < .001$.

3) 미래 인식

가) 진로

아동들에게 어른이 되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23.14%,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17.76%, ‘유명한 사람’ 15.18%,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9.95%,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2.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돈을 잘 버는 사람’에는 남학생의 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의 경우 여학생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고,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응답률은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여학생의 응답률이 높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의 경우는 남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남녀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IV-2-74〉 아동의 미래기대(장래희망)

단위: %(명)

구분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계(수)
전체	31.32	15.18	2.65	9.95	23.14	17.76	(1357)
아동 성별							
남	32.80	17.71	3.63	8.13	21.48	16.26	(689)
여	29.79	12.57	1.65	11.83	24.85	19.31	(668)
$\chi^2(df)$			20.00(5)**				
아동 출생순위							
첫째	28.77	15.69	3.22	11.07	24.14	17.10	(497)
둘째 이상	33.52	15.02	2.23	9.32	21.56	18.36	(719)
외동아	29.08	14.18	2.84	9.22	27.66	17.02	(141)
$\chi^2(df)$			7.21(10)				
모 취업 여부							
취업	32.80	15.28	2.48	9.19	23.23	17.02	(805)
미취업	28.85	15.38	3.08	10.77	22.88	19.04	(520)
$\chi^2(df)$			3.53(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4.98	15.21	1.52	12.17	19.77	16.35	(263)
400~549만원	28.38	17.25	2.84	9.83	24.24	17.47	(458)
550~699만원	30.21	16.17	1.70	8.51	22.98	20.43	(235)
700만원 이상	33.33	12.23	3.98	9.17	23.24	18.04	(327)
$\chi^2(df)$			15.18(15)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아동에게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등의 문항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인식과 전망, 부모의 영향 정도를 묻는 진로성숙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아동 출생순위별로 차이를 보여 둘째 이상이 2.07점, 첫째아동 1.98점, 외동아는 1.9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의 취업여부, 가구 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75〉 아동의 진로성숙도

단위: 점(명)

구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2.02	0.54
아동 성별			
남	(689)	2.05	0.55
여	(668)	1.99	0.53
<i>t</i>			1.97*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1.98 ^{ab}	0.55
둘째 이상	(719)	2.07 ^b	0.53
외동아	(141)	1.93 ^a	0.57
<i>F</i>			7.22***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2.03	0.54
미취업	(520)	2.02	0.54
<i>t</i>			0.28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2.02	0.56
400~549만원	(458)	2.02	0.54
550~699만원	(235)	2.05	0.55
700만원 이상	(327)	1.99	0.55
<i>F</i>			0.5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아니다~4.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나) 결혼 및 양육 의향

아동에게 미래에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41.7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른다’ 44.22%, ‘없다’ 14.00%로 응답하였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 묻는 결과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46.50%로 가장 많고 ‘있다’가 36.70%, ‘없다’가 16.80%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성별 차이를 보여 결혼 의사에 있어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약 5%p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의사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약 10%p 높게 나타났다.

〈표 IV-2-76〉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단위: %(명)

구분	결혼 의사				자녀양육 의사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전체	41.78	14.00	44.22	(1357)	36.70	16.80	46.50	(1357)
아동 성별								
남	44.41	10.89	44.70	(689)	41.51	12.77	45.72	(689)
여	39.07	17.22	43.71	(668)	31.74	20.96	47.31	(668)
$\chi^2(df)$		12.10(2)**				22.54(2)***		
아동 출생순위								
첫째	40.64	14.69	44.67	(497)	36.82	17.30	45.88	(497)
둘째 이상	41.72	13.91	44.37	(719)	36.30	16.69	47.01	(719)
외동아	46.10	12.06	41.84	(141)	38.30	15.60	46.10	(141)
$\chi^2(df)$		1.54(4)				0.42(4)		
모 취업 여부								
취업	42.24	13.29	44.47	(805)	36.77	16.15	47.08	(805)
미취업	42.69	14.42	42.88	(520)	37.88	17.31	44.81	(520)
$\chi^2(df)$		0.49(2)				0.71(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0.68	14.07	45.25	(263)	38.40	17.11	44.49	(263)
400~549만원	41.48	13.76	44.76	(458)	36.03	15.72	48.25	(458)
550~699만원	42.55	14.89	42.55	(235)	38.30	19.57	42.13	(235)
700만원 이상	41.59	13.15	45.26	(327)	34.56	15.90	49.54	(327)
$\chi^2(df)$		0.70(6)				4.53(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 $p < .001$.

4) 경제관념 및 경제행동

아동에게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1점 '매우 못산다'부터 10점 '매우 잘산다' 사 이로 답하길 물은 결과, 7점 24.39%, 6점 23.21%로 다수의 아동의 6~7점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점 18.35%, 8점 17.61%로 응답하여 5~8점에 83% 이상의 아동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가구 소득별로 차이를 보여,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경우 7점 26.30%, 8점 22.94%로 7~8점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550~699만원 구간의 아동은 7점 28.51%, 6점 27.23%로 6~7점에 높게 응답하고, 400~549만원 구간의 아동도 7점 23.58%, 6점 22.71%로 6~7점 구간의 응답률이 높은데 비해, 399만원 이하 구간의 아동은 6점 26.24%, 5점 25.48%로 5~6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77〉 아동의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단위: %(명), 점

구분	점 수										계(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7	0.15	1.25	5.01	18.35	23.21	24.39	17.61	5.31	4.64	(1357)	6.61	1.53
아동 성별													
남	0.15	0.15	1.31	4.64	17.27	23.08	24.96	17.42	5.81	5.22	(689)	6.66	1.55
여	0.00	0.15	1.20	5.39	19.46	23.35	23.80	17.81	4.79	4.04	(668)	6.56	1.51
x ² (df)/t	4.17(9)											1.30	
아동 출생순위													
첫째	0.20	0.20	0.60	4.02	19.32	19.52	27.16	18.51	4.63	5.84	(497)	6.70 ^{ab}	1.54
둘째 이상	0.00	0.14	1.81	5.98	18.22	25.87	22.67	16.55	4.87	3.89	(719)	6.50 ^a	1.52
외동아	0.00	0.00	0.71	3.55	15.60	22.70	23.40	19.86	9.93	4.26	(141)	6.85 ^b	1.50
x ² (df)/F	27.09(18)											4.65 ^{**}	
모 취업 여부													
취업	0.00	0.12	1.49	4.72	19.01	22.11	24.97	17.39	5.09	5.09	(805)	6.62	1.54
미취업	0.19	0.19	0.96	4.81	17.50	25.19	23.65	18.08	5.77	3.65	(520)	6.60	1.50
x ² (df)/t	6.04(9)											0.2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0.38	0.00	2.66	8.37	25.48	26.24	17.87	12.55	3.04	3.42	(263)	6.14 ^a	1.55
400~549만원	0.00	0.22	1.09	6.55	19.43	22.71	23.58	16.59	5.68	4.15	(458)	6.54 ^b	1.54
550~699만원	0.00	0.00	0.85	2.13	15.32	27.23	28.51	18.72	3.83	3.40	(235)	6.69 ^b	1.33
700만원 이상	0.00	0.31	0.31	3.06	11.31	20.49	26.30	22.94	8.26	7.03	(327)	7.06 ^c	1.50
x ² (df)/F	78.68(27) ^{***}											18.94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 매우 못 산다~10. 매우 잘 산다).

** $p < .01$, *** $p < .001$.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에게 용돈을 주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할 때마다 준다’고 응답한 경우가 49.57%로 가장 많고, ‘정기적으로 준다’는 응답은 41.05%,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9.38%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응답 비중이 달라져 ‘필요시 지급’은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51.38%로 모가 취업한 경우 48.6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정기지급’은 모가 취업한 경우 43.85%로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3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지 않음’은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12.15%로 모가 취업한 경우 7.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주일 간 받는 평균 용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7,240 원으로 조사되었다.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가 취업한 경우 아동의 용돈은 7,760원으로 모가 미취업한 아동의 용돈 6,410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3-78〉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시 액수

단위: %(가구), 천원(명)

구분	용돈 지급 여부				일주일 용돈 지급액		
	주지않음	필요시 지급	정기지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38	49.57	41.05	(1396)	7.24	8.36	(1191)
아동 성별							
남	10.47	50.92	38.61	(707)	7.03	7.71	(600)
여	8.27	48.19	43.54	(689)	7.46	8.98	(591)
$\chi^2(df)/t$		4.38(2)			-0.89		
아동 출생순위							
첫째	9.45	50.20	40.35	(508)	6.87	9.29	(437)
둘째 이상	9.68	48.92	41.40	(744)	7.41	8.11	(627)
외동아	7.64	50.69	41.67	(144)	7.71	5.87	(127)
$\chi^2(df)/F$		0.77(4)			0.76		
모 취업 여부							
취업	7.55	48.60	43.85	(821)	7.76	8.65	(716)
미취업	12.15	51.38	36.46	(543)	6.41	8.04	(448)
$\chi^2(df)/t$		12.25(2)**			2.6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89	58.52	32.59	(270)	6.29	4.92	(234)
400~549만원	8.86	48.31	42.83	(474)	7.13	9.96	(411)
550~699만원	9.58	46.67	43.75	(240)	7.33	8.05	(203)
700만원 이상	8.90	47.77	43.32	(337)	8.02	6.75	(289)
$\chi^2(df)/F$		11.09(6)			2.04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보호자에게 아동이 용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질문한 결과, ‘간식 및 군것질하기’가 7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저축’ 11.42%,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활동’ 7.30%, ‘학습자료(학용품, 준비물 등)’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간식 및 군것질하기’, ‘저축’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활동’, ‘학습자료(학용품, 준비물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별로도 달라져 ‘저축’은 첫째아동이 가장 높고 둘째 이상, 외동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식 및 군것질하기’는

둘째 이상인 아동이 가장 높고, 외동아, 첫째아동 순으로 확인되었다.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외동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첫째아동, 둘째 이상인 아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79〉 아동의 용돈 사용처

단위: %(명)

구분	학습 자료 (학용품, 준비물 등)	저축	간식 및 군것질하기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 활동	기타	계(수)
전체	2.27	11.42	77.25	7.30	1.76	(1191)
아동 성별						
남	1.17	12.67	79.17	6.00	1.00	(600)
여	3.38	10.15	75.30	8.63	2.54	(591)
$\chi^2(df)$			15.50(4)**			
아동 출생순위						
첫째	3.20	13.96	72.54	8.24	2.06	(437)
둘째 이상	1.44	10.53	80.70	5.74	1.59	(627)
외동아	3.15	7.09	76.38	11.81	1.57	(127)
$\chi^2(df)$			17.76(8)*			
모취업						
취업	2.09	10.47	78.63	6.98	1.82	(716)
미취업	2.68	12.72	74.78	8.04	1.79	(448)
$\chi^2(df)$			2.58(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71	10.26	76.92	9.40	1.71	(234)
400~549만원	1.95	12.41	78.83	5.35	1.46	(411)
550~699만원	2.46	10.84	76.35	8.87	1.48	(203)
700만원 이상	2.77	11.07	77.85	6.57	1.73	(289)
$\chi^2(df)/F$			6.34(1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아동에게 평소에 저축을 하는지 질문한 결과, 67.43%가 저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축한다고 응답한 아동들에게 주로 어떤 돈으로 저축하는지 질문한 결과,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으로 저축한다는 응답이 62.3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32.02%, ‘기타’ 3.17%, ‘집안 일 돕기, 부모님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 2.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0〉 아동의 저축 실태

단위: %(명)

구분	평소 저축 실태		주로 어떤 돈으로 저축하는지				계(수)
	저축함	계(수)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집안 일 돕기, 부모님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	기타	
전체	67.43	(1357)	32.02	62.30	2.51	3.17	(915)
아동 성별							
남	67.20	(689)	33.48	60.69	2.38	3.46	(463)
여	67.66	(668)	30.53	63.94	2.65	2.88	(452)
$\chi^2(df)$	0.03(1)			1.32(3)			
아동 출생순위							
첫째	73.64	(497)	34.15	61.20	2.73	1.91	(366)
둘째 이상	62.59	(719)	30.44	62.89	2.67	4.00	(450)
외동아	70.21	(141)	31.31	63.64	1.01	4.04	(99)
$\chi^2(df)$	16.91(2)***			5.05(6)			
모 취업 여부							
취업	68.20	(805)	32.79	61.02	3.10	3.10	(549)
미취업	67.69	(520)	30.11	64.77	1.70	3.41	(352)
$\chi^2(df)$	0.04(1)			2.66(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0.46	(263)	30.19	63.52	1.89	4.40	(159)
400~549만원	67.25	(458)	37.34	58.12	1.62	2.92	(308)
550~699만원	67.23	(235)	31.01	62.66	4.43	1.90	(158)
700만원 이상	72.17	(327)	28.39	65.25	2.97	3.39	(236)
$\chi^2(df)$	9.08(3)*			10.38(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또한, 저축한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저축의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저금통에 모은다'가 2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갑에 모아둔다' 27.21%,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21.09%,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한다' 20.66%, '기타' 3.61%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1〉 아동의 저축 방식

단위: %(명)

구분	저축 방식					계(수)
	저금통에 모은다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	지갑에 모아둔다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기타	
전체	27.43	20.66	27.21	21.09	3.61	(915)
아동 성별						
남	26.35	20.52	26.35	23.33	3.46	(463)
여	28.54	20.80	28.10	18.81	3.76	(452)
$\chi^2(df)$			2.94(4)			
아동 출생순위						
첫째	26.23	19.13	28.42	22.13	4.10	(366)
둘째 이상	28.00	21.11	27.11	20.89	2.89	(450)
외동아	29.29	24.24	23.23	18.18	5.05	(99)
$\chi^2(df)$			4.27(8)			
모 취업 여부						
취업	27.14	21.86	25.32	22.22	3.46	(549)
미취업	26.99	19.60	29.83	19.60	3.98	(352)
$\chi^2(df)$			2.98(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3.33	16.35	28.30	18.87	3.14	(159)
400~549만원	28.90	19.81	27.92	19.16	4.22	(308)
550~699만원	26.58	28.48	20.89	20.89	3.16	(158)
700만원 이상	20.34	21.61	30.51	24.15	3.39	(236)
$\chi^2(df)$			18.52(12)			

주: 아동의 응답임.

5) 사회관련 인식

아동에게 ‘나는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나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참여의식’, ‘타인배려’, ‘협력학습’을 측정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 질문하고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78점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집단별로는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나, 월소득 400~549만원, 700만원 이상 구간이 동일하게 3.8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50~699만원 3.71점, 399만원 이하 3.67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82〉 아동의 공동체 의식

단위: 점(명)

구분	계(수)	공동체 의식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7)	3.78	0.63
아동 성별			
남	(689)	3.79	0.66
여	(668)	3.77	0.59
<i>t</i>			0.69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3.78	0.64
둘째 이상	(719)	3.78	0.59
외동아	(141)	3.81	0.73
<i>F</i>			0.13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3.77	0.62
미취업	(520)	3.81	0.63
<i>t</i>			-1.1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3.67 ^a	0.65
400~549만원	(458)	3.84 ^b	0.62
550~699만원	(235)	3.71 ^{ab}	0.61
700만원 이상	(327)	3.84 ^b	0.63
<i>F</i>			5.6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01$.

여기서는 아동이 집,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 느끼는 안전에 대한 체감도와 안전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 느낀다'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묻은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4.47점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 대해서는 평균 4.27점으로 집보다는 다소 낮으나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는 평균 4.05점으로 집과 학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국가는 평균 3.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집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모가 미취업한 경우 4.52점에 비해 모가 취업한 경우는 4.43점으로 안전 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지역사회와 국가 각각에 대한 남학생의 안전 체감도가 4.15점, 3.77점인데 비해 여학

생은 3.94점 3.48점으로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나, 월소득 700만원 이상이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399만원 이하가 3.65점, 400~549만원 3.58점, 550~699만원 3.54점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안전 체감도에 이어 아동에게 학교에서 지난 1년간 받은 안전교육이 실제 위험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평균 3.97점으로 나와 아동들이 학교의 안전교육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차이를 보여 남학생의 평균이 4.04점인데 비해 여학생은 3.90점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유용성 인식 정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2-83〉 아동의 안전 체감도 및 대처인식

단위: 점(명)

구분	계(수)	안전 체감도								대처인식	
		집		학교		지역사회		국가		안전교육 유용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57)	4.47	0.67	4.27	0.78	4.05	0.87	3.63	1.07	3.97	0.92
아동 성별											
남	(689)	4.49	0.64	4.29	0.79	4.15	0.86	3.77	1.09	4.04	0.94
여	(668)	4.44	0.69	4.24	0.77	3.94	0.86	3.48	1.04	3.90	0.89
<i>t</i>		1.36		1.02		4.48***		5.00***		2.7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97)	4.47	0.69	4.30	0.77	4.08	0.86	3.66	1.09	4.01	0.94
둘째 이상	(719)	4.45	0.65	4.25	0.76	4.02	0.85	3.59	1.06	3.94	0.90
외동아	(141)	4.54	0.64	4.21	0.91	4.12	0.95	3.74	1.08	3.96	0.98
<i>F</i>		1.01		0.97		1.40		1.46		0.96	
모 취업 여부											
취업	(805)	4.43	0.67	4.26	0.78	4.02	0.87	3.61	1.07	3.93	0.92
미취업	(520)	4.52	0.65	4.28	0.78	4.10	0.87	3.65	1.08	4.02	0.93
<i>t</i>		-2.19*		-0.57		-1.78		-0.77		-1.8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3)	4.41	0.70	4.22	0.80	4.03	0.90	3.65	1.07	4.05	0.86
400~549만원	(458)	4.45	0.67	4.24	0.80	4.02	0.89	3.58	1.11	3.99	0.93
550~699만원	(235)	4.46	0.71	4.24	0.78	4.04	0.87	3.54	1.03	3.88	0.94
700만원 이상	(327)	4.54	0.59	4.35	0.75	4.15	0.79	3.78	1.04	3.94	0.95
<i>F</i>		1.78		1.63		1.83		3.19*		1.5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 및 가구 특성

3절에서는 13차년도 패널가구의 부모 특성과 가구 특성을 살펴보았다. 부모 특성은 크게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 양육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패널가구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과 돌봄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부모 특성은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일부 양육 특성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이 직접 부모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가구 특성은 주로 주양육자 응답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IV-3-1〉 13차년도 부모 특성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연령, 최종학력
			• ○○(이)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행동유형
			• 정서조절곤란(심층)
			•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부부 특성	• 결혼 상태 및 유지 기간
			• 부부갈등
	기타 특성	• 미디어기기 중독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 주관적 건강 상태
			• 1·2급 장애 유무
		음주 및 흡연	• 음주횟수, 양, 과음 횟수
			• 흡연 여부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 취/학업 상태
		취업 특성	•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종사상 지위
			• 취업모의 (주중, 주말) 근무 일/시간 • 취업모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양육 특성	양육 실제	• 양육방식(성취압력)
			• 양육스트레스
			• 아동학대
• 사회적 지원 정도 및 인원			
부모 감독 및 참여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 부모 감독,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 ○○(이) 개별 방 여부
	경제적 특성	소득	• 가구 소득, 취업 모 근로 소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지출	•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자산 및 부채	• 부동산, 금융자산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돌봄 특성	돌봄서비스 이용	• (학기/방학 중) 이용 유형, 시간, 빈도, 비용, 만족도	

가. 부모 특성

1) 개인 및 부부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13차년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초등 6학년 패널아동의 어머니들은 평균 연령 43.07세였고,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5.54세로 조사되었다. 패널가구 부모의 최종학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이 37.9%, 전문대 졸업이 29.3% 순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응답자의 41.4%가 4년제 졸업자였고, 그 다음으로는 25.1%가 고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세, (명)

연령	어머니	아버지	학력	어머니	아버지
20대	-	-	초졸	0.1	-
30대	13.9	5.2	중졸	0.4	0.5
40대	81.7	80.3	고졸	25.9	25.1
50대 이상	4.4	14.5	전문대졸	29.3	21.1
평균	43.07	45.54	대졸	37.9	41.4
표준편차	3.62	3.91	대학원졸	6.4	11.9
계(수)	100.0(1,376)	100.0(1,349)	계(수)	100.0(1,380)	100.0(1,352)

아동과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 가구의 99.6%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아버지와 동거하는 비율은 94.3%로 나타났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모의 타지역 근무나 학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3-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단위: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계(수)	타지역 근무 (학업)	아동의 국내외 유학중	장기입원, 요양중	기타	계(수)
어머니	99.6	0.4	100.0(1379)	66.7	-	16.7	16.7	100.0(6)
아버지	94.3	5.7	100.0(1347)	93.5	1.3	-	5.2	100.0(77)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심리학적 특성

부모의 심리학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에 대해 먼저 알아본 결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78점($SD=0.56$), 아버지는 평균 3.81점($SD=0.54$)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모두 최종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버지는 대졸 이상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보다 적은 집단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없었다.

〈표 IV-3-4〉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8	0.56	(1303)	3.81	0.54	(1231)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63 ^a	0.59	(339)	3.70 ^a	0.51	(320)
전문대졸	3.78 ^b	0.51	(380)	3.71 ^a	0.52	(252)
대졸 이상	3.88 ^c	0.56	(572)	3.90 ^b	0.54	(653)
F	23.27***			21.52***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59 ^a	0.59	(256)	3.68 ^a	0.54	(225)
400~549만원	3.74 ^b	0.57	(436)	3.78 ^a	0.53	(419)
550~699만원	3.88 ^c	0.52	(226)	3.79 ^a	0.54	(220)
700만원 이상	3.96 ^c	0.51	(316)	3.96 ^b	0.50	(300)
<i>F</i>	23.70***			13.25***		
지역규모						
대도시	3.75	0.54	(538)	3.77	0.53	(503)
중소도시	3.82	0.57	(688)	3.83	0.54	(656)
읍/면	3.73	0.55	(77)	3.83	0.47	(72)
<i>F</i>	2.42			1.59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3번, 5번, 8번, 9번, 10번 문항은 역코딩함.
 *** $p < .001$.

패널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7점 척도를 기준으로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5.17점(SD=0.96),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5.24점(SD=0.97)로 보고되었다.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도 조사결과(어머니 주관적 행복감 평균 5.19점, 아버지 주관적 행복감 평균 5.30점, 김은설 외, 2020: 169)보다 다소 낮아진 경향이 있다.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어머니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어머니 집단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하인 아버지 집단보다 대졸 이상인 아버지 집단의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모두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3-5〉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17	0.96	(1303)	5.24	0.97	(1231)
모/부 학력						
고졸 이하	4.91 ^a	0.97	(339)	5.02 ^a	0.95	(320)
전문대졸	5.22 ^b	0.89	(380)	5.12 ^a	1.03	(252)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대졸 이상 <i>F</i>	5.32 ^b	0.97	(572)	5.39 ^b	0.94	(653)
	20.18***			18.6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86 ^a	1.00	(256)	4.95 ^a	1.01	(225)
400~549만원	5.12 ^b	0.96	(436)	5.19 ^b	0.97	(419)
550~699만원	5.30 ^{bc}	0.93	(226)	5.25 ^b	0.95	(220)
700만원 이상	5.41 ^c	0.90	(316)	5.50 ^c	0.90	(300)
<i>F</i>	17.84***			14.91***		
지역규모						
대도시	5.11	0.94	(538)	5.17	0.95	(503)
중소도시	5.23	0.98	(688)	5.28	0.98	(656)
읍면	5.09	1.01	(77)	5.27	1.04	(72)
<i>F</i>	2.74			1.96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7점 척도임.
 3)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
 *** $p < .001$.

패널아동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는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전체 평균은 2.91점($SD=0.61$)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약간 받는 수준이며, 어머니의 세부특성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구분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많이 받음	계(수)	단위: %(명), 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22.5	62.7	14.5	100.0(1303)	2.91	0.61
모 취업 여부							
취업	0.4	23.1	62.3	14.2	100.0(772)	2.90	0.62
미취업	0.2	21.9	63.0	14.8	100.0(506)	2.92	0.61
$\chi^2(df)/t$	0.62(3)					-0.59	
모 학력							
고졸 이하	0.6	17.4	63.4	18.6	100.0(339)	3.00 ^b	0.62
전문대졸	0.3	25.8	61.8	12.1	100.0(380)	2.86 ^a	0.61
대졸 이상	0.2	23.1	62.8	14.0	100.0(572)	2.91 ^{ab}	0.61
$\chi^2(df)/F$	12.58(6)					5.00**	

구분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많이 받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0.8	19.5	61.7	18.0	100.0(256)	2.97	0.64
400~549만원	-	23.9	60.6	15.6	100.0(436)	2.92	0.62
550~699만원	0.4	25.2	62.4	11.9	100.0(226)	2.86	0.61
700만원 이상	0.3	21.5	64.9	13.3	100.0(316)	2.91	0.60
$\chi^2(df)/F$		9.59(9)				1.29	
지역규모							
대도시	0.4	19.9	64.5	15.2	100.0(538)	2.95	0.60
중소도시	0.1	24.6	61.3	14.0	100.0(688)	2.89	0.62
읍면	1.3	22.1	62.3	14.3	100.0(77)	2.90	0.64
$\chi^2(df)/F$		6.90(6)				1.26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 4. 많이 받음).

** $p < .01$.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2.90점 ($SD=0.68$)으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점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 집단과 동일하게 세부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3-7〉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많이 받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6	23.3	58.0	17.1	100.0(1231)	2.90	0.68
부 학력							
고졸 이하	2.5	23.4	55.9	18.1	100.0(320)	2.90	0.71
전문대졸	1.2	25.8	57.1	15.9	100.0(252)	2.88	0.67
대졸 이상	1.4	22.4	59.4	16.8	100.0(653)	2.92	0.66
$\chi^2(df)/F$		3.88(6)				0.3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3	25.3	57.3	16.0	100.0(225)	2.88	0.67
400~549만원	1.9	19.8	61.1	17.2	100.0(419)	2.94	0.67
550~699만원	0.5	25.5	55.0	19.1	100.0(220)	2.93	0.68
700만원 이상	2.7	24.7	55.7	17.0	100.0(300)	2.87	0.71
$\chi^2(df)/F$		9.16(9)				0.72	
지역규모							
대도시	1.8	21.7	59.2	17.3	100.0(503)	2.92	0.68
중소도시	1.4	24.2	57.3	17.1	100.0(656)	2.90	0.68
읍면	2.8	26.4	55.6	15.3	100.0(72)	2.83	0.71
$\chi^2(df)/F$		2.46(6)				0.54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 4. 많이 받음).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먼저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평균 3.45점(SD=0.73)이고, 최종학력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가구소득도 550만원을 기준으로 55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55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8〉 모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6	9.6	36.4	50.6	2.8	100.0(1303)	3.45	0.73
모 취업 여부								
취업	0.5	9.3	37.7	49.5	3.0	100.0(772)	3.45	0.72
미취업	0.6	9.5	35.0	52.2	2.8	100.0(506)	3.47	0.73
$\chi^2(df)/t$			1.14(4)					-0.47
모 학력								
고졸 이하	0.9	13.9	47.2	36.3	1.8	100.0(339)	3.24 ^a	0.74
전문대졸	0.5	7.1	38.9	51.3	2.1	100.0(380)	3.47 ^b	0.68
대졸 이상	0.5	8.2	28.3	58.9	4.0	100.0(572)	3.58 ^b	0.72
$\chi^2(df)/F$			58.88(8)***					23.4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0	14.5	43.0	39.1	1.6	100.0(256)	3.24 ^a	0.79
400~549만원	0.2	10.6	43.1	43.6	2.5	100.0(436)	3.38 ^a	0.71
550~699만원	0.4	7.1	32.3	55.8	4.4	100.0(226)	3.57 ^b	0.71
700만원 이상	0.3	6.3	25.0	64.6	3.8	100.0(316)	3.65 ^b	0.67
$\chi^2(df)/F$			69.74(12)***					19.20***
지역규모								
대도시	0.6	9.9	39.4	48.0	2.2	100.0(538)	3.41	0.72
중소도시	0.7	9.0	33.7	53.1	3.5	100.0(688)	3.50	0.74
읍면	-	13.0	39.0	46.8	1.3	100.0(77)	3.36	0.72
$\chi^2(df)/F$			8.83(8)					2.50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못함 ~ 5. 매우 만족).

*** $p < .001$.

패널아동 아버지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0점($SD=0.76$)으로 어머니 평균점수(3.45점) 보다 조금 높았다. 아버지의 세부특성별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아버지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에 비해 삶에 대해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표 IV-3-9〉 부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보통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1	8.4	35.0	50.4	5.1	100.0(1231)	3.50	0.76
부 학력								
고졸 이하	1.6	9.4	42.8	42.5	3.8	100.0(320)	3.38 ^a	0.77
전문대졸	1.2	9.5	42.9	43.3	3.2	100.0(252)	3.38 ^a	0.75
대졸 이상	0.8	7.5	28.0	57.3	6.4	100.0(653)	3.61 ^b	0.75
$\chi^2(df)/F$			39.72(8)***					14.7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3	13.3	42.2	39.6	3.6	100.0(225)	3.31 ^a	0.8
400~549만원	1.4	11.5	38.7	44.4	4.1	100.0(419)	3.38 ^a	0.8
550~699만원	-	6.4	34.5	53.6	5.5	100.0(220)	3.58 ^b	0.69
700만원 이상	0.7	2.7	23.0	65.3	8.3	100.0(300)	3.78 ^c	0.66
$\chi^2(df)/F$			74.21(12)***					23.61***
지역규모								
대도시	0.8	10.3	34.8	50.7	3.4	100.0(503)	3.46	0.76
중소도시	0.9	7.0	34.9	50.9	6.3	100.0(656)	3.55	0.75
읍면	4.2	6.9	37.5	44.4	6.9	100.0(72)	3.43	0.89
$\chi^2(df)/F$			16.76(8)*					2.34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못함 ~ 5. 매우 만족).

* $p < .05$, *** $p < .001$.

정서조절곤란은 2020년 심층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변인으로, 전체 패널가구 중 일부 가구만 응답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조절곤란 변인은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총 6개 하위척도로 이뤄진 심리적 특성으로

5점 만점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곤란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조용래, 2007: 1015-1038).

먼저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을 살펴보면, 충동통제에 대해서는 평균 2.23점 ($SD=0.75$) 정도의 곤란을 느끼고 있고,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은 평균 2.18점 ($SD=0.54$),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부분은 평균 2.36점($SD=0.75$),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평균 2.01점($SD=0.69$),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평균 2.18점 ($SD=0.68$), 마지막으로 목표지향 행동수행의 어려움 영역은 평균 2.81점($SD=0.86$)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영역과 정서적 명료성 부족 영역의 어머니 점수가 5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점수 2점대 초반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주의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편으로 보여진다. 한편, 목표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 영역은 평균 2.81점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정서조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 문항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가 있는데, 정서조절 곤란으로 인해 목표한 행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표 IV-3-10〉 정서조절곤란: 어머니

단위: (명), 점

구분	(수)	충동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 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02)	2.23	0.75	2.18	0.54	2.36	0.75	2.01	0.69	2.18	0.68	2.81	0.86
모 취업 여부													
취업	(344)	2.22	0.81	2.21	0.60	2.33	0.79	2.04	0.74	2.18	0.77	2.81	0.90
미취업	(253)	2.26	0.66	2.15	0.46	2.40	0.69	1.96	0.61	2.17	0.53	2.82	0.80
<i>t</i>		-0.67		-0.67		-1.21		1.30		0.11		-0.11	
모 학력													
고졸 이하	(142)	2.26	0.83	2.20	0.54	2.46	0.81	2.09	0.68	2.26	0.79	2.80	0.96
전문대졸	(188)	2.23	0.67	2.16	0.47	2.34	0.65	1.97	0.62	2.15	0.54	2.76	0.78
대졸 이상	(272)	2.22	0.76	2.18	0.59	2.32	0.78	1.99	0.73	2.15	0.70	2.85	0.87
<i>F</i>		0.18		0.16		1.73		1.35		1.49		0.59	

구분	(수)	충동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 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8)	2.25	0.70	2.22	0.53	2.33	0.68	2.06	0.65	2.20	0.60	2.79	0.87
400-549만원	(213)	2.29	0.78	2.18	0.50	2.43	0.77	2.01	0.66	2.23	0.73	2.83	0.89
550-699만원	(107)	2.21	0.68	2.15	0.38	2.32	0.65	1.99	0.60	2.11	0.49	2.75	0.82
700만원 이상	(131)	2.16	0.83	2.17	0.73	2.34	0.86	1.96	0.84	2.14	0.80	2.84	0.91
<i>F</i>		0.75		0.42		0.85		0.49		0.95		0.26	
지역규모													
대도시	(227)	2.21	0.74	2.19	0.47	2.30	0.73	1.98	0.59	2.16	0.71	2.81	0.87
중소도시	(345)	2.26	0.76	2.18	0.59	2.42	0.76	2.03	0.75	2.20	0.65	2.83	0.86
읍면	(30)	2.09	0.74	2.05	0.50	2.16	0.70	1.96	0.68	2.04	0.69	2.50	0.85
<i>F</i>		0.91		0.86		2.84		0.48		0.93		2.06	

주: 1) 어머니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패널가구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에 대해서도 영역별로 살펴보면, 충동통제에 대해서는 평균 2.18점($SD=0.63$),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은 평균 2.25점($SD=0.56$),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평균 2.40점($SD=0.64$), 정서적 명료성 부족은 평균 1.95점($SD=0.69$),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평균 2.17점($SD=0.61$), 마지막으로 목표지향 행동수행의 어려움 영역은 평균 2.72점($SD=0.92$)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영역별 평균점수는 어머니 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IV-3-11〉 정서조절곤란: 아버지

단위: (명), 점

구분	(수)	충동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 전략 접근 제한		목표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97)	2.18	0.63	2.25	0.56	2.40	0.64	1.95	0.69	2.17	0.61	2.72	0.92
부 학력													
고졸 이하	(145)	2.18	0.56	2.31 ^a	0.47	2.47	0.56	2.01	0.64	2.21	0.56	2.67	0.84
전문대졸	(125)	2.26	0.64	2.31 ^a	0.54	2.42	0.62	1.96	0.64	2.21	0.63	2.74	0.98
대졸 이상	(326)	2.16	0.66	2.19 ^a	0.60	2.36	0.68	1.92	0.74	2.13	0.62	2.73	0.94
<i>F</i>		1.18		3.26*		1.64		0.96		1.30		0.30	

구분	(수)	총동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 전략 접근 제한		목표사항 행동 수행 어려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15)	2.20	0.57	2.24	0.51	2.41	0.58	2.00	0.69	2.16	0.54	2.71	0.88
400~549만원	(212)	2.17	0.55	2.26	0.52	2.43	0.62	1.95	0.63	2.16	0.55	2.72	0.84
550~699만원	(107)	2.26	0.59	2.27	0.46	2.37	0.52	1.97	0.62	2.22	0.51	2.75	0.80
700만원 이상	(130)	2.11	0.81	2.20	0.73	2.33	0.83	1.87	0.83	2.09	0.76	2.66	1.04
<i>F</i>		1.16		0.33		0.71		0.71		0.95		0.18	
지역규모													
대도시	(227)	2.13	0.54	2.23	0.46	2.32 ^a	0.56	1.93	0.60	2.13	0.51	2.68	0.81
중소도시	(340)	2.22	0.69	2.27	0.62	2.46 ^a	0.70	1.98	0.76	2.20	0.67	2.76	1.00
읍면	(30)	2.16	0.64	2.14	0.46	2.20 ^a	0.53	1.79	0.63	2.05	0.49	2.57	0.86
<i>F</i>		1.55		0.80		4.81 ^{**}		1.11		1.72		0.87	

주: 1) 어머니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학업 중 포함) 일-가정 양립 시 느끼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먼저 취업(학업)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과 가정 병행 시 느끼는 이점에 대해서는 평균 3.80점($SD=0.53$)으로 대체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와 다중역할 갈등에 대해서는 평균 2.24점($SD=0.72$ 점)으로 보통 보다 낮은 수준의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은 고졸 이하의 집단에 비해 일과 가정 양립 시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12〉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0	0.53	(822)	2.24	0.72	(822)
모 학력						
고졸 이하	3.64 ^a	0.56	(196)	2.31	0.74	(196)
전문대졸	3.83 ^b	0.53	(242)	2.17	0.71	(242)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대졸 이상 <i>F</i>	3.86 ^b	0.50	(384)	2.25	0.71	(384)
	11.66***			1.9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76 ^a	0.48	(105)	2.26	0.71	(105)
400~549만원	3.74 ^a	0.54	(256)	2.28	0.71	(256)
550~699만원	3.87 ^a	0.54	(166)	2.17	0.75	(166)
700만원 이상	3.84 ^a	0.52	(260)	2.24	0.70	(260)
<i>F</i>	2.86*			0.75		
지역규모						
대도시	3.78	0.52	(324)	2.29	0.74	(324)
중소도시	3.81	0.53	(451)	2.21	0.69	(451)
읍면	3.82	0.61	(47)	2.18	0.77	(47)
<i>F</i>	0.40			1.14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가 느끼는 일과 자녀 양육 양립에 따른 일과 양육에서의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는 평균 3.62점($SD=0.69$)으로 보통 이상으로 이점이 있다고 여기는 한편,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갈등 수준은 평균 2.40점($SD=0.74$)으로 보통 보다 낮은 수준의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 사는 패널 가구의 어머니 집단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일과 자녀 양육 양립 시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13〉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양육 양립: 일-양육 이점			일-양육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2	0.69	(822)	2.40	0.74	(822)
모 학력						
고졸 이하	3.56	0.71	(196)	2.45	0.72	(196)
전문대졸	3.65	0.69	(242)	2.33	0.74	(242)
대졸 이상	3.63	0.68	(384)	2.42	0.75	(384)
<i>F</i>	0.87			1.79		

구분	일-양육 양립: 일-양육 이점			일-양육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62	0.68	(105)	2.27	0.73	(105)
400~549만원	3.65	0.66	(256)	2.45	0.74	(256)
550~699만원	3.54	0.79	(166)	2.36	0.72	(166)
700만원 이상	3.67	0.64	(260)	2.43	0.72	(260)
F	1.42			1.75		
지역규모						
대도시	3.64 ^{ab}	0.68	(324)	2.45	0.79	(324)
중소도시	3.58 ^a	0.70	(451)	2.37	0.69	(451)
읍면	3.84 ^b	0.65	(47)	2.30	0.75	(47)
F	3.19*			1.67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취업(학업) 중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동일하게 일과 가정 병행 시 느끼는 긍정적인 부분과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이점에 대해서는 평균 3.81점($SD=0.64$), 갈등은 평균 2.21점($SD=0.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가정 병행 시 대체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갈등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데, 같은 문항에 대한 어머니 점수(이점 평균 3.80점, 갈등 평균 2.24점)와 유사한 응답 결과를 보였다.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아버지들은 전문대졸 이하인 아버지들에 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아버지들이 399만원 이하인 집단의 아버지들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4〉 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1	0.64	(1231)	2.21	0.63	(1231)
부 학력						
고졸 이하	3.73 ^a	0.63	(320)	2.23	0.64	(320)
전문대졸	3.74 ^a	0.65	(252)	2.27	0.65	(252)
대졸 이상	3.89 ^b	0.63	(653)	2.18	0.61	(653)
F	9.24***			2.41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69 ^a	0.67	(225)	2.26	0.62	(225)
400~549만원	3.81 ^{ab}	0.65	(419)	2.21	0.65	(419)
550~699만원	3.80 ^{ab}	0.62	(220)	2.25	0.62	(220)
700만원 이상	3.94 ^b	0.59	(300)	2.12	0.60	(300)
<i>F</i>	7.19***			2.59		
지역규모						
대도시	3.80	0.62	(503)	2.21	0.61	(503)
중소도시	3.83	0.65	(656)	2.21	0.65	(656)
읍면	3.77	0.64	(72)	2.23	0.62	(72)
<i>F</i>	0.42			0.03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01$.

취업(학업) 중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과 자녀 양육 병행 시 느끼는 긍정적인 점과 갈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점은 평균 3.89점($SD=0.72$), 갈등은 평균 2.03점($SD=0.65$)으로 나타났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끼는 반면, 갈등은 대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어머니 점수(이점 평균 3.62점, 갈등 평균 2.40점)와 비교 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일-양육 병행 시 이점은 더 많다고 느끼고, 갈등은 덜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가정 병행 시 이점 특성과 유사하게, 아버지 최종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느끼는 일-양육 이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일-양육 갈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15〉 부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양육 이점			일-가정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9	0.72	(1231)	2.03	0.65	(1231)
부 학력						
고졸 이하	3.74 ^a	0.77	(320)	2.05	0.66	(320)
전문대졸	3.87 ^{ab}	0.67	(252)	2.09	0.66	(252)
대졸 이상	3.98 ^b	0.71	(653)	1.99	0.65	(653)
<i>F</i>	12.82***			2.62		

구분	일-가정 양립: 일-양육 이점			일-가정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73 ^a	0.77	(225)	2.01 ^{ab}	0.65	(225)
400~549만원	3.93 ^{bc}	0.70	(419)	2.03 ^{ab}	0.67	(419)
550~699만원	3.81 ^{ab}	0.79	(220)	2.12 ^b	0.65	(220)
700만원 이상	4.06 ^c	0.64	(300)	1.94 ^a	0.62	(300)
<i>F</i>	10.64***			3.37*		
지역규모						
대도시	3.92	0.67	(503)	2.04	0.64	(503)
중소도시	3.89	0.76	(656)	2.02	0.66	(656)
읍면	3.80	0.75	(72)	1.99	0.67	(72)
<i>F</i>	0.88			0.32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다) 부부 특성

패널가구 부모의 결혼 상태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94.3%)의 경우가 유배우 초혼상태에 해당되었고, 이혼한 경우도 3.4%로 조사되었다. 결혼기간은 평균 16.26년이었다.

〈표 IV-3-16〉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단위: %(명), 년

구분	결혼 상태								결혼 기간	
	미혼	유배우 -초혼	유배우 -재혼	동거 (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94.3	1.2	-	0.6	3.4	0.4	100.0(1394)	16.26	3.22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의 부부갈등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2.02점($SD=0.79$), 아버지는 2.00점($SD=0.75$)으로 느끼고 있었다. 양쪽 모두 부부간의 갈등 정도가 별로 높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소한 차이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갈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갈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보다 부부갈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7〉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02	0.79	(1303)	2.00	0.75	(1231)
모 취업 여부						
취업	2.05	0.82	(772)	2.05	0.77	(720)
미취업	1.98	0.74	(506)	1.93	0.71	(484)
<i>t</i>	1.40			2.55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10	0.83	(339)	2.03	0.80	(320)
전문대졸	2.00	0.75	(380)	2.08	0.74	(252)
대졸 이상	2.00	0.79	(572)	1.96	0.73	(653)
<i>F</i>	2.07			2.7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03	0.84	(256)	1.99	0.76	(225)
400~549만원	2.09	0.74	(436)	2.07	0.79	(419)
550~699만원	1.97	0.81	(226)	1.97	0.70	(220)
700만원 이상	1.95	0.80	(316)	1.94	0.72	(300)
<i>F</i>	2.25			1.99		
지역규모						
대도시	2.07 ^{ab}	0.79	(538)	2.02	0.75	(503)
중소도시	1.97 ^a	0.78	(688)	1.97	0.74	(656)
읍/면	2.19 ^b	0.86	(77)	2.12	0.90	(72)
<i>F</i>	4.16*			1.71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라) 행동적 특성

〈표 IV-3-18〉은 부모의 행동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행동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는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등을 포함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척도의 점수가 높은 쪽이 A형으로 구분되며 주로 A형 행동유형은 ‘긴장하고 경쟁적인 특징’을 지닌다. 본 척도의 점수를 A,B형 유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논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공소영(2007)에 따라 3.0을 기준으로 A형, B형으로 나누었다. 3.0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t-test를 한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평균점수가 3.0으로 나온 경우는 수가 더 적은 A형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A형이 24.9%, B형이 75.1%로

나타났으나,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보다 A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A형이 34.7%, B형이 65.3%로 나타났으며, 특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18〉 부모의 행동유형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A형	B형	(수)	A형	B형	(수)
전체	24.9	75.1	(1303)	34.7	65.3	(1231)
모 취업 여부						
취업	27.5	72.5	(772)	36.1	63.9	(720)
미취업	21.1	78.9	(506)	33.3	66.7	(484)
$\chi^2(df)$	6.51(1)*			1.03(1)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4.5	75.5	(339)	32.5	67.5	(320)
전문대졸	25.0	75.0	(380)	33.3	66.7	(252)
대졸 이상	25.3	74.7	(572)	36.3	63.7	(653)
$\chi^2(df)$	0.09(2)			1.62(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3.4	76.6	(256)	31.1	68.9	(225)
400~549만원	23.6	76.4	(436)	36.0	64.0	(419)
550~699만원	26.5	73.5	(226)	35.9	64.1	(220)
700만원 이상	26.9	73.1	(316)	33.7	66.3	(300)
$\chi^2(df)$	1.67(3)			1.87(3)		
지역규모						
대도시	24.9	75.1	(538)	35.8	64.2	(503)
중소도시	25.1	74.9	(688)	34.0	66.0	(656)
읍면	23.4	76.6	(77)	33.3	66.7	(72)
$\chi^2(df)$	0.12(2)			0.47(2)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10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배정하여 3점을 기준으로 두고 3.0 보다 높은 균을 A형 성격이 강한 개인으로, 3.0보다 낮은 균을 B형 성격이 강한 개인으로 규정함(공소영, 2007). 본 분석에서 3.0과 같은 사례는 A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3) 행동유형 선행연구 중 신승욱(2008)의 경우 중앙값을 기준으로 A형, B형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값을 기준으로 A형, B형을 나눌 경우 A형, B형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

* $p < .05$.

어머니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측정한 결과 98.3%가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3.0%, 취업 어머니의 경우 0.9%로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 미디어기기 중독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에 드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미디어기기 중독 점수도 비교적 높았다. 또한 학력으로 인한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인 어머니의 경우가 고졸 이상인 어머니보다 미디어기기 중독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3-19〉 모의 미디어기기 중독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303)	98.3	1.7	-	24.90	5.92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772)	99.1	0.9	-	24.56	5.79
미취업	100.0(506)	97.0	3.0	-	25.49	6.01
$\chi^2(df)/t$			7.65(1)**		-2.77**	
모 학력						
고졸 이하	100.0(339)	97.9	2.1	-	24.20 ^a	5.89
전문대졸	100.0(380)	98.4	1.6	-	24.97 ^{ab}	6.00
대졸 이상	100.0(572)	98.4	1.6	-	25.37 ^b	5.82
$\chi^2(df)/F$			0.36(2)		4.1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56)	98.4	1.6	-	24.82	6.24
400~549만원	100.0(436)	97.9	2.1	-	24.85	5.89
550~699만원	100.0(226)	98.2	1.8	-	25.23	5.52
700만원 이상	100.0(316)	99.1	0.9	-	24.79	5.97
$\chi^2(df)/F$			1.47(3)		0.29	
지역규모						
대도시	100.0(538)	98.1	1.9	-	24.94	5.97
중소도시	100.0(688)	98.3	1.7	-	25.01	5.91
읍면	100.0(77)	100.0	0.0	-	23.70	5.64
$\chi^2(df)/F$			1.43(2)		1.71	

주: 1) 4번, 10번, 15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①~④ 모두 해당되거나 고위험 및 잠재적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
(총점: ① 39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3점 이하, ③ 3요인: 12점 이하, ④ 4요인: 12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①~②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총점: ① 40점 이상~43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4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 ①에 해당하거나, ②~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총점: ① 44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5점 이상, ③ 3요인 13점 이상, ④ 4요인 13점 이상)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어머니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아버지의 미디어 기기 중독 정도를 살펴보면, 98.1%가 일반사용자로 나타났고, 1.9%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20〉 부의 미디어기기 중독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231)	98.1	1.9	-	25.37	6.10
부 학력						
고졸 이하	100.0(320)	98.4	1.6	-	24.74	6.34
전문대졸	100.0(252)	98.8	1.2	-	25.50	5.90
대졸 이상	100.0(653)	97.7	2.3	-	25.61	6.05
$\chi^2(df)/F$			1.44(2)		2.27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25)	98.7	1.3	-	24.80	6.61
400~549만원	100.0(419)	98.3	1.7	-	25.16	6.07
550~699만원	100.0(220)	98.6	1.4	-	25.76	5.85
700만원 이상	100.0(300)	97.7	2.3	-	25.51	6.11
$\chi^2(df)/F$			1.04(3)		1.12	
지역규모						
대도시	100.0(503)	98.0	2.0	-	25.33	6.03
중소도시	100.0(656)	98.0	2.0	-	25.39	6.17
읍면	100.0(72)	100.0	0.0	-	25.44	6.00
$\chi^2(df)/F$			1.46(2)		0.02	

주: 1) 4번, 10번, 15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①~④ 모두 해당되거나 고위험 및 잠재적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
(총점: ① 39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3점 이하, ③ 3요인: 12점 이하, ④ 4요인: 12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①~②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총점: ① 40점 이상~43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4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 ①에 해당하거나, ②~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총점: ① 44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 15점 이상, ③ 3요인 13점 이상, ④ 4요인 13점 이상)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아버지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2) 신체 및 건강 특성

가) 신체 건강 및 장애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평균 3.31점으로 보통정도로 지각하고 있었고,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높았다. 어머니

학력으로는 대졸이상 학력의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졸이나 고졸이하의 어머니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V-3-21〉 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	건강한편	매우 건강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7	12.3	45.0	39.7	2.3	100.0(1303)	3.31	0.74
모 취업 여부								
취업	0.6	11.3	43.4	42.0	2.7	100.0(772)	3.35	0.74
미취업	0.6	14.0	47.6	36.0	1.8	100.0(506)	3.24	0.73
$\chi^2(df)/t$		7.05(4)						2.50*
모 학력								
고졸 이하	0.9	13.0	51.6	32.2	2.4	100.0(339)	3.22 ^a	0.73
전문대졸	0.8	13.4	45.5	38.2	2.1	100.0(380)	3.27 ^{ab}	0.75
대졸 이상	0.3	11.0	40.9	45.3	2.4	100.0(572)	3.38 ^b	0.73
$\chi^2(df)/F$		17.65(8)*						5.9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2	16.4	48.8	32.4	1.2	100.0(256)	3.16 ^a	0.75
400~549만원	0.2	13.1	47.2	37.2	2.3	100.0(436)	3.28 ^{ab}	0.72
550~699만원	0.9	11.5	42.9	42.0	2.7	100.0(226)	3.34 ^b	0.75
700만원 이상	0.6	8.9	39.9	48.1	2.5	100.0(316)	3.43 ^b	0.72
$\chi^2(df)/F$		24.29(12)*						6.75***
지역규모								
대도시	0.7	13.8	46.3	37.5	1.7	100.0(538)	3.26	0.74
중소도시	0.7	11.2	44.6	40.8	2.6	100.0(688)	3.33	0.74
읍면	-	11.7	40.3	44.2	3.9	100.0(77)	3.40	0.75
$\chi^2(df)/F$		6.12(8)						2.37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건강하지 않음 ~ 5. 매우 건강함).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3.34점으로 보통 정도를 나타냈고, 대졸이상 학력의 아버지의 경우 전문대졸이나 고졸이하의 아버지보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더 좋게 평가하였다. 700만원 이상의 가구의 아버지의 경우 399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버지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3-22〉 부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5	9.4	48.3	39.6	2.3	100.0(1231)	3.34	0.70
부 학력								
고졸 이하	0.9	10.0	53.1	34.1	1.9	100.0(320)	3.26 ^a	0.70
전문대졸	0.4	9.5	50.0	38.5	1.6	100.0(252)	3.31 ^a	0.68
대졸 이상	0.3	9.2	45.0	42.7	2.8	100.0(653)	3.38 ^a	0.70
$\chi^2(df)/F$			10.68(8)					3.6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0.9	9.8	54.7	32.0	2.7	100.0(225)	3.26 ^a	0.70
400~549만원	0.5	10.0	49.9	37.7	1.9	100.0(419)	3.31 ^{ab}	0.69
550~699만원	-	10.0	49.1	39.1	1.8	100.0(220)	3.33 ^{ab}	0.68
700만원 이상	0.3	8.3	40.3	48.0	3.0	100.0(300)	3.45 ^b	0.70
$\chi^2(df)/F$			19.14(12)					3.92**
지역규모								
대도시	0.4	9.7	49.3	38.0	2.6	100.0(503)	3.33	0.70
중소도시	0.5	9.3	46.6	41.8	1.8	100.0(656)	3.35	0.69
읍면	1.4	8.3	55.6	30.6	4.2	100.0(72)	3.28	0.74
$\chi^2(df)/F$			7.24(8)					0.48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건강하지 않음 ~ 5. 매우 건강함).

3) 일부 값에서 t/F 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를 살펴본 경우 어머니의 경우 0.9%, 아버지의 경우 1.3%의 장애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IV-3-23〉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어머니	0.9	99.1	100.0(1380)
아버지	1.3	98.7	100.0(1352)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음주 및 흡연

어머니, 아버지의 음주 및 흡연 정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월 1회 이하, 2~4회 정도 마시는 경우가 30.5%, 30.6%로 대부분이었고, 아버지의 경우 월 2~4회, 주 2~3회인 경우가 32.1%, 27.6%로 더 높은 음주빈도를 보였다.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도 어머니의 경우 (1~2잔 54.5%)보다 아버지의 경우가(3~4잔 23.2%, 7~9잔 21.0%)로 더 높은 음주량을 나타내었다.

〈표 IV-3-24〉 부모의 음주 실태

단위: %(명)

음주 횟수			음주량			과음 횟수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 마심	25.2	11.9	1잔 또는 2잔	54.5	17.7	전혀 없음	37.4	14.8
월 1회 이하	30.5	16.2	3잔 또는 4잔	24.5	23.2	한 달에 1번 미만	33.4	22.9
월 2~4회	30.6	32.1	5잔 또는 6잔	12.3	19.9	한 달에 1번 정도	16.1	24.4
주 2~3회	10.7	27.6	7잔에서 9잔	5.5	21.0	일주일에 1번 정도	11.8	31.4
주 4회 이상	2.9	12.3	10잔 또는 그 이상	3.1	18.2	거의 매일	1.3	6.5
계 (수)	100.0 (1303)	100.0 (1232)	계 (수)	100.0 (974)	100.0 (1085)	계 (수)	100.0 (974)	100.0 (1085)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부모의 흡연 실태는 아버지의 경우 42.3%, 어머니의 경우 1.7%의 흡연율을 나타내었다.

〈표 IV-3-25〉 부모의 흡연 실태

단위: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1.7	98.3	100.0 (1303)
아버지	42.3	57.7	100.0 (1232)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3) 직업 특성

가) 취업/ 학업 여부

부모취업, 학업 상태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95%가 취업중, 3.6%가 취업이나 학업중이 아닌 상태이고, 어머니의 경우 58.2%가 취업, 39.3%가 취업이나 학업중이 아닌 상태를 나타냈다.

〈표 IV-3-26〉 부모 취/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아버지	95.0	0.2	1.3	3.6	100.0(1231)
어머니	58.2	0.4	2.1	39.3	100.0(1365)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어머니의 경우 패널아동이 둘째 이상일 경우 63.7%, 첫째인 경우 50.4%의 취업률을 보여 자녀나이에 따른 취업률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76.1%, 399만원 이하인 경우 39.5%의 취업률을 나타내어 소득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3-27〉 모의 취/학업 상태(집단별 분석)

단위: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58.2	0.4	2.1	39.3	100.0(1365)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4	0.6	1.8	47.2	100.0(500)
둘째 이상	63.7	0.4	2.1	33.8	100.0(725)
외동아	57.1	-	2.9	40.0	100.0(140)
$\chi^2(df)$		24.12(6)***			
모 학력					
고졸 이하	52.2	0.3	2.2	45.3	100.0(360)
전문대졸	57.9	0.7	2.5	38.9	100.0(401)
대졸 이상	61.9	0.3	1.7	36.1	100.0(604)
$\chi^2(df)$		10.66(6)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58.2	0.4	2.1	39.3	100.0(136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9.5	0.8	1.6	58.2	100.0(256)
400~549만원	52.2	-	2.3	45.4	100.0(469)
550~699만원	69.2	0.4	0.8	29.5	100.0(237)
700만원 이상	76.1	0.6	2.7	20.6	100.0(330)
$\chi^2(df)$	110.65(9)***				
지역규모					
대도시	57.3	0.2	1.8	40.7	100.0(548)
중소도시	58.4	0.5	2.3	38.8	100.0(743)
읍면	62.2	1.4	1.4	35.1	100.0(74)
$\chi^2(df)$	3.84(6)				

주: 어머니의 응답임.

*** $p < .001$.

나) 취업 특성 및 직업 만족도

부모의 재직상태 및 직장변동 여부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95.9%가 재직상태였으며, 재직상태인 경우 중 74.1%가 직장 및 직위에 변동이 없었고, 아버지의 경우 89%가 직장 및 직위에 변화가 없었다.

〈표 IV-3-28〉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단위: %(명)

구분	재직상태		직장/직위 변동 여부					계(수)
	재직	휴직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뀜	직위가 바뀜	자년조사 시 미취/미학	2019 조사불참	
어머니	95.9	4.1	74.1	10.6	3.3	-	12.0	100.0(822)
아버지	-		89.0	7.3		2.5	1.1	100.0(1187)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부모의 종사상 지위로써 어머니의 62.7%가 상용직, 14.3%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였으며, 아버지의 경우 71.6%가 상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9.8%,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각각 9.8%였다.

〈표 IV-3-29〉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어머니	62.7	9.7	2.1	6.6	14.3	4.6	100.0 (821)
아버지	71.6	5.9	2.9	9.8	9.8	-	100.0 (102)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취업모의 근무일 또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근무일은 주 평균 6.37일이었고, 고졸이하의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졸이나, 대졸이상이 어머니보다 근무일 수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지역 거주 어머니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보다 근무 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주 평균 8.55일로 대졸이상 학력의 어머니가(7.87일) 고졸이하 학력의 어머니(8.99일)보다 근무시간이 짧게 나타났고, 700만원 이상 가구소득의 어머니(9.40일)가 550-699만원의 가구소득의 어머니(7.55일)에 비해, 읍면지역의 어머니(10일)가 중소도시 지역의 어머니(8.33일)보다 근무시간이 길었다.

〈표 IV-3-30〉 취업모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

구분	근무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중 평균	4.86	0.55	7.79	2.24
주말 평균	1.51	0.91	6.79	2.75
1주일 전체	6.37	1.01	8.55	2.60
아동 출생순위				
첫째	6.34	0.99	8.12	2.54
둘째 이상	6.39	1.04	8.85	2.54
외동아	6.35	0.91	8.09	2.98
<i>F</i>	0.19		2.03	
모 학력				
고졸 이하	6.65 ^b	1.03	8.99 ^b	2.48
전문대졸	6.38 ^a	1.08	8.74 ^{ab}	2.70
대졸 이상	6.22 ^a	0.93	7.87 ^a	2.55
<i>F</i>	11.45***		3.78*	

구분	근무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6.51 ^a	1.1	8.41 ^{ab}	2.75
400~549만원	6.48 ^a	1.06	8.70 ^{ab}	2.44
550~699만원	6.33 ^a	1.04	7.55 ^a	2.40
700만원 이상	6.23 ^a	0.9	9.40 ^b	2.67
<i>F</i>	3.19*		3.90**	
지역규모				
대도시	6.37 ^a	1.07	8.56 ^{ab}	2.46
중소도시	6.32 ^a	0.95	8.33 ^a	2.70
읍면	6.78 ^b	1.13	10.00 ^b	2.24
<i>F</i>	4.34*		3.08*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취업중인 어머니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은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67.6%로 높은 편이었고, 대졸이상의 어머니의 경우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었다. 가구소득 550-699만원인 가구의 어머니의 경우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의 가구의 어머니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IV-3-31〉 취업모 일자리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	2.3	20.7	67.6	9.4	100.0(822)	3.84	0.61
아동 출생순위								
첫째	-	3.1	17.2	72.0	7.7	100.0(261)	3.84	0.59
둘째 이상	-	2.1	22.2	65.0	10.7	100.0(477)	3.84	0.62
외동아	-	1.2	22.6	69.0	7.1	100.0(84)	3.82	0.56
$\chi^2(df)/F$			6.80(6)					0.05
모 학력								
고졸 이하	-	3.1	31.6	60.2	5.1	100.0(196)	3.67 ^a	0.62
전문대졸	-	2.5	20.7	65.7	11.2	100.0(242)	3.86 ^b	0.63
대졸 이상	-	1.8	15.1	72.7	10.4	100.0(384)	3.92 ^b	0.57
$\chi^2(df)/F$			26.30(6)***					10.78***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	4.8	23.8	66.7	4.8	100.0(105)	3.71 ^a	0.63
400~549만원	-	2.0	23.8	66.0	8.2	100.0(256)	3.80 ^{ab}	0.60
550~699만원	-	1.2	16.3	72.3	10.2	100.0(166)	3.92 ^b	0.55
700만원 이상	-	2.7	17.7	68.1	11.5	100.0(260)	3.88 ^{ab}	0.62
$\chi^2(df)/F$			12.99(9)					3.15*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

* $p < .05$, ** $p < .001$.

4) 양육 특성

가) 양육 행동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을 뜻하며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의 문항을 포함한 1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분석결과 평균 2.30점의 성취압력을 나타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각한 성취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32〉 부모의 성취압력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30	0.77	(1357)
아동 성별			
남	2.37	0.76	(689)
여	2.23	0.77	(668)
t		3.40**	
아동 출생순위			
첫째	2.25	0.75	(497)
둘째 이상	2.34	0.78	(719)
외동아	2.28	0.78	(141)
F		1.98	
모 취업 여부			
취업	2.31	0.76	(805)
미취업	2.31	0.79	(520)
t		-0.01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19	0.80	(263)
400~549만원	2.33	0.76	(458)
550~699만원	2.37	0.82	(235)
700만원 이상	2.34	0.74	(327)
<i>F</i>	2.61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항상 그렇다).

** $p < .01$.

아동이 지각한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측정된 결과, 전체의 90.9%, 남학생의 87.7%, 여학생의 94.2%가 신체적 학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6개월간 한두 번’에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9.7%, 여학생이 4.3%로 남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3-33〉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 일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0.9	7.1	1.8	0.2	0.1	100.0(1357)
아동 성별						
남	87.7	9.7	2.3	0.1	0.1	100.0(689)
여	94.2	4.3	1.2	0.3	-	100.0(668)
$\chi^2(df)$			19.23(4)***			
아동 출생순위						
첫째	89.5	8.5	1.6	0.4	-	100.0(497)
둘째 이상	91.8	5.8	2.1	0.1	0.1	100.0(719)
외동아	90.8	8.5	0.7	-	-	100.0(141)
$\chi^2(df)$			6.99(8)			
모 취업 여부						
취업	91.4	7.0	1.1	0.4	0.1	100.0(805)
미취업	89.8	7.3	2.9	-	-	100.0(520)
$\chi^2(df)$			8.17(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9.7	7.6	2.7	-	-	100.0(263)
400~549만원	88.2	9.4	1.7	0.4	0.2	100.0(458)
550~699만원	94.9	4.3	0.9	-	-	100.0(235)
700만원 이상	92.0	5.8	1.8	0.3	-	100.0(327)
$\chi^2(df)$			13.82(12)			

주: 아동 응답임.

*** $p < .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적 학대 경험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78.1%, 남학생의 75.3%, 여학생의 81.0%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6개월간 한두 번'에 응답한 빈도는 남학생이 15.7%, 여학생이 11.7%로 나타나, 남학생이 지각한 언어 학대 경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소득이 550-669만원인 가구의 경우 언어적 학대 경험 '전혀 없음'의 빈도가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34〉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78.1	13.7	4.3	3.1	0.7	100.0(1357)
아동 성별						
남	75.3	15.7	4.4	3.8	0.9	100.0(689)
여	81.0	11.7	4.3	2.4	0.6	100.0(668)
$\chi^2(df)$			7.77(4)			
아동 출생순위						
첫째	75.9	14.7	5.0	3.6	0.8	100.0(497)
둘째 이상	80.1	12.5	4.2	2.9	0.3	100.0(719)
외동아	75.9	16.3	2.8	2.1	2.8	100.0(141)
$\chi^2(df)$			15.36(8)			
모 취업 여부						
취업	79.1	13.4	4.5	2.5	0.5	100.0(805)
미취업	76.3	14.4	3.8	4.2	1.2	100.0(520)
$\chi^2(df)$			5.69(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77.9	11.0	5.7	4.2	1.1	100.0(263)
400~549만원	74.7	15.7	4.8	3.9	0.9	100.0(458)
550~699만원	83.0	13.2	0.9	3.0	-	100.0(235)
700만원 이상	78.3	13.5	6.1	1.2	0.9	100.0(327)
$\chi^2(df)$			21.85(12)*			

주: 아동 응답임.

* $p < .05$.

나) 부모 감독과 학습에 대한 관여

먼저 부모가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연락을 주고받는지 등 부모 감독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4.62점으로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가 취업한 경우보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감독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는 평균 7.19명이었다. 이는 11차년도 9.15명(김은설 외, 2019: 182), 12차년도 8.3명(김은설 외, 2020: 191)에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 출생순위와 어머니 취업 여부, 어머니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이 외동아나 첫째의 경우 둘째 이상에 비해 더 많은 친구를 알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미취업 중일 때,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가 더 많았다.

〈표 IV-3-35〉 부모 감독 및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단위: 점(명)

구분	부모 감독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62	0.51	(1397)	7.19	6.71	(1397)
아동 성별						
남	4.60	0.53	(708)	7.15	6.94	(708)
여	4.65	0.49	(689)	7.24	6.47	(689)
<i>t</i>	-1.90			-0.2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62	0.51	(508)	7.96 ^b	7.24	(508)
둘째 이상	4.61	0.52	(745)	6.28 ^a	5.86	(745)
외동아	4.67	0.44	(144)	9.17 ^b	8.06	(144)
<i>F</i>	0.77			16.83***		
모 취업 여부						
취업	4.56	0.51	(822)	6.84	5.78	(822)
미취업	4.73	0.50	(543)	7.98	7.96	(543)
<i>t</i>	-6.16***			-3.08**		
모 학력						
고졸 이하	4.61	0.57	(364)	6.46 ^a	5.05	(364)
전문대졸	4.64	0.46	(404)	6.93 ^{ab}	5.85	(404)
대졸 이상	4.62	0.50	(612)	7.92 ^b	7.98	(612)
<i>F</i>	0.46			5.96**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58	0.47	(271)	6.58	6.09	(271)
400~549만원	4.67	0.53	(474)	7.29	7.23	(474)
550~699만원	4.62	0.54	(240)	7.00	5.95	(240)
700만원 이상	4.59	0.48	(337)	7.86	7.30	(337)
<i>F</i>	2.21			1.9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하루 중 아동이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이 ‘①없음 ②1시간 미만 ③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4시간 이상'으로 측정된 구간척도이며, 분포를 살펴보면 '1시간 미만'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이상 2시간 미만'(21.2%), '없다'(18.8%), '4시간 이상'(15.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둘째 이상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하여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6〉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단위: %(명)

구분	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수)
전체	18.8	21.4	21.2	13.4	9.7	15.5	(1397)
아동 성별							
남	18.8	21.9	21.0	13.6	9.9	14.8	(708)
여	18.9	20.9	21.3	13.2	9.6	16.1	(689)
$\chi^2(df)/t$.61(5)			
아동 출생순위							
첫째	20.3	24.8	22.0	13.4	8.9	10.6	(508)
둘째 이상	17.4	19.3	19.7	14.5	10.1	18.9	(745)
외동아	20.8	20.1	25.7	7.6	11.1	14.6	(144)
$\chi^2(df)/t$				26.81(10)**			
모 취업 여부							
취업	11.8	14.5	21.4	17.6	11.4	23.2	(822)
미취업	29.1	32.2	21.4	7.2	6.8	3.3	(543)
$\chi^2(df)/t$				218.77(5)***			
모 학력							
고졸 이하	19.5	15.7	19.5	11.8	11.5	22.0	(364)
전문대졸	20.3	18.3	22.5	13.1	9.2	16.6	(404)
대졸 이상	17.2	26.6	21.6	14.7	9.0	10.9	(612)
$\chi^2(df)/t$				39.13(10)***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1.4	22.1	22.5	10.3	10.3	13.3	(271)
400-549만원	20.5	22.8	19.0	13.3	10.1	14.3	(474)
550-699만원	18.8	19.6	22.1	17.1	7.9	14.6	(240)
700만원 이상	14.2	19.9	20.5	14.2	11.0	20.2	(337)
$\chi^2(df)/t$				19.84(1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성인없이 있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 아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으로 측정된 구간척도의 점수임.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학습에 대하여 부모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가정기반 참여도 및 학교기반 참여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체 평균 2.23점을 나타냈다. 그 중 가정기반 참여도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자녀가 규칙적인 기상/취침 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2.44점을 나타냈다. 학교기반 참여도는 ‘자녀에게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본다’,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석한다’를 포함 학교 참여도를 측정하였으며, 평균 1.92점을 나타냈다. 부모 참여에 있어 아동 성별, 아동 출생순위와 어머니 취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기반 참여도는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 및 학교기반 참여도 모두 아동이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외동이거나 첫째일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모의 경우가 취업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7〉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단위:%(명), 점

구분	계(수)	가정기반 참여도		학교기반 참여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397)	2.44	0.47	1.92	0.67	2.23	0.47
아동 성별							
남	100.0(708)	2.48	0.47	1.94	0.69	2.26	0.48
여	100.0(689)	2.40	0.46	1.90	0.65	2.19	0.45
<i>t</i>		3.07**		1.13		2.49*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508)	2.53 ^b	0.46	2.00 ^b	0.64	2.31 ^b	0.44
둘째 이상	100.0(745)	2.36 ^a	0.46	1.84 ^a	0.68	2.15 ^a	0.47
외동아	100.0(144)	2.54 ^b	0.47	2.05 ^b	0.68	2.34 ^b	0.47
<i>F</i>		22.27***		11.76***		23.44***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822)	2.41	0.46	1.82	0.64	2.17	0.45
미취업	100.0(543)	2.50	0.47	2.10	0.69	2.34	0.47
<i>t</i>		-3.79***		-7.73***		-6.84***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71)	2.38	0.48	1.84	0.69	2.15 ^a	0.49
400~549만원	100.0(474)	2.45	0.48	1.96	0.70	2.25 ^a	0.48
550~699만원	100.0(240)	2.46	0.42	1.94	0.61	2.24 ^a	0.42
700만원 이상	100.0(337)	2.47	0.46	1.92	0.68	2.24 ^a	0.46
<i>F</i>		2.34		1.97		2.84*	

구분	계(수)	가정기반 참여도		학교기반 참여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100.0(560)	2.45	0.47	1.97	0.70	2.25	0.47
중소도시	100.0(760)	2.45	0.46	1.89	0.65	2.22	0.46
읍면	100.0(77)	2.34	0.52	1.88	0.64	2.16	0.51
<i>F</i>		1.74		2.33		1.7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드물다 ~ 4. 항상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양육 지원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친가, 외가, 친구 및 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정보적, 사교적, 도구적지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구적지지가 평균 3.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지지(평균 3.94점), 사교적지지(평균 3.89점), 정보적 지지(평균 3.82점) 순이었다.

사회적 지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적 지지의 경우에는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적, 사교적 지지에 대해서는 대도시보다 읍/면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표 IV-3-38〉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정보적		사교적		도구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4	0.68	3.82	0.72	3.89	0.68	3.96	0.69	(1397)
모 취업 여부									
취업	3.91	0.67	3.83	0.71	3.90	0.66	3.97	0.67	(822)
미취업	4.00	0.67	3.83	0.72	3.90	0.69	3.96	0.71	(543)
<i>t</i>	-2.37**		-0.19		-0.10		0.29		
모 학력									
고졸이하	3.85 ^a	0.72	3.75 ^a	0.75	3.79 ^a	0.73	3.87 ^a	0.72	(364)
전문대졸	4.01 ^b	0.63	3.91 ^b	0.70	3.98 ^b	0.62	4.06 ^b	0.64	(404)
대졸이상	3.96 ^b	0.66	3.81 ^{ab}	0.70	3.91 ^b	0.66	3.97 ^{ab}	0.68	(612)
<i>F</i>	6.06**		4.95**		7.74***		6.88**		

구분	정서적		정보적		사교적		도구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80 ^a	0.75	3.66 ^a	0.80	3.71 ^a	0.76	3.83 ^a	0.78	(271)
400 ~ 549 만원	3.95 ^{ab}	0.64	3.83 ^b	0.67	3.88 ^b	0.64	3.95 ^{ab}	0.66	(474)
550 ~ 699 만원	3.99 ^b	0.66	3.85 ^b	0.72	3.93 ^b	0.67	3.98 ^b	0.67	(240)
700만원 이상	3.99 ^b	0.66	3.89 ^b	0.70	4.00 ^b	0.64	4.06 ^b	0.65	(337)
<i>F</i>	4.84**		5.82***		9.50***		5.82***		
지역규모									
대도시	3.97	0.69	3.85 ^a	0.72	3.93 ^a	0.66	4.01	0.70	(560)
중소도시	3.91	0.68	3.77 ^{ab}	0.72	3.85 ^a	0.70	3.92	0.70	(760)
읍/면	4.01	0.57	3.99 ^b	0.72	3.97 ^a	0.66	3.98	0.61	(77)
<i>F</i>	1.69		4.21*		3.33*		2.5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인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가(3.00점), 친구 및 동료(2.81점)이었으며 친가는 2.07점으로 이웃 2.21점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미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친가 및 이웃에서 지원을 받는 인원이 약간 많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 외가, 친구 및 동료에게 지원을 받는 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V-3-39〉 사회적 지원 인원

단위: 명

구분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7	2.05	3.00	2.34	2.81	2.48	2.21	2.42	(1397)
모 취업 여부									
취업	1.94	2.09	2.98	2.39	2.79	2.56	2.09	2.53	(822)
미취업	2.19	1.92	3.12	2.24	2.83	2.29	2.43	2.22	(543)
<i>t</i>	-2.18*		-1.09		-0.28		-2.58**		
모 학력									
고졸 이하	1.92	2.02	2.73 ^a	2.30	2.61 ^a	2.30	2.09	2.22	(364)
전문대졸	2.19	2.30	3.35 ^b	2.65	3.10 ^b	2.86	2.29	2.46	(404)
대졸 이상	2.03	1.82	3.00 ^{ab}	2.09	2.73 ^{ab}	2.26	2.24	2.49	(612)
<i>F</i>	1.77		6.95***		4.36*		0.69		

구분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92	1.85	2.67	2.15	2.50	2.38	2.01	2.13	(271)
400~549만원	2.19	2.15	3.12	2.30	2.92	2.36	2.31	2.44	(474)
550~699만원	2.12	2.38	3.02	2.23	2.74	1.99	2.11	2.09	(240)
700만원 이상	1.92	1.77	3.13	2.61	2.89	2.87	2.21	2.66	(337)
<i>F</i>	1.62		2.61		1.94		1.05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부모생활 스트레스는 2.42점,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는 2.38점이었으며 평균 2.39점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아동 성별에 따라 아동이 남학생인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생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아동 출생순위와 어머니 취업여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동이 첫째인 경우가 둘째 이상이거나 외동아인 경우보다 부모생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 모의 경우, 대도시에 사는 경우 부모생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0〉 모의 양육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생활 스트레스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303)	2.38	0.66	2.42	0.80	2.39	0.61
아동 성별							
남	100.0(657)	2.42	0.66	2.46	0.81	2.43	0.61
여	100.0(646)	2.34	0.65	2.38	0.78	2.35	0.61
<i>t</i>		2.28*		1.62		2.35*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472)	2.42	0.67	2.57 ^b	0.84	2.47 ^a	0.63
둘째 이상	100.0(695)	2.35	0.65	2.33 ^a	0.75	2.34 ^a	0.59
외동아	100.0(136)	2.43	0.69	2.37 ^a	0.79	2.41 ^a	0.63
<i>F</i>		2.21		14.06***		6.04**	

구분	계(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생활 스트레스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772)	2.38	0.67	2.29	0.77	2.36	0.61
미취업	100.0(506)	2.39	0.65	2.62	0.81	2.45	0.61
<i>t</i>		-0.14		-7.24***		-2.8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56)	2.43	0.72	2.48	0.82	2.45	0.67
400~549만원	100.0(436)	2.36	0.66	2.41	0.79	2.37	0.60
550~699만원	100.0(226)	2.41	0.62	2.41	0.75	2.41	0.58
700만원 이상	100.0(316)	2.34	0.63	2.40	0.82	2.35	0.60
<i>F</i>		1.34		0.70		1.33	
지역규모							
대도시	100.0(538)	2.42	0.66	2.50 ^a	0.80	2.44 ^a	0.62
중소도시	100.0(688)	2.36	0.66	2.36 ^a	0.79	2.36 ^a	0.60
읍면	100.0(77)	2.36	0.67	2.38 ^a	0.78	2.36 ^a	0.63
<i>F</i>		1.32		5.20**		3.03*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2.34점, 부모생활 스트레스가 2.03점으로 어머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으며 부모생활 스트레스가 높았던 모와 달리 학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1〉 부의 양육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생활 스트레스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231)	2.34	0.69	2.03	0.67	2.25	0.61
아동 성별							
남	100.0(623)	2.36	0.70	2.05	0.68	2.27	0.62
여	100.0(608)	2.32	0.68	2.02	0.66	2.23	0.61
<i>t</i>		0.97		0.79		1.02	

구분	계(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부모생활 스트레스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0.0(449)	2.40	0.69	2.08	0.68	2.31	0.62
둘째 이상	100.0(655)	2.31	0.70	2.00	0.66	2.22	0.62
외동아	100.0(127)	2.34	0.63	2.03	0.61	2.25	0.56
<i>F</i>		2.19		2.26		2.75	
부 취업 여부							
취업	100.0(1186)	2.34	0.69	2.03	0.66	2.25	0.61
미취업	100.0(46)	2.40	0.72	2.08	0.75	2.31	0.64
<i>t</i>		-0.59		-0.50		-0.6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00.0(225)	2.34	0.75	2.01	0.73	2.24	0.68
400~549만원	100.0(419)	2.35	0.67	2.05	0.65	2.26	0.59
550~699만원	100.0(220)	2.38	0.67	2.06	0.67	2.29	0.59
700만원 이상	100.0(300)	2.28	0.71	1.98	0.64	2.19	0.62
<i>F</i>		0.96		0.96		1.16	
지역규모							
대도시	100.0(503)	2.37	0.70	2.06	0.65	2.28	0.61
중소도시	100.0(656)	2.33	0.69	2.02	0.68	2.24	0.62
읍면	100.0(72)	2.29	0.65	1.93	0.64	2.19	0.59
<i>F</i>		0.58		1.30		0.91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나. 가구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패널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구성이 86.5%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9.2%, 조부모, 부모, 자녀와 함께 친척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7%, 부모, 자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가 0.4% 순이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4.64명이었다.

〈표 IV-3-42〉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가구 구성					가구원 수		
부모+자녀	조부모+부모+자녀	부모+자녀+친척	조부모+부모+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86.5	9.2	0.4	3.7	0.1	100.0(1397)	4.64	1.89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물리적 특성

패널아동에게 단독 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독 방이 있는 아동은 전체의 74.3%로 나타났다.

〈표 IV-3-43〉 아동의 단독 방 여부

단위: %(명)

있음	없음	(수)
74.3	25.7	(1397)

주: 보호자의 응답임.

3) 가구의 경제적 특성

가) 객관적 경제적 상황 (소득, 지출, 부채)

패널가구의 근로, 금융, 사업, 임대, 이전,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약571만원이었으며 최솟값은 0원, 최댓값은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어머니의 소득은 약 247만원이었으며, 최댓값은 4,000만원이었다.

〈표 IV-3-44〉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어머니 근로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월평균 가구 소득	571.44	404.93	500	0	9000	(1322)
월평균 어머니 소득	247.32	243.76	200	0	4000	(764)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의 월평균 지출을 가구 전체와 자녀에 대한 지출,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각종 세금, 적금, 보험, 타 가구원을 위한 용돈, 월 상환금 등)로 나누어서 살

퍼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의 소비성 지출은 평균 약 263만원이었으며, 그 중 자녀에 대한 지출은 약 110만원이었다. 또한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은 약 200만원이었으며, 그 중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은 약 47만원이었다.

〈표 IV-3-45〉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구분	가구 전체					전체 자녀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소비성 지출	262.86	133.69	250	3	1200	109.54	74.82	100	0	750
비소비성 지출	200.14	130.86	200	15	2000	46.61	40.81	30	0	4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부동산은 약 3억 9,642만원, 금융자산은 약 8,765만원이었다. 부채액의 경우는 평균 약 1억 1,780만원이며, 월 상환금은 약 69만원이었다.

〈표 IV-3-46〉 가구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사례수
부동산	39642.10	46829.56	30000	0	700000	(1132)
금융 자산	8765.53	14206.49	5000	0	200000	(1057)
부채액	11780.86	12539.71	10000	100	180000	(863)
월 상환금	69.30	59.73	50	0	500	(810)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패널가구가 인식한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 5.23단계로 10점 척도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하여는 평균 5.51단계로 중간 정도이나,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수준보다는 약간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점(명)

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인식			지역 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23	1.38	(1325)	5.51	1.42	(1303)
모 취업 여부						
취업	5.25	1.41	(787)	5.55	1.44	(772)
미취업	5.24	1.29	(509)	5.50	1.36	(502)
<i>t</i>	0.14			0.60		
모 학력						
고졸 이하	4.70 ^a	1.42	(342)	5.01 ^a	1.39	(331)
전문대졸	5.24 ^b	1.25	(383)	5.54 ^b	1.29	(376)
대졸 이상	5.57 ^c	1.31	(584)	5.83 ^c	1.42	(580)
<i>F</i>	46.68***			37.4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47 ^a	1.33	(258)	4.78 ^a	1.39	(251)
400~549만원	5.16 ^b	1.25	(445)	5.44 ^b	1.27	(440)
550~699만원	5.37 ^b	1.28	(229)	5.68 ^b	1.30	(228)
700만원 이상	5.87 ^c	1.36	(326)	6.10 ^c	1.49	(321)
<i>F</i>	56.63***			45.4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 가장 낮은 수준 ~ 10. 매우 높은 수준).

*** $p < .001$.

다음으로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족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에 대하여 아동에게 질문한 결과, 가끔 걱정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은 반면, 32.2%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가족의 걱정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구 소득이 399만원 이하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가족들의 걱정 빈도가 있는 편으로 응답하였다.

〈표 IV-3-48〉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음	가끔 걱정함	자주 걱정함	항상 걱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2	57.6	8.1	2.1	100.0(1357)	1.80	0.67
아동 성별							
남	36.0	54.3	7.4	2.3	100.0(689)	1.76	0.69
여	28.3	60.9	8.8	1.9	100.0(668)	1.84	0.65
$\chi^2(df)/t$	9.93(3)*					-2.31*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음	가끔 걱정함	자주 걱정함	항상 걱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첫째	33.8	56.9	7.8	1.4	100.0(497)	1.77	0.65
둘째 이상	29.5	59.8	8.3	2.4	100.0(719)	1.84	0.67
외동아	40.4	48.2	7.8	3.5	100.0(141)	1.74	0.75
$\chi^2(df)/F$	10.63(6)					2.05	
모 취업 여부							
취업	33.7	56.4	7.5	2.5	100.0(805)	1.79	0.68
미취업	30.2	59.2	8.8	1.7	100.0(520)	1.82	0.65
$\chi^2(df)/t$	3.21(3)					-0.89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26.6	54.4	14.8	4.2	100.0(263)	1.97 ^b	0.76
400~549만원	32.3	58.1	7.4	2.2	100.0(458)	1.79 ^a	0.67
550~699만원	33.6	58.3	6.8	1.3	100.0(235)	1.76 ^a	0.63
700만원 이상	38.8	55.0	4.9	1.2	100.0(327)	1.69 ^a	0.62
$\chi^2(df)/F$	33.84(9)***					8.8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걱정하지 않음 ~ 5. 항상 걱정함).

* $p < .05$, ** $p < .01$, *** $p < .001$.

4) 가구 돌봄서비스 이용 특성

패널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아동의 13.0%가 학기 중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14.2%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유형으로는 학기 중에는 조부모/친인척 이용 비율이 전체의 10.4%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2.0%, 초등 돌봄교실 0.9%, 비혈연 대리 양육자 0.6%, 아이 돌보미 0.2%, 기타 0.1% 순이었다. 방학 중에는 조부모/친인척 이용 비율이 11.8%로 소폭 늘었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1.7%, 초등 돌봄교실 1.0%, 비혈연 대리 양육자 0.6%, 아이 돌보미 0.2% 순으로 나타나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조부모/친인척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3-49〉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및 유형

단위: %(명)

구분	이용 여부			이용 유형(중복응답)					
	이용	미이용	계(수)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대리 양육자	아이 돌보미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기타
학기 중	13.0	87.0	100.0(1397)	10.4	0.6	0.2	0.9	2.0	0.1
방학 중	14.2	85.8	100.0(1397)	11.8	0.6	0.2	1.0	1.7	-

주: 보호자의 응답임.

돌봄서비스의 학기 중 주당 이용 형태를 살펴보면, 주당 이용일수는 조부모/친인척이 4.88일로 가장 많았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4.78일), 초등 돌봄교실(4.46일), 아이돌보미(3.67일), 비혈연 대리양육자(3.50일) 순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조부모/친인척이 5.83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비혈연 대리양육자 5.25시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3.63시간, 초등 돌봄교실 2.54시간, 아이돌보미 2.33시간 순이었다.

이용 만족도는 조부모/친인척이 4.29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가 4.15점, 아이돌보미가 4.00점, 초등 돌봄교실이 3.92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비혈연 대리양육자는 3.38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용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월평균 이용비용은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약 6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부모/친인척 약 27만원, 아이돌보미 약 25만원인 것에 비하여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는 약 1만원으로 월평균 이용비용이 낮은 편이었다.

〈표 IV-3-50〉 돌봄서비스 주당 이용 형태(학기 중)

단위: 일, 시간, 점, 만원, (명)

구분	주당 이용일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이용 만족도		월평균 이용비용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조부모/친인척	4.88	2.03	5.83	5.67	4.29	0.73	26.75	35.52	(143)
비혈연 대리양육자	3.50	1.69	5.25	4.06	3.38	1.19	60.38	72.42	(8)
아이돌보미	3.67	2.31	2.33	1.15	4.00	1.00	25.00	31.22	(3)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연계형돌봄교실)	4.46	1.20	2.54	1.81	3.92	0.64	1.08	2.56	(13)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78	1.01	3.63	1.45	4.15	0.77	1.06	2.21	(27)

주: 보호자의 응답임.

돌봄서비스의 방학 중 주당 이용 형태를 살펴보면, 주당 이용일수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가 4.83일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친인척이 4.48일, 비혈연 대리양육자 4.25일, 초등 돌봄교실 4.14일, 아이돌보미 3.67일 순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조부모/친인척이 6.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비혈연 대리양육자 5.25시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4.83시간, 초등 돌봄교실 3.14시간, 아이돌보미 2.33시간 순이었다.

이용 만족도는 조부모/친인척이 4.31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가 4.17점, 아이돌보미가 4.00점, 초등돌봄교실이 3.86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비혈연 대리양육자 3.38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용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월평균 이용비용은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약 6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돌보미 약 25만원, 조부모/친인척 약 23만원에 비하여 초등돌봄교실은 약 1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는 1만원이 채 되지 않아 월평균 이용비용이 매우 낮았다.

〈표 IV-3-51〉 돌봄서비스 주당 이용 형태(방학 중)

단위: 일, 시간, 점, 만원, (명)

구분	주당 이용일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이용 만족도		월 평균 이용비용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조부모/친인척	4.48	2.21	6.40	6.02	4.31	0.71	23.36	33.42	(163)
비혈연 대리양육자	4.25	1.75	5.25	4.06	3.38	1.19	62.88	77.31	(8)
아이돌보미	3.67	2.31	2.33	1.15	4.00	1.00	25.00	31.22	(3)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연계형돌봄교실)	4.14	1.56	3.14	2.21	3.86	0.66	1.36	2.68	(14)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83	1.01	4.83	2.01	4.17	0.82	0.98	2.18	(24)

주: 보호자의 응답임.

4.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본 절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학교, 지역사회 정책 특성 조사 변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은 〈표 IV-4-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학교특성은 이용 특성,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운영, 가정협력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사교육 특성은 이용특성과 사교육 인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IV-4-1〉 13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이용 특성	• 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 기관
		• 전학 여부, 결석 여부, 이유
	학교 특성	• 설립 유형
		• 학교 유형
	물리적 특성	•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학교 환경
	교사특성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 업무 스트레스
학급운영	• 교사-아동 관계(친밀, 갈등)	
	• 창의적 학교 환경	
가정협력	• 부모의 행사 참여도, 학교생활 참여 여부, 학교생활 관심 정도	
사교육	이용 특성	• 이용 종류, 시간,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사교육 인식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다음으로 13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 변인은 〈표 IV-4-2〉와 같이, 지역 특성은 일반적 특성으로 가구 특성을, 양육환경으로 교육·복지·의료문화·여가와 사회 안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정책 특성은 국가, 직장, 기타 지원을 분류하여 수혜나 이용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표 IV-4-2〉 13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지역규모, 6개 권역 구분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 교육·의료·복지 시설/공공 여가 공간·시설/문화시설 접근의 편리성
			• 교육·의료·복지 시설/공공 여가 공간·시설/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사회 안전	• 양육환경 안전성
정책 특성	국가지원	수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정책 수혜 여부 및 만족도
	직장지원	시행 및 이용	• 육아지원제도/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기타지원	시행 및 이용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가. 학교 특성

1) 이용 특성

보호자에게 아동의 전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패널아동이 전학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아동의 7.0%였고, 어머니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석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아동의 9.0%로 12차년도 17.5%(김은설 외, 2020: 206)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결석 이유로는 사고와 질병이 6.8%, 사고와 질병 이외 이유가 2.2%로 나타났다.

〈표 IV-4-3〉 전학 여부 및 결석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학한적 없음	전학한적 있음	결석한적 없음	사고와 질병	사고와 질병 외 이유	계(수)
전체	93.0	7.0	91.0	6.8	2.2	100.0(1395)
모 취업 여부						
취업	93.7	6.3	91.2	6.6	2.2	100.0(821)
미취업	92.3	7.7	90.2	7.4	2.4	100.0(542)
$\chi^2(df)$	1.02(1)		1.93(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94.8	5.2	90.8	6.3	3.0	100.0(271)
400~549만원	91.7	8.3	91.3	7.2	1.5	100.0(472)
550~699만원	92.5	7.5	89.2	7.5	3.3	100.0(240)
700만원 이상	94.7	5.3	90.8	6.8	2.4	100.0(337)
$\chi^2(df)$	4.08(3)		5.12(9)			
지역규모						
대도시	94.1	5.9	91.4	6.6	2.0	100.0(559)
중소도시	92.0	8.0	90.5	7.0	2.5	100.0(759)
읍면	96.1	3.9	92.2	6.5	1.3	100.0(77)
$\chi^2(df)$	3.44(2)		2.33(6)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학교 특성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 98.8%, 사립 1.0%, 대안학교 0.2%로 나타났다.

〈표 IV-4-4〉 설립유형

단위: %(명)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계(수)
전체	98.8	1.0	-	0.2	100.0(593)
지역규모					
대도시	98.7	1.3	-	-	100.0(238)
중소도시	98.7	1.0	-	0.3	100.0(315)
읍면지역	100.0	-	-	-	100.0(40)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아동이 다니는 학교 유형은 일반학교가 전체 학교의 72.5%였고, 혁신학교 11.3%, 연구학교 6.1%, 시범학교 1.2%, 기타 8.9%로 나타났다.

〈표 IV-4-5〉 학교 유형

단위: %(명)

구분	일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기타	계(수)
전체	72.5	6.1	1.2	11.3	8.9	100.0(593)
지역규모						
대도시	74.4	9.2	2.9	7.1	6.3	100.0(238)
중소도시	72.4	3.8	-	13.7	10.2	100.0(315)
읍면지역	62.5	5.0	-	17.5	15.0	100.0(40)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해당학년 학급 수 및 해당학급 학생 수를 보면 평균 학급 수는 5.71학급,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29명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남학생 1명당 여학생 수는 0.95명으로 남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지역규모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중소도시가 2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가 23.40명, 읍면지역이 20.33명으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4-6〉 전체 학급 수 및 해당 학급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명)

구분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1	3.36	24.29	4.79	0.95	0.24	(593)
지역규모							
대도시	5.52	2.93	23.40 ^b	3.93	0.97	0.22	(238)
중소도시	5.85	3.57	25.46 ^c	4.70	0.94	0.24	(315)
읍면	5.70	4.05	20.33 ^a	6.71	0.94	0.37	(40)
<i>F</i>	0.68		29.73 ^{***}		1.35		

주: 1)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남학생 1명당 여학생 수

2)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면 5점 척도 기준으로 건물상태는 3.69점, 기자재 및 시설은 3.79점, 주변 환경은 3.89점, 통학조건(교통 편의성)은 3.99점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통학조건(교통 편의성) 인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각각 4.06점, 3.98점으로 높고, 읍면지역이 3.5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4-7〉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명)

구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 환경		통학조건(교통 편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9	0.94	3.79	0.87	3.89	0.96	3.99	1.02	(593)
지역규모									
대도시	3.74	0.97	3.85	0.83	3.88	1.02	3.98 ^b	1.06	(238)
중소도시	3.66	0.93	3.75	0.90	3.92	0.93	4.06 ^b	0.98	(315)
읍면	3.68	0.89	3.83	0.87	3.73	0.91	3.53 ^a	1.06	(40)
F	0.45		0.92		0.76		5.00**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매우 나쁘다 ~ 5. 매우 좋다).

** $p < .01$.

3) 교사 특성

교사 성별은 여성이 60.5%, 남성이 39.5%였고,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 연령은 평균 36.09세였고,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37.54세, 중소도시 34.99세, 읍면지역 36.08세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4-8〉 교사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교사 성별		계(수)	교사 연령		(수)
	여	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0.5	39.5	100.0(593)	36.09	7.56	(593)
지역규모						
대도시	63.9	36.1	100.0(238)	37.54 ^b	7.70	(238)
중소도시	58.7	41.3	100.0(315)	34.99 ^a	7.37	(315)
읍면지역	55.0	45.0	100.0(40)	36.08 ^{ab}	6.90	(40)
$\chi^2(df)/F$	2.05(2)			9.92***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교사 경력은 평균 11.63년이었고, 지역별로 교사 경력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13.43년, 중소도시 10.36년, 읍면지역 11.00년으로 나타났다. 교사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주중 22일 상정)은 평균 182.62시간이었고, 이를 1일 근무 시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8.3시간이다.

〈표 IV-4-9〉 교사 경력 및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

단위: 년, 시간(명)

구분	교사 경력		교사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63	7.18	182.62	13.68	(593)
지역규모					
대도시	13.43 ^b	7.36	183.47	12.94	(238)
중소도시	10.36 ^a	6.93	182.13	14.02	(315)
읍면	11.00 ^{ab}	5.87	181.41	15.27	(40)
<i>F</i>	13.09***		0.82		

주: 1) 월 평균 주중 근무일을 22일로 상정하여 월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함.

2)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교사 최종학력을 보면 대졸 60.7%, 석사 25.8%, 석사과정 12.6%, 박사과정 0.7%, 박사 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연령에 따라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원 진학을 통한 학력 상승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졸인 경우는 대도시 46.6%, 중소도시 69.2%, 읍면 77.5%였고, 석사인 경우는 대도시 38.2%, 중소도시 17.1%, 읍면지역 20.0%로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IV-4-10〉 교사 최종학력

단위: %(명)

	대졸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계(수)
전체	60.7	12.6	25.8	0.7	0.2	100.0(593)
교사 연령						
20대	81.9	13.2	4.9	-	-	100.0(144)
30대	60.4	15.2	24.0	-	0.4	100.0(250)
40대	46.2	9.8	42.2	1.7	-	100.0(173)
50대 이상	42.3	3.8	50.0	3.8	-	100.0(26)
$\chi^2(df)$	81.62(12)***					

	대졸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46.6	14.7	38.2	0.4	-	100.0(238)
중소도시	69.2	12.4	17.1	1.0	0.3	100.0(315)
읍면지역	77.5	2.5	20.0	-	-	100.0(40)
$\chi^2(df)$			43.11(8)***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교사 업무 스트레스는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교사 업무 스트레스는 먼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5점 중 2.80점, 생활지도에서는 2.95점, 수업지도는 2.40점, 행정업무는 3.21점으로 전반적인 스트레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교사 연령이나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4-11〉 교사 업무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학부모와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0	1.11	2.95	1.10	2.40	0.96	3.21	1.10	(593)
교사 연령									
20대	2.76	1.06	2.93	1.09	2.49	0.98	3.15	1.15	(144)
30대	2.84	1.12	2.96	1.11	2.40	1.02	3.23	1.10	(250)
40대	2.82	1.14	2.97	1.09	2.37	0.85	3.27	1.07	(173)
50대 이상	2.58	1.21	2.92	1.26	2.15	0.92	3.00	1.13	(26)
F	0.52		0.04		1.01		0.69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2.80	1.09	2.96	1.09	2.48	1.02	3.22	1.11	(320)
11~20년	2.75	1.12	2.91	1.12	2.29	0.88	3.18	1.13	(195)
21~30년	2.96	1.18	3.10	1.14	2.44	0.87	3.31	0.99	(71)
31년차 이상	2.57	1.40	2.43	1.27	1.86	0.69	2.71	1.11	(7)
F	0.71		1.03		2.40		0.72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 5.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4) 학급 운영

학급운영에 있어 아동과 교사 관계를 보면 친밀정도는 5점 중 3.77점, 갈등정도는 5점 중 1.40점으로 나타나, 담임교사는 아동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친밀하고, 갈

등도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4-12〉 아동과 교사 관계

단위: 점, (명)

구분	친밀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7	0.62	1.40	0.50	(593)
교사 연령					
20대	3.80	0.58	1.34	0.38	(144)
30대	3.72	0.62	1.43	0.58	(250)
40대	3.81	0.65	1.40	0.44	(173)
50대 이상	3.70	0.71	1.42	0.63	(26)
<i>F</i>	1.02		0.85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3.73	0.62	1.39	0.51	(320)
11~20년	3.79	0.60	1.41	0.47	(195)
21~30년	3.87	0.69	1.37	0.50	(71)
31년차 이상	3.76	0.69	1.61	0.63	(7)
<i>F</i>	1.23		0.54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아동들의 창의적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는 5점 중 평균 3.84점, 교사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는 평균 3.69점,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는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다. 교사 연령 및 교사 경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4-13〉 창의적 학교 환경

단위: 점, (명)

구분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4	0.77	3.69	0.70	3.74	0.69	(1357)
교사 연령							
20대	3.96	0.70	3.77	0.63	3.84	0.66	(142)
30대	3.87	0.76	3.66	0.74	3.82	0.69	(250)
40대	3.86	0.83	3.72	0.76	3.82	0.72	(173)
50대 이상	3.97	0.68	3.51	0.74	3.69	0.70	(26)
<i>F</i>	0.64		1.38		0.34		

구분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3.92	0.69	3.74	0.66	3.83	0.66	(318)
11~20년	3.82	0.82	3.66	0.75	3.80	0.72	(195)
21~30년	3.96	0.88	3.67	0.84	3.87	0.73	(71)
31년차 이상	3.90	0.79	3.38	1.06	3.61	0.94	(7)
F	0.93		1.06		0.4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5) 가정협력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 응답결과를 보면 ‘대체로 참여함’이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26.1%, ‘항상 참여’가 21.9%, ‘참여하지 않는 편’이 8.3%, ‘전혀 참여하지 않음’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아동 성별,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4-14〉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대체로 참여함	항상 참여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0	8.3	26.1	41.7	21.9	100.0(593)	3.73	0.96
아동성별								
남학생	0.7	8.1	29.7	39.9	21.6	100.0(296)	3.74	0.91
여학생	3.4	8.4	22.6	43.4	22.2	100.0(297)	3.73	1.01
$\chi^2(df)/t$	8.72(4)						0.12	
모 학력								
고졸 이하	3.5	9.4	28.8	39.4	18.8	100.0(170)	3.61	1.01
전문대졸	2.3	8.5	23.3	44.3	21.6	100.0(176)	3.74	0.97
대졸 이상	0.8	7.6	25.2	41.2	25.2	100.0(238)	3.82	0.92
$\chi^2(df)/F$	7.41(8)						2.54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2.3	12.3	26.2	42.3	16.9	100.0(130)	3.59	0.99
400~549만원	1.9	6.0	28.8	39.5	23.7	100.0(215)	3.77	0.94
550~699만원	1.1	9.6	29.8	38.3	21.3	100.0(94)	3.69	0.95
700만원 이상	3.0	6.0	21.1	48.1	21.8	100.0(133)	3.80	0.95
$\chi^2(df)/F$	11.95(12)						1.30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대체로 참여함	항상 참여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2.1	8.0	27.7	41.6	20.6	100.0(238)	3.71	0.95
중소도시	1.9	7.9	25.1	42.5	22.5	100.0(315)	3.76	0.95
읍면	2.5	12.5	25.0	35.0	25.0	100.0(40)	3.68	1.07
$\chi^2(df)/F$	2.30(8)						0.2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참여하지 않음 ~ 5. 항상 참여함).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 분석결과, 학교행사 중 운동회, 학부모 공개수업,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부모총회 등은 조사기간까지 40~50% 정도가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담임상담은 24.5%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행사가 있더라도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한 경우에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참여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담임 상담의 참여비율이 높고, 대부분 어머니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율이 이전 조사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4-15〉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여부(중복응답)

단위: %, N=1,397

구분	행사 개최					행사 미개최
	계	참여한 적 없음	어머니만 참여	아버지만 참여	부모 모두 참여	
운동회	50.4	34.5	11.0	0.5	4.4	49.6
자원봉사	67.9	40.9	25.0	1.1	0.8	32.1
학부모 공개 수업	52.0	34.6	14.7	0.6	2.0	48.0
부모교육 프로그램	55.3	44.9	10.0	-	0.4	44.7
담임 상담	75.5	23.5	50.2	1.1	0.8	24.5
학교 운영 위원회	62.3	54.5	7.5	0.3	0.1	37.7
학부모총회	59.1	49.4	9.4	0.1	0.2	40.9

주: 보호자의 응답임.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분석결과, 대체로 관심보임이 5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관심 많음 27.5%, 보통 15.7%, 가끔 관심보임 3.4%, 전혀 관심없음 0.7%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중 평균 4.03점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가 더 컸다. 이외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4-16〉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관심없음	가끔 관심보임	보통	대체로 관심보임	매우 관심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7	3.4	15.7	52.8	27.5	100.0(593)	4.03	0.79
성별								
남학생	-	2.7	15.9	55.1	26.4	100.0(296)	4.05	0.73
여학생	1.3	4.0	15.5	50.5	28.6	100.0(297)	4.01	0.85
$\chi^2(df)/t$			5.65(4)				0.62	
모 학력								
고졸 이하	2.4	4.1	18.8	55.3	19.4	100.0(170)	3.85 ^a	0.86
전문대졸	-	4.5	13.6	58.5	23.3	100.0(176)	4.01 ^{ab}	0.74
대졸 이상	-	2.1	14.3	46.2	37.4	100.0(238)	4.19 ^b	0.75
$\chi^2(df)/F$			30.35(8) ^{***}				9.31 ^{***}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1.5	3.1	16.9	57.7	20.8	100.0(130)	3.93	0.80
400~549만원	-	3.7	14.4	51.6	30.2	100.0(215)	4.08	0.77
550~699만원	1.1	2.1	17.0	55.3	24.5	100.0(94)	4.00	0.78
700만원 이상	0.8	3.0	15.8	49.6	30.8	100.0(133)	4.07	0.81
$\chi^2(df)/F$			8.58(12)				1.17	
지역규모								
대도시	0.8	3.4	15.5	51.3	29.0	100.0(238)	4.04	0.81
중소도시	0.3	3.2	16.8	52.4	27.3	100.0(315)	4.03	0.77
읍면	2.5	5.0	7.5	65.0	20.0	100.0(40)	3.95	0.85
$\chi^2(df)/F$			7.25(8)				0.23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관심없음 ~ 5. 매우 관심많음).

*** $p < .001$.

나. 사교육 특성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종류

학교수업 이외 교육에 대해서는 패닐아동의 91.3%, 방과후교실 등을 제외한 사교육은 패닐아동의 89.8%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수업 이외 교육을 받는 경우는 어머니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85.7%, 전문대졸인 경우 92.6%, 대졸 이

상인 경우 94.3%로 어머니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외 아동 성별, 지역 규모에 따른 참여비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4-17〉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단위: %(명)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91.3	8.7	100.0(1397)	89.8	10.2	100.0(1397)
아동 성별						
남	91.1	8.9	100.0(708)	89.5	10.5	100.0(708)
여	91.4	8.6	100.0(689)	90.0	10.0	100.0(689)
$\chi^2(df)$	0.05(1)			0.07(1)		
모 학력						
고졸 이하	85.7	14.3	100.0(364)	82.7	17.3	100.0(364)
전문대졸	92.6	7.4	100.0(404)	91.3	8.7	100.0(404)
대졸 이상	94.3	5.7	100.0(612)	93.5	6.5	100.0(612)
$\chi^2(df)$	22.40(2)***			30.56(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83.0	17.0	100.0(271)	79.7	20.3	100.0(271)
400-549만원	92.2	7.8	100.0(474)	90.7	9.3	100.0(474)
550-699만원	95.4	4.6	100.0(240)	94.6	5.4	100.0(240)
700만원 이상	94.1	5.9	100.0(337)	93.2	6.8	100.0(337)
$\chi^2(df)$	32.45(3)***			40.73(3)***		
지역규모						
대도시	90.9	9.1	100.0(560)	89.5	10.5	100.0(560)
중소도시	92.1	7.9	100.0(760)	90.7	9.3	100.0(760)
읍면지역	85.7	14.3	100.0(77)	83.1	16.9	100.0(77)
$\chi^2(df)$	3.75(2)			4.42(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은 영어가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70.2%, 국어 40.9%, 체육 31.6%, 과학 21.1%, 음악 16.9%, 한자 13.5%, 미술 6.9%, 컴퓨터 5.9%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육서비스는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컴퓨터는

교내 방과후교실이 68.7%로 가장 많았고, 한자는 학습지(방문교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68.6%로 가장 많았다.

〈표 IV-4-18〉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사례수
영어	73.7	70.8	13.1	7.1	10.1	1.7	0.8	0.9	(1029)
국어	40.9	39.7	18.0	29.0	15.2	0.3	1.2	1.4	(572)
수학	70.2	65.1	15.5	15.3	8.7	1.1	0.9	1.0	(980)
과학	21.1	32.9	13.2	21.4	27.8	4.1	1.4	2.0	(295)
컴퓨터	5.9	13.3	4.8	1.2	8.4	68.7	0.0	3.6	(83)
한자	13.5	8.5	11.2	68.6	4.8	6.9	0.5	1.1	(188)
음악	16.9	63.6	15.7	1.3	1.3	11.0	6.4	3.8	(236)
미술	6.9	67.7	11.5	1.0	2.1	7.3	5.2	6.3	(96)
체육	31.6	76.7	4.3	0.0	0.5	9.7	7.7	2.7	(442)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사교육 이용 특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은 학원이 평균 8.7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5.53시간, 인터넷 화상 강의 4.45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4.1시간,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3.96시간, 교내 방과후 교실 3.49시간, 학습지(방문교사) 1.3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19〉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학원	0.5	20.0	8.71	4.82	(1,057)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0.5	20.0	4.10	3.32	(305)
학습지(방문교사)	0.5	10.0	1.38	1.40	(302)
인터넷 화상 강의	0.5	20.0	4.45	3.61	(176)
교내 방과후 교실	0.5	20.0	3.49	3.60	(129)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0.5	15.0	3.96	4.14	(67)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0.5	20.0	5.53	5.17	(37)

주: 보호자의 응답임.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이용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만족이 64.8~77.5% 수준으로 가장 많아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5점 척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주민 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이용만족도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와 교내 방과후 교실 4.08점,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4.03점, 학원 3.99점, 인터넷 화상 강의 3.84점, 학습지(방문교사) 3.8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20〉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학원	0.2	0.8	10.2	77.5	11.4	100.0(1057)	3.99	0.51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	-	7.9	76.1	16.1	100.0(305)	4.08	0.48
학습지(방문교사)	-	2.0	22.2	68.2	7.6	100.0(302)	3.81	0.59
인터넷 화상 강의	-	2.8	21.6	64.8	10.8	100.0(176)	3.84	0.64
교내 방과후 교실	-	0.8	11.6	66.7	20.9	100.0(129)	4.08	0.59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	-	10.4	76.1	13.4	100.0(67)	4.03	0.49
주민 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	-	10.8	64.9	24.3	100.0(37)	4.14	0.5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매우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함).

다음으로는 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비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원에 월 39.23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에 24.76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에 13.87만원, 학습지(방문교사) 10.41만원, 인터넷 화상 강의 9.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1〉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학원	0.0	300.0	39.23	24.67	(1057)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0.0	150.0	24.76	19.98	(305)
학습지(방문교사)	0.5	60.0	10.41	6.85	(302)
인터넷 화상 강의	0.0	30.0	9.70	7.36	(176)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내 방과 후 교실	0.0	45.0	5.32	6.47	(129)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0.0	120.0	13.87	20.53	(67)
주민 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0.0	18.0	2.35	3.95	(37)

주: 보호자의 응답임

이어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원의 경우 ‘부담되는 편임’ 35.6%, ‘매우 부담됨’ 4.4%로, 전체의 40%가 학원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에 대해서는 ‘부담되는 편임’ 32.4%, ‘매우 부담됨’ 4.2%로, 전체의 36.6%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방문교사)에 대해서는 ‘부담되는 편임’ 20.2%, ‘매우 부담됨’ 1.3%로 전체의 21.5%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터넷 화상 강의에 대해서는 ‘부담되는 편임’ 12.6%, ‘매우 부담됨’ 2.6%로 전체의 15.2%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에 대해서도 ‘부담되는 편임’ 18.9%, ‘매우 부담됨’ 1.9%로, 전체의 20.8%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내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는 1%만이 부담되는 편이라고 답하였고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5.6%만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교내 방과후 교실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2〉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는 편	적당	부담 되는 편	매우 부담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학원	3.7	10.8	45.5	35.6	4.4	100.0(1054)	3.26	0.85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4.2	12.0	47.2	32.4	4.2	100.0(284)	3.20	0.86
학습지(방문교사)	6.3	11.6	60.6	20.2	1.3	100.0(302)	2.99	0.79
인터넷 화상 강의	7.3	15.2	62.3	12.6	2.6	100.0(151)	2.88	0.82
교내 방과 후 교실	18.2	20.2	60.6	1.0	-	100.0(99)	2.44	0.80
문화센터, 종교기관 및 사설기관	11.3	30.2	37.7	18.9	1.9	100.0(53)	2.70	0.97
주민 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38.9	16.7	38.9	-	5.6	100.0(18)	2.17	1.1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부담되지 않음 ~ 5. 매우 부담됨).

3) 아동의 사교육 이용 인식

아동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의 개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당한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77.0%,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의 개수가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중이 적고,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3〉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단위: 개, (명)

구분	적은편	적당한편	많은편	계(수)
전체	18.5	77.0	4.5	100.0(1143)
아동 성별				
남	16.0	77.7	6.4	100.0(564)
여	21.1	76.3	2.6	100.0(579)
$\chi^2(df)$		13.30(2)**		
모 학력				
고졸 이하	19.2	77.4	3.4	100.0(266)
전문대졸	15.9	77.4	6.7	100.0(345)
대졸 이상	20.2	76.3	3.5	100.0(520)
$\chi^2(df)/F$		7.77(4)		2.95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19.2	78.0	2.7	100.0(182)
400~549만원	18.7	76.0	5.4	100.0(391)
550~699만원	18.7	76.2	5.1	100.0(214)
700만원 이상	17.1	78.4	4.5	100.0(292)
$\chi^2(df)$		2.52(6)		
지역규모				
대도시	17.3	76.8	5.9	100.0(457)
중소도시	19.6	77.0	3.3	100.0(627)
읍면지역	16.9	78.0	5.1	100.0(59)
$\chi^2(df)$		4.80(4)		

주: 아동 응답임.

** $p < .01$.

다음으로 아동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33.3%, '보통이다' 33.3%,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26.8%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스러운 편이다'에는 5.4%, '매우 부담스럽다'에는 1.1%가 응답하여 전체의 6.5%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부담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이 전체의 8.9%인데 비해 여학생은 4.3%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정도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24〉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은편	보통	부담스러운 편	매우 부담스러움	계(수)
전체	33.3	26.8	33.3	5.4	1.1	100.0(1143)
아동 성별						
남	32.6	25.5	33.0	7.3	1.6	100.0(564)
여	34.0	28.0	33.7	3.6	0.7	100.0(579)
$\chi^2(df)$			9.89(4)*			
모 학력						
고졸 이하	36.8	20.7	36.5	4.5	1.5	100.0(266)
전문대졸	32.8	27.2	32.2	6.4	1.4	100.0(345)
대졸 이상	31.7	29.8	32.5	5.4	0.6	100.0(520)
$\chi^2(df)/F$			11.03(8)			0.13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33.5	25.3	33.0	6.6	1.6	100.0(182)
400~549만원	35.8	25.6	31.7	5.6	1.3	100.0(391)
550~699만원	29.0	31.3	34.1	4.2	1.4	100.0(214)
700만원 이상	31.8	26.0	36.0	5.8	0.3	100.0(292)
$\chi^2(df)$			8.50(12)			
지역규모						
대도시	31.9	26.3	34.1	6.8	0.9	100.0(457)
중소도시	33.2	28.1	32.7	4.8	1.3	100.0(627)
읍면지역	45.8	16.9	33.9	1.7	1.7	100.0(59)
$\chi^2(df)$			9.82(8)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부담되지 않음 ~ 5. 매우 부담스러움).

* $p < .05$.

다. 지역사회 특성

1) 일반적 특성

아동의 출생 후의 총 이사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0회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회 32.8%, 2회 15.2%, 3회 6.1%, 4회 1.7%, 5회 0.3%로 나타났다.

〈표 IV-4-25〉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단위: %(명), 회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계(수)	평균	표준편차
44.0	32.8	15.2	6.1	1.7	0.3	100.0(1,365)	0.90	1.01

주: 보호자의 응답임.

거주지역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에 사는 아동은 40.1%이고 중소도시는 54.4%, 읍면지역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6〉 지역규모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계(수)
전체	40.1	54.4	5.5	100.0(1397)
모 취업 여부				
취업	39.4	54.9	5.7	100.0(822)
미취업	41.3	53.8	5.0	100.0(543)
모 학력				
고졸이하	41.5	50.5	8.0	100.0(364)
전문대졸	37.9	55.0	7.2	100.0(404)
대졸이상	41.0	56.2	2.8	100.0(61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42.4	47.2	10.3	100.0(271)
400~549만원	38.6	56.3	5.1	100.0(474)
550~699만원	36.3	60.8	2.9	100.0(240)
700만원 이상	43.0	53.1	3.9	100.0(337)

주: 보호자의 응답임.

아동의 거주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경인권에 31.7%의 아동이 거주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17.7%, 대전/충청/강원권 14.1%, 광주/전라권/제주 13.0%, 서울권 12.3%, 대구/경북권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27〉 6개 권역 구분

단위: %(명)

구분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 /강원권	대구/ 경북권	부산/울산 /경남권	광주/전라권 /제주	계(수)
전체	12.3	31.7	14.1	11.2	17.7	13.0	100.0(1397)
모 취업 여부							
취업	11.3	30.2	15.7	11.2	17.2	14.5	100.0(822)
미취업	13.8	34.6	11.0	11.2	18.6	10.7	100.0(543)
모 학력							
고졸 이하	8.2	28.8	17.6	14.0	20.6	10.7	100.0(364)
전문대졸	10.4	31.2	12.4	13.1	17.1	15.8	100.0(404)
대졸 이상	16.2	33.8	13.1	8.3	16.2	12.4	100.0(612)
가구 소득							
399만원 이하	7.4	24.0	14.4	15.5	24.4	14.4	100.0(271)
400~549만원	11.2	31.4	13.5	13.3	17.9	12.7	100.0(474)
550~699만원	10.4	33.8	15.4	7.9	18.3	14.2	100.0(240)
700만원 이상	17.8	33.8	12.8	7.4	14.5	13.6	100.0(337)

2) 양육환경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해서 우선 교육·의료·복지시설의 거리상의 접근 편리성에 대해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료기관 3.61점, 교육기관 3.31점, 공공복지시설 3.20점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경우 대도시 3.77점, 중소도시 3.56점, 읍면 2.90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의 경우는 대도시 3.49점, 중소도시 3.29점, 읍면 2.26점, 공공복지시설의 경우 대도시 3.30점, 중소도시 3.18점, 읍면 2.69점으로 나타나,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교육·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편리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28〉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의료 기관	전체	1.9	9.2	26.9	50.3	11.7	100.0(1397)	3.61	0.88
	대도시	1.1	5.7	22.7	56.6	13.9	100.0(560)	3.77 ^b	0.80
	중소도시	1.7	9.9	29.2	48.9	10.3	100.0(760)	3.56 ^b	0.87
	읍면	9.1	28.6	35.1	18.2	9.1	100.0(77)	2.90 ^a	1.10
	$\chi^2(df)/F$							94.41(8)***	37.38***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교육 기관	전체	4.9	13.6	35.4	37.3	8.7	100.0(1397)	3.31	0.98
	대도시	2.5	11.6	32.7	40.9	12.3	100.0(560)	3.49 ^b	0.94
	중소도시	4.3	13.4	37.9	37.6	6.7	100.0(760)	3.29 ^b	0.93
	읍면	28.6	29.9	31.2	7.8	2.6	100.0(77)	2.26 ^a	1.04
	$\chi^2(df)/F$	148.97(8)***						58.27***	
공공 복지 시설	전체	4.3	14.6	43.4	32.0	5.7	100.0(1397)	3.20	0.91
	대도시	2.5	13.4	42.9	34.1	7.1	100.0(560)	3.30 ^b	0.88
	중소도시	4.6	13.9	44.9	31.7	4.9	100.0(760)	3.18 ^b	0.90
	읍면	14.3	29.9	32.5	19.5	3.9	100.0(77)	2.69 ^a	1.07
	$\chi^2(df)/F$	45.84(8)***						16.0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 ~ 5.매우 편리함).

*** p < .001.

이러 아동의 양육환경 중 여가 공간과 시설의 접근 편리성에 대해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책로 3.86점, 놀이터 3.84점, 공원 3.7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놀이시설은 3.31점, 실외 체육시설은 3.2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놀이공원은 2.51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놀이터의 경우 대도시 3.96점, 읍면 3.05점, 공원은 대도시 3.82점, 읍면 3.29점으로 나타났으며, 산책로 역시 대도시 3.88점, 읍면 3.58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실내외 체육시설/놀이시설 역시 대도시는 3점대인데 비해 읍면은 2점대로 나타났으며, 놀이공원의 경우도 대도시 2.70점, 읍면은 1.65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4-29〉 여가 공간·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놀이터	전체	3.1	6.2	17.5	49.8	23.3	100.0(1397)	3.84	0.96
	대도시	1.4	5.0	17.1	49.3	27.1	100.0(560)	3.96 ^b	0.88
	중소도시	2.6	6.6	16.8	52.6	21.3	100.0(760)	3.83 ^b	0.92
	읍면	20.8	10.4	27.3	26.0	15.6	100.0(77)	3.05 ^a	1.36
	$\chi^2(df)/F$	106.81(8)***						31.73***	
공원	전체	2.7	6.8	21.5	49.5	19.5	100.0(1397)	3.76	0.93
	대도시	2.3	6.8	19.1	50.5	21.3	100.0(560)	3.82 ^b	0.92
	중소도시	1.7	7.0	22.4	50.4	18.6	100.0(760)	3.77 ^b	0.89
	읍면	15.6	5.2	29.9	33.8	15.6	100.0(77)	3.29 ^a	1.26
	$\chi^2(df)/F$	60.55(8)***						11.17***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산책로	전체	1.9	5.9	19.0	51.5	21.8	100.0(1397)	3.86	0.89
	대도시	1.6	5.5	19.1	50.4	23.4	100.0(560)	3.88 ^b	0.88
	중소도시	1.4	6.1	18.2	53.6	20.8	100.0(760)	3.86 ^b	0.86
	읍면	7.8	6.5	26.0	39.0	20.8	100.0(77)	3.58 ^a	1.13
	$\chi^2(df)/F$	22.07(8)**							3.90*
놀이공원	전체	20.3	31.5	27.4	18.0	2.8	100.0(1397)	2.51	1.09
	대도시	13.8	31.4	30.2	20.4	4.3	100.0(560)	2.70 ^b	1.07
	중소도시	21.7	31.6	27.1	17.8	1.8	100.0(760)	2.46 ^b	1.07
	읍면	54.5	31.2	10.4	2.6	1.3	100.0(77)	1.65 ^a	0.87
	$\chi^2(df)/F$	86.18(8)***							34.89***
실내 체육시설 / 놀이시설	전체	5.4	15.0	32.6	36.6	10.4	100.0(1397)	3.31	1.03
	대도시	2.5	13.4	31.8	39.6	12.7	100.0(560)	3.47 ^b	0.96
	중소도시	6.2	15.8	33.7	35.8	8.6	100.0(760)	3.25 ^b	1.02
	읍면	19.5	19.5	27.3	22.1	11.7	100.0(77)	2.87 ^a	1.29
	$\chi^2(df)/F$	52.35(8)***							15.29***
실외 체육시설	전체	5.1	16.9	36.5	32.9	8.6	100.0(1397)	3.23	1.00
	대도시	3.4	18.6	33.4	35.5	9.1	100.0(560)	3.28 ^b	0.98
	중소도시	5.7	14.6	39.9	31.7	8.2	100.0(760)	3.22 ^b	0.98
	읍면	11.7	27.3	26.0	26.0	9.1	100.0(77)	2.94 ^a	1.17
	$\chi^2(df)/F$	27.62(8)***							4.2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 ~ 5.매우 편리함).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문화시설의 접근 편리성에 대해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 3.61점, 영화관 3.40점, 관람 및 체험시설 2.83점, 공연시설 2.81점 순으로 나타나 도서관과 영화관의 편리성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지만, 관람 및 체험시설과 공연시설은 다소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도서관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3.6점 이상인데 비해 읍면은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영화관의 경우도 대도시 3.53점, 중소도시 3.40점, 읍면은 2.51점으로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 및 체험시설도 대도시 2.94점, 중소도시 2.80점, 읍면 2.21점, 공연시설도 대도시 2.92점, 중소도시 2.78점, 읍면 2.22점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IV-4-30〉 문화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영화관	전체	5.6	12.6	28.6	42.7	10.6	100.0(1397)	3.40	1.02
	대도시	3.8	11.8	26.3	44.3	13.9	100.0(560)	3.53 ^b	1.00
	중소도시	4.5	12.6	30.5	43.4	8.9	100.0(760)	3.40 ^b	0.97
	읍면	29.9	18.2	26.0	23.4	2.6	100.0(77)	2.51 ^a	1.22
	$\chi^2(df)/F$	110.48(8) ^{***}							35.71 ^{***}
관람 및 체험시설	전체	11.4	26.3	34.4	24.1	3.8	100.0(1397)	2.83	1.04
	대도시	9.1	24.1	36.3	24.5	6.1	100.0(560)	2.94 ^b	1.04
	중소도시	11.2	27.1	34.2	25.1	2.4	100.0(760)	2.80 ^b	1.01
	읍면	29.9	33.8	23.4	11.7	1.3	100.0(77)	2.21 ^a	1.04
	$\chi^2(df)/F$	50.10(8) ^{***}							17.72 ^{***}
공연시설	전체	10.8	28.6	33.4	23.6	3.6	100.0(1397)	2.81	1.03
	대도시	8.2	28.2	33.0	24.8	5.7	100.0(560)	2.92 ^b	1.04
	중소도시	10.3	29.1	35.0	23.4	2.2	100.0(760)	2.78 ^b	0.99
	읍면	35.1	27.3	19.5	16.9	1.3	100.0(77)	2.22 ^a	1.14
	$\chi^2(df)/F$	64.74(8) ^{***}							16.16 ^{***}
도서관	전체	2.6	9.9	26.4	46.7	14.5	100.0(1397)	3.61	0.94
	대도시	1.8	10.4	25.0	48.0	14.8	100.0(560)	3.64 ^b	0.92
	중소도시	2.1	8.9	27.1	47.5	14.3	100.0(760)	3.63 ^b	0.91
	읍면	13.0	15.6	29.9	28.6	13.0	100.0(77)	3.13 ^a	1.22
	$\chi^2(df)/F$	44.56(8) ^{***}							10.62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 ~ 5.매우 편리함).

*** $p < .001$.

교육·의료·복지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3.41점, 교육기관 3.22점, 공공복지시설은 3.13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 구분한 결과, 의료기관의 경우 대도시 3.56점, 중소도시 3.37점 읍면 2.70점, 교육기관은 대도시 3.37점, 중소도시, 3.16점, 읍면 2.52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공공복지시설 역시 대도시 3.24점, 중소도시 3.07점, 읍면 2.77점으로 도시권에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읍면에서는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31〉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의료기관	전체	4.0	9.1	35.2	44.9	6.8	100.0(1355)	3.41	0.89
	대도시	2.6	5.8	31.8	52.4	7.5	100.0(548)	3.56 ^b	0.82
	중소도시	4.2	10.0	37.6	41.7	6.6	100.0(743)	3.37 ^b	0.90
	읍면	14.1	26.6	37.5	18.8	3.1	100.0(64)	2.70 ^a	1.03
	$\chi^2(df)/F$	70.73(8)***							30.23***
교육기관	전체	5.8	13.6	39.3	35.6	5.8	100.0(1304)	3.22	0.95
	대도시	3.4	11.9	36.0	42.0	6.7	100.0(536)	3.37 ^b	0.90
	중소도시	6.5	13.9	41.9	32.6	5.2	100.0(712)	3.16 ^b	0.95
	읍면	21.4	25.0	37.5	12.5	3.6	100.0(56)	2.52 ^a	1.08
	$\chi^2(df)/F$	56.75(8)***							23.78***
공공 복지시설	전체	5.9	14.3	45.6	29.6	4.6	100.0(1194)	3.13	0.92
	대도시	4.2	13.5	41.8	35.0	5.5	100.0(474)	3.24 ^b	0.90
	중소도시	6.6	14.2	48.3	27.0	3.9	100.0(664)	3.07 ^b	0.91
	읍면	12.5	23.2	44.6	14.3	5.4	100.0(56)	2.77 ^a	1.03
	$\chi^2(df)/F$	25.17(8)**							9.1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 ~ 5.매우 만족함).
 ** $p < .01$, *** $p < .001$.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산책로가 3.7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공원 3.67점, 놀이터 3.60점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놀이시설은 3.21점, 실외 놀이시설은 3.1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나, 놀이공원은 2.87점으로 약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놀이터, 공원, 산책로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의 체육시설/놀이시설의 경우, 도시권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읍면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공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가운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순으로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표 IV-4-32〉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놀이터	전체	2.9	5.5	29.1	53.7	8.9	100.0(1276)	3.60	0.84
	대도시	2.3	4.9	26.9	55.4	10.4	100.0(527)	3.67 ^b	0.82
	중소도시	2.5	5.4	29.6	54.6	8.0	100.0(689)	3.60 ^b	0.81
	읍면	13.3	11.7	41.7	28.3	5.0	100.0(60)	3.00 ^a	1.07
	$\chi^2(df)/F$	42.99(8)***							17.59***
공원	전체	3.0	4.8	26.5	53.4	12.3	100.0(1328)	3.67	0.86
	대도시	2.1	4.9	24.1	57.2	11.8	100.0(535)	3.72 ^b	0.81
	중소도시	3.2	4.8	27.5	52.1	12.5	100.0(728)	3.66 ^b	0.87
	읍면	9.2	4.6	35.4	36.9	13.8	100.0(65)	3.42 ^a	1.09
	$\chi^2(df)/F$	18.64(8)*							3.72*
산책로	전체	2.6	4.7	24.0	53.6	15.0	100.0(1339)	3.74	0.86
	대도시	1.7	4.3	23.3	56.4	14.4	100.0(541)	3.78 ^b	0.81
	중소도시	2.6	4.8	24.6	52.7	15.3	100.0(731)	3.73 ^b	0.87
	읍면	10.4	7.5	23.9	41.8	16.4	100.0(67)	3.46 ^a	1.17
	$\chi^2(df)/F$	22.06(8)**							3.97*
놀이공원	전체	13.5	17.9	40.3	24.5	3.7	100.0(1159)	2.87	1.05
	대도시	11.8	15.9	40.3	26.9	5.2	100.0(484)	2.98 ^b	1.05
	중소도시	13.4	18.5	41.4	24.0	2.7	100.0(633)	2.84 ^b	1.02
	읍면	35.7	33.3	23.8	4.8	2.4	100.0(42)	2.05 ^a	1.01
	$\chi^2(df)/F$	38.74(8)***							16.13***
실내 체육시설 /놀이시설	전체	7.0	12.8	37.9	36.7	5.6	100.0(1223)	3.21	0.98
	대도시	5.0	8.4	40.7	39.9	6.0	100.0(501)	3.34 ^b	0.90
	중소도시	7.7	15.4	36.0	36.1	4.8	100.0(664)	3.15 ^b	1.00
	읍면	15.5	22.4	34.5	15.5	12.1	100.0(58)	2.86 ^a	1.22
	$\chi^2(df)/F$	40.16(8)***							9.14***
실외 체육시설	전체	6.2	15.1	41.0	31.4	6.3	100.0(1214)	3.17	0.97
	대도시	4.7	13.2	41.6	33.5	7.1	100.0(493)	3.25 ^b	0.94
	중소도시	6.3	15.3	41.4	31.7	5.3	100.0(666)	3.14 ^b	0.96
	읍면	18.2	29.1	30.9	9.1	12.7	100.0(55)	2.69 ^a	1.25
	$\chi^2(df)/F$	39.10(8)***							8.8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 ~ 5.매우 만족함).

* $p < .05$, ** $p < .01$, *** $p < .001$.

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서관의 평균 만족도 점수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영화관 3.47점, 관람 및 체험시설 3.02점, 공연 시설 2.9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영화관의 경우 도시권에서는 보통 이상이지만 읍면에서는 보통이하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람 및 체험시설과 공연시설의 경우도 대도시에만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중소도시, 읍면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33〉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영화관	전체	4.5	7.6	33.1	45.8	8.9	100.0(1322)	3.47	0.92
	대도시	2.8	6.7	30.3	49.4	10.8	100.0(538)	3.59 ^b	0.87
	중소도시	4.4	7.4	34.8	45.2	8.2	100.0(721)	3.45 ^b	0.91
	읍면	20.6	17.5	38.1	22.2	1.6	100.0(63)	2.67 ^a	1.09
	$\chi^2(df)/F$							66.31(8)***	29.55***
관람 및 체험시설	전체	9.1	16.6	41.6	29.0	3.7	100.0(1215)	3.02	0.98
	대도시	5.9	13.2	43.5	32.6	4.9	100.0(494)	3.17 ^b	0.93
	중소도시	9.9	19.2	40.5	27.6	2.7	100.0(666)	2.94 ^b	0.99
	읍면	27.3	16.4	38.2	12.7	5.5	100.0(55)	2.53 ^a	1.18
	$\chi^2(df)/F$							44.97(8)***	15.54***
공연시설	전체	10.5	16.3	45.7	24.2	3.3	100.0(1184)	2.94	0.98
	대도시	7.9	15.5	46.0	26.1	4.6	100.0(483)	3.04 ^b	0.96
	중소도시	10.8	17.0	46.3	23.6	2.3	100.0(648)	2.90 ^b	0.96
	읍면	30.2	15.1	35.8	15.1	3.8	100.0(53)	2.47 ^a	1.19
	$\chi^2(df)/F$							31.33(8)***	9.36***
도서관	전체	3.5	8.1	31.9	45.7	10.7	100.0(1290)	3.52	0.91
	대도시	3.3	8.4	31.6	47.6	9.2	100.0(513)	3.51 ^b	0.90
	중소도시	3.1	7.5	31.8	46.0	11.7	100.0(711)	3.56 ^b	0.90
	읍면	9.1	13.6	36.4	28.8	12.1	100.0(66)	3.21 ^a	1.12
	$\chi^2(df)/F$							16.05(8)*	4.3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 ~ 5.매우 만족함).

* $p < .05$, *** $p < .001$.

다음으로는 동네 양육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취객, 싸움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평균 4.05점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어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3.98점, 범죄로부터의 안전 3.7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설비의 구비,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의 적정한 정기순찰에 대한 안정성 점수도 각각 3.73점, 3.69점, 3.6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3.43점, 3.1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평균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의 정기순찰,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아 주는 것에 대해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의 정기순찰은 대도시 지역에서 안전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서 안전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항목별 차이를 보였다.

〈표 IV-4-34〉 양육환경 안전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취객, 싸움 없음	전체	1.1	5.2	12.2	50.2	31.1	0.4	100.0(1397)	4.05	0.86
	대도시	1.1	5.5	12.5	49.6	31.3	-	100.0(560)	4.04	0.87
	중소도시	0.9	5.0	11.2	52.1	30.3	0.5	100.0(760)	4.06	0.84
	읍면	2.6	3.9	19.5	35.1	37.7	1.3	100.0(77)	4.03	0.99
	$\chi^2(df)/F$									0.22
범죄로부터 안전	전체	4.3	7.5	21.3	43.4	23.1	0.4	100.0(1397)	3.74	1.03
	대도시	5.0	7.1	21.4	42.3	23.8	0.4	100.0(560)	3.73	1.06
	중소도시	3.4	7.9	20.9	44.2	23.3	0.3	100.0(760)	3.76	1.01
	읍면	7.8	6.5	23.4	42.9	16.9	2.6	100.0(77)	3.56	1.11
	$\chi^2(df)/F$									0.73
유해 시설로부터의 안전	전체	3.6	6.5	15.3	36.1	37.6	0.9	100.0(1397)	3.98	1.06
	대도시	4.6	7.0	16.6	35.7	35.7	0.4	100.0(560)	3.91 ^a	1.10
	중소도시	2.5	6.3	15.5	37.5	37.4	0.8	100.0(760)	4.02 ^{ab}	1.01
	읍면	6.5	5.2	3.9	26.0	53.2	5.2	100.0(77)	4.21 ^b	1.19
	$\chi^2(df)/F$									4.96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정기순찰	전체	1.8	5.4	32.0	39.1	17.9	3.8	100.0(1397)	3.68	0.90
	대도시	1.8	3.6	27.7	40.0	23.6	3.4	100.0(560)	3.83 ^a	0.90
	중소도시	1.6	7.0	34.6	39.2	13.7	3.9	100.0(760)	3.59 ^a	0.88
	읍면	3.9	3.9	37.7	31.2	18.2	5.2	100.0(77)	3.59 ^a	0.98
	$\chi^2(df)/F$			34.63(10)***						8.12***
협조 분위기	전체	1.6	11.0	39.5	33.4	11.5	2.9	100.0(1397)	3.43	0.90
	대도시	2.0	10.9	38.6	33.6	12.0	3.0	100.0(560)	3.44	0.92
	중소도시	1.4	11.2	41.4	32.8	10.0	3.2	100.0(760)	3.40	0.88
	읍면	1.3	10.4	27.3	39.0	22.1	-	100.0(77)	3.70	0.97
	$\chi^2(df)/F$			16.74(10)						1.78
행동 바로 잡아주기	전체	3.0	18.3	44.4	22.5	7.3	4.4	100.0(1397)	3.13	0.92
	대도시	3.0	17.7	43.6	22.7	8.8	4.3	100.0(560)	3.17 ^{ab}	0.94
	중소도시	3.2	18.9	46.7	20.8	5.7	4.7	100.0(760)	3.07 ^a	0.88
	읍면	1.3	16.9	27.3	39.0	13.0	2.6	100.0(77)	3.47 ^b	0.98
	$\chi^2(df)/F$			26.12(10)**						3.56*
시설물 설치	전체	0.7	6.0	30.1	43.3	17.8	2.1	100.0(1397)	3.73	0.85
	대도시	0.4	5.5	30.7	43.2	18.6	1.6	100.0(560)	3.75	0.84
	중소도시	0.9	6.3	28.3	45.1	16.8	2.5	100.0(760)	3.72	0.86
	읍면	1.3	6.5	42.9	26.0	20.8	2.6	100.0(77)	3.6	0.94
	$\chi^2(df)/F$			15.41(10)						0.68
안전설비 구비	전체	0.7	6.2	32.9	41.2	17.3	1.7	100.0(1397)	3.69	0.86
	대도시	0.4	6.4	32.0	40.9	18.4	2.0	100.0(560)	3.72	0.86
	중소도시	0.9	5.9	32.4	42.5	16.8	1.4	100.0(760)	3.69	0.86
	읍면	1.3	7.8	44.2	29.9	14.3	2.6	100.0(77)	3.49	0.89
	$\chi^2(df)/F$			9.93(10)						1.7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평균값은 잘모름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취객, 싸움 없음(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함.

4)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음 ~ 5. 매우 그러함).

5) 일부 값에서 t/F 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라. 정책 특성

1) 국가지원

아동의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수급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의 0.7%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고 2.3%가 차상위 계층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지역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4-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계(수)
전체	0.7	2.3	97.0	100.0(1352)
모 취업 여부				
취업	0.3	2.1	97.6	100.0(796)
미취업	1.1	2.1	96.8	100.0(524)
$\chi^2(df)$		4.19(2)		
모 학력				
고졸 이하	2.0	3.1	94.9	100.0(352)
전문대졸	0.3	2.1	97.7	100.0(385)
대졸 이상	-	1.5	98.5	100.0(598)
$\chi^2(df)$		18.74(4)**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3.4	7.1	89.5	100.0(267)
400~549만원	-	2.0	98.0	100.0(457)
550~699만원	-	-	100.0	100.0(233)
700만원 이상	-	0.9	99.1	100.0(328)
$\chi^2(df)$		69.80(6)***		
지역규모				
대도시	0.9	2.4	96.7	100.0(546)
중소도시	0.4	2.3	97.3	100.0(732)
읍면지역	1.4	1.4	97.3	100.0(74)
$\chi^2(df)$		2.07(4)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지난 1년간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지원처는 정부보조금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친척, 친지 등 이웃 26.5%, 회사 19.5%, 복지관/종교단체 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을 수록 생활비를 지원받은 집단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6〉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수)	정부 보조금	친척, 친지 등 이웃	복지관/ 종교단체	회사	(수)
전체	14.5	85.5	100.0(1381)	61.0	26.5	8.5	19.5	(200)
모 취업 여부								
취업	14.4	85.6	100.0(815)	53.8	30.8	5.1	21.4	(117)
미취업	14.4	85.6	100.0(536)	71.4	22.1	9.1	18.2	(77)
$\chi^2(df)$	0.01(1)							
모 학력								
고졸 이하	18.1	81.9	100.0(359)	80.0	23.1	7.7	7.7	(65)
전문대졸	13.3	86.7	100.0(399)	60.4	22.6	5.7	28.3	(53)
대졸 이상	12.5	87.5	100.0(607)	44.7	34.2	6.6	25.0	(76)
$\chi^2(df)$	6.17(2)*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26.3	73.7	100.0(266)	84.3	22.9	11.4	5.7	(70)
400-549만원	11.7	88.3	100.0(470)	58.2	23.6	9.1	18.2	(55)
550-699만원	11.3	88.7	100.0(238)	44.4	25.9	-	29.6	(27)
700만원 이상	10.1	89.9	100.0(336)	44.1	23.5	11.8	38.2	(34)
$\chi^2(df)$	40.65(3)***							
지역규모								
대도시	14.6	85.4	100.0(554)	58.0	25.9	8.6	25.9	(81)
중소도시	14.1	85.9	100.0(750)	64.2	25.5	8.5	15.1	(106)
읍면지역	16.9	83.1	100.0(77)	53.8	38.5	7.7	15.4	(13)
$\chi^2(df)$	0.44(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2)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지난 1년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비율은 아버지 8.6%, 어머니 5.8%로 전년도의 아버지 5.1%, 어머니 3.5%(김은설 외, 2020: 23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돌봄 휴직의 비율도 아버지 0.9%, 어머니 1.2%로 전년도의 부모 각각 0.8%, 0.5%(김은설 외, 2020: 233)에 비해 높게 나타나,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유연근무제와 돌봄휴직의 이용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출산휴가는 아버지 0.2%, 어머니 0.9%. 육아휴직은 아버지 0.2%, 어머니 1.6%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다(김은설 외, 2020: 233).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아버지 90.5%, 어머니 91.0%로 작년도의 아버지 93.4%, 어머니 92.8%(김은설 외, 2020: 233)보다 축소되었다.

〈표 IV-4-37〉 지난 1년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이용 비율(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모두 이용안함	사례수
아버지	0.2	0.2	8.6	0.0	0.9	90.5	(1232)
어머니	0.9	1.6	5.8	0.5	1.2	91.0	(822)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3) 학교 정책

아동의 보호자에게 조사년도에 아래와 같은 학교정책을 경험 또는 이용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33.9%가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에 대해서는 33.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로탐색교육/ 진로체험프로그램’ 18.9%, ‘가족 체험학습’ 제도는 16.5%, ‘인성,체육,예술 교육’은 15.5%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교육비 지원제도’는 5.9%, ‘장애학생 지원제도’는 4.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8〉 학교정책 수혜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	진로 탐색 교육	학교 폭력 예방 정책	학교 급식 안전 관리	장애 학생 지원 제도	교육비 지원 제도	인성 체육 예술 교육	사례수
전체	16.5	18.9	33.1	33.9	4.0	5.9	15.5	(1397)
성별								
남학생	17.1	18.1	32.8	33.2	4.2	5.6	15.5	(708)
여학생	16.0	19.7	33.4	34.7	3.8	6.2	15.4	(689)
아동 출생순위								
첫째	18.7	18.3	34.3	34.4	4.5	5.3	15.0	(508)
둘째 이상	14.6	18.1	31.7	32.5	3.5	6.4	15.7	(745)
외동아	18.8	25.0	36.1	39.6	4.9	5.6	16.0	(144)
모 취업 여부								
취업	15.7	18.5	31.1	33.2	4.6	5.0	15.3	(822)
미취업	17.9	19.5	36.1	35.0	3.1	7.2	15.8	(543)
모 학력								
고졸 이하	16.5	16.2	31.9	31.3	4.4	8.2	16.8	(364)
전문대졸	14.6	17.1	31.2	33.9	4.5	5.0	12.1	(404)
대졸 이상	17.8	21.6	34.8	35.3	3.4	4.9	16.8	(612)
가구소득								
399만원 이하	14.4	21.8	38.7	36.5	5.5	13.3	19.6	(271)
400~549만원	15.6	21.3	35.0	36.1	4.4	5.1	16.0	(474)
550~699만원	13.8	17.5	34.2	37.5	3.8	3.8	14.6	(240)
700만원 이상	19.9	16.3	26.7	28.8	2.7	3.0	13.9	(337)
지역규모								
대도시	13.4	15.4	27.7	28.4	2.0	4.3	11.1	(560)
중소도시	19.1	20.4	35.0	36.1	5.0	6.8	17.8	(760)
읍면지역	14.3	29.9	53.2	53.2	9.1	9.1	24.7	(77)

주: 보호자의 응답임.

다음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경험 또는 이용한 학교정책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성, 체육, 예술 교육’ 3.67점,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3.64점, ‘교육비 지원제도’ 3.64점,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3.62점, ‘진로 탐색교육/진로체험프로그램’ 3.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학생지원제도’는 3.46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39〉 학교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가족체험 학습 출석 인정	1.3	0.9	26.0	56.3	15.6	100.0(231)	3.84	0.74
진로탐색교육	0.8	1.9	37.5	54.9	4.9	100.0(264)	3.61	0.65
학교폭력예방정책	0.6	1.9	35.9	57.4	4.1	100.0(462)	3.62	0.63
학교급식안전관리	0.6	1.7	35.0	58.2	4.4	100.0(474)	3.64	0.63
장애학생지원제도	3.6	1.8	46.4	41.1	7.1	100.0(56)	3.46	0.81
교육비지원제도	2.4	4.8	32.5	47.0	13.3	100.0(83)	3.64	0.86
인성체육예술교육	0.9	1.9	31.9	59.7	5.6	100.0(216)	3.67	0.6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매우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함).

5. 가중치 산출²¹⁾

가. 가중치 부여방법

패널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과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위한 횡·종단면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과 같이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구축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의 경우, 표본설계와 조사 차수별 응답실태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패널 조사에서는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조사 차수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망, 이민,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표본 마모(Sample attrition)가 발생하여 표본 구성에서 조사 차수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모집단인 2008년 전국 출생아의 수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표본설계 시 의료기관과 신생아 가구 추출에 따른 추출확률을 결합하여 계산한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표본

21) 한국아동패널의 가중치 부여 방법은 매해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므로 설계 가중치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며, 설계 가중치에 대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조복희 외, 2009)를 참고.

마모 등의 무응답 발생에 따른 모수 추정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계수와 사후층화변수에 대한 보정승수를 종합한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개발하여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²²⁾. 한국아동패널 산출된 가중치는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전체의 분포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평균(또는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본가중평균²³⁾을 사용한다.

$$\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_{\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한국아동패널에서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3차년도 조사가 완료된 1,397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1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1~13차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1,023가구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함께 제공된 1~1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나. 12차년도 가중치 보정

가중치 보정을 위해 패널가구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고,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패널 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가구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하여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13차년

22) 13차년도 횡·종단면 가중치는 한국갤럽 상근 자문위원인 이계오 박사에 의해 산출됨.

23) h 는 지역층, i 는 층내 의료기관, j 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임.

도 패널가구의 응답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횡·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13차년도 조사 참여 분포는 <표 IV-5-1>과 같다. 우선 원패널²⁴⁾ 가구 중에서 13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가구는 1,023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 유지율은 47.6%로 전년대비 1.7%p 하락하였다. 2~3차 조사에 신규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패널²⁵⁾ 기준 대비 표본 유지율은 48.8%였다. 13차년도 조사에서 단조 결측 패턴²⁶⁾에 해당하지 않는 무응답 가구를 포함한 전체 패널 대비 응답률은 65.0%로, 12차년도 응답률인 65.7%에 비해 0.7%p 낮아졌다.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의 일부는 단조 결측 패턴을 보이지 않았기에 횡·종단면 가중치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의 1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020년 조사에 참여한 1,397가구, 종단면 가중치는 2008년부터 2020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023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IV-5-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구분	참여 여부													가구 수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전체 조사 성공	0	0	0	0	0	0	0	0	0	0	0	0	0	1023	47.6
13차년도 탈락	0	0	0	0	0	0	0	0	0	0	0	0	X	36	1.7
12차년도 탈락	0	0	0	0	0	0	0	0	0	0	0	X	X	26	1.2
11차년도 탈락	0	0	0	0	0	0	0	0	0	0	X	X	X	32	1.5
10차년도 탈락	0	0	0	0	0	0	0	0	0	X	X	X	X	42	2.0
9차년도 탈락	0	0	0	0	0	0	0	0	X	X	X	X	X	28	1.3
원패널 8차년도 탈락	0	0	0	0	0	0	0	X	X	X	X	X	X	23	1.1
7차년도 탈락	0	0	0	0	0	0	X	X	X	X	X	X	X	23	1.1
6차년도 탈락	0	0	0	0	0	X	X	X	X	X	X	X	X	44	2.1
5차년도 탈락	0	0	0	0	X	X	X	X	X	X	X	X	X	37	1.7
4차년도 탈락	0	0	0	X	X	X	X	X	X	X	X	X	X	36	1.7
3차년도 탈락	0	0	X	X	X	X	X	X	X	X	X	X	X	75	3.5
2차년도 탈락	0	X	X	X	X	X	X	X	X	X	X	X	X	89	4.1

24) 원패널: 한국아동패널 1차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의미함.
 25) 전체패널: 한국아동패널은 예비 표본의 합류를 3차년도까지 허용하여,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2차년도(52가구), 3차년도(20가구)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총 2,150가구를 전체 패널로 정의함.
 26) 단조 결측 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이란 패널참여 시점부터 꾸준히 조사에 참여하다가 특정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함.

구분	참여 여부												가구 수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0	0	0	0	0	0	0	0	0	0	0	0	19	0.9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0	0	0	0	0	0	0	0	0	0	0	8	0.4
기타: 12차년도 성공	※	※	※	※	※	※	※	※	※	※	※	※	0	347	16.1
기타: 12차년도 탈락	※	※	※	※	※	※	※	※	※	※	※	※	X	262	12.2
전체														2150	100.0

주: 1) 13차년도 조사 성공 사례수는 1,397가구임.

2) '0'는 해당 차수에 참여, 'X'는 해당 차수에 비참여, '-'는 해당 차수에는 표본에 속하지 않았음을, '※'는 단조 결측 패턴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가중치 산출은 무응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보정하는 승수와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변수에 대한 보완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첫째,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우선, 무응답에 따른 편향 감소 및 가중치 산출 방안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불참 패널에 대한 무응답 보정을 실시하였다. 무응답 보정은 기존 가중치 산출에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 가구별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거주지(권역), 어머니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위를 설명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응답확률을 계산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5-2>와 같다.

설명변수 3개중에서 아동 출생순위만 중단면 데이터의 무응답 패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거주권역과 어머니 취·학업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횡단면데이터의 무응답 패턴에서는 3개 설명변수(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학업여부와 거주지역)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중치 보정 과정에는 패널가구의 거주 권역,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등을 사용하여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였다. 거주권역 6개 범주(서울, 경인,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출생순위 2개 범주(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의 취·학업 2개 범주(취·학업, 미취·학업)을 기준으로 총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 가중 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승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 내의 응답 가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IV-5-2〉 13차년도 횡·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구분	13차년도 횡단면 자료			1~13차년도 종단면 자료		
	df	Wald- χ^2	p-value	df	Wald- χ^2	p-value
출생순서	1	1.9752	0.1599	1	6.9674	0.0083
모 취업여부	1	1.0348	0.309	1	0.6147	0.433
지역(권역)	5	2.8535	0.7226	5	4.4302	0.4893

둘째,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고, 패널 마모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17개 시·도별²⁷⁾ 만 11세 남·여 아동(주민등록인구 기준)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 층화 보정²⁸⁾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가중치 중에서 이상치(Outlier)는 철사 조정하여 최종 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가중치의 분포관련 기술 통계량은 〈표 IV-5-3〉과 같다.

〈표 IV-5-3〉 13차년도 최종 횡·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13차 횡단면 가중치	321.01	260.58	184.73	1,397	35.97	930.98
1~13차 종단면 가중치	438.37	365.46	269.74	1,023	48.44	1,289.98

이러한 가중치 산출 결과는 매해 데이터 제공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27) 세종시는 충청남도, 제주도는 전라남도로 병합하여 계산함.

28) 사후층화 과정에서 가중치의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기준으로 $Q_3 + 3IQR$ 을 넘는 수치를 극단(Outlier)로 간주하고 철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값이 포함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들을 철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을 적용해 극단적으로 크게 산출된 가중치를 조정함.

V

주요 변인 종단적 추이분석

01 한국아동패널 1-13차 추이분석

02 한국아동패널 초등시기 추이분석

V. 주요 변인 종단적 추이분석

본 장에서는 1-1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1절에서는 2008년 1차 자료부터 2013년 13차 자료까지 분석 가능한 아동 및 부모 특성의 자료에 대해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대상 변인은 체중, 키, BMI의 신체 및 건강특성과, 수면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독서시간을 포함하는 생활시간, 또한 부모 취업률,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가구 소득, 부모의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등의 부모 변인, 마지막으로,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등이다.

2절에서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13차년도 6학년까지 3회 이상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시기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동과 부모 변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3차 데이터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수집된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변수에서 코로나19 시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1. 한국아동패널 1-13차 추이분석

가. 1-13차년도 아동 특성 추이

1) 아동 체중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체중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중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 초등 5학년에 남학생 체중 평균 44.76kg, 여학생 평균 42.05kg, 초등 6학년에 남학생 평균 52.22kg, 여학생 평균 47.72kg으로 1년 사이 남학생 7.46kg, 여학생 평균 5.67kg의 증가가 있었다. 표준편차 또한 커지고 있어 개인 간 신체발달 격차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아동의 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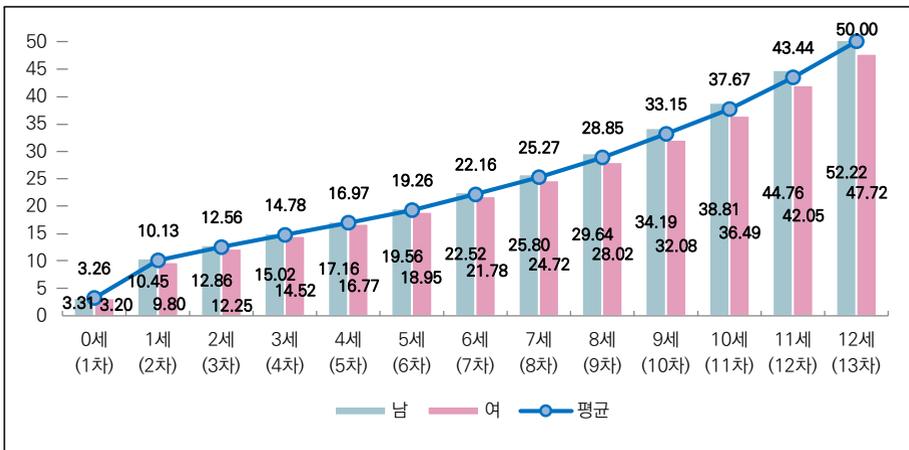
단위: kg(명)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3.31	0.41	1.4	4.7	(1,055)	3.20	0.40	1.2	4.9	(1,018)
1세(2차)	10.45	1.09	5.7	15.0	(858)	9.80	1.03	7.0	13.0	(851)
2세(3차)	12.86	1.44	7.0	21.0	(883)	12.25	1.37	8.6	20.0	(854)
3세(4차)	15.02	1.67	11.0	21.0	(902)	14.52	1.66	10.0	21.0	(852)
4세(5차)	17.16	2.09	11.0	25.0	(870)	16.77	2.14	11.6	29.6	(833)
5세(6차)	19.56	2.67	13.0	33.0	(853)	18.95	2.63	11.0	34.5	(802)
6세(7차)	22.52	3.65	15.4	38.8	(794)	21.78	3.49	14.0	38.6	(756)
7세(8차)	25.80	4.64	16.8	48.2	(797)	24.72	4.34	17.0	48.7	(759)
8세(9차)	29.64	5.88	19.4	54.3	(769)	28.02	5.36	18.0	55.0	(726)
9세(10차)	34.19	7.38	20.6	69.3	(751)	32.08	6.64	18.8	60.0	(724)
10세(11차)	38.81	8.68	20.0	75.5	(725)	36.49	8.01	21.3	75.6	(696)
11세(12차)	44.76	10.05	23.4	75.0	(706)	42.05	8.55	24.4	75.0	(666)
12세(13차)	52.22	11.34	25.0	95.0	(671)	47.72	8.87	27.0	91.5	(653)

자료: 한국아동패널 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1] 아동의 체중

단위: kg



자료: 한국아동패널 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아동 신장

아동의 신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초등 5학년에 남학생 평균 148.10cm, 여학생 평균 148.67cm이었고, 초등 6학년에 남학생 평균 155.93cm,

여학생이 평균 154.89cm로, 1년 사이 남학생 평균 7.83cm, 여학생 평균 6.22cm의 신장 증가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표준편차가 증가하고 있었고, 여학생은 4학년을 기점으로 표준편차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2〉 아동의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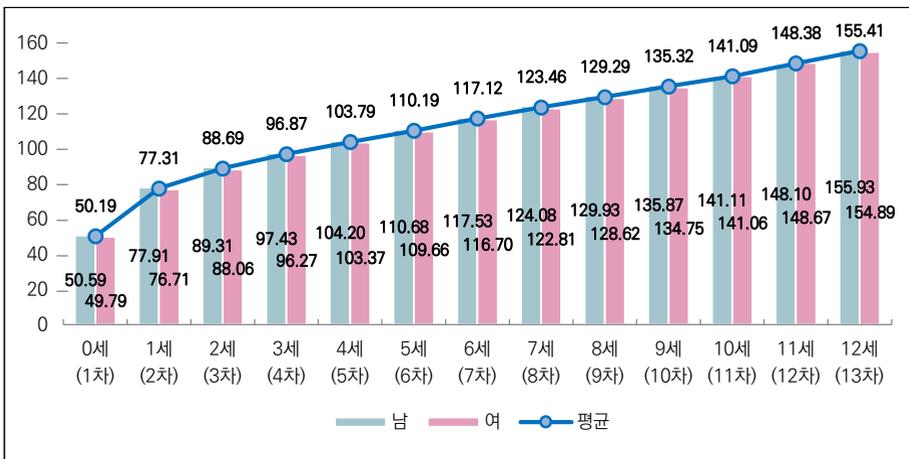
단위: cm(명)

구분	신장(남)					신장(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50.59	2.35	36.5	60.0	(908)	49.79	2.74	29.4	58.0	(907)
1세(2차)	77.91	4.09	60.0	96.0	(558)	76.71	3.98	60.0	100.0	(561)
2세(3차)	89.31	4.11	65.0	110.0	(716)	88.06	3.89	69.0	100.0	(699)
3세(4차)	97.43	3.82	85.0	111.0	(902)	96.27	3.56	85.0	110.0	(851)
4세(5차)	104.20	4.19	85.0	125.0	(870)	103.37	3.93	91.2	120.0	(833)
5세(6차)	110.68	4.55	97.0	130.0	(851)	109.66	4.31	98.0	125.0	(801)
6세(7차)	117.53	4.70	103.0	132.0	(791)	116.70	4.62	104.0	130.5	(757)
7세(8차)	124.08	5.02	109.0	144.0	(798)	122.81	4.98	107.2	140.5	(761)
8세(9차)	129.93	5.27	114.0	148.8	(769)	128.62	5.19	113.0	147.0	(727)
9세(10차)	135.87	5.58	119.0	155.0	(750)	134.75	5.68	116.0	154.0	(724)
10세(11차)	141.11	6.24	123.1	172.2	(718)	141.06	6.44	120.3	164.7	(687)
11세(12차)	148.10	6.70	129.0	172.0	(709)	148.67	6.43	122.3	168.0	(675)
12세(13차)	155.93	7.36	134.5	180.0	(678)	154.89	5.88	126.4	172.0	(662)

자료 :한국아동패널 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2] 아동의 신장

단위: cm



자료 : 한국아동패널 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아동 BMI

학년이 높아지면서, 체중도 증가하고 신장도 증가하고 있지만,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의 경우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 V-1-3〉 아동의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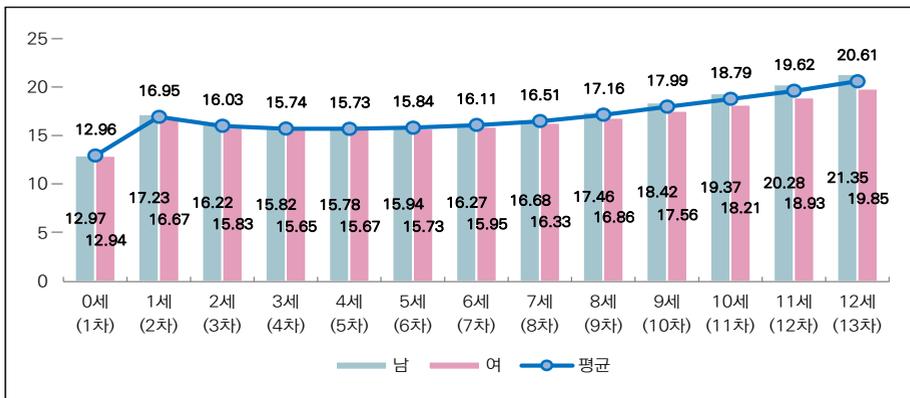
단위: kg/m(명)

구분	BMI(남)					BMI(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12.97	1.45	5.40	28.37	(908)	12.94	1.73	7.89	34.01	(907)
1세(2차)	17.23	1.90	10.85	33.33	(557)	16.67	2.02	9.50	30.56	(559)
2세(3차)	16.22	1.78	8.33	30.28	(714)	15.83	1.72	10.63	24.69	(698)
3세(4차)	15.82	1.42	10.68	22.71	(902)	15.65	1.43	10.37	22.45	(851)
4세(5차)	15.78	1.39	11.70	22.07	(870)	15.67	1.48	12.08	23.97	(833)
5세(6차)	15.94	1.64	11.34	24.35	(851)	15.73	1.69	9.26	24.65	(800)
6세(7차)	16.27	2.05	12.42	30.85	(790)	15.95	1.97	11.57	24.86	(753)
7세(8차)	16.68	2.33	12.49	28.80	(797)	16.33	2.24	11.21	27.49	(759)
8세(9차)	17.46	2.72	12.76	26.80	(769)	16.86	2.46	12.68	28.06	(726)
9세(10차)	18.42	3.19	11.81	32.07	(749)	17.56	2.80	12.25	28.70	(724)
10세(11차)	19.37	3.45	12.71	30.30	(716)	18.21	3.17	12.74	40.89	(683)
11세(12차)	20.28	3.66	12.27	30.82	(704)	18.93	3.02	13.23	32.67	(664)
12세(13차)	21.35	3.76	12.57	34.89	(668)	19.85	3.04	13.57	35.61	(650)

주: BMI는 몸무게(kg)/신장(m)2로 계산하며, 체지방축적을 나타내어 비만도 판정에 많이 사용함(정상범위 18.5-23). 단, BMI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수이므로 아동에게 적용 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3] 아동의 BMI

단위: kg/m²



자료: 한국아동패널 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1-13차년도 부모 특성 추이

1) 부모의 취/학업 상태

어머니의 취업률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아버지의 취업률은 시간에 따라 큰 변동은 없으나 약간의 감소세가 있다.

〈표 V-1-4〉 부모의 취/학업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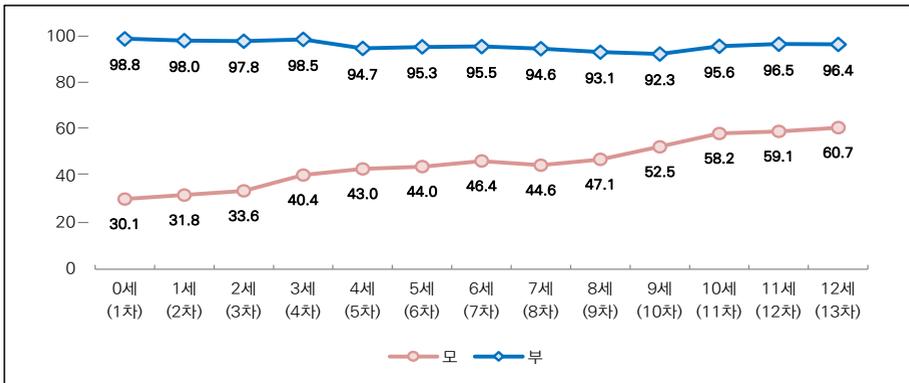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0세(1차)	30.1	69.9	100.0(2,078)	98.8	1.2	100.0(2,010)
1세(2차)	31.8	68.2	100.0(1,887)	98.0	1.7	100.0(1,892)
2세(3차)	33.6	66.4	100.0(1,801)	97.8	2.2	100.0(1,788)
3세(4차)	40.4	59.6	100.0(1,741)	98.5	1.5	100.0(1,740)
4세(5차)	43.0	57.0	100.0(1,683)	94.7	5.3	100.0(1,616)
5세(6차)	44.0	56.0	100.0(1,638)	95.3	4.7	100.0(1,540)
6세(7차)	46.4	53.6	100.0(1,587)	95.5	4.5	100.0(1,483)
7세(8차)	44.6	55.4	100.0(1,568)	94.6	5.4	100.0(1,469)
8세(9차)	47.1	52.9	100.0(1,492)	93.1	6.9	100.0(1,371)
9세(10차)	52.5	47.5	100.0(1,442)	92.3	7.7	100.0(1,304)
10세(11차)	58.2	41.8	100.0(1,391)	95.6	4.4	100.0(1,333)
11세(12차)	59.1	40.9	100.0(1,365)	96.5	3.5	100.0(1,244)
12세(13차)	60.7	39.3	100.0(1,365)	96.4	3.6	100.0(1,232)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3.
2) 11-13차: 한국아동패널 11-13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4] 부모의 취업상태

단위: %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4.
2) 11-13차: 한국아동패널 11-13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정규직 비율이 0세 이후 점차 낮아져 8세(초등 1학년 시기) 이후 62% 안팎으로 정체한 경향을 보였다.

〈표 V-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임시직	일용직		
0세(1차)	85.7	4.8	1.8	7.7	100.0(622)
1세(2차)	79.7	8.3	2.4	9.6	100.0(591)
2세(3차)	68.7	11.6	1.7	18.1	100.0(588)
3세(4차)	67.1	12.4	1.2	19.2	100.0(691)
4세(5차)	61.0	12.9	2.9	23.2	100.0(715)
5세(6차)	65.7	11.7	1.5	21.1	100.0(711)
6세(7차)	66.5	12.1	0.8	20.5	100.0(725)
7세(8차)	64.3	11.1	1.6	23.1	100.0(694)
8세(9차)	62.8	10.9	1.3	25.1	100.0(698)
9세(10차)	62.7	10.3	1.5	25.6	100.0(751)
10세(11차)	64.4	9.3	1.9	24.4	100.0(807)
11세(12차)	61.5	10.1	2.2	26.2	100.0(802)
12세(13차)	62.7	9.7	2.1	25.5	100.0(821)

주: 기타는 자영업, 가족기업 종사자수를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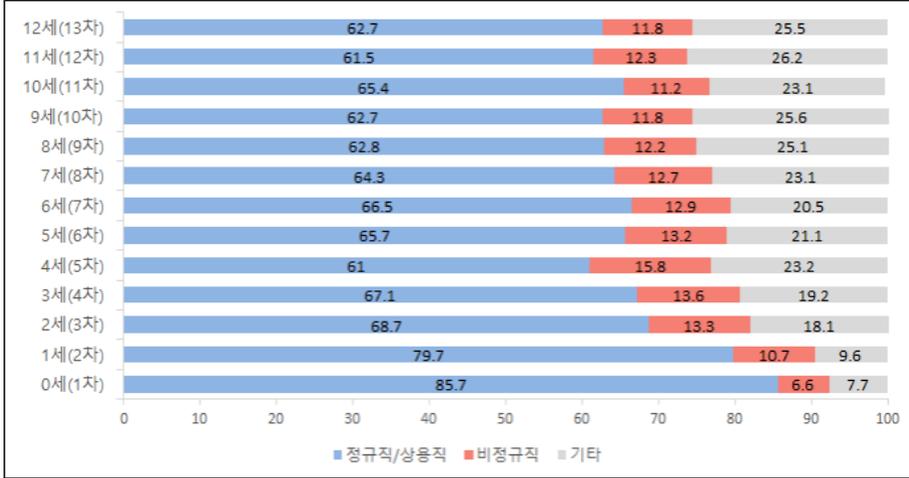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4-245.

2) 11-13차: 한국아동패널 11-13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어머니의 종사자의 지위는 정규직/상용직 비율은 60%대 초반으로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V-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주: 비정규직 수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5.
 2) 11-13차: 한국아동패널 11-13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부모의 결혼만족도

전반적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2세 3.87점에서 점차 낮아져 6세에 3.20점을 나타냈다가 점차 올라 11세에는 다시 3.79점을 나타내었다. 반면 아버지의 만족도는 1세 4.29점에서 점차 낮아져 6세 3.45점을 보였고, 점차 올라 11세에는 다시 4.11점을 나타내어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표 V-1-6>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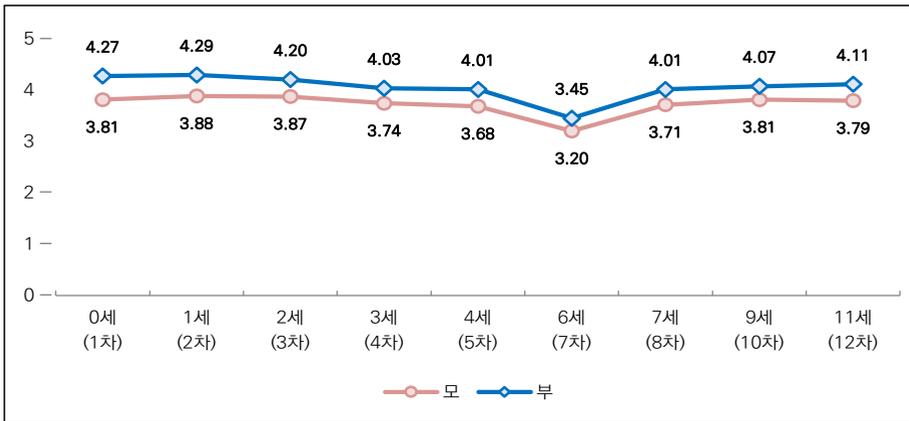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81	0.77	(1,857)	4.27	0.68	(1,648)
1세(2차)	3.88	0.79	(1,874)	4.29	0.71	(1,788)
2세(3차)	3.87	0.77	(1,756)	4.20	0.72	(1,673)
3세(4차)	3.74	0.73	(1,690)	4.03	0.65	(1,622)
4세(5차)	3.68	0.76	(1,665)	4.01	0.66	(1,611)
6세(7차)	3.20	0.67	(1,564)	3.45	0.56	(1,479)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7세(8차)	3.71	0.81	(1,547)	4.01	0.73	(1,467)
9세(10차)	3.81	0.94	(1,394)	4.07	0.85	(1,304)
11세(12차)	3.79	0.82	(1,260)	4.11	0.75	(1,182)

주: 결혼만족도는 8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8.
 2) 12차: 한국아동패널 12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6]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주: 결혼만족도는 8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8.
 2) 12차: 한국아동패널 12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4) 부모의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0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 2점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V-1-7>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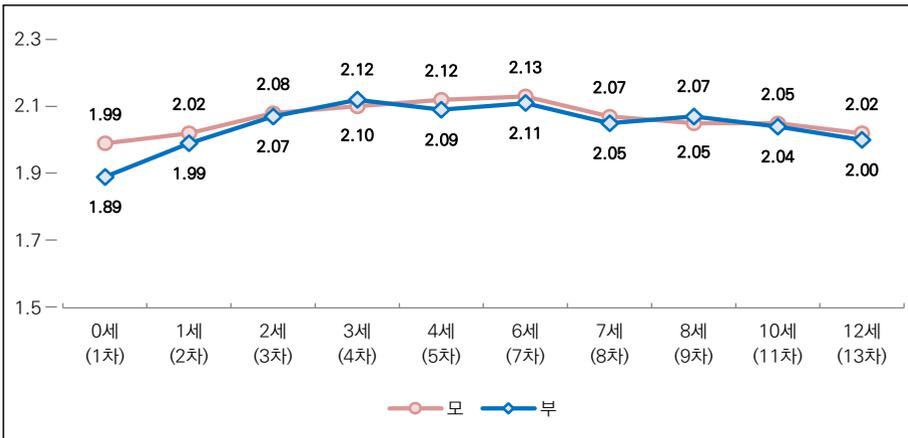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1.99	0.77	(18,58)	1.89	0.70	(1,649)
1세(2차)	2.02	0.76	(1,815)	1.99	0.70	(1,727)
2세(3차)	2.08	0.77	(1,710)	2.07	0.74	(1,620)
3세(4차)	2.10	0.76	(1,696)	2.12	0.73	(1,621)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4세(5차)	2.12	0.78	(1,664)	2.09	0.72	(1,607)
6세(7차)	2.13	0.84	(1,563)	2.11	0.77	(1,479)
7세(8차)	2.07	0.82	(1,545)	2.05	0.73	(1,467)
8세(9차)	2.05	0.82	(1,435)	2.07	0.77	(1,359)
10세(11차)	2.05	0.81	(1,401)	2.04	0.79	(1,182)
12세(13차)	2.02	0.79	(1,303)	2.00	0.75	(1,232)

주: 부부갈등은 9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1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7.
 2) 13차: 한국아동패널 13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7]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



주: 부부갈등은 9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1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47.
 2) 13차: 한국아동패널 13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5)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0세에는 네 가지 모두 4.1점 전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점점 낮아져서 6세에 3.5점 전후로 낮아진 후 다시 상승하여 초등 6학년에는 3.9점 전후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V-1-8〉 사회적 지지

단위: 점(명)

구분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세(1차)	4.18	0.78	4.08	0.84	4.10	0.80	4.12	0.81	(2,075)
1세(2차)	3.91	0.83	3.87	0.86	3.81	0.85	3.80	0.87	(1,895)
2세(3차)	3.89	0.82	3.89	0.84	3.80	0.82	3.80	0.85	(1,772)
3세(4차)	3.84	0.85	3.85	0.85	3.74	0.83	3.76	0.85	(1,703)
5세(6차)	3.70	0.94	3.73	0.88	3.80	0.86	3.86	0.81	(1,331)
6세(7차)	3.42	1.04	3.49	0.97	3.47	0.99	3.55	0.93	(1,614)
7세(8차)	3.89	0.76	3.87	0.80	3.81	0.75	3.84	0.81	(1,594)
8세(9차)	3.88	0.74	3.86	0.78	3.80	0.77	3.87	0.78	(1,619)
9세(10차)	3.95	0.76	3.95	0.79	3.91	0.76	3.93	0.79	(1,477)
10세(11차)	3.95	0.74	3.91	0.72	3.90	0.76	3.94	0.75	(1,429)
12세(13차)	3.96	0.69	3.89	0.68	3.82	0.72	3.94	0.68	(1,397)

주: 6, 7차 조사에서는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으로 부터의 지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음. 본 표에는 전체 집단의 평균을 제시함.

자료: 1) 1-10차: 도남희 외(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02.
2) 11-13차: 한국아동패널 11차, 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1-13차년도 지역사회 특성 추이

1) 육아 관련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여가시설 접근 편리성과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은 0세 이후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아동들의 성장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시설이 많아지고, 아동들의 이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V-1-9〉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점(명)

구분	여가시설 접근 편리성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25	1.08	(1,864)	2.57	1.10	(1,855)
1세(2차)	3.15	1.07	(1,895)	2.51	1.06	(1,897)
2세(3차)	3.23	1.05	(1,771)	2.53	1.04	(1,770)
3세(4차)	3.12	1.02	(1,700)	2.50	1.02	(1,701)

구분	여가시설 접근 편리성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4세(5차)	3.13	1.19	(1,673)	2.41	1.10	(1,672)
5세(6차)	3.13	1.18	(1,613)	2.43	1.09	(1,613)
6세(7차)	3.24	1.16	(1,565)	2.50	1.07	(1,565)
7세(8차)	3.18	1.18	(1,556)	2.92	1.15	(1,556)
8세(9차)	3.25	1.08	(1,525)	3.03	1.06	(1,525)
9세(10차)	3.38	1.03	(1,484)	3.16	1.05	(1,484)
10세(11차)	3.35	0.78	(1,434)	3.18	0.86	(1,434)
11세(12차)	3.40	0.75	(1,412)	3.23	0.82	(1,412)
12세(13차)	3.42	0.72	(1,397)	3.16	0.82	(1,397)

주: 1) 5차 조사부터는 각 항목을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음. 이에 따라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의 접근 편리성을, '문화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의 접근 편리성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2) 8차 조사 이후에는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실내 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문화시설'은 영화관, 관람 및 체육시설, 공연시설, 도서관의 접근 편리성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자료: 1) 1-10차: 도남희 외(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03.

2) 11-13차: 한국아동패널 1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한국아동패널 초등시기 추이분석

〈표 V-2-1〉 초등시기 추이분석 예상 변수표

구분	변수	
아동 특성	일상생활	미디어이용정도, 미디어이용시간(총합), 미디어기기 중독 생활시간 (수면시간, 학습시간, 사교시간 등) 독서량, 운동량, 취미(악기, 운동) 여부
	인지	학습수행능력, 학습스트레스
	사회 및 정서발달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삶의 만족도, 친구 수/또래애착
	미래/진로	미래직업인식/결혼관 자녀관
	부모 특성	심리특성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양육특성		부모감독, 하루 중 성인없이 있는 시간,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수
직업특성		근무시간, 일자리 만족도, 이용한 지원제도(유연근무제 등)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사교육 특성	사교육 시간, 사교육 비용/비용부담, 사교육 만족도

가. 아동특성

1) 생활시간 관련

만7세(초등 1)부터 만12세(초등 6)까지 초등시기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평일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과 책임기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학습시간은 초등 6학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일 수면시간은 초등 1학년 9.62시간에서 초등 6학년 8.77시간으로 약 50분 정도 감소하였고, 책임기 시간은 초등 1학년 0.69시간에서 초등 6학년 0.52시간으로 약 10분 정도 감소하였다. 평일의 학습시간은 초등 1학년 8.08시간에서 초등 5학년 9.18시간으로 약 1시간 6분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2020년(초등 6) 아동의 학습시간은 8.6시간으로 전년도(9.18시간)에 비해 약 3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일일 생활시간 - 평일

단위: 시간,명

구분	수면		식사, 씻기 등 기본생활		학습		책임기		TV 시청		놀이, 활동		기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1(8차)	9.62	0.63	1.32	0.50	8.08	1.32	0.69	0.49	1.01	0.79	3.02	1.22	0.26	0.54	1,598
초등2(9차)	9.46	0.64	1.29	0.48	8.45	1.27	0.69	0.46	1.06	0.79	2.81	1.18	0.25	0.51	1,525
초등3(10차)	9.28	0.66	1.45	0.65	8.74	1.33	0.63	0.43	0.96	0.71	2.07	1.19	0.87	0.69	1,484
초등4(11차)	9.13	0.67	1.43	0.64	8.90	1.37	0.60	0.46	1.02	0.72	2.10	1.20	0.82	0.70	1,434
초등5(12차)	8.94	0.67	1.32	0.59	9.18	1.35	0.54	0.43	1.04	0.70	2.22	1.18	0.76	0.62	1,412
초등6(13차)	8.77	0.79	1.47	0.68	8.60	1.55	0.52	0.48	1.23	0.81	2.52	1.40	0.89	0.82	1,397
전체	9.21	0.74	1.38	0.60	8.64	1.41	0.61	0.46	1.05	0.76	2.47	1.28	0.63	0.71	-

주: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합산하면 24시간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음으로 초등시기 아동의 주말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주말은 평일시간과는 달리 놀이·활동시간과 TV 시청 시간의 비중이 컸으나, 놀이·활동시간은 연령이 증가하며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면시간과 책임기 시간은 학년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변동이 크지 않았고, 학습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말의 놀이·활동시간은 초등 1학년 8.03시간(평일 3.02시간)

에서 초등 6학년 5.78시간(평일 2.52시간)으로 약 2시간 15분 정도 감소하였으며, TV시청 시간은 초등 1학년 2.22시간(평일 1.01시간)에서 초등 6학년 2.49시간(평일 1.23시간)으로 약 16분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초등 6학년의 주말의 수면시간은 약9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고, 책읽기 시간은 약45분 정도로 조사되었다.

〈표 V-2-3〉 일일 생활시간 -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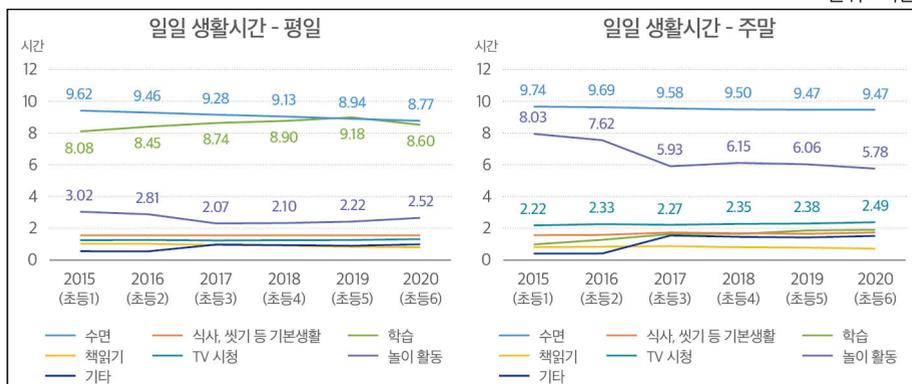
단위: 시간, 명

구분	수면		식사, 씻기 등 기본생활		학습		책읽기		TV 시청		놀이, 활동		기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1 (8차)	9.74	0.78	1.61	0.63	1.03	1.38	0.91	0.72	2.22	1.21	8.03	2.09	0.45	0.78	1,598
초등2 (9차)	9.69	0.82	1.63	0.66	1.34	1.58	0.94	0.74	2.33	1.19	7.62	2.18	0.46	0.75	1,525
초등3 (10차)	9.58	0.89	1.85	0.80	1.73	1.65	0.99	0.75	2.27	1.33	5.93	2.08	1.66	1.41	1,484
초등4 (11차)	9.50	0.89	1.78	0.76	1.74	1.55	0.90	0.77	2.35	1.30	6.15	2.09	1.57	1.30	1,434
초등5 (12차)	9.47	0.90	1.73	0.74	1.97	1.80	0.86	0.72	2.38	1.23	6.06	2.04	1.53	1.30	1,412
초등6 (13차)	9.47	0.95	1.85	0.79	2.02	1.72	0.76	0.70	2.49	1.32	5.78	2.09	1.63	1.43	1,397
전체	9.58	0.88	1.74	0.73	1.62	1.65	0.90	0.74	2.34	1.27	6.63	2.28	1.19	1.31	-

주: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합산하면 24시간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 일일 생활시간 - 평일/주말

단위: 시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러 초등 3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아동의 생활시간 중 학습시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평일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이외 사교육 및 돌봄시간은 일일 약 2시간으로 나타났고, 2020년 팬데믹 하 인터넷 등 통신교육과 숙제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초등 3학년에 5.83시간에서 초등 5학년에 6.27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초등 6학년인 2020년에는 5.17시간으로 감소하였다. 학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시간은 초등 3학년 1.84시간에서 초등 6학년에는 1.82시간으로 나타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V-2-4〉 학습시간 -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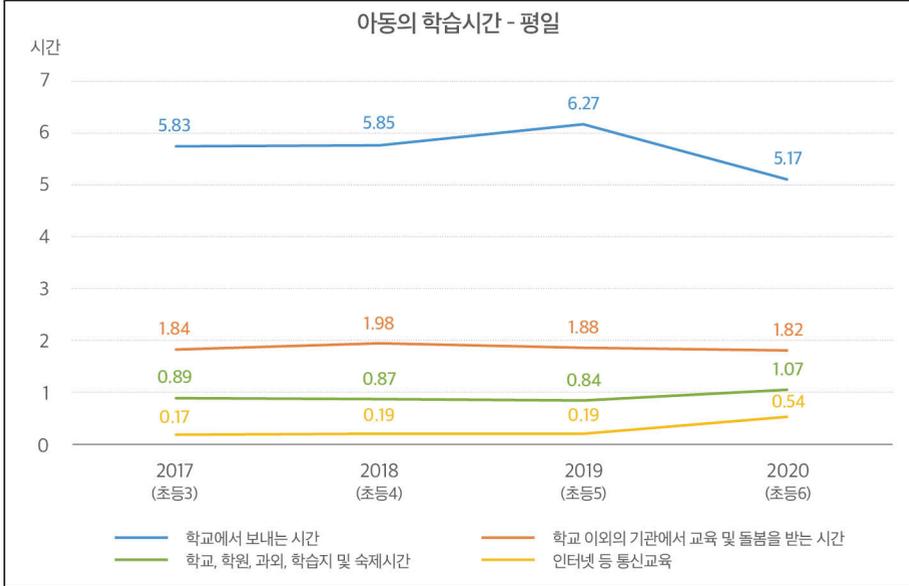
단위: 시간, 명

구분	전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시간		학교, 학원, 과외, 학습지 등 숙제시간		인터넷 등 통신교육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3(10차)	8.74	5.83	0.95	1.84	1.12	0.89	0.49	0.17	0.33	1,484
초등4(11차)	8.90	5.85	1.01	1.98	1.15	0.87	0.51	0.19	0.35	1,434
초등5(12차)	9.18	6.27	0.92	1.88	1.12	0.84	0.50	0.19	0.35	1,412
초등6(13차)	8.60	5.17	1.25	1.82	1.19	1.07	0.63	0.54	0.79	1,397
전체	8.85	5.78	1.11	1.88	1.14	0.92	0.54	0.27	0.52	-

주: 1) 8,9차는 항목이 달라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2) 학습시간은 평일 시간을 산출한 것임.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는 교내 방과후 교실을 포함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2] 학습시간 - 평일

단위: 시간



주: 1) 8.9차는 항목이 달라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2) 학습시간은 평일 시간을 산출한 것임.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는 교내 방과후 교실을 포함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음으로는 초등 3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아동의 생활시간 중 놀이·활동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놀이·활동시간은 평일은 2시간, 주말은 6시간 정도였고, 게임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레저 활동과 취미생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일 일일 게임 시간은 초등 3학년 0.47시간에서 초등 6학년 0.93시간으로 약 30분 정도 증가하여 1일 1시간 정도 게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일의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은 초등 3학년 때는 0.55시간에서 초등 6학년 때에는 0.36시간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2020년 주말의 종교활동 시간은 이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일일 게임시간은 초등 3학년 때 1.0시간에서 초등 6학년 때에는 40분 정도 증가하여 1.73시간 정도 게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은 초등 3학년 1.79시간에서 초등 6학년에는 1.14시간으로 39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놀이·활동시간 - 평일

단위: 시간, 명

구분	전체	컴퓨터, 휴대전화, 콘솔 등을 통한 게임시간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친인척, 친구와의 놀이 등 사교활동		반려동물 돌보기		종교활동		가사일동기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3 (10차)	2.07	0.47	0.54	0.23	0.42	0.55	0.62	0.46	0.60	0.07	0.22	0.05	0.23	0.24	0.30	1,484
초등4 (11차)	2.10	0.59	0.59	0.23	0.42	0.43	0.54	0.47	0.57	0.08	0.23	0.05	0.23	0.25	0.31	1,434
초등5 (12차)	2.22	0.65	0.64	0.22	0.41	0.46	0.59	0.49	0.50	0.09	0.26	0.06	0.27	0.24	0.31	1,412
초등6 (13차)	2.52	0.93	0.90	0.20	0.42	0.36	0.58	0.55	0.57	0.12	0.29	0.06	0.24	0.30	0.35	1,397
전체	2.22	0.66	0.70	0.22	0.42	0.45	0.58	0.49	0.56	0.09	0.25	0.06	0.24	0.26	0.32	-

주: 8, 9차는 항목이 달라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V-2-6〉 놀이·활동시간 -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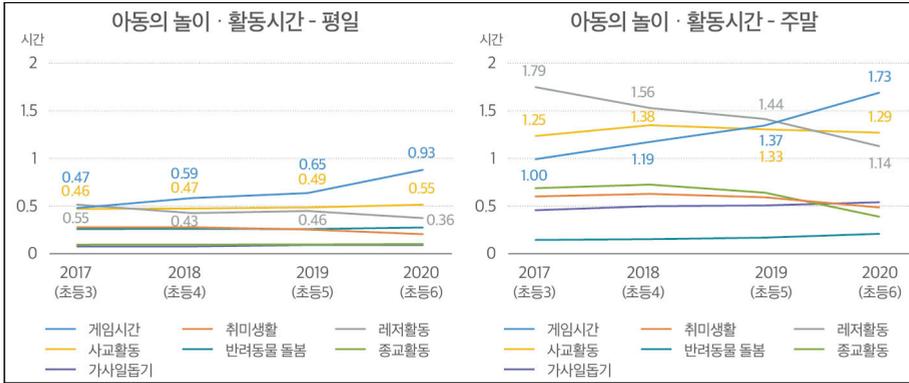
단위: 시간,명

구분	전체	컴퓨터, 휴대전화, 콘솔 등을 통한 게임시간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친인척, 친구와의 놀이 등 사교활동		반려동물 돌보기		종교활동		가사일동기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3 (10차)	5.93	1.00	0.91	0.61	0.93	1.79	1.51	1.25	1.37	0.13	0.40	0.70	1.32	0.45	0.46	1,484
초등4 (11차)	6.15	1.19	1.06	0.64	0.93	1.56	1.40	1.38	1.39	0.14	0.39	0.74	1.33	0.50	0.50	1,434
초등5 (12차)	6.06	1.37	1.06	0.60	0.88	1.44	1.32	1.33	1.25	0.16	0.44	0.65	1.26	0.51	0.46	1,412
초등6 (13차)	5.78	1.73	1.38	0.48	0.77	1.14	1.20	1.29	1.23	0.21	0.52	0.38	0.86	0.55	0.50	1,397
전체	5.98	1.32	1.14	0.58	0.88	1.49	1.38	1.31	1.31	0.16	0.44	0.62	1.22	0.50	0.48	-

주: 8, 9차는 항목이 달라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3] 놀이·활동시간 - 평일/주말

단위: 시간



주: 8, 9차는 항목이 달라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미디어 이용 관련 (미디어 이용 정도, 이용시간 기기 중독)

아래서는 아동의 초등시기 미디어 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초등 2학년 부터 초등 6학년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시기동안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일 평균 미디어 사용시간은 초등 2학년 0.85시간, 초등 3학년 1.19시간, 초등 4학년 1.51시간, 초등 5학년 1.8시간, 초등 6학년 2.8시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0년에는 미디어기기 사용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게임, 유튜브, SNS 등의 노출 증가와 함께, 휴교, 원격수업 등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부적으로 미디어 기기의 활동별 이용을 분석해보면 초등 5,6학년시기에 엔터테인먼트(동영상, 웹툰 감상 등) 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게임, SNS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SNS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엔터테인먼트와 정보검색도 증가하였다. 학습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 사용은 초등 2학년 부터 초등 5학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초등 6학년인 2020년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표 V-2-7〉 미디어 이용시간 - 전체

단위: 시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2(9차)	0.85	0.72	1,525
초등3(10차)	1.19	0.82	1,484
초등4(11차)	1.51	0.97	1,409
초등5(12차)	1.80	1.03	1,391
초등6(13차)	2.80	1.55	1,377
전체	1.61	1.24	7,186

자료: 한국아동패널 9-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V-2-8〉 미디어 이용정도 -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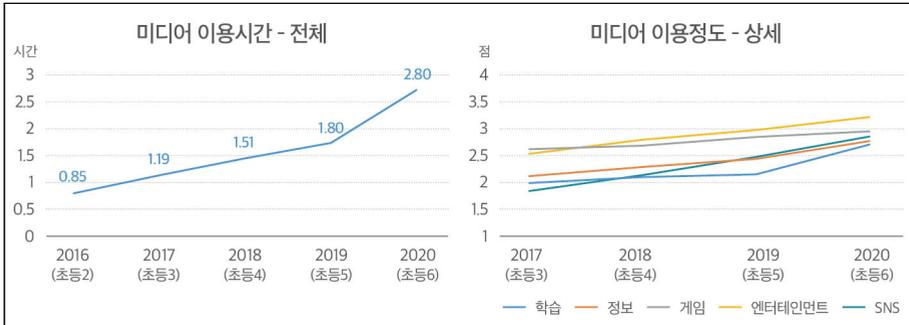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3(10차)	2.01	1.00	1,350	2.13	0.83	1,356	2.60	1.01	1,353	2.52	1.02	1,348	1.87	1.00	1,348
초등4(11차)	2.12	1.03	1,376	2.30	0.80	1,382	2.67	1.02	1,378	2.78	1.01	1,378	2.16	1.08	1,376
초등5(12차)	2.17	1.03	1,374	2.45	0.78	1,377	2.84	1.01	1,373	2.96	0.97	1,369	2.49	1.13	1,364
초등6(13차)	2.72	1.04	1,382	2.78	0.85	1,381	2.95	1.05	1,383	3.20	0.90	1,376	2.86	1.08	1,376
전체	2.26	1.06	5,482	2.42	0.85	5,496	2.76	1.03	5,487	2.87	1.01	5,471	2.35	1.14	5,464

주: 1점: 전혀 사용안함, 2점: 가끔 사용함, 3점: 자주 사용함, 4점: 매일 사용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4〉 미디어 이용시간(전체) 및 이용정도(상세)

단위: 시간, 점



주: 미디어 이용정도는 4점 만점 척도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9-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패널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미디어 중독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잠재적위험 사용자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고위험 사용자군은 초등 3학년때 18.5%에서 초등 6학년때 38.2%로 19.7%p 증가하였으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도 초등 3학년때 6.0%에서 초등 6학년때 9.9%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2-9〉 아동의 인터넷 중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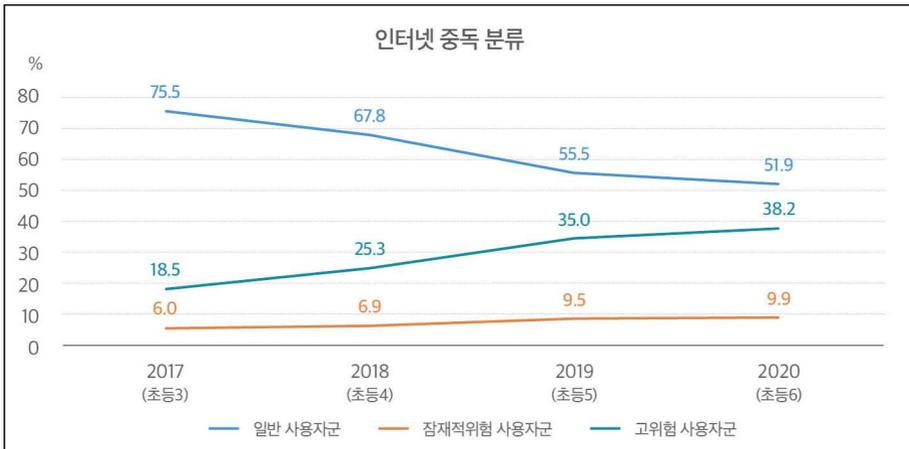
구분	일반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전체
초등3(10차)	75.5	6.0	18.5	100.0 (1,389)
초등4(11차)	67.8	6.9	25.3	100.0 (1,401)
초등5(12차)	55.5	9.5	35.0	100.0 (1,308)
초등6(13차)	51.9	9.9	38.2	100.0 (1,393)
전체	62.8	8.0	29.2	100.0 (5,491)

주: 1) 일반 사용자군: 총점과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총점 27점 이하, 1요인 12점 이하, 3요인 10점 이하, 4요인 9점 이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과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총점 28-29점, 1요인 13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4요인 10점 이상),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기준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총점 30점 이상,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1점 이상)
2) 보호자 응답값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5〕 인터넷 중독 분류

단위: %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취미생활(독서, 악기, 운동 취미) 및 운동여부

아동의 초등시기 주평균 독서량과 운동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과 실내외의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평균 독서량은 초등 2학년때 주 8.64권에서 초등 6학년때는 주 2.81권으로 나타나 일평균 1권 이상에서, 2~3일에 1권 수준으로 독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주일 중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을 조사한 결과, 초등 4학년 시기에는 실내외운동을 주 2~3일 하던 것에서 만 12세인 초등 6학년 시기에는 주1~2일 하는 것으로 운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2-10〉 주평균 독서량 및 운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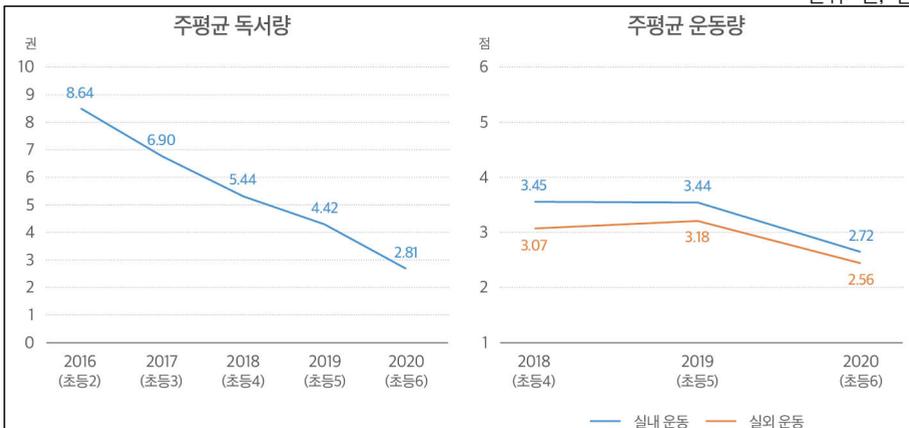
단위: 권, 점(명)

구분	독서량			운동량				
				실내 운동		실외 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2(9차)	8.64	9.59	(1525)	-	-	-	-	-
초등3(10차)	6.90	8.59	(1471)	-	-	-	-	-
초등4(11차)	5.44	7.40	(1418)	3.45	1.99	3.07	1.73	(1434)
초등5(12차)	4.42	6.54	(1398)	3.44	1.85	3.18	1.67	(1412)
초등6(13차)	2.81	5.92	(1359)	2.72	1.88	2.56	1.66	(1397)
전체	5.72	8.03	(7171)	3.21	1.94	2.94	1.71	(4243)

주: 운동량은 지난 7일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한 날을 기준을 함
 (1점: 없음, 2점: 1일, 3점: 2일, 4점: 3일, 5점: 4일, 6점: 5일 이상을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9-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6] 주평균 독서량 및 운동량

단위: 권, 점



주: 운동량은 지난 7일간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한 날을 기준을 함
 (1점: 없음, 2점: 1일, 3점: 2일, 4점: 3일, 5점: 4일, 6점: 5일 이상을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9-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러 아동이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와 즐겨하는 운동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와 즐겨하는 운동이 없다고 응답하는 아동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가 있다는 응답 비중은 초등 4학년 63.7%에서 초등 6학년에는 47.0%로 16.7%p 감소하였다. 즐겨하는 운동이 있다는 응답 비중도 초등 4학년 74.7%에서 초등 6학년에는 60.8%로 13.9%p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즐겨하는 운동이 있다고 응답하는 아동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표 V-2-11〉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 및 즐겨하는 운동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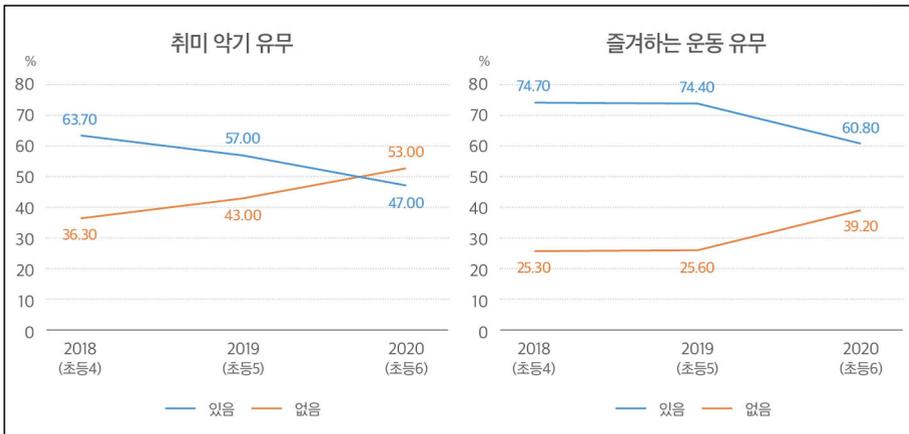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		즐거하는 운동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초등4(11차)	63.7	36.3	74.7	25.3	100.0 (1,434)
초등5(12차)	57.0	43.0	74.4	25.6	100.0 (1,412)
초등6(13차)	47.0	53.0	60.8	39.2	100.0 (1,397)
전체	56.0	44.0	70.0	30.0	100.0 (4,243)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기〉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 및 즐겨하는 운동 유무

단위: %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4)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관련

초등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행복감과 만족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초등 2학년때 3.46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초등 6학년인 2020년 3.32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 6학년인 2020년에 부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도 최근 3년간 전년대비 5~6%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2-12〉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1(8차)	-	-	3.25	0.48	-	-	1,560
초등2(9차)	3.46	0.44	3.33	0.44	-	-	1,496
초등3(10차)	3.47	0.44	3.32	0.45	-	-	1,480
초등4(11차)	3.49	0.46	3.31	0.46	3.52	0.49	1,428
초등5(12차)	-	-	3.25	0.44	3.33	0.52	1,398
초등6(13차)	3.32	0.56	2.96	0.48	3.13	0.54	1,359
전체 평균	3.44	0.48	3.24	0.48	3.33	0.54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자아존중감: 4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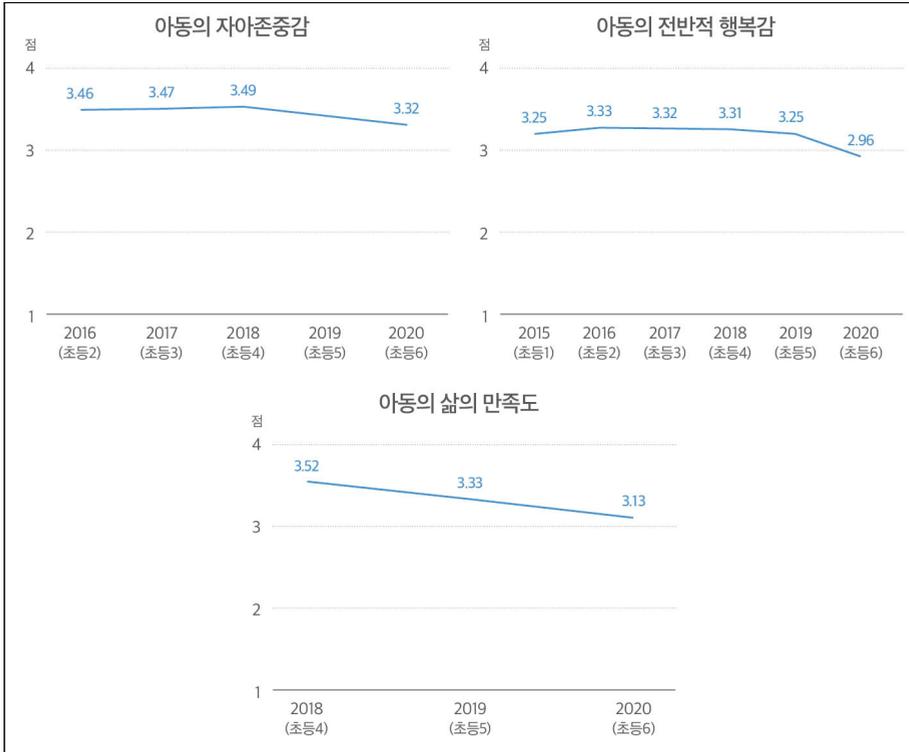
3)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 전혀 행복하지 않다~4. 매우 행복하다).

4) 삶의 만족도 :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8]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5) 또래 애착 및 친구 수

초등시기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와 또래 애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즉, 초등 1학년때 평균 10.3명에서 초등 5학년때 18.13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초등 6학년인 2020년에는 14.58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아동의 또래 애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과 신뢰는 초등 3학년때 각각 3.09점, 3.2점이었던 것이 초등 6학년에도 각각 3.09점, 3.16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소외 영역의 점수는 초등 3학년 때 2.04점이었던 것이 초등 6학년때 1.91점으로 다소 낮아졌다.

〈표 V-2-13〉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 및 또래 애착

단위: 명, 점

구분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		수	또래 애착						수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신뢰		소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1(8차)	10.30	9.11	1,559	-	-	-	-	-	-	-
초등2(9차)	11.00	10.31	1,496	-	-	-	-	-	-	-
초등3(10차)	15.38	15.58	1,480	3.09	0.58	3.20	0.61	2.04	0.66	1,480
초등4(11차)	17.73	17.25	1,428	3.11	0.56	3.22	0.61	1.90	0.59	1,428
초등5(12차)	18.13	17.48	1,398							
초등6(13차)	14.58	16.18	1,359	3.09	0.52	3.16	0.58	1.91	0.62	1,359
전체	14.42	14.90	8,720	3.10	0.56	3.19	0.60	1.95	0.63	-

주: 또래애착은 10, 11, 13차년도에 조사됨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9〉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 및 또래 애착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부모 특성

1) 심리적 특성

가) 주관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7점 만점에 5점 전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삶의 만족도 역시 어머니, 아버지 모두 5점 만점에 3.5점 정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연도에 따른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4〉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모			부			모			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1(8차)	5.23	1.05	(1,556)	5.26	1.00	(1,469)	3.51	0.74	(1,556)	3.57	0.72	(1,469)
초등2(9차)	5.17	1.03	(1,464)	5.22	1.01	(1,369)	3.40	0.78	(1,464)	3.43	0.77	(1,369)
초등3(10차)	5.22	1.02	(1,392)	5.20	0.97	(1,299)	3.54	0.78	(1,394)	3.47	0.77	(1,299)
초등4(11차)	5.17	1.01	(1,404)	5.28	0.77	(1,182)	3.46	0.76	(1,401)	3.47	0.81	(1,182)
초등5(12차)	5.19	1.00	(1,308)	5.30	0.95	(1,244)	3.53	0.73	(1,308)	3.54	0.74	(1,244)
초등6(13차)	5.17	0.96	(1,664)	5.24	0.97	(1,232)	3.45	0.73	(1,303)	3.50	0.77	(1,232)

주: 1) 주관적 행복감은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
 2)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경우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2.9점 전후로 꾸준히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 초등 1-3학년은 3점 정도였으나, 이후 약간 줄어들어 초등 6학년에서는 2.9점을 나타내었다.

〈표 V-2-15〉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1(8차)	2.95	0.62	(1,556)	3.03	0.63	(1,469)
초등2(9차)	2.98	0.65	(1,464)	3.06	0.66	(1,369)
초등3(10차)	2.94	0.68	(1,394)	3.03	0.65	(1,299)
초등4(11차)	2.94	0.64	(1,401)	2.97	0.66	(1,182)
초등5(12차)	2.91	0.65	(1,308)	2.92	0.65	(1,244)
초등6(13차)	2.91	0.61	(1,303)	2.90	0.68	(1,232)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정서적 특성

가)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은 초등 1학년에서는 둘 다 측정하였으나, 초등 2학년부터는 격년으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5점 만점에

3점 정도로 꾸준히 중간 정도로 나타났고, 우울감은 어머니의 경우 1.84~1.95점, 아버지의 경우 1.9점 전후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V-2-16〉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

단위: 점(명)

구분	자아존중감						우울감					
	모			부			모			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초등1(8차)	3.02	0.28	(1,556)	3.05	0.30	(1,469)	1.84	0.73	(1,556)	1.90	0.69	(1,469)
초등2(9차)	3.01	0.26	(1,456)	3.02	0.25	(1,365)	-	-	-	-	-	-
초등3(10차)	-	-	-	-	-	-	1.95	0.77	(1,388)	1.99	0.75	(1,298)
초등4(11차)	3.01	0.26	(1,401)	3.02	0.25	(1,182)	-	-	-	-	-	-
초등5(12차)	-	-	-	-	-	-	1.86	0.73	(1,308)	1.90	0.72	(1,244)
초등6(13차)	2.97	0.25	(1,303)	3.01	0.25	(1,232)	-	-	-	-	-	-

주: 1)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2) 우울감은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가) 주관적 건강상태

부모가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도 어머니, 아버지 모두 3.4점 전후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표 V-2-17〉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점(명)

구분	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부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1(8차)	3.37	0.78	(1,556)	3.41	0.74	(1,556)
초등2(9차)	3.34	0.78	(1,463)	3.34	0.77	(1,367)
초등3(10차)	3.43	0.78	(1,394)	3.39	0.74	(1,298)
초등4(11차)	3.36	0.74	(1,401)	3.39	0.73	(1,182)
초등5(12차)	3.35	0.73	(1,308)	3.41	0.72	(1,244)
초등6(13차)	3.31	0.74	(1,303)	3.34	0.70	(1,232)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4) 양육특성

가) 부모감독 관련

부모감독은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등을 알고 있다’는 질문을 포함하여, 부모가 자녀의 거취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초등 1학년부터 살펴본 결과 초등 1학년의 4.86점에서 점차 감소하여 초등 6학년 때는 4.62점을 나타냈다.

부모의 학업관심도는 초등 1학년에서 초등 4학년까지만 측정하였는데, 초등 1학년에서 초등 4학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인 없이 있는 시간에 대하여, 초등 1학년은 1.65점으로 없음(1)과 1시간 미만(2)의 사이로 나타났으며, 점점 그 시간이 증가하여, 초등 5학년(2019년)에는 2.6점으로 1시간 미만(2)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3)사이였으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20년 조사된 초등 6학년 때는 3.2점으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3)과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4)사이로, 2시간 이상 혼자 있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초등 1학년에서 초등 5학년까지의 증가추세에 비해 초등 6학년에 급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아동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는 초등 1학년 이후 점차 늘어가다가 초등 6학년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한 친구교류의 기회가 줄어든 것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

〈표 V-2-18〉 부모감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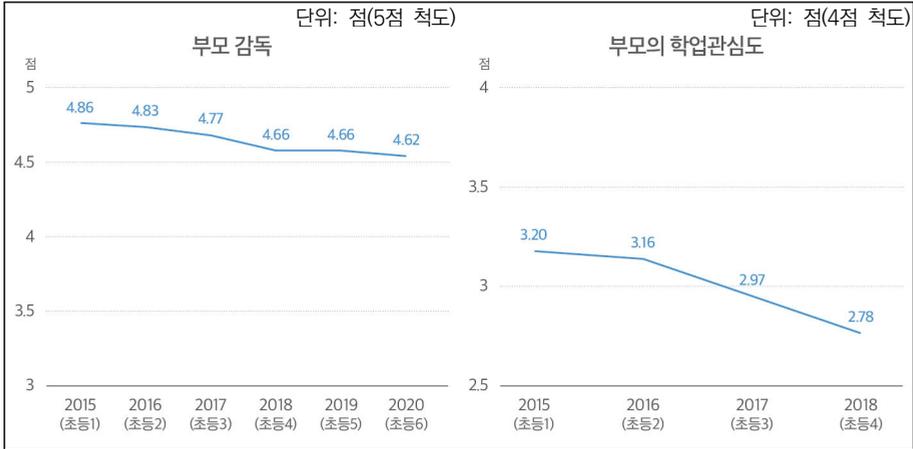
단위: 점, 명(명)

구분	부모감독			부모의 학업관심도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초등1(8차)	4.86	0.32	(1,413)	3.20	0.92	(1,545)	1.65	0.92	(1,598)	7.90	6.24	(1,598)
초등2(9차)	4.83	0.36	(1,439)	3.16	0.84	(1,496)	1.91	1.14	(1,525)	8.35	6.94	(1,525)
초등3(10차)	4.77	0.62	(1,484)	2.97	0.83	(1,480)	2.22	1.21	(1,484)	8.68	8.31	(1,484)
초등4(11차)	4.66	0.45	(1,434)	2.78	0.77	(1,427)	2.51	1.28	(1,434)	8.78	8.39	(1,434)
초등5(12차)	4.66	0.55	(1,412)	-	-	-	2.60	1.31	(1,412)	8.30	7.58	(1,412)
초등6(13차)	4.62	0.51	(1,397)	-	-	-	3.20	1.69	(1,397)	7.19	6.71	(1,397)

- 주: 1) 부모감독: 5점 척도
 2) 부모의 학업관심도: 4점 척도
 3) 성인없이 있는 시간: 절대 시간이 아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으로 측정된 구간척도의 점수임.
 4)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친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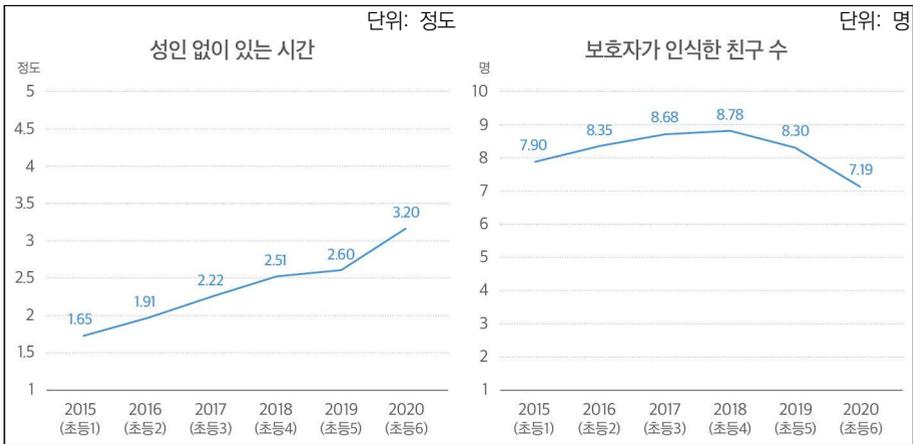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0] 부모감독 및 부모 학업관심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1]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및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5) 직업특성

가) 취업모의 일자리 만족도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 추이를 보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나,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만족도는 아동이 초등 1학년인 2015년 3.64점에서 2020년(초등 6) 3.84점으로 전반적으로 높고, 매년 증가하다 2019년(초등 5)부터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초등 1) 이후 소득분위에 따른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구의 어머니 일자리 만족도의 변동 폭은 크지 않으나, 소득이 낮은 가구의 어머니 일자리 만족도 증가가 다소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2-19〉 모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모의 일자리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1(8차)	3.64	0.86	(694)
초등2(9차)	3.76	0.72	(698)
초등3(10차)	3.80	0.69	(751)
초등4(11차)	3.87	0.63	(807)
초등5(12차)	3.85	0.60	(802)
초등6(13차)	3.84	0.61	(822)

주: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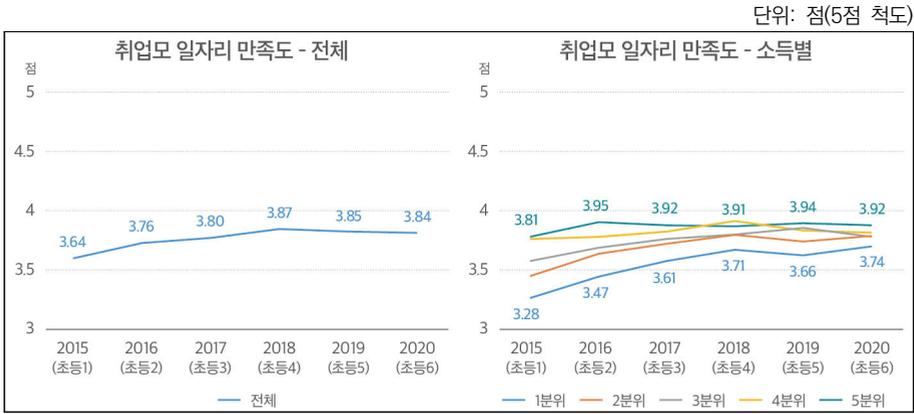
〈표 V-2-20〉 소득별 취업모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수)
초등1(8차)	3.64	3.28	3.47	3.60	3.79	3.81	(694)
초등2(9차)	3.76	3.47	3.67	3.72	3.81	3.95	(698)
초등3(10차)	3.80	3.61	3.76	3.80	3.86	3.92	(751)
초등4(11차)	3.87	3.71	3.84	3.84	3.96	3.91	(807)
초등5(12차)	3.85	3.66	3.78	3.90	3.87	3.94	(802)
초등6(13차)	3.84	3.74	3.83	3.82	3.85	3.92	(822)

주: 5점 척도임(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5. 매우 만족).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2] 취업모 일자리 만족도-전체/소득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취업 중인 어머니는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등 갈등은 다소 낮고,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감소 폭도 일-가정 양립 이점에 비해 컸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점도 자녀가 커가면서 증가하다 2019년 (초등 5) 이후 약간 감소로 전환되었고, 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느끼는 갈등도 일-가정 양립 갈등과 마찬가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V-2-21] 모 일-가정 양립,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단위: 점(명)

구분	모 일-가정 양립		모 일-양육 양립		(수)
	이점	갈등	이점	갈등	
초등1(8차)	3.71	2.73	3.48	2.82	(694)
초등2(9차)	3.72	2.61	3.49	2.71	(698)
초등3(10차)	3.77	2.44	3.59	2.60	(751)
초등4(11차)	3.79	2.36	3.65	2.52	(807)
초등5(12차)	3.81	2.28	3.62	2.41	(802)
초등6(13차)	3.80	2.24	3.62	2.40	(822)

주: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3]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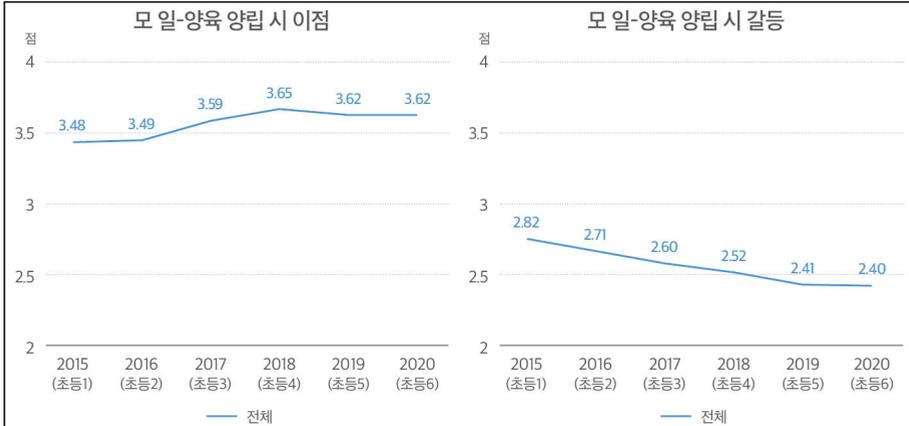
단위: 점(5점 척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4]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

단위: 점(5점 척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측면에서 직장내 육아지원제도 이용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초등저학년 이후 감소하다 유연 근무제 등의 확대 등과 함께 2019년(초등 5)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내 육아지원제도별 이용률 추이를 보면 육아휴직 등 자녀 출산양육과 관련이 높은 육아지원제도 이용은 줄어드는 반면, 유연근무제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2017년(초등 3) 0.3%에서 2020년(초등 6) 8.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2〉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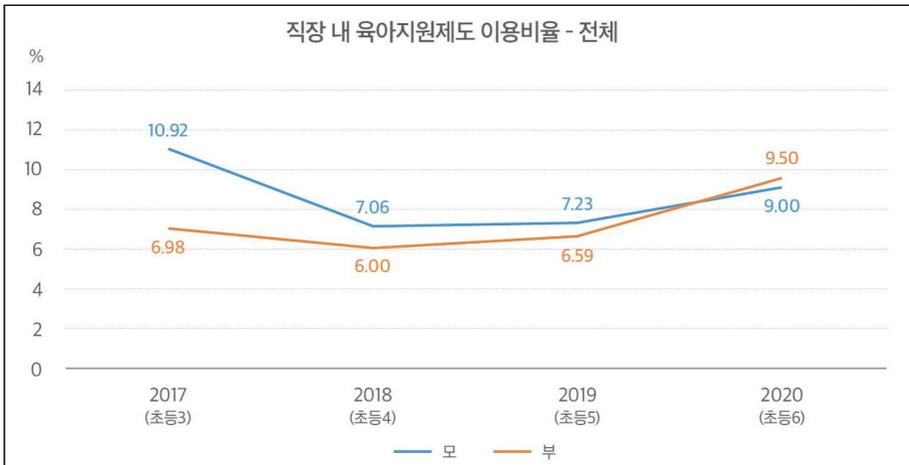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모							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유연 근무 제	육아 기근 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전체	이용 안함	계(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유연 근무 제	육아 기근 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전체	이용 안함	계(수)
초등3 (10차)	3.60	7.32	4.26	1.73	2.00	10.92	89.08	100.0 (751)	0.77	0.92	0.31	0.23	5.21	6.98	93.02	100.0 (1,304)
초등4 (11차)	1.61	3.84	2.60	1.12	0.25	7.06	92.94	100.0 (807)	0.30	0.45	1.05	0.08	4.50	6.00	94.00	100.0 (1,333)
초등5 (12차)	2.12	3.49	3.49	0.50	0.50	7.23	92.77	100.0 (802)	0.24	0.88	5.06	0.16	0.80	6.59	93.41	100.0 (1,244)
초등6 (13차)	0.85	1.58	5.84	0.49	1.22	9.00	91.00	100.0 (822)	0.16	0.16	8.60	0.00	0.9	9.50	90.50	100.0 (1,232)

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제도 중 1개 이상 이용한 비율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5〕 직장내 육아지원제도 이용비율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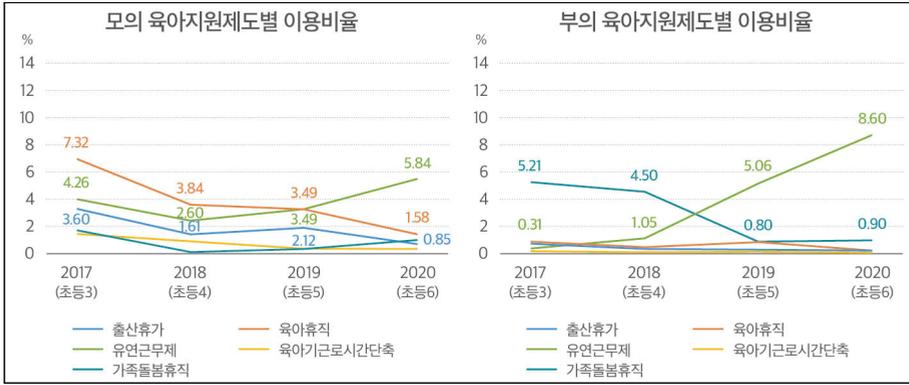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6] 모·부 육아지원제도 이용비율 - 제도별

단위: %



자료: 한국아동패널 10-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교육 및 학업 관련 특성

1) 학업수행능력 및 학업스트레스

가) 학업수행 능력

초등학교 담임이 평가한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은 초등학교 전 학년 동안 평균 5점 중 4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목별로는 수학과 과학의 학업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어와 예체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하위 20% 가구)의 아동이 전반적으로 학업수행능력이 낮고, 초등 4학년 이후 학업수행능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3〉 과목별 학업수행능력 추이

단위: 점(명)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_현상	사회_역사	예체능	전체평균	(수)
초등1(8차)	4.15	-	4.31	-	-	-	-	4.17	(1,031)
초등2(9차)	4.13	-	4.27	-	-	-	3.96	4.10	(930)
초등3(10차)	4.31	4.16	4.39	4.30	4.26	-	4.18	4.29	(633)
초등4(11차)	4.20	4.06	4.37	4.24	4.22	-	4.06	4.20	(709)
초등5(12차)	4.18	4.07	4.43	4.22	4.20	-	4.01	4.18	(590)
초등6(13차)	4.20	4.07	4.29	4.20	4.22	4.19	4.07	4.23	(593)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V-2-24〉 소득 특성별 학업수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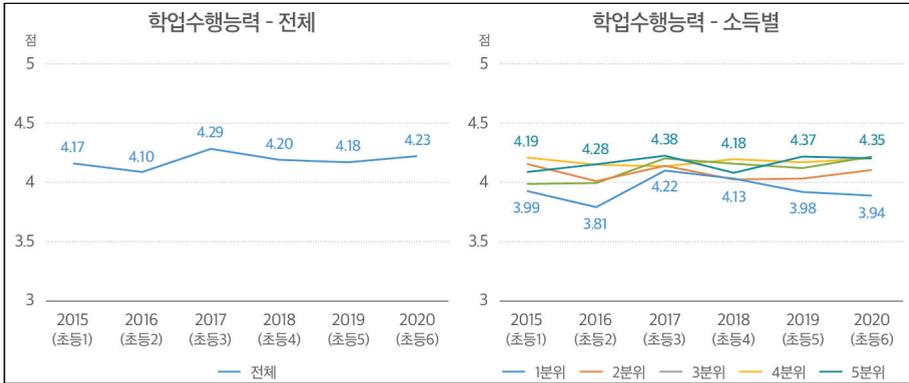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소득					(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초등1(8차)	4.17	3.99	4.29	4.06	4.36	4.19	(1,031)
초등2(9차)	4.10	3.81	4.09	4.07	4.27	4.28	(930)
초등3(10차)	4.29	4.22	4.27	4.35	4.25	4.38	(633)
초등4(11차)	4.20	4.13	4.11	4.29	4.34	4.18	(709)
초등5(12차)	4.18	3.98	4.12	4.24	4.30	4.37	(590)
초등6(13차)	4.23	3.94	4.22	4.37	4.35	4.35	(593)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7〕 소득별 학업수행능력 - 전체/소득별

단위: 점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학업스트레스(2018-2020)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학교성적, 숙제/시험, 공부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학업 스트레스 중 학교성적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고, 숙제/시험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비슷한 수준에서 3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 성별로는 초등 4학년 시기를 제외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남녀 모두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읍면지역 아동보다 비교적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가구소득

별로는 뚜렷한 추이 경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표 V-2-25〉 학업 스트레스 추이

단위: 점(명)

구분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전체	(수)
초등4(11차)	1.79	2.19	2.15	2.04	(1,428)
초등5(12차)	1.79	2.32	2.28	2.13	(1,398)
초등6(13차)	1.91	2.49	2.45	2.28	(1,35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그런적 없다~5. 항상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V-2-26〉 소득별 학업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아동성별		지역규모			소득					(수)
		남학생	여학생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초등4(11차)	2.04	2.08	2.01	2.08	2.02	1.99	2.16	2.05	1.99	1.98	2.03	(1,428)
초등5(12차)	2.13	2.09	2.17	2.15	2.20	2.11	2.12	2.13	2.20	2.06	2.14	(1,398)
초등6(13차)	2.28	2.24	2.32	2.31	2.26	2.26	2.30	2.30	2.30	2.28	2.23	(1,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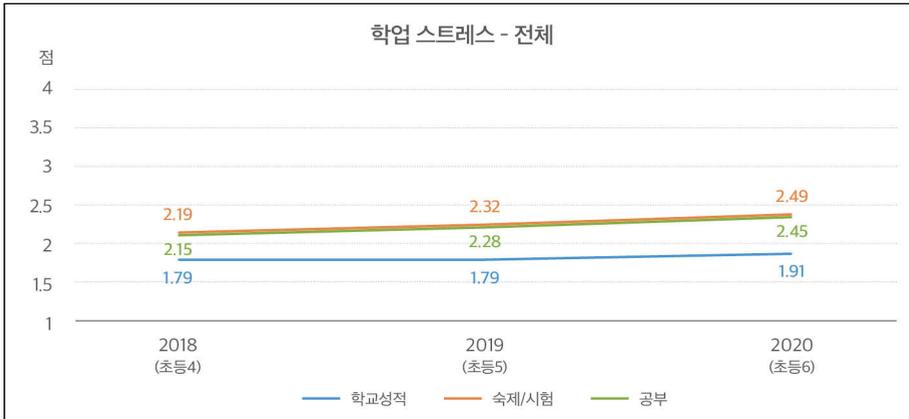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그런적 없다~5. 항상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8] 학업 스트레스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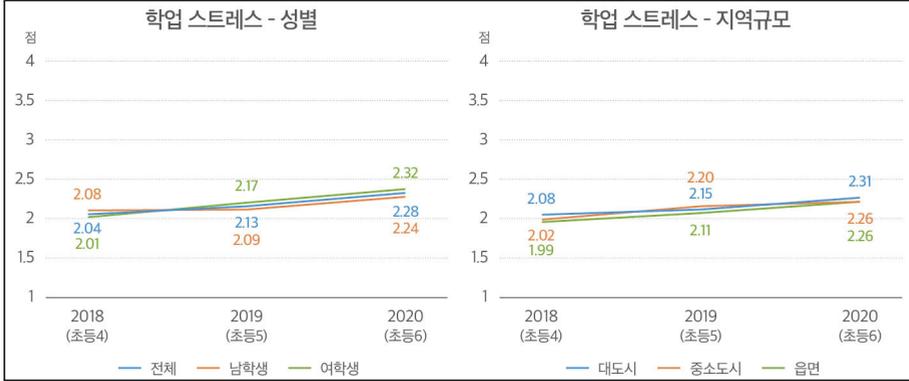
단위: 점(5점 척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19] 아동성별 및 지역규모 별 학업 스트레스

단위: 점(5점 척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학교수업 이외 교육여부 및 사교육 특성

가) 학교수업 이외 교육여부 및 사교육 이용 여부

초등학년기 패널아동의 사교육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패널아동은 초등 6년 동안 90% 이상이 학교수업 이외 교육과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내 방과후교실을 포함하여 학교수업 이외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초등 1학년 시기 96.06%에서 초등 5학년 시기 96.3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초등 6학년 시기에 91.27%로 비교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 이외 교육에서 교내 방과후교실을 제외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초등 1학년 시기 90.11%에서 초등 4학년 시기에는 94.14%로 증가하였고, 이후 초등 5학년부터 감소하여 2020년 89.7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V-2-27] 학교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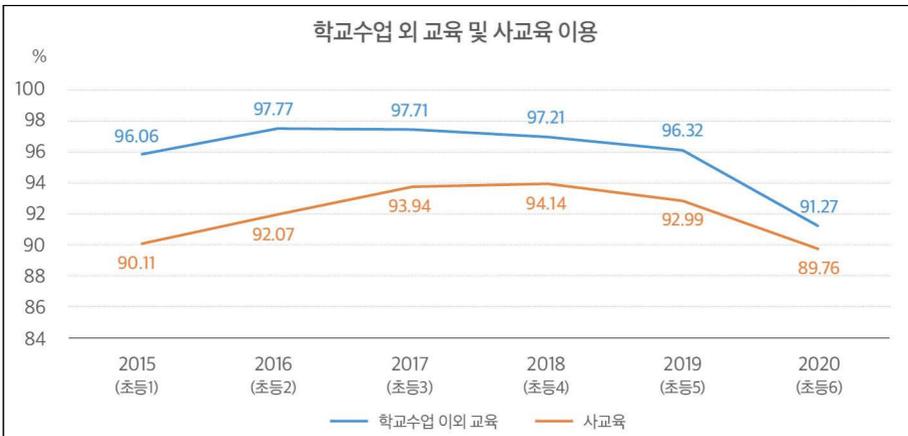
구분	학교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계(수)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초등1(8차)	3.94	96.06	9.89	90.11	100.0 (1,598)
초등2(9차)	2.23	97.77	7.93	92.07	100.0 (1,525)
초등3(10차)	2.29	97.71	6.06	93.94	100.0 (1,484)

구분	학교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계(수)
	이용안함	이용함	이용안함	이용함	
초등4(11차)	2.79	97.21	5.86	94.14	100.0 (1,434)
초등5(12차)	3.68	96.32	7.01	92.99	100.0 (1,412)
초등6(13차)	8.73	91.27	10.24	89.76	100.0 (1,397)

주: 1)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화 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2) 사교육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에서 방과 후 교실만 제외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20] 학교수업 외 교육 및 사교육 이용 여부

단위: %



주: '사교육'은 '학교수업 이외 교육'에서 '방과후 교실'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시간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전체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사교육 이용시간은 2019년(초등 5)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초등 6) 약간 감소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별 이용시간을 보면 학원 이용시간은 초등 1학년 때 5.41시간에서 초등 6학년 6.59시간으로 약 1시간 10분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교실 이용시간은 초등 1학년 때 1.77시간에서 초등 6학년 0.32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시간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28〉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전체아동)

단위: 시간,명

구분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1 (8차)	8.62	4.98	5.41	4.46	0.48	1.52	0.54	0.91	0.03	0.33	1.77	2.63	0.24	1.26	0.14	0.95	1,598
초등2 (9차)	10.81	5.93	6.45	5.04	0.77	2.10	0.56	1.27	0.11	0.66	2.40	2.97	0.24	1.04	0.28	1.76	1,525
초등3 (10차)	10.39	6.00	6.44	5.17	0.87	2.20	0.59	1.68	0.30	1.20	1.65	2.60	0.29	1.33	0.25	1.47	1,484
초등4 (11차)	10.53	5.87	6.80	5.37	0.80	2.11	0.48	1.17	0.29	1.09	1.62	2.67	0.25	1.12	0.29	1.61	1,434
초등5 (12차)	10.23	6.12	6.81	5.42	0.94	2.37	0.41	1.26	0.36	1.35	1.22	2.26	0.28	1.37	0.22	1.56	1,412
초등6 (13차)	9.00	5.98	6.59	5.62	0.90	2.30	0.30	0.86	0.56	1.96	0.32	1.49	0.19	1.23	0.15	1.22	1,397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아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아동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아동과 기준에 비해 실제 이용아동들은 매 학년 학원이용시간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이용시간이 높은 것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이용시간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도 전체아동의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전년 대비 약간 줄어들었지만,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아동의 학원, 과외, 공공기관 등, 방과후 교실 등에 대한 이용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V-2-29〉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이용아동)

단위: 시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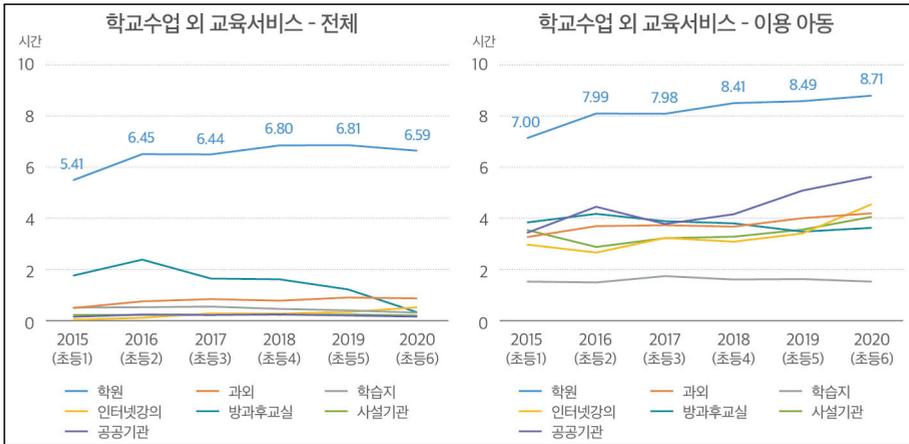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1 (8차)	8.98 (4.75)	1,533	7.00 (3.83)	1,236	3.12 (2.63)	245	1.38 (0.98)	630	2.83 (1.42)	18	3.72 (2.71)	761	3.42 (3.51)	110	3.29 (3.22)	70

구분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초등2 (9차)	11.06 (5.77)	1,491	7.99 (4.38)	1,231	3.57 (3.25)	327	1.34 (1.68)	642	2.51 (2.00)	67	4.08 (2.85)	898	2.73 (2.32)	135	4.33 (5.50)	99
초등3 (10차)	10.63 (5.85)	1,450	7.98 (4.56)	1,198	3.61 (3.21)	357	1.64 (2.47)	537	3.10 (2.50)	142	3.77 (2.74)	650	3.09 (3.18)	140	3.64 (4.41)	101
초등4 (11차)	10.84 (5.67)	1,394	8.41 (4.70)	1,159	3.55 (3.15)	325	1.48 (1.66)	463	2.95 (2.06)	140	3.68 (2.93)	632	3.15 (2.52)	116	4.03 (4.66)	102
초등5 (12차)	10.62 (5.89)	1,360	8.49 (4.73)	1,133	3.90 (3.42)	340	1.50 (2.07)	382	3.28 (2.71)	153	3.33 (2.64)	516	3.44 (3.48)	115	4.98 (5.60)	63
초등6 (13차)	9.87 (5.54)	1,275	8.71 (4.82)	1,057	4.10 (3.32)	305	1.38 (1.40)	302	4.45 (3.61)	176	3.49 (3.60)	129	3.96 (4.14)	67	5.53 (5.17)	37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21] 학교수업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전체/이용아동)

단위: 시간



주: '전체'는 학교수업 외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한 평균수치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비용

월평균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비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학원 이용비용이 비용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비용은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비용에서 '방과후 교실'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사교육 비용으로 산

출하였다.

전체아동을 기준으로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 1학년 때 월평균 238,000원에서, 초등 6학년 시기에 393,000원으로 월평균 사교육비가 155,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초등 1학년 시기에 연간 사교육비가 286만원에서 초등 6학년 때 472만원으로 증가하여, 초등 6년 사이에 186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V-2-30〉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전체아동)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사교육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										사례 수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1 (8차)	26.95	18.82	23.82	18.78	16.77	15.82	2.41	7.41	3.78	5.93	0.10	1.01	3.14	4.73	0.57	2.99	0.18	1.32	1,598
초등2 (9차)	33.64	22.27	29.41	22.36	20.35	18.39	3.60	9.27	4.23	6.47	0.34	1.98	4.22	5.51	0.65	3.01	0.24	1.30	1,525
초등3 (10차)	37.48	27.05	34.60	27.04	24.71	24.92	4.10	9.92	3.92	6.61	0.75	2.83	2.88	4.84	0.81	5.98	0.31	2.37	1,484
초등4 (11차)	38.95	26.31	36.31	26.47	26.68	23.61	4.08	11.48	3.58	6.67	0.84	3.18	2.65	4.64	0.82	6.52	0.31	2.44	1,434
초등5 (12차)	41.27	28.90	39.09	29.11	29.42	26.86	4.86	12.17	2.95	6.15	0.90	3.23	2.18	4.54	0.75	4.67	0.20	2.28	1,412
초등6 (13차)	39.78	28.94	39.29	29.01	29.68	27.27	5.41	13.84	2.25	5.34	1.22	4.14	0.49	2.49	0.66	5.36	0.06	0.74	1,397

주: 사교육비용은 교내 방과후 교실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사교육 이용아동 기준으로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 1학년 시기에 월평균 264,800원에서 초등 6학년 443,300원으로, 초등학교 6년 사이에 월평균 사교육비가 178,5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2020년에 전체아동 기준으로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9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 이용아동을 기준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31〉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이용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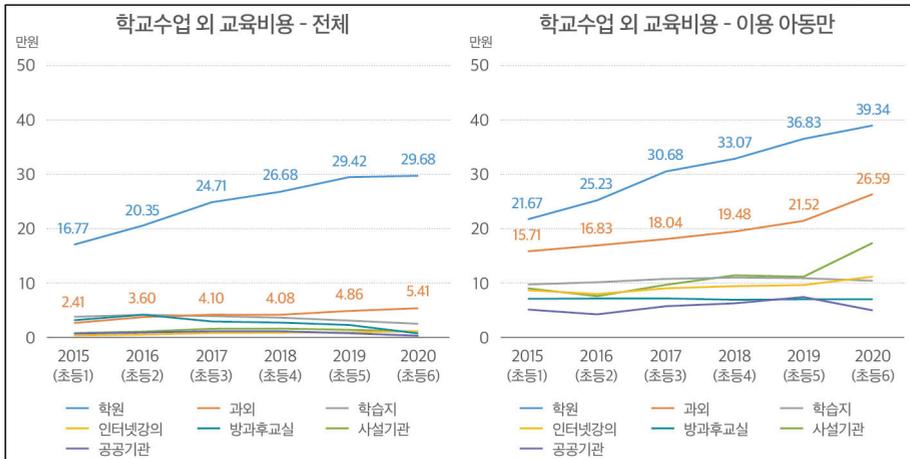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구분	전체		사교육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초등1 (8차)	28.41 (18.22)	1,516	26.48 (17.93)	1,437	21.67 (14.73)	1,237	15.71 (12.22)	245	9.55 (5.80)	633	8.54 (4.36)	18	7.10 (4.73)	706	8.86 (8.10)	103	4.97 (4.91)	59
초등2 (9차)	34.52 (21.87)	1,486	32.01 (21.47)	1,401	25.23 (17.21)	1,230	16.83 (13.40)	326	10.06 (6.39)	642	7.77 (5.68)	67	7.25 (5.49)	889	7.38 (7.34)	134	4.00 (3.59)	93
초등3 (10차)	38.89 (26.53)	1,430	37.05 (26.31)	1,386	30.68 (24.24)	1,195	18.04 (13.50)	337	10.83 (6.78)	537	8.94 (4.71)	125	7.27 (5.22)	587	9.55 (18.46)	126	5.66 (8.50)	82
초등4 (11차)	40.74 (25.52)	1,371	39.23 (25.34)	1,327	33.07 (21.90)	1,157	19.48 (18.16)	300	11.14 (7.35)	461	9.38 (5.72)	129	6.71 (5.24)	565	11.37 (21.82)	103	6.25 (9.26)	70
초등5 (12차)	43.68 (27.90)	1,334	42.66 (27.80)	1,294	36.83 (25.10)	1,128	21.52 (17.26)	319	11.00 (7.25)	379	9.60 (5.23)	133	6.91 (5.73)	445	11.10 (14.40)	96	7.53 (12.09)	37
초등6 (13차)	44.39 (27.02)	1,252	44.33 (26.94)	1,238	39.34 (24.61)	1,054	26.59 (19.49)	284	10.41 (6.85)	302	11.30 (6.71)	151	6.93 (6.59)	99	17.53 (21.67)	53	4.83 (4.51)	18

주: 사교육비용은 교내 방과후 교실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22〉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전체/이용아동)

단위: 만원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라) 사교육 비용 부담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비용의 부담정도 추이를 살펴보면, 비용부담 주체인 부모들은 현재의 사교육비 부담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거나 약간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초등학교 1학년 동안 부담수준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원과 과외비용 부담은 초등 1학년 시기에 각각 5점 중 3.38점, 3.27점에서 초등 6학년 시기에 3.26점, 3.2점으로 학교수업 이외의 다른 교육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이용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인식과 함께,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32〉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비용부담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초등1 (8차)	3.20 (0.74)	1,515	3.38 (0.78)	1,237	3.27 (0.78)	245	3.24 (0.71)	633	3.39 (0.70)	18	2.90 (0.77)	706	2.84 (0.90)	103	2.63 (0.84)	57
초등2 (9차)	3.05 (0.79)	1,491	3.34 (0.83)	1,231	3.19 (0.87)	327	3.13 (0.78)	642	2.90 (0.84)	67	2.76 (0.82)	898	2.62 (0.81)	135	2.29 (0.98)	99
초등3 (10차)	3.12 (0.78)	1,430	3.36 (0.85)	1,195	3.15 (0.81)	337	3.15 (0.75)	537	3.08 (0.76)	125	2.74 (0.83)	587	2.84 (0.89)	126	2.41 (0.86)	82
초등4 (11차)	3.16 (0.78)	1,371	3.40 (0.83)	1,157	3.22 (0.78)	300	3.16 (0.78)	461	2.91 (0.80)	129	2.73 (0.76)	565	2.78 (0.86)	103	2.63 (0.95)	70
초등5 (12차)	3.11 (0.82)	1,334	3.33 (0.87)	1,128	3.18 (0.87)	319	3.02 (0.77)	379	3.00 (0.89)	133	2.65 (0.82)	445	2.77 (0.97)	96	2.49 (1.12)	37
초등6 (13차)	3.12 (0.84)	1,252	3.26 (0.85)	1,054	3.20 (0.86)	284	2.99 (0.79)	302	2.88 (0.82)	151	2.44 (0.80)	99	2.70 (0.97)	53	2.17 (1.1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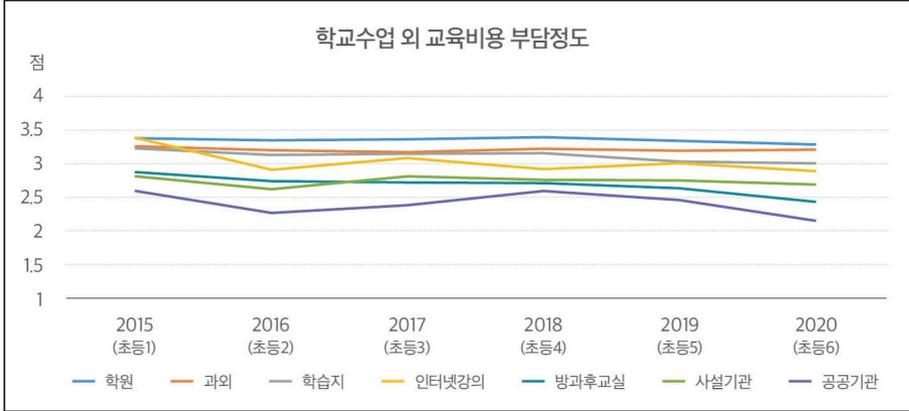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부담되지 않음 ~ 5. 매우 부담됨).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23] 학교수업 외 교육비용 부담정도(이용아동)

단위: 점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마) 교육 만족도 및 학교수업 외 교육만족도

부모들의 학교와 학교외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만족도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와 이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만족도는 초등 1학년 시기에 3.96점에서 초등 6학년 3.91점이었고, 학교수업 이외 교육서비스만족도는 초등 1학년 시기 3.97점, 초등 6학년 3.97점으로 같았고, 학교외 서비스 중 학원, 방과후교실, 과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고, 학습지, 인터넷강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3> 교육 만족도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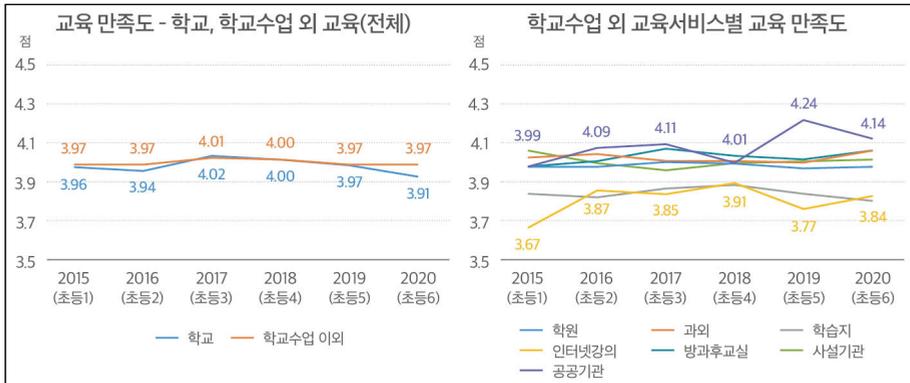
구분	학교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초등1 (8차)	3.96 (0.62)	1,595	3.97 (0.51)	1,535	3.99 (0.53)	1,237	4.04 (0.64)	246	3.85 (0.58)	633	3.67 (0.59)	18	3.99 (0.57)	761	4.08 (0.58)	110	3.99 (0.58)	70
초등2 (9차)	3.94 (0.57)	1,525	3.97 (0.47)	1,491	3.99 (0.51)	1,231	4.06 (0.49)	327	3.83 (0.58)	642	3.87 (0.67)	67	4.02 (0.55)	898	4.01 (0.59)	135	4.09 (0.57)	99

구분	학교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편 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초등3 (10차)	4.02 (0.61)	1,482	4.01 (0.53)	1,450	4.02 (0.56)	1,198	4.02 (0.55)	357	3.88 (0.61)	537	3.85 (0.56)	142	4.09 (0.61)	650	3.97 (0.59)	140	4.11 (0.55)	101
초등4 (11차)	4.00 (0.62)	1,431	4.00 (0.51)	1,394	4.01 (0.51)	1,159	4.02 (0.59)	325	3.90 (0.61)	463	3.91 (0.59)	140	4.05 (0.59)	632	4.01 (0.57)	116	4.01 (0.70)	102
초등5 (12차)	3.97 (0.59)	1,408	3.97 (0.51)	1,360	3.98 (0.55)	1,133	4.01 (0.63)	340	3.85 (0.60)	382	3.77 (0.59)	153	4.03 (0.55)	516	4.02 (0.65)	115	4.24 (0.61)	63
초등6 (13차)	3.91 (0.58)	1,394	3.97 (0.50)	1,275	3.99 (0.51)	1,057	4.08 (0.48)	305	3.81 (0.59)	302	3.84 (0.64)	176	4.08 (0.59)	129	4.03 (0.49)	67	4.14 (0.59)	37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2-24] 교육 만족도(각 영역 이용아동)

단위: 점(5점 척도)



자료: 한국아동패널 8-13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VI

한국아동패널 특성정리 및 시사점

- 01 2020년(13차 조사) 대상별 특성 결과요약
- 02 초등시기의 추이변화 결과요약
- 03 정책적 시사점
- 04 실사 진행관련 시사점

VI. 한국아동패널 특성정리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20년도에 조사된 13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부모, 가족, 학교, 교사, 정책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수준, 학교수준, 지역사회 수준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2020년(13차 조사) 대상별 특성 결과요약

가. 아동 특성

1) 일상생활 특성

가) 식생활

식생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우유섭취, 튀김/볶음요리 섭취가 높았고, 카페인 섭취 및 인스턴트식 섭취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단백질류 및 과일 섭취 등 섭취 권장 식품군에 대해서는 소득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튀김/볶음요리, 지방 많은 단백질 섭취 및 단순당류의 섭취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구가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섭취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미취업모 아동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나) 생활시간

초등 6학년의 아동의 수면시간은 주중 8.8시간, 주말 9.5시간 정도였으며, 주중에는 남학생이, 주말에 여학생이 더 많이 자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중 평균 5.2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의 교육/돌봄 시간은 평균 2.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아동이 399만원 미만인 가구의 아동보다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이 높았다. 또한, 독서량을 살펴보면 주중에 책을 읽는 아동은 67.8% 정도로 나타나며, 책을 읽는 아동 기준으로

주중 0.8시간, 주말 1.1시간으로 일일 평균 1시간 정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읽는 빈도를 살펴봤을 때, 첫째 아동이 둘째 이상이나 외동아보다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한 초등 6학년의 숙제 및 학습시간은 주중 평균 1.2시간, 인터넷 통신 수업 1.2시간 정도, 영상시청 시간은 1.4시간, 게임시간은 1.3시간 정도였다. 미디어 이용시간 중 영상시청은 여학생이, 게임시간은 남학생이 긴 편이었다. 고소득보다는 저소득 가구 아동이 영상시청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게임시간의 경우 소득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디어기기 중독집단을 분류하였을 때 고위험 사용자군이 38.2%로 나타났다. 세부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 중에는 42.9%, 둘째 이상의 경우 41.1%, 외동아의 경우 42.3%가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나타나 미디어 의존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 취미 및 기타활동

취미활동으로는 악기를 취미로 하는 아동 평균이 47.0%정도(여학생 60.4%), 운동을 취미로 하는 아동이 61.0%(남학생 72.7%)로 나타나 성별 차이를 보였다. 활동으로는 문화체험, 예술감상, 견학 등은 57.9%의 아동이 참여하고, 종교활동은 아동의 27.4%, 봉사활동은 8.7%, 동아리 활동은 11.0%가 참여하였다.

2) 신체 및 건강 특성

초등 6학년 패널아동의 평균 신장은 155.4cm, 평균 체중은 50.0kg이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가 낮은 가구에 비해 신장이 약간 더 크고, BMI 수치도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안경을 쓰는 아동은 45.7%정도 되었으며 평균 9.1세에 안경을 처음 쓴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성징 발현여부를 보았을 때, 초등 6학년 조사 시기 시점으로 남학생의 17.8%, 여학생의 62.1%가 2차 성징(몽정 및 초경)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신체적 만족도를 물었을 때, 외모에 대한 만족을 하는 정도가 3점 전후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체중 감량노력은 32.5%(여학생 3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알러지관련 증상 진단 및 치료경험으로는 천식 진단비율은 1.9%였으나,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경험은 1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학습 관련 특성

초등 6학년 패널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5점 척도 중 2.3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학교성적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의 아동이 외동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판단하는 학습 태도는 4점 척도 중 2.7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외동아인 경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아동보다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태도가 좋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소득에 따라서도,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주관적 학습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사회 및 정서 발달

가) 학교생활

초등 6학년 패널아동의 학교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모든 영역에서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활동, 학교규칙은 고소득 가구의 자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교생활느낌은 교사에 대한 선호정도 및 성실성, 피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이, 교사와의 마찰은 남학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나) 폭력피해 경험

폭력피해 경험으로는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은 맞은 경험, 따돌림경험, 괴롭힘, 협박이나 위협 경험 등은 종류에 따라 2.9~11.2%의 학생이 경험이 있었으나, 험담, 심한욕설, 폭언의 경우는 19.5%가 경험이 있다고 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폭력 경험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욕설은 18.8%가 경험이 있었으며, 채팅방 따돌림은 3.6%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다) 친구관계

친구관계는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남자친구 수 12.3명,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여자친구 수가 9.5명 정도로 남학생들이 동성친구의 수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학생의 6.4%, 여학생의 3.7%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하였다.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신뢰는 4점 척도 중 3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소외정도는 1.9점으로 중간정도를 나타냈다. 패널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감은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 미래의식

미래기대(되고싶은 사람)로는 돈 잘버는 사람 31.3%,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의 41.8%가 결혼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전체의 36.7%가 자녀양육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결혼의사 및 자녀양육의사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 경제관념 및 경제행동

패널아동이 생각하는 가정형편은 평균 6.6점(10점 만점) 정도였으며,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의 자녀의 경우 7.1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물어본 초등 6학년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는 41.1%정도가 정기적 지급, 49.6%가 필요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주일 용돈은 평균 7천원 정도였다. 용돈은 77.3%가 간식 및 군것질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11.4%는 저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나. 부모 특성

1) 개인 및 부부특성

초등 6학년 패널아동 가정의 어머니 평균연령 43.1세, 아버지 평균연령 45.5세로 나타났으며, 초혼 유배우 비율 94.3%, 재혼 유배우 비율 1.2%, 이혼율 3.4%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 중 3.8점 전후,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의 5.2점 전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4점 척도 중 2.9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다. 2020년에 심층조사로 측정하였던, 어머니,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 결과는 목표지향 행동 수행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5점 척도 중 2점대 초반으로 정서조절곤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5점 만점에 2.0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7%이었으나, 아버지의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1.9%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3점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2) 직업특성

아버지는 95.0%가 취업, 어머니는 58.2%가 취업 중이었으며, 어머니 기준 주중 평균 4.9일 근무, 주중 하루 평균 7.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의 3.8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3) 양육특성

아동이 응답한 양육특성을 알아보았는데, 부모의 성취압력은 5점 만점에 2.3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남학생이 좀 더 높게 느끼고, 아동학대의 경우 9.1%가 신체적 학대경험, 21.9%가 언어적 학대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감독은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초등 6학년 대상으로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1시간 미만 또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기반 참여도는 4점 만점에 2.4점, 학교기반 참여도는 1.9점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한해에 학교기반 참여도가 낮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2.4점 전후로 나타났다.

다. 가구 특성

1) 가구 구성

패널가구의 가구구성은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86.5%로 나타나고, 평균 가구원수는 4.6명으로 나타났다.

2) 가구 소득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71.4만원, 월평균 어머니 소득은 247.3만원

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 중 소비성 지출은 262.8만원이고 자녀에게 쓰는 소비성 지출은 109.5만원이며, 비소비성 지출 전체는 200.1만원이며, 그 중 자녀에게 쓰는 비소비성지출은 46.6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평균 부동산은 3억 9천642만원, 금융자산 8천 765만원, 부채액 1억 1천 780만원, 월 상환금 평균 69만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인식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는 4점 만점에 1.8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3) 돌봄서비스

초등 6학년인 패널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 정도는 학기 중에는 이용하는 정도가 총 13.0%정도였으며, 그 외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은 10.4%로 이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라. 학교 특성

1) 학교, 학급 특성

초등 6학년 패널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의 평균 학급 수는 5.7개 정도이며 반 학생 수는 평균 24.3명이었다.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 비율은 0.95명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다. 학교의 건물, 기자재, 주변 환경 통학조건 등을 물었을 때 담임선생님 응답은 5점 만점에 3.7-4.0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 교사 특성

교사 특성은 여교사가 60.5% 정도였으며, 평균교사연령은 36.1세였다. 월평균 주 중 근무시간은 182.6시간(22일 근무기준) 정도로 일일 평균 8.3시간 정도였다. 대 줄이 60.7%로 가장 많았고, 석사도 25.8%로 높은 편이었다. 대도시에 근무하는 교사 중 석사 취득 비율이 높았다.

초등 6학년 담임교사 대상 교사업무 스트레스를 살펴보았을 때,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는 5점 척도 중 2.8점, 3.0점, 수업지도는 2.4점으로 나타났으나, 행정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3.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아동관계

교사가 응답한 아동-교사 관계는 친밀정도는 5점 척도 중 3.8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갈등도 1.4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아동이 응답한 창의적학교환경은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분위기는 3.8/5점, 교사의 지지는 3.7/5점으로 높은 반면,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도 5점 척도 중 3.7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4) 학부모의 학교참여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는 교사 응답으로 3.7/5점으로 참여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 응답에서 부모참여 행사 개최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운동회, 학부모 공개수업, 부모교육 등의 행사는 개최가 55.3% 미만으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개최정도가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총회 등은 60% 전후로 개최되었고, 담임상담은 75.5%로 가장 개최비율이 높았고, 참여율도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5) 사교육특성

초등 6학년 기준 패널아동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정도는 90.0%로 높은 편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 때, 사교육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이용과목으로는 중복응답으로 영어가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70.2%, 국어 40.9%, 체육 31.6%, 과학 21.1%, 음악 16.9%, 한자 13.5%, 미술 6.9%, 컴퓨터 5.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은 학원이 평균 8.7시간으로 가장 높고,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이용시간이 5.5시간, 인터넷 화상강의 4.5시간, 과외 시간 4.1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방법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39.2만원, 과외 24.8만원, 문화센터 및 사설기관 13.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이용한 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공공기관의 비용은 2.4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사교육 정도가 적당한지를 물었을 때 '적당하다'고 한 아동이 77.0%, '적은 편'이라고 한 아동이 18.5%로 나타나고, 부담정도에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이 33.3%,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 26.8%, ‘보통’이 33.3%로 대부분이 사교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마.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지역사회 환경에 따른 교육, 의료, 복지시설의 편리성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읍면의 경우, 교육, 의료, 복지 시설 모두 2점대로 편리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 지역차가 나타났다. 또한, 놀이공원, 실내외 체육시설도 읍면의 경우 편리성에서 낮게 나타났고,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영화관, 관람 및 체험시설, 공연시설에서 읍면이 낮게 나타나 지역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양육환경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은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에 있어 서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등의 환경은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초등시기의 추이변화 결과요약

가. 아동 생활특성

1) 생활시간 변화

초등 1학년에서 초등 6학년까지의 추이를 보았을 때, 수면시간은 줄어들었고, 학습시간은 초등 5학년까지는 상승하다 초등 6학년 코로나19 시기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놀이시간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말 놀이시간은 초등 1학년 8시간에서 초등 6학년 5.8시간 정도로 약 2시간 정도 줄어들었다.

학습시간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이 되는 시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인터넷 등 통신교육 및 숙제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놀이 및 활동시간 세부시간에서 평일의 경우 게임시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스포츠 및 레저 활동시간이 줄어들었다. 주말의 경우에도 게임시간은 증가하였고, 레저 활동시간은 초등 3학년부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초등 6학년시기에 더 확연한 감소를 보였다. 초등 5학년 이후 코로나19 시기의 영향으로 종교활동

및 취미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으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디어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초등 2학년 이후 매해 20분 정도의 꾸준한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시기인 초등 6학년에서는 초등 5학년시기보다 평균 1시간 이상의 이용시간 증가를 보여 코로나19 시기의 미디어 이용 및 비대면 미디어를 통한 학습의 영향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습 및 정보검색에서는 초등 6학년(2020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으나, 엔터테인먼트, 게임, SNS의 이용해서는 꾸준한 이용시간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대부분 어머니)가 진단한 인터넷 중독 정도를 살펴보면 꾸준히 일반 사용자군의 비율이 줄고, 고위험사용자군이 높아져서 초등 6학년 시기에 38.2%가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주평균 독서량은 초등 2학년 8.6시간에서 초등 6학년 2.8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 사이에 보다 급격한 감소를 보였고, 초등 4학년, 초등 5학년에는 큰 변화가 없던 실내운동 및 실외운동 정도도 코로나 시기인 초등 6학년에 큰 감소를 보여, 코로나19 시기에 아동들의 운동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 및 운동도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점차 감소하여, 초등 6학년에는 ‘취미로 하는 악기 없음’이 53.0%, ‘취미로 하는 운동 없음’이 39.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운동의 경우 초등 4학년, 초등 5학년에 취미가 없는 경우가 25.3%/25.6%로 비슷한 수치였음에도, 초등 6학년(2020년)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시기의 영향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심리적 특성

패널아동들의 심리적 특성에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한 점을 보아, 전반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가족, 학교, 친구, 외모 등 여러 영역에서 코로나 시기가 아동들의 전반적 삶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 수도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 사이에 현저한 감소가 있어,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수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등교상황에서도 학생들 사이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친구들 교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 학습 특성

학업수행능력에서는 꾸준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득분위별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가 낮은 가구의 자녀보다 학업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시기였던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위 20%인 소득수준의 경우 학업수행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소득수준 중간그룹(2-4분위)의 경우 학업수행능력의 상승이 있어, 소득수준별 영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스트레스 또한 초등 4학년-초등 6학년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 부모특성

1) 부모 양육특성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초등 6학년(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가 인식한 친구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의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초등 1학년 이후 점차 높아졌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감률이 높아졌으나, 초등 6학년 기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모의 일-가정 양립시, 일-양육 양립시 이점과 갈등을 살펴본 결과, 일-가정 양립, 일-양육 양립 모두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이점의 경우 약간의 증가추세였으나 갈등의 경우 0.4점 정도의 감소가 있어,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일-가정, 일-양육의 갈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취업 부모 육아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서도 초등 3학년(2017)에서 초등 4학년(2018)사이에는 감소의 경향을 보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쳐 202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아버지의 육아지원제도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유연근무제 활용에서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초등 3학년(2017년) 때 0.3%에 지나지 않던 유연근무제 활용비율이 초등 6학년(2020년)에는 8.5%를 나타내어 시간의 변화와 코로나의 영향을 함께 받아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변화가 크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교육 이용 특성

사교육 이용 여부는 초등 1학년에서 초등 4학년(94.1%)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감소하여 코로나 시기인 초등 6학년에서는 89.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 방과후를 제외한 학교 수업이외 교육서비스 이용비용 중 이용하는 아동 기준으로 학원 이용은 초등 1학년 때 21.7만원에서 초등 6학년 때 39.3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과외는 초등 1학년 때 15.7만원에서 초등 6학년 때 26.6만원으로 꾸준한 증가가 있었으나,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 사이인 코로나 19 시기에 보다 높은 증가경향을 보였다.

3. 정책적 시사점

2020년 조사 시기에 대부분 만 12세인 초등 6학년 아동 및 부모, 교사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한국아동패널 조사결과와 횡단 분석결과와, 2020년 13차 조사를 포함한 1차부터 13차까지 조사한 종단 분석, 특히 8차부터 13차까지의 초등시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 미디어사용 증가의 심각성

초등 6학년 기준 주중 미디어 이용 시간은 인터넷 통신 수업 1.2시간, 영상시청 1.4시간, 게임 1.3시간으로 총 3.9시간동안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기기 중독척도를 이용하여 부모님이 응답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독 고위험군이 38.2%로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42.9%가 중독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초등시기 추이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디어 이용시간 추이분석에서도 초등 5학년에서 초등 6학년 사이 급격히 많아진 미디어 이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및 정보검색은 코로나 시기에 학교학습이 미디어로 대체되면서 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 게임, SNS의 이용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의 이용정도가 4점 척도 중 3점 이상으로 높은

이용정도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남학생의 경우 게임의 이용이 높았다. 초등 6학년 패널아동 기준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94.3%로 매우 높고, 소지하고 있는 아동이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정도는 99.7%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었다(1일 평균 2.8시간).

이렇게 스마트폰, PC 등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고 있다. 생활시간에서도 아동들의 취미생활 및 운동, 레저시간이 감소한 상황과 함께 감안하였을 때, 아동들의 여가시간 활용이 점차 미디어 이용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연관하여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의 감독 정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는 부모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미디어로 수업 외에 다른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과 적절한 사용시간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정기적인 미디어 사용에 이용 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심각한 중독의 학생들의 경우 치료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진행된 제 12차 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도 미디어중독 및 미디어사용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점차 낮은 연령의 아동들이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데이터를 이용한 심화된 분석을 통해 부모나 교사의 중재 등 아동들의 미디어 이용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 알릴 필요가 있다.

나. 코로나19 시기의 생활습관 형성

초등시기의 생활시간 추이분석을 통해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전반적인 아동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보였다. 식생활에서 인스턴트 음식 및 카페인 섭취가 높아지고, 수면시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독서시간 감소, 여가 및 취미, 레저에 보내는 시간이 감소되었으며, 악기나 운동을 하는 취미 시간 또한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 한해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진행되었던 해로, 아동들의 학교 등교일수에 제한이 있어 비대면 학습을 위한 미디어 이용이 필수가 되었고, 등교일수, 모임, 실내외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았던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아동들에게 활동에 제한을 주면서, 인식하는 친구 수의 감소, 전반적 행복감의 감소를 함께 동반하였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학습에 대한 부담도 커져,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도 높아졌으며, 학습에 대한 부담 및 운동시간의 부족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출 삼가, 운동 자제 등의 결과를 낳았지만, 코로나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아이들이 균형 있는 생활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들에게 있어 일정한 운동시간과 외출시간, 레저 활동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스로 생활습관 및 생활시간을 점검하여, 집안에서의 시간사용이 많아진 상황에서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다. 가구소득에 따른 아동 특성 차이

초등 6학년 패널아동의 횡단 분석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특성별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중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차이, 출생순위별 차이, 모취업 특성별 차이가 있기도 했고, 또한 일부 아동 및 부모특성에 있어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아동의 식생활에 있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의 다양한 식품섭취 정도가 소득이 높은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튀김/볶음 요리 등 섭취 자제 권장 식품의 경우에도 섭취가 높게 나타나, 학교 급식처럼 모두가 제공받는 식사에서 균형있는 식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준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등교 일수가 줄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더 가구의 상황에 따른 식습관 차이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급식제공이 되지 않는 시기에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단백질, 과일섭취는 높게 나타났으나, 지방 많은 단백질 및 단순당류의 섭취 또한 높아, 소득이 높은 가구 또한 식생활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학습수행에 있어서 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습태도의 경우에도 소득이 높은 가구의 아동이 스스로의 학습태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교생활 영역에서 학습활동 및 학교규칙을 잘 수행하는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2019년-2020년 사이)의 학습수행격차를 보았을 때, 하위 20% 소득수준의 아동의 경우 수행능력이 낮아진 경향성을 보여, 가구소득별 학업수행 격차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 지원정책에서 학교 방과 후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한 교육에 대한 부모상담 제공 등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4. 실사 진행관련 시사점²⁹⁾

가. 패널아동 조사 참여거부 사례

1) 패널아동의 청소년 시기 진입

패널아동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조사 거부 현상이 증가하였다. 부모가 응하지만 패널아동이 조사를 거부하며 부모와 다투거나, 첫 방문 시에는 거부하였으나, 이후 방문 시에는 호의적인 모습으로 조사에 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패널아동들이 중학교 진학으로, 학원일정 등으로 약속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재취업한 부모의 늦은 귀가 등으로 일정 잡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가구당 2번 방문하는 경우가 대다수(아동/부모 따로)였다. 조사원에게 방문가능 시간을 제시할 때도, 이른 아침시간이나, 밤시간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원의 출퇴근길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지속된 조사로 인한 피로감 증대

아동패널의 신생아시기부터 지속된 조사로 인한 패널가구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조사중단 의사를 밝히는 가구가 발생하였다. 패널조사 참

29) 11월 말에 진행되었던 조사원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여에 대한 의미가 없고, 패널가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적거나 없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아 실질적 보상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1) 대면조사 회피 및 패널아동 주변 확진자 발생으로 조사 불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안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외부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외부커피숍 및 식당에서의 만남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여, 조사원의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특히 수도권의 경우 밀접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 필요로 인한 약속 불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 비대면 조사에 대한 필요성 정도

코로나19 시기의 대면조사 기피를 이유로 비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가구가 있었고, 현재시점 코로나 감염 명수가 5000명이 넘고³⁰⁾, 위드코로나 시행정책이 4주간 중단되면서³¹⁾,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가구에 한해 비대면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표본이탈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 문항 관련 시사점

1) 아동용 질문지 양 증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아동에 대한 질문이 아동이 스스로 답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아동의 질문지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질문지의 경우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생활시간조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비대면, 대면 온라인 수업이 학교마다 규칙이 다르고, 학원 일정 등이 요일마다 다른 점을 감안

30) 박슬기(2021. 12. 5). '5000명대 고착화?' 주말에도 코로나 신규확진 5128명, 오미크론 12명 감염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20510508026592> (2021. 12. 6. 인출)

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12. 3).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하여, 패널아동마다 특정 요일을 무작위로 지정하여 회상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지침이 명확해져 조사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아동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사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아동 신체 계측 거부

1차 조사시점 때부터 아동들의 발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 대상 설문중 키, 몸무게, 허리둘레를 체중계, 신장측정기계 및 줄자 등을 이용하여 직접 면접원이 측정해왔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외모에 민감한 나이가 되면서 체중 및 신장 측정으로 인한 조사거부 사례도 나타나고, 직접 측정을 거부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직접 신체계측 진행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가계 소비지출 문항

가계 소비지출 및 부채 등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를 하는 가구 및 이로 인한 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하는 측면이 있었다. 작년 문항 값이 종단으로 나타나지 않아, 작년 종단 값이 구현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작년 종단 값을 구현할 경우, 작년 값으로 동일하게 넣게 되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계소비지출상황을 힘들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 지출을 보호자 응답을 작성하지 않는 부모가 도맡고 있어, 가정경제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는 보호자는 가계 수입, 지출, 부채 등에 대한 응답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라. 아동패널 유지방안 관련

1) 아동패널 위촉장 수여

13년 동안 한국아동패널의 패널로서 활동해온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조사를 진행한 가구들에게 면접원을 통해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하는 패널로서의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평이 있었다.

2) 봉사활동 점수 제공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중학교 봉사시간 점수 부여 방안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소재한 중구자원봉사센터 담당자와 회의를 진행하고, 봉사활동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마치고 연구진이 봉사활동제공기관 신규교육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시기로 중학교에서 외부 봉사활동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조사 참여에 대해 금전적 사례(문화상품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조건 충족이 어려워, 조사참여로 인한 봉사활동점수 제공 결정을 보류한 상태이다.

3) 아동 대상 카카오톡 채널 운영

향후 아동의 조사 참여 독려 차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에게 아동패널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추천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4차 조사 진행시 보호자 대상으로 아동의 변호 제공과 연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 채널에 초대하였다. 하지만, 부모는 동의를 하였으나, 아동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해 연락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점을 대비해 아동 대상 연락 전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 아동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린 후 진행하였고, 이러한 채널을 통해 아동패널 아동들이 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4) 패널가구 보상 관련

현재 1월 설날선물, 5월 어린이날 선물, 7-11월 조사기간 문화상품권 제공, 12월 경품행사 및 이사한 가구에 대한 이사선물 제공 등의 방안을 통해 패널가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공유되었다. 먼저, 어린이날 선물은 아이들의 선호가 강해져 물품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고, 청소년시기에도 어린이날에 선물을 지속해서 줄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린이날 선물 대신 패널아동 생일선물을 개별 발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 기타 사례

1) 청소년 상담관련

아동이 학교 폭력 등의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 개입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조사원의 질문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고 응답 상황에서 학교폭력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주변 교사나 부모 등 도움을 요청해보기를 권하는 정도로 응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혼가정 아동을 대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대화스킬에 대한 팁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조사 시기 관련

아동들이 바빠지고 학기 중에는 학원 일정 등으로 조사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방학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으므로, 여름방학시기부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시작 시기를 당겨 늦어도 6월 초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조사가 시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수행검사에 대한 의견

작년 수행검사(다요인 지능검사)가 너무 길고 어려워서 거부감이 증대된 경우가 있는 반면, 수행검사 결과를 기대하는 아동, 수행점수가 너무 낮아서 실망한 아동 등 사례가 다양하였다. 하지만 수행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를 조사원에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행검사 결과가 패널가구에 전달되는 시기에 결과가 조사원에게 통보되도록 하는 등 패널가구 관리에 대한 1년 계획과 실행내역 등을 조사원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소영(2007). 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A형/B형)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분·남궁지영·박경호·김미숙·김위정·최보미·이영주·송승원·김난옥(2015).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II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미(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70-481.
- 김은설·배윤진·김근진·조혜주·김혜진(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최정원·장혜원·조혜주·김희수(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혜(2021).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465-474.
- 김청송(2021).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167-184.
- 김태완·오미애·이주미·신재동·정희선·이병재·최준영·박나영·이봉주·강상경·박정민·유조안·정원오·백승호·김화선·신유미·김정욱(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충래·김소연(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87-114.
- 도남희·이정원·김지현·조혜주·박은영·김희수(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배윤진·이예진·이운진·김문정·임준범·김희수(201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경호·권희경·김정아·백승주·최인희·송승원·최유리·이수현·정민주·최은아(2019). 2019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VII): 조사개요보

- 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민희·임소연(2020).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4(3), 380-390.
- 박지순(2016).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2), 49-64.
- 배상률·이창호(2016).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페이스북을 활용한 청소년 집단지성 토론단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3), 189-218.
- 백지선·심규호·홍영택·장덕현(2017). 혼합조사의 모드효과 추정: 선택효과와 측정효과와의 분리. 통계연구, 22(3), 1-2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12. 3).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 신승욱(2008). A/B형 행동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염시창(2017). 중학생용 학교생활참여척도(K-SES-M) 단축형의 개발 및 타당화, 14(2),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2), 149-180.
- 안지혜·윤유동·임희석(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 유지희·황숙연(2016).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시연(2017).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역량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445-454.
- 이정림·김지현·이규림·조혜주·임종한·Gustavo Carlo(2017). 한국 어린이 성장 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구·현성용·최인수(2015). M-FIT 다요인 지능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이종하(2016).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33-442.

- 이진혁·송인한(2021). 여가시간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고정효과모형 분석. *청소년학연구*, 28(2), 323-351.
- 장유진·이승연·송지훈·홍세희(2020). 부모 학력과 경제 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시간과 학업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2), 249-273.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전명숙·박선녀(201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28-237.
- 전혜숙·전종철(2020).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2(4), 37-62.
- 정미나·노자은(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익중·박현선·최은영(2016).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정준수·이혜경(2020).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4 학년과 중학교 1 학년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2(4), 211-241.
-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200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조창호(2021).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청소년들의 게임 시작 동기에 관한 질적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17.
- 하문선(2020).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21(4), 1001-1035.
- 한세영·임혜은·한아름(2020). 어머니, 교사,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의 직접공격성과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809-821.

황여정(2021). 청소년참여 경험이 자기표현능력 함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지*, 21(4), 719-748.

허만세·이순희·김영숙(2017). 한국어판 CES-DC 11의 개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5(1), 255-285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 청소년상담연구지*. 12(2), 170-189.

홍예영·김유숙(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doi: 10.1007/BF02202939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인터넷 출처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 (2009. 2. 5.).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 확대 시행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C&s=moe&m=0302&opType=N&boardSeq=13755> (2021년 6월 4일 인출).

김신희(2020. 1. 7). [4·15 총선] 인천·경기 정가 이모저모.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584> (2021년 3월 14일 인출).

김진원(2020. 1. 4.). 박찬대 의원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아유경제*.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59> (2021년 3월 14일 인출).

류희진(2020. 7. 20). 폭염에 노출된 임산부, 저체중아 출산…소득 낮을수록 위험. *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037> (2021년 3월 14일 인출).

- 박슬기(2021. 12. 5.). '5000명대 고착화?' 주말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 5128명... 오미크론 12명 감염(종합).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20510508026592> (2021년 12월 6일 인출).
- 박용주(2020. 7. 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낳아...저소득층 더 위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8026900002?input=1195m> (2021년 3월 14일 인출).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serii.re.kr/fus/MI00000000000000495/board/BO00000222/CD020/view0010v.do>. 2013년 서울교육중단연구 4차년도 조사 학생설문지(중학교) (2021년 6월 8일 인출).
- 이미숙(2020. 9. 24.). 육아정책연구소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50> (2021년 3월 14일 인출).
- 이상우(2020. 1. 6). 박찬대, 공공주택에 양육친화 환경 조성 법안 발의.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457> (2021년 3월 14일 인출).
- 이진혁(2020. 7. 19). 소득 낮을수록 폭염 속 저체중아 낳을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7191409035880> (2021년 3월 14일 인출).
- 정인성(2020. 7. 22).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내외경제TV.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380> (2021년 3월 14일 인출).
- 조유현(2020. 7. 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낳아”. 위클리굿뉴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0807 (2021년 3월 14일 인출).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국민건강영양조사>원시자료 다운로드> 2016년 원시자료 이용지침서https://knhanes.kdca.go.kr/knhanes/sub03/sub03_02_05.do (2021년 6월 4일 인출).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십센터 홈페이지. S-척도(스마트폰중독 척도) 청소년용. https://www.iapc.or.kr/mediaView.do?idx=28&article_id=ICcart_0000000003540&type=A1 (2021년 03월 26일 인출).

- 한민수(2020. 7. 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출산...“저소득층 더 위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1942337> (2021년 3월 14일 인출).
- 함민정(2020. 7. 19). “폭염 노출된 임신부 저체중아 낳는다...저소득층은 더 위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28060> (2021년 3월 14일 인출).
- 헤럴드경제DB(2020. 7. 19). “소득 수준 낮을 수록 폭염에서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 커져”.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19000143> (2021년 3월 14일 인출).
- MBN 온라인뉴스팀(2020. 7. 19). 폭염 속 임신부 저체중 아이 낳을 확률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 MBN. <https://www.mbn.co.kr/news/life/4220973> (2021년 3월 14일 인출).

【참고 사이트】

- 미국 Add Health 홈페이지, <https://addhealth.cpc.unc.edu/wp-content/uploads/2021/03/CohortProfile2019.pdf> (2021년 3월 11일 인출).
- 미국 PSID-CDS 홈페이지, <https://psidonline.isr.umich.edu/CDS/questionnaires/cdsover.pdf> (2021년 3월 11일 인출).
- 미국 SECCYD 홈페이지, <https://www.nichd.nih.gov/research/supported/seccyd/overview> (2021년 3월 11일 인출).
- 영국 Next Steps 홈페이지, <https://cls.ucl.ac.uk/cls-studies/next-steps/> (2021년 3월 11일 인출).
- 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 아카이브,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52> (2021년 3월 15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SurveyDBFormNewAll.do> (2021년 3월 15일 인출).
- 호주 LSAY 홈페이지, <https://www.lsay.edu.au/publications/user-support-and-documentation> (2021년 3월 11일 인출).



2021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Ji Hyun Kim · Dong Hoon Kim · Mira Jo · Yun-Jin Bae · Hyejin Kim ·
Eunyoung Park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s the first longitudinal study targeting the newborns in Korea. PSKC is a meaningful study in that it provides researchers in the fiel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hildren, such as family, school, policy, and community,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PSKC has not only provided the longitudinal data and cross sectional data every year, but also offered the annual research reports with PSKC data by analyzing the major variables 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parents.

The 14th wave of PSKC in 2021 contains the data about children's develop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s adolescence. As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panel study entered the Junior high school this year, the scales were partially modified with variables that can be used for adolescence, and many of the questions that parents have responded instead of the children were changed so that the children could directly respond regarding themselves.

In the annual report in 2021, we analyzed the data that were collected in 2020 (13th wave) and provid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households and community. In total, 1,397 panel families have participated in the 13th year of the survey in 2020. Followings are some representative points from the research results of the 13th wave.

First, the 6th grade panel children's mean height for boys is 155.93cm ($SD = 7.36$) and mean height for girls is 154.89cm ($SD = 5.88$). The 6th grade panel children's mean weight for boys is 52.22kg ($SD = 11.34$) and mean weight for girls is 47.72kg ($SD = 8.87$). The percentage of possessing a cell-phone is 94.34%, which is increased compared to 88.8% in 12th wave, The average time of media using is 2.80h per a day($SD = 1.55$, which is also increased from 1.80h per day($SD = 1.03$) in 12th wave.

Second, the mean score of overall happiness in the 13th wave is 2.96 ($SD = 0.48$) on the 4-point-scale and this is a bit lower than overall happiness in 12th wave ($M=3.25$). The average score of children's life satisfaction is 3.13 ($SD = 0.54$) on the 4-point-scale.

Third, 41.78% of children responded that they have plan to get married in the future (boys: 44.41%, girls: 39.07%). In addition, 36.70% of children responded positively on the question asking an intention to have a child in the future ((boys: 41.51%, girls: 31.74%).

Lastly, the proportion of using the private education is 89.8% for 6th garde excluding the after-school classes. The proportio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house income: the children from the household from higher house income tend to use higher proportion of private education compared to that of lower house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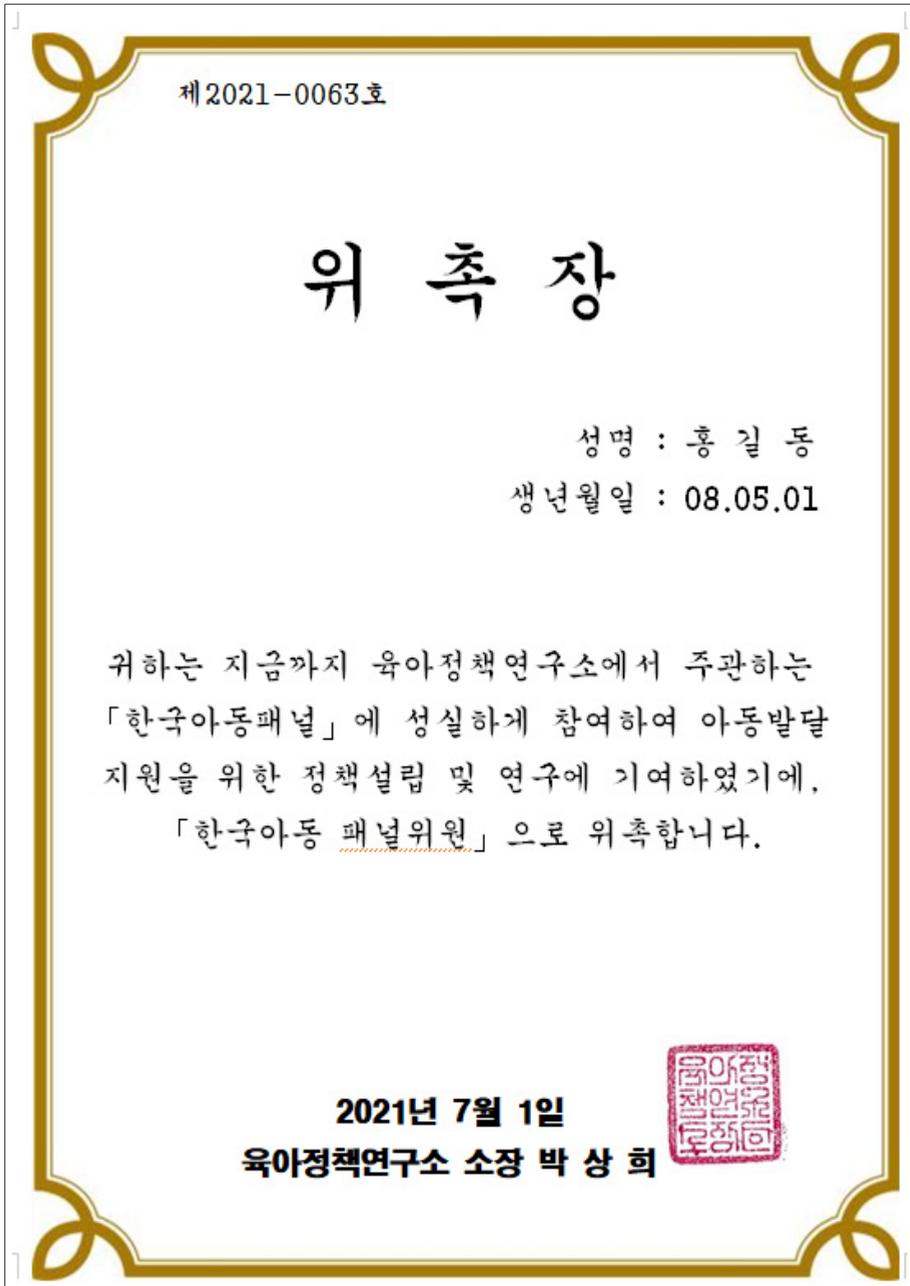
The year 2020 was the year when COVID-19 started to spread around the world and some changes in children's lifestyles during the pandemic period. For example, children in 2020 had much less leisure activities and much more media involvement in the COVID-19 period than the previous y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guideline for children to manage children's healthy life style in pandemic situation. Other than this issue, some suggestions were suggested.

Keyword: panel study, longitudinal data, Kore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부록 1. 14차년도(2021) IRB 승인통지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04535) Tel. 02-398-7727, 7717 Email. hmlee@kicce.re.kr
심 의 일 자	2021. 06. 16.
과 제 번 호	220996-210414-HR-006
의뢰하신 다음의 연구가 본 연구소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 제 목	한국아동 성장 발달 중단 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연구 책임자	김 지 현
연구 승인일	2021. 06. 16.
연구 승인기간	2021. 06. 16. ~ 2021. 12. 31.
연구 승인번호	KICCEIRB-2021-제05호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장 	

부록 2. 한국아동패널 위촉장 샘플



부록 3. 13차년도(2020) 질문지

PSKC 2020 면접조사(보호자용)(13차) 질문지

번호	문항 내용
생성 D20int01	[20CAP(보호자)] 참여 여부 및 유형 ◎ [20CAP(보호자)] 미참여 ① [20CAP(보호자)] 참여 ② 12차 조사 미참여
D01-1. D20int03	조사 날짜는? (D20int03b)월 (D20int03c)일
생성 D20int06	지난 조사와의 간격[()개월]
생성 D20int09	면접원 코드
생성 D20int24	경품 당첨 여부
생성 D20int10	면접원 동일 여부
생성 D20int11	면접원 조사 경력[총 ()년]
생성 D20int12	면접원 패널 조사 경력[총 ()년]
D01-2. D20int00	이동 이름은? (D20int00)

번호	문항 내용
D01-3. D20int07	아동 이름이 바뀐 이유는?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부모의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D20int08)
[아동 성별 삼입 Ch20dmg01	"아동" 성별 ① 남아 ② 여아
[아동 출생월 삼입 Ch20dmg06a	"아동" 출생월
[아동 월령 생성 Ch20dmg06	"아동" 월령(만 ()개월)
D01-4. D20int05	귀하와 아동의 관계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이)의 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D01-5. D20int13~16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1) 응답자 성명: (D20int13a or D20int13b) 2) 집 전화: ① 집 전화 없음 ② 집 전화 있음(전화번호: D20int14) 3) 어머니 휴대폰: (D20int15) 4) 아버지 휴대폰: (D20int16)
D01-6 D20int17~18	귀하의 성명이 바뀐 이유는?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D20int18)
D01-7. Hu20crrmm15 a-e	귀택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 2020년 현 거주지: (Hu20crrmm15c) 시·도 (Hu20crrmm15d) 군·구 (Hu20crrmm15a) 도로명 주소: (Hu20crrmm15b) 군·구 (Hu20crrmm15e)

번호		문항 내용
	[지난 조사항목 이사 회수] D01-8.	귀택은 아래 주소지 거주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2019년 거주지: (Hu19cmm15c) 시·도 (Hu19cmm15d) 시·군·구 (Hu19cmm15a) 도로명 주소: (Hu19cmm15b) (Hu19cmm15e)
	Hu20cmm20a	▶ 총 이사 횟수 (Hu20cmm20a) 회
	생성	OO(OI) 출생 후 총 이사 횟수(()번]
	Hu20cmm20	
	[지역 규모] 생성	패널 거주 지역 규모
	Hu20cmm02	① 대도시 ② 읍/면 ③ 중소도시
	[권역 구분] 생성	패널 거주 지역 6개 권역 구분
	Hu20cmm01	① 서울권 ② 경인권 ③ 대전/충청/강원권 ④ 대구/경북권 ⑤ 부산/울산/경남권 ⑥ 광주/전라권
	생성	패널 거주 지역 5개 특성 구분
	Hu20cmm19	① 서울 ② 광역시 ③ 도농복합시 ④ 시 ⑤ 군
	[17개 시/도 구분] 생성	패널 거주 지역 17개 시/도 구분
	Hu20cmm14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경상북도 ⑬ 경상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전라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시
	[시/군/구 구분] 생성	패널 거주 지역[시/군/구]
	Hu20cmm15b	

번호		문항 내용
<p>진환</p> <p>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p>		
[부모-결혼 상태] D02-1.	○○(01) 부모님의 현재 결혼상태는?	☑ 본 조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01)의 호적상 부모임.
Mt20dmg03 Ft20dmg03	1) 어머니 2) 아버지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부모-결혼유지기간] D02-2. Hu20dmg04a,b	○○(01) 어머니, 아버지의 현재 결혼기념일은? (Hu20dmg04a) 년 (Hu20dmg04b) 월	
생성 Hu20dmg04	“부모” 현 결혼상태 유지기간()개월	
[부모 연령] D02-3. M/Ft20dmg06 a~c	○○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 어머니 2) 아버지	(Mt20dmg06a) 년 (Mt20dmg06b) 월 (Mt20dmg06c) 일 (Ft20dmg06a) 년 (Ft20dmg06b) 월 (Ft20dmg06c) 일
D02-3-1 M/Ft20dmg06_r1	결혼상태가 동일한데 귀하 또는 배우자의 생년월일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존에 응답한 내용이 틀림 ② 결혼상태 잘못 응답 → D02-1번 문항으로 ③ 기타()	
생성 Mt20dmg06	“모” 연령(만 ()세)	

번호		문항 내용	
생성 Ft20dmg06	"부" 연령(만 ()세)		
[부모-최종학력] D02-4.	○○(이)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1) 어머니 2) 아버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⑦ 대학원 졸업 상동
Mt20dmg14 Ft20dmg14			
D02-4-1. Mt20dmg14_r1	지난 조사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내용이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02-5 ② 잘못 입력함 ⇨ Go D02-4		
D02-4-2. Ft20dmg14_r1	지난 조사보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내용이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02-5 ② 잘못 입력함 ⇨ Go D02-4		
[부모-장애] D02-5.	○○(이) 부모님은 장애가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준 4~6등급)		
Mt20hit19 Ft20hit19		1) 어머니 2) 아버지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번호		문항 내용	
[○○(이)와 동거여부] D02-7.		부모님과 ○○(이)는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Mt20dmg29 Ft20dmg29		1) 어머니 2) 아버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이)와 비동거이유] D02-8.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이)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t20dmg12 Mt20dmg18 Ft20dmg12 Ft20dmg18		1) 어머니 2) 아버지	①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③ 어머니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Mt20dmg18) ①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 복무 중 ③ 아버지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Ft20dmg18)
전환			
[모-취/학업상태] D03-1.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습니까?	
Mt20jcg0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한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Go D03-2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Go D05-1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Go D03-2 ④ 미취업/미학업 ⇨ Go D05-1

번호		문항 내용	
D03-2. Mt20jce_12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재직 중 ② 휴직 중		
[모-직장변동여부] D03-3.	지난 조사 이후 귀하의 직장 또는 주 업무의 변동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주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지난 조사 시 응답: 직장명(Mt19jce_s1), 주 업무(Mt19jce_s3)		
Mt20jce24	① 아니오(변동 없음) ⇨ Go D03-8 ② 직장이 바뀐 ⇨ Go D03-4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주 업무가 바뀐(진근, 부서, 직위 변경 포함) ⇨ Go D03-6 ④ 지난 조사 시, 미취업/미학업이었음 ⇨ Go D03-4		
D03-3-1. Mt20jcg03_r1	귀하는 지난 2019년도 조사에서 취업 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03-3 ② 2019년도에 잘못 입력함 ⇨ Go D03-3-2		
D03-3-2. Mt20jcg03_r2	귀하는 지난 2019년도 취업/학업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④ 미취업/미학업		
[모-직업분류] D03-4.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input type="checkbox"/>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 서울시청 / 프리랜서		
Mt20jce_s1	직장(사업체)명: ()		
D03-5.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직정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표기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해 주세요.		
Mt20jce_s2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문항 내용	
번호	
D03-6.	<p>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 전산직, 기술직 / 음식점인 경우 한식조리, 양식조리, 서빙 등 / 교사인 경우 영어, 수학 등 과목명 기입</p> <p>주로 하는 일: ()</p> <p>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리랜서 / 공무원인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 매니저, 일반 직원 등</p> <p>직장(사업체) 내 직위: ()</p>
Mt20jce_s3	
D03-7.	
Mt20jce_s4	
생성	
Mt20jce18	“도” 직업군: 대분류
생성	
Mt20jce19	“도” 직업군: 중분류
생성	
Mt20jce20	“도” 직업군: 소분류
생성	
Mt20jce_s5	
[모-자유]	
D03-8.	<p>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p> <p>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p> <p>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p> <p>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p> <p>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p> <p>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p> <p>⑥ 무급 가족 종사자</p>
Mt20jce21	

번호

문항 내용

[모-근무일, 시간, 출퇴근시간] D03-9

귀하의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주시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Mt20jce36a,b
Mt20jce25a,b
Mt20jce26a,b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Mt20jce36a) 일 근무	(Mt20jce36b) 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Mt20jce25a)시간 근무	1일 평균 (Mt20jce25b)시간 근무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Mt20jce26a) 소요	1일 평균 왕복 (Mt20jce26b) 소요

귀하는 주중/주말 근무 일수를 모두 '0'일로 입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무 일수를 잘못 입력함 ⇨ Go D03-9
- ② 취업/학업 상태를 잘못 입력함 ⇨ Go D03-1
- ③ 휴직/재직 상태를 잘못 입력함 ⇨ Go D03-2

D03-9-2.

상용직 근로자인 귀하는 주당 총 '40시간 미만' 근무하신다고 입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네, 상용직이며 주당 총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 Go D03-10
- ② 상용직 아님 ⇨ Go D03-8
- ③ 근무시간 잘못 입력 ⇨ Go D03-9

Mt20jce25_r1

생성 Mt20jce25

총 근무시간(주당 ()시간)

[모-육아지원제도/ 일가정 양립제도] D03-10.

- 귀하가 지난 1년간 다음의 항목 중 이용한 지원 제도/방식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출산휴가 ② 육아휴직 ③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⑤ 가족돌봄휴직 ⑥ 모두 이용 안함

[모-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D03-11.
Mt20jce11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귀하의 일과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D04-1.		일과 가정에 관여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다음 각 문항에서 본인과 가족과 느끼는 느낌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1)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복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처리된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Mt20wfb01~14 Mt20wfb15~26					

번호		문항 내용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생성	Mt20wfb_fg	“모” 일과 가정: 이점					
생성	Mt20wfb_fs	“모” 일과 가정: 갈등					
생성	Mt20wfb_pg	“모” 일과 양육: 이점					
생성	Mt20wfb_ps	“모” 일과 양육: 갈등					
전환		다음은 귀댁에 함께 살지 않는 친, 외가 식구, 친구, 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내용						
[사회적 지원정도] D05-1.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진치, 감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서로 집안 길흉사에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녀양육 또는 돌봄 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하에게 앞 문항에서와 같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회적 지원 인원] D05-2.	Mt20scs13 a~d	구분	1) ○○(이)의 친가 식구	2) ○○(이)의 외가 식구	3) 응답자의 친구 및 동료	4) 응답자의 이웃		
		도움을 주는 사람 수	(Mt20scs13a)명	(Mt20scs13b)명	(Mt20scs13c)명	(Mt20scs13d)명		
		귀하는 이전 문항에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시간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음 ⇨ Go D05-2						

번호	문항 내용
Mt20scs13_r1	②아니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음 ⇨ Go D05-1
D05-2-2.	귀하는 이전 문항에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공유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음 ⇨ Go D05-2 ②아니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음 ⇨ Go D05-1
Mt20scs13_r2	②아니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음 ⇨ Go D05-1
생성 Mt20scs_t	“모” 사회적지지: 도구적 지지
생성 Mt20scs_s	“모” 사회적지지: 사교적 지지
생성 Mt20scs_j	“모” 사회적지지: 정보적 지지
생성 Mt20scs_e	“모” 사회적지지: 정서적 지지
생성 Mt20scs13	“모” 사회적 지지인 수()명
전환	다음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진학여부] D06-1.	○○(이)는 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음 ⇨ Go D06-4 ② 아니오, 다니고 있지 않음
Ch20sci01	② 아니오, 다니고 있지 않음
[미취학사유] D06-2.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Ch20chg31	
[대체이용기관] D06-3.	○○(이)가 초등학교 대신에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①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③ 학원 ④ 홈스쿨링 ⑤ 기타(Ch20chg15) ⇨ Go D06-11
Ch20chg08, 15	
D06-4.	○○(이)의 학교생활을 알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번호	문항 내용
D20int20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합리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조사를 부탁드리도록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동의하실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선생님께서서 편하신 시간에 약 10분 정도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네, 동의함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음 ⇨ Go D06-7
D06-5. D20int19	○○(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이름과 학급을 응답해 주세요. (D20int19a) 초등학교 (D20int19b) 학년 (D20int19c)반
D06-6. D20int21~23	○○(이) 담임 선생님 성함은 무엇입니까? 1) 담임 선생님 성함: (D20int21)
[전학 여부] D06-7. Ch20chg32	○○(이)는 지난 조사 이후 전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학한 적 없음 ② 전학한 적 있음
D06-7-1. Ch20chg32_r1	앞 문항에서 ○○(이)의 학교 명칭이 바뀌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① 전학 여부를 잘못 응답함 ⇨ Go D06-7 ② 아니오, 학교 이름을 잘못 응답함(학교명:) ③ 네, 전학 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자체의 이름이 바뀜
D06-8. D20scm01~02	○○(이)가 다니는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국립학교 ② 공립학교 ③ 사립학교 ④ 국제(외국인)학교 ⑤ 대안학교 ⑥ 기타(D20scm02)
[결석 여부] D06-9. Ch20sc112	○○(이)는 지난 학기 동안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 없음 ② 사고 및 질병으로 결석한 적 있음 ③ 사고 및 질병 외 다른 이유로 결석한 적 있음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수] D06-11. Ch20psa42	귀하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의 친구는 몇 명입니까? ()명

번호		문항 내용																																																					
D06-11-1. Ch20psa42_r1	<p>귀하는 ○○(이) 친구 이름을 한명도 모른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아니오, 잘못 응답함 ⇨ Go D06-11 ② 네, ○○(이) 친구 이름을 한명도 모름 ⇨ Go D06-13</p>																																																						
[기상 및 취침시간 /수면시간] D06-13.	<p>○○(이)는 평소 학기 중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30분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p>																																																						
Ch20sp22 Ch20sp23	<p>1) 주중 (Ch20sp22aa)시 (Ch20sp22ab)분에 잠들어 ~ (Ch20sp23aa)시 (Ch20sp23ab)분에 일어나 2) 주말 (Ch20sp22ba)시 (Ch20sp22bb)분에 잠들어 ~ (Ch20sp23ba)시 (Ch20sp23bb)분에 일어나</p>	<p>▶ 주중, 1일 수면시간 (Ch20sp24a) 시간 ▶ 주말, 1일 수면시간 (Ch20sp24b) 시간</p>																																																					
D06-13-1. Ch20sp22_r1	<p>○○(이)가 8시 이후에 일어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네, 방학 중이라 늦게 일어나니까. ⇨ Go D06-13 ② 네, 8시 이후에 일어나니까(이유:). ③ 아니오, 기상 시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 Go D06-13</p>																																																						
[주중 일과활동시간] D06-14.	<p>○○(이)의 학기 중 가장 일상적인 주중 하루를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p>																																																						
Ch20sp24a Ch20dsc10a Ch20dsc01a Ch20dsc02a Ch20dsc03a Ch20dsc21a Ch20dsc04a Ch20dsc05a Ch20dsc22a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학 중에 하는 조사일 경우, 학기 중 일상적 하루를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간 환산 예: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 <th>활동인항</th> <th>30분</th> <th>1시간</th> <th>1시간30분</th> <th>2시간</th> <th>2시간30분</th> <th>3시간</th> <th>3시간30분</th> <th>4시간</th> <th>4시간30분</th> <th>5시간</th> <th>5시간30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td> <td>0.0</td> <td>0.5</td> <td>1.0</td> <td>1.5</td> <td>2.0</td> <td>2.5</td> <td>3.0</td> <td>3.5</td> <td>4.0</td> <td>4.5</td> <td>5.0</td> <td>5.5</td> </tr> <tr> <td>시간</td> <td>6시간</td> <td>6시간30분</td> <td>7시간</td> <td>7시간30분</td> <td>8시간</td> <td>8시간30분</td> <td>9시간</td> <td>9시간30분</td> <td>10시간</td> <td>10시간30분</td> <td>11시간</td> <td>11시간30분</td> </tr> <tr> <td>응답</td> <td>6.0</td> <td>6.5</td> <td>7.0</td> <td>7.5</td> <td>8.0</td> <td>8.5</td> <td>9.0</td> <td>9.5</td> <td>10.0</td> <td>10.5</td> <td>11.0</td> <td>11.5</td> </tr> </tbody> </table>	시간	활동인항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시간	활동인항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번호		문항 내용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생활필수행동	1) 수면시간(법)	(Ch20slp24a)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Ch20dsc10a)시간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교내 방과후 교실 포함)	(Ch20dsc01a)시간	
	학습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시간 (학원, 개인/그룹 지도 및 과외, 학습지 지도, 문화센터,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Ch20dsc02a)시간
		5) 숙제, 학습지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	(Ch20dsc03a)시간
	여가 및 교제	6) 인터넷 수업 등 통신 교육	(Ch20dsc21a)시간
		7) 책 읽는 시간	(Ch20dsc04a)시간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Ch20dsc05a)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Ch20dsc22a)시간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Ch20dsc23a)시간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Ch20dsc24a)시간
		12)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등 사교 활동(대면교제, SNS 카카오톡 등 통신기기 이용 교제 등)	(Ch20dsc25a)시간
		13) 애원동물 돌보기	(Ch20dsc26a)시간
		14) 종교 활동	(Ch20dsc27a)시간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돌기	(Ch20dsc28a)시간
		16) 이동 시간	(Ch20dsc29a)시간
	17) 기타 시간	(Ch20dsc11a)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24시간	

Ch20dsc23a
Ch20dsc24a
Ch20dsc25a
Ch20dsc26a
Ch20dsc27a
Ch20dsc28a
Ch20dsc29a
Ch20dsc11a

번호

[주말-일과활동시간]

D06- 15.

문항 내용

○○(이)의 **학기 중 가장 일상적인 주말 하루를**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방학 중에 하는 조사일 경우, 학기 중 일상적 하루를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시간 환산 예: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인항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생활필수행동	1) 수면시간(밤)	(Ch20slp24b)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Ch20dsc10b)시간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교내 방과후 교실 포함)	(Ch20dsc01b)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시간 (학원, 개인/그룹 지도 및 과외, 학습지 지도, 문화센터, 공공기관, 지역 아동센터 등)	(Ch20dsc02b)시간
	5) 숙제, 학습지 등 혼자 공부하는 시간	(Ch20dsc03b)시간
	6) 인터넷 수업 등 통신 교육	(Ch20dsc21b)시간
	7) 책 읽는 시간	(Ch20dsc04b)시간
여가 및 교제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Ch20dsc05b)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Ch20dsc22b)시간

Ch20slp24b
Ch20dsc10b
Ch20dsc01b
Ch20dsc02b
Ch20dsc03b
Ch20dsc21b
Ch20dsc04b
Ch20dsc05b
Ch20dsc22b
Ch20dsc23b
Ch20dsc24b
Ch20dsc25b
Ch20dsc26b
Ch20dsc27b
Ch20dsc28b
Ch20dsc29b
Ch20dsc11b

번호		문항 내용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Ch20dsc23b)시간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Ch20dsc24b)시간
		12)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등 사고 활동(대면교제, SNS 카키오톡 등 통신기기 이용 교제 등)	(Ch20dsc25b)시간
		13) 애완동물 돌보기	(Ch20dsc26b)시간
		14) 종교 활동	(Ch20dsc27b)시간
가정관리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돌기	(Ch20dsc28b)시간
기타		16) 이동 시간	(Ch20dsc29b)시간
		17) 기타 시간	(Ch20dsc11b)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24시간
<p>생성</p> <p>..... "이동" (항목 명) 주중-주말 시간 편차 [총 ()시간]</p> <p>Ch20slp24c</p> <p>Ch20dsc01c~11c</p> <p>[가족과의 식사횟수</p> <p>D06-16.</p> <p>..... Ch20enn01</p> <p>[휴대폰 소유 여부</p> <p>D06-18.</p> <p>..... Ch20mid12</p>			
		○○(이)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까?(외식 포함)	
		① 거의 안함 ② 주 1~2회 ③ 주 3~5회 ④ 주 6~7회 ⑤ 주 8회 이상	
		○○(이)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번호		문항 내용	
[미디어 이용시간] D06-19.	○○(이)는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에 1일 평균 몇 시간 사용합니까?	구분	① 이용 시간
Ch20mid15a-e Ch20mid17	1) 학습 2) 정보 검색 3) 게임 4) 엔터테인먼트(음악 감상, 동영상 감상 등) 5)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1일 평균 (Ch20mid17)시간
D06-19-1.	○○(이)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아니오, 잘못 응답함 ⇨ Go D06-19 ② 네, ○○(이)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 Go D06-21		
Ch20mid17_r1			
D06-19-2.	○○(이)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아니오, 잘못 응답함 ⇨ Go D06-19 ② 네, ○○(이)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사용함 ⇨ Go D06-20		
Ch20mid17_r2			
[미디어 이용정도] D06-20.	○○(이)가 하루 평균 (Ch20mid17) 시간 이용하는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에 각각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구분	① 전혀 사용 안함 / ② 가끔 사용함 ③ 자주 사용함 / ④ 매일 사용함
	1) 학습		상동
	2) 정보 검색		상동
	3) 게임		상동
	4) 엔터테인먼트(음악 감상, 동영상 감상 등)		상동
	5)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상동

다음의 문장을 읽고 자녀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PC·스마트폰은 게임하기, SNS 보내기, 동영상 보기, 인터넷 하기 등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항내용	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2) 평소와는 달리, PC·스마트폰을 할 때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3) PC·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적으로 변했다.	①	②	③	④
4)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5)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6) PC·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①	②	③	④
7)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8)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9) PC·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10) 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PC·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13)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미디어중독]

번호		문항 내용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5) PC·스마트폰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이)가 지난 1년간 다음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Ch20mid15a~e Ch20mid17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 달은 4주 기준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체험활동: 과학관, 천체관, 역사관, 체험관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술감상활동: 미술관,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				
Ch20dsc12a~h Ch20dsc13a~h		구분 1) 장보기 및 쇼핑 2) 친인척 방문 3) 당일 여행 및 나들이 4) 1박이상의 국내 여행(가족 또는 단체) 5) 해외 여행 및 연수 6)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활동, 견학 7) 종교활동(예배·예불/미사 참석, 캠프 등) 8) 봉사활동 9) 동아리활동(합창단, 스키우트 등)	① 참여인함	② 1년에 ()회	③ 한 달에 ()회	④ 일주일에 ()회
			Ch20dsc12a	Ch20dsc13a		
			Ch20dsc12b	Ch20dsc13b		
			Ch20dsc12c	Ch20dsc13c		
			Ch20dsc12d	Ch20dsc13d		
			Ch20dsc30d	Ch20dsc31d		
			Ch20dsc12e	Ch20dsc13e		
			Ch20dsc12f	Ch20dsc13f		
			Ch20dsc12g	Ch20dsc13g		
			Ch20dsc12h	Ch20dsc13h		

번호		문항 내용	
생성 Ch20dsc14a-h		“이동” (항목 명) 참여 횟수[1년간 대략 ()회]	
[취미-악기연주] D06-23		○○이는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가 있습니까? ① 있다 ⇨ GO D06-24 ② 없다 ⇨ GO D06-25	
Ch20hob01		○○이가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모두 선택) ① 피아노 ② 바이올린 ③ 첼로 ④ 우쿨렐레 ⑤ 클라리넷 ⑥ 플루트 ⑦ 오카리나 ⑧ 드럼 ⑨ 기타금 ⑩ 기타 (기입: Ch20hob03)	
[취미-스포츠경험] D06-25		○○이는 현재 즐겨 하는 운동이 있나요? ① 있다 ⇨ GO D06-26 ② 없다 ⇨ GO D06-27	
Ch20hob04		○○이는 어떤 운동을 즐겨 하나요? (모두 선택) ① 축구 ② 농구 ③ 야구 ④ 탁구 ⑤ 배구 ⑥ 테니스 ⑦ 배드민턴 ⑧ 골프 ⑨ 수영 ⑩ 스케이팅 ⑪ 스키 ⑫ 체조(기계체조, 리듬체조 등) ⑬ 무용(발레, 고전무용, 방송댄스 등) ⑭ 태권도 ⑮ 기타(기입: Ch20hob06)	
D06-26.			
Ch20hob05~06			
[실내외운동정도] D06-27.		[보기]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배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 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등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Ch20hob07		○○이가 지난 7일 동안 실내에서 한 번에 [보기]와 같은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이상	
D06-28.		[보기]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배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등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Ch20hob08		○○이가 지난 7일 동안 실외에서 한 번에 [보기]와 같은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이상	

번호

문항 내용

다음은 학교에 대한 가족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D06-29.

다음은 OO(이)의 학교와 가족 참여에 관련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활동을 수행하는 빈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내용	드물다	기름	자주	항상 그렇다
1) 자녀의 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2)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자녀를 도서관에 데리고 간다.	①	②	③	④
4) 자녀가 규칙적인 기상/취침 시간을 지킴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5)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역 내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음악회)에 데리고 간다.	①	②	③	④
6) 자녀를 위해 집에 학습 자료를 구비해둔다.	①	②	③	④
7) 자녀가 집에서 지켜야 하는 명확한 규칙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자녀에게 학교생활이 어렵는지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9) 자녀가 해야 하는 집안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자녀의 숙제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1)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12) 자녀의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학부모들과 학교 회의와 행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4) 자녀의 학교 학부모들이 서로 지원하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5)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사-학부모 상담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16) 반의 다른 가족들과 학교 밖에서 만남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17) 학교에서 주관하는 운동회 등 가족 참여 행사에 참가한다.	①	②	③	④

Ch20par01~17

번호		문항 내용	
학생 Ch20par18	가족참여(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for Elementary): Home-Based Learning		
학생 Ch20par19	가족참여(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for Elementary): School-Based Involvement		
학생 Ch20par20	가족참여(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for Elementary) 총점		
진행	다음은 ○○(이)의 돌봄 및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돌봄유형/시간] D07-1.	○○(이)의 돌봄 및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장소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돌봄이 아닌 교육이 이용목적인 사람이나 장소는 해당되지 않음.		
Ch20chg37a-f Ch20chg38a-f	구분	1) 학기 중	2) 방학 중
	(1) 조부모 및 친인척	하루 평균 ()시간 이용	하루 평균 ()시간 이용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하루 평균 ()시간 이용	하루 평균 ()시간 이용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하루 평균 ()시간 이용	하루 평균 ()시간 이용
	(4)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하루 평균 ()시간 이용	하루 평균 ()시간 이용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하루 평균 ()시간 이용	하루 평균 ()시간 이용
	(6) 기타	하루 평균 ()시간 이용	하루 평균 ()시간 이용
학생 Ch20chg31	"아동" 돌봄 및 양육 유형(학기 중)		
학생 Ch20chg31a-f	"아동" 돌봄 및 양육 유형(학기 중): 항목 명		
학생 Ch20chg33	"아동" 돌봄 및 양육 유형(방학 중)		
학생 Ch20chg33a-f	"아동" 돌봄 및 양육 유형(방학 중): 항목 명		

문항 내용		
번호		
[돌봄비동] D07-2.	○○(이)는 다음의 돌봄 및 양육을 일주일에 며칠 이용합니까?	
	구분	1) 학기 중
	(1) 조부모 및 친인척	1주일에 ()일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1주일에 ()일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1주일에 ()일
	(4)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1주일에 ()일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1주일에 ()일
	(6) 기타	1주일에 ()일
Ch20chg35a-f Ch20chg36a-f		
	구분	2) 방학 중
	(1) 조부모 및 친인척	1주일에 ()일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1주일에 ()일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1주일에 ()일
	(4)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1주일에 ()일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1주일에 ()일
	(6) 기타	1주일에 ()일
Ch20chg43a-f	"아동" 돌봄 및 양육 유형 시간(학기 중)[1주일 평균 ()시간]: 항목 명	
Ch20chg44a-f	"아동" 돌봄 및 양육 유형 시간(방학 중)[1주일 평균 ()시간]: 항목 명	
Ch20chg43	"아동" 돌봄 및 양육 유형 시간(학기 중)[1주일 평균 ()시간]	
Ch20chg44	"아동" 돌봄 및 양육 유형 시간(방학 중)[1주일 평균 ()시간]	
[돌봄비용] D07-3.	○○(이)가 이용하는 다음의 돌봄 및 양육의 월 평균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구분	1) 학기 중
	(1) 조부모 및 친인척	▶ 총 (Ch20chg39)만원 지출 월 평균 ()만원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 총 (Ch20chg40)만원 지출 월 평균 ()만원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월 평균 ()만원
	(4)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월 평균 ()만원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월 평균 ()만원
	(6) 기타	월 평균 ()만원
Ch20chg39a-f Ch20chg40a-f		
	구분	2) 방학 중
	(1) 조부모 및 친인척	▶ 총 (Ch20chg39)만원 지출 월 평균 ()만원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 총 (Ch20chg40)만원 지출 월 평균 ()만원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월 평균 ()만원
	(4)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월 평균 ()만원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월 평균 ()만원
	(6) 기타	월 평균 ()만원

번호		문항 내용					
[돌봄만족도] D07-4.	○○(이)가 이용하는 다음의 돌봄 및 양육의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1) 학기 중	2) 방학 중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상동	상동		
Ch20chg41a~f Ch20chg42a~f	(1) 조부모 및 친인척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상동	상동		
	(2)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상동	상동	상동	상동		
	(6) 기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하루중 성인없이 있는 시간] D07-5.	○○(이)가 하루 중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몇 시간입니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						
Ch20dsc15	다음의 항목에 대해 귀하는 어떠하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부모감독] D07-6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Mt20crs52~55	1) ○○(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⑨

번호

문항 내용

[부모 학교행사
참여 여부]
D07-7.

다음의 ○○(이)의 학교 행사에 부모님은 **올해** 참여하십니까?

구분	참여 여부
1) 행사(운동회, 발표회 등)	① 참여한 적 없음 ② ○○(이)의 어머니만 참여 ③ ○○(이)의 아버지만 참여 ④ ○○(이)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참여 ⑤ 해당 없음(행사 미개최)
2) 자원봉사(녹색어머니, 급식 검수, 어머니플러스회/안전동지회, 야외활동, 수업보조, 학부모 재능 기부, 청소 등)	상동
3) 학부모 공개 수업	상동
4)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상동
5) 담임상담	상동
6) 학교운영위원회	상동
7) 학부모(총)회	상동

Mt20ppe30a~f

생성

“부모” 학교 행사 참여 여부

Mt20ppe30

전환

다음은 ○○(이)가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내용	
D08-1	구현 전 화면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예시를 잘 살펴봐 주세요.	
		구분	종류
		1) 미술	그림, 공작, 공예, 도예, 서예, 오미오미, 종이접기, 클레이, POP 등
		2) 음악	가야금, 국악, 노래교실, 바이올린, 오르프, 우쿨렐레, 시물놀이, 시조창, 성악, 중창 등
		3) 체육	골프, 농구, 탁구, 발레, 배드민턴, 수영, 스키에트, 승마, 야구, 줄넘기, 축구, 태권도, 풋살, 인라인 등
		4) 과학	건축, 과학, 과학실험, 로봇, 항공 등
		5) 수학	도형, 숫자, 산수, 주산 등
		6) 국어	논술, 동화구연, 응변, 스피치, 한글 등
		7) 컴퓨터	
		8) 한자	
		9) 영어	
		10) 기타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 기타	여러 과목, 통합 교과, 진과목(재능과자; 다높이, 멀티존 등), 뇌교육, 비독, 루크, 레고, 보드게임, 체스, 전통놀이, 컴쌓기, 미술, 요리, 세계문화, 연극, 아나운서 등
[사교육 이용종류] D08-1.		○○(이)가 현재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학 중에 조사하는 경우, 학기 중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함.	
Ch20cht23,24		구분	이용 안함
Ch20cht23a~n		1) 미술	①
Ch20cht26a~n		2) 음악	②
Ch20cht27a~n		3) 체육	③
Ch20cht28a~n		4) 과학	④
Ch20cht29a~n		5) 수학	⑤
		6) 국어	⑥
		7) 컴퓨터	⑦
		8) 한자	⑧
		9) 영어	
		10) 기타 외국어	
		11) 기타	

번호		문항 내용									
Ch20cht30a~n Ch20cht31a~n	2) 음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체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과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컴퓨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한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기타 외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기타1(Ch20cht24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기타2(Ch20cht24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3) 기타3(Ch20cht24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생성	“이동”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Ch20cht32	
생성	“이동” 사교육 여부
Ch20cht32_r	

번호

문항 내용

[사교육 이용만족도]
D08-3.

○○(이)가 현재 이용하는 아래의 교육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이용 만족도
1) ○○(이)의 초등학교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2) 학원	상동
3)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상동
4) 학습지(방문교사)	상동
5) 인터넷/화상 강의	상동
6) 교내 방과후학교	상동
7)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시설기관	상동
8)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상동

Ch20cht34a~h

[사교육비용]
D08-4.

○○(이)가 현재 이용하는 아래의 교육 기관 및 서비스의 월평균 교육비용은 얼마입니까?

교육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함.

금액	1천원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	9천원	1만원	...	1만 5천원	...
응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1.5	...

Ch20cht35a~h

▶ 총 월평균 교육 비용(Ch20cht35)원

구분	월 평균 교육 비용
1) ○○(이)의 초등학교	월 평균 총 (Ch20cht35a)만원
2) 학원	월 평균 총 (Ch20cht35b)만원

번호		문항 내용	
3)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4) 학습지(방문교사) 5) 인터넷/화상 강의 6) 교내 방과후학교 7)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 8)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월 평균 총 (Ch20cht35c)만원	월 평균 총 (Ch20cht35d)만원	월 평균 총 (Ch20cht35e)만원
	월 평균 총 (Ch20cht35f)만원	월 평균 총 (Ch20cht35g)만원	월 평균 총 (Ch20cht35h)만원
	"이동" 사교육 금액[월 평균 총 ()만원]		
	○○(이)가 현재 이용하는 아래의 교육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비용 부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구분	비용 부담 정도	
	1) ○○(이)의 초등학교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2) 학원	상동	
	3)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상동	
4) 학습지(방문교사)	상동		
5) 인터넷/화상 강의	상동		
6) 교내 방과후학교	상동		
7)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	상동		
8)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	상동		
Ch20cht36a~h			

생성
Ch20cht35_r

[사교육비용 부담정도]
D08-5.

Ch20cht36a~h

번호		문항 내용	
<p>전환</p> <p>다음은 ○○(이)의 신체 발달 및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p>			
[아동-주관적 건강상태 D09-1.	Ch20hit49	○○(이)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아동-응급실] D09-2.	Ch20hit21	○○(이)는 지난 1년 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치료 경험 있음(이유: Ch20hit50) ② 치료 경험 없음	
[아동-임원치료] D09-3.	Ch20hit08	○○(이)는 지난 1년 간 임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임원한 적 있음(이유: Ch20hit23) ② 임원한 적 없음	
[아동-장애] D09-4.		<p>지난 조사 이후 ○○(이)는 아래의 장애를 판정받았습니까? 장애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준 4~6등급)</p>	
Ch20hit28 (판정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 정도
Ch20hit29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1) 지체장애 <input type="checkbox"/> 2)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3) 시각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9) 간장애 <input type="checkbox"/> 10) 호흡기장애 <input type="checkbox"/> 11) 장류, 요루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번호		문항 내용		
[아동-만성질환] D09-5. Ch20hit31 Ch20hit33 Ch20hit34 a.c.d.f-h	<input type="checkbox"/> 4) 청각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12) 간질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5) 언어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13) 지적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6) 인면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14) 정신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7) 신장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15) 지폐성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8) 심장장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16) 기타 ()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16) 없음 ⇨ Go D09-5	
○○(이)가 진단 받은 다음의 질환의 병원 치료 여부 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질환 유형	1) 최초 진단일	2) 병원 치료 여부	
	<input type="checkbox"/> 1) 선천성 심장질환	② 진단 받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간질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3) 당뇨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4)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5) 만성 중이염	상동	상동	

번호

문항 내용

<input type="checkbox"/> 6) 만성 요로감염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7) 천식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8) 만성 비염(알레르기성 포함)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9) 아토피 피부염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10) 식품알레르기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11) 알레르기 결막염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12) 기타 질환 ()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13) 없음 ⇨ Go D09-6		

[아동-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진단 여부]
D09-6.

○○(이)가 진단 받은 다음의 질환의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질환 유형	1) 최초 진단일	2)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
<input type="checkbox"/> 1) 의사소통 장애 (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 더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② 진단 받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자폐 스펙트럼 장애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4) 특정 학습장애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5) 운동장애(틱장애, 정형적 동작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6) 파과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적대적 반항 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방화증, 도벽증)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7) 배설장애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8) 급식 및 식사장애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9) 불안 장애(몰리불안장애, 선택적 항구증)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장애(Ch20hit37)	상동	상동
<input type="checkbox"/> 11) 없음 ⇨ Go D09-7		

Ch20hit32
Ch20hit35
Ch20hit36
a~j

번호		문항 내용		
[이동-시력보정도구] D09-7	○○(이)는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합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예, 안경 사용함(사용 시작 시기: 만 Ch20hit46 세) ② 예, 시력교정도구 사용함(사용 시작 시기: 만 Ch20hit47세) ③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Ch20hit45-47				
[이동-2차성징] D-09-10	○○(이)는 몽정(남아) 또는 초경(여아) 등 2차 성징이 나타났습니까? ① 예 ⇨ GO D-09-11 ② 아니오 ⇨ GO D10-1.			
Ch20hit39				
D-09-11	○○(이)가 처음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작 년도 (Ch20hit40)년			
Ch20hit40				
[식생활진단]	○○(이)의 식생활을 간단히 평가해 볼 수 있는 식생활진단표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	문 항 내 용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다
	1) 우유나 유제품 (요거트, 요플레 등)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	①	②	③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①	②	③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	①	②	③
	4) 과일 (1개)이나 과일주스 (1잔)를 매일 먹는다.	①	②	③
	5)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6)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 (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7)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①	②	③
	8)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①	②	③
	9)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10)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귀 닥의 경제적 특성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 소득] D10-1.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 으로 응답해주세요.	
Hu20ses06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구소득: 근로, 금융, 사업, 임대, 이전,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 평균 실 수령 가구소득 (Hu20ses06) 만원	
생성	예년 대비 소득 증가율()%	
Hu20ses06p		
D10-1-1.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가구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Hu20ses06_r1	① 맞음 ⇨ Go D10-3 ② 잘못 입력함 ⇨ Go D10-1	
D10-1-2.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Hu20ses06_r2	① 맞음 ⇨ Go D10-2 ② 잘못 입력함 ⇨ Go D10-1	
[어머니 소득] D10-2.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 으로 응답해주세요. 월 평균 어머니의 실 수령 근로소득 ()만원	
Mt20ses08		
D10-2-1.	○○(이) 어머니의 월 평균 실 수령 근로소득을 0만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Mt20ses08_r1	① 맞음(이유:) ⇨ Go D10-3 ② 잘못 입력함 ⇨ Go D10-2	
D10-2-2.	○○(이) 어머니의 월 평균 실 수령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Mt20ses08_r2	① 맞음 ⇨ Go D10-3 ② 잘못 입력함 ⇨ Go D10-2	
D10-2-3.	○○(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① 네,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임 ⇨ Go D10-3 ② 아니요, 가구 총 소득을 잘못 입력함 ⇨ Go D10-1 ③ 아니요, 어머니의 근로소득을 잘못 입력함 ⇨ Go D10-2	
Mt20ses08_r3		
생성	예년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 증가율()%	
Mt20ses08p		

번호		문항 내용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D10-3.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총 지출 비용 (Hu20ses1917) 만원 ▶ 자녀에 대한 총 지출 비용 (Hu20ses1820) 만원
		비소비성 지출: 각종 세금, 적금, 보험, 타 기구원을 위한 용돈, 월 상환금 등	
	Hu20ses1917	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Hu20ses19) 만원
	Hu20ses1820	2) 이 중 자녀(들)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비소비성 지출 (Hu20ses20)만원
	Hu20ses19	소비성 지출: 식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용돈, 기타 잡비 등	
	Hu20ses20	3)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Hu20ses17) 만원
	Hu20ses17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소비성 지출 (Hu20ses18) 만원
	Hu20ses18	4) 이 중 자녀(들)에 대한 소비성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의 월 평균 교육비용: (Ch20cht35) 만원 ▶ ○○(0)의 월 평균 돌봄/양육비용: (Ch20chg39 or 40)만원
D10-3-1.	Hu20ses1917_r1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금액이 모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10-4 ② 잘못 입력함 ⇨ Go D10-3	
D10-3-2.	Hu20ses1917_r2	가구 총 소비성 지출 금액이 모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10-4 ② 잘못 입력함 ⇨ Go D10-3	
D10-3-3.	Hu20ses1917_r3	귀 닥은 한 달 평균 12만원 미만으로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비용(소비성 지출)을 쓴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10-4 ② 잘못 입력함 ⇨ Go D10-3	
D10-3-4.	Hu20ses1917_r4	자녀를 위해 교육비용과 돌봄/양육비용 외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① 맞음 ⇨ Go D10-4 ② 잘못 입력함 ⇨ Go D10-3	
D10-3-5.	Hu20ses1917_r5	자녀(들)에 대한 소비성 지출이 모두 ○○(0)의 교육비용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10-4 ② 잘못 입력함 ⇨ Go D10-3	

문항 내용	
번호	
D10-3-6. Hu20ses1917_r6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10-4 ② 잘못 입력함 ⇨ Go D10-3
D10-3-7. Hu20ses1917_r7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Go D10-4 ② 잘못 입력함 ⇨ Go D10-3
D10-3-8. Hu20ses1917_r8	귀 닥의 총 지출이 가구 총 소득보다 크게 응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을 잘못 입력 ⇨ Go D10-3 ② 소득을 잘못 입력 ⇨ Go D10-1 ③ 마이너스 통장, 카드, 대출 등을 이용 ⇨ Go D10-4 ④ 친정 혹은 시댁의 원조 ⇨ Go D10-4 ⑤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을 씀 ⇨ Go D10-4 ⑥ 기타(Hu20ses1917_r9) ⇨ Go D10-4
생성 Hu20ses1917p	예년 대비 가구 지출 증가율()%
생성 Hu20ses1820p	예년 대비 자녀를 위한 가구 지출 증가율()%
생성 Hu20ses06v1	가구 소득 대비 가구 총 지출
생성 Hu20ses1917v1	가구 총 지출 대비 자녀에 대한 지출
생성 Hu20ses1917v2	가구 총 지출 대비 ○○(이)의 교육비용
생성 Hu20ses1917v3	가구 총 지출 대비 ○○(이)의 학기 중 돌봄 비용
생성 Hu20ses1917v4	가구 총 지출 대비 ○○(이)의 방학 중 돌봄 비용

번호	문항 내용
생성 Hu20ses1820v1	가구 총 자녀를 위한 지출 대비 ○○(이)의 교육비용
생성 Hu20ses1820v2	가구 총 자녀를 위한 지출 대비 ○○(이)의 학기 중 돌봄 비용
생성 Hu20ses1820v3	가구 총 자녀를 위한 지출 대비 ○○(이)의 방학 중 돌봄 비용
[용돈지급 여부] D10-4.	귀하는 ○○(이)에게 용돈을 줍니까? ① 주지 않음 ⇨ Go D10-6 ② 필요할 때마다 줌 ③ 정기적으로 줌
Hu20ses33 [용돈지급액] D10-5.	○○(이)가 일주일간 받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올림 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400원은 0원, 500원은 1,000원입니다.
Hu20ses34	일주일에 ()천원
[용돈사용처] D10-5-1	○○(이)는 용돈을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Hu20ses35 [부동산] D10-6.	① 학습 자료(학용품, 준비물 등) ② 자축 ③ 간식 및 군것질 하기 ④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 활동 ⑤ 기타
Hu20ses09 [금융자산] D10-7.	귀댁의 소유 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은 얼마입니까? 현 시가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가 (Hu20ses09)만원
Hu20ses12 [부채여부] D10-8.	귀댁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전월세 임대료 등)은 얼마입니까? 총 (Hu20ses12)만원
Hu20ses31	귀댁은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습니까? ① 부채 있음 ② 부채 없음 ⇨ Go D10-10

번호

[월상환액]
D10~9.

Hu20ses15~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구분]
D10~10.

Hu20sss01

[생활비 지원]
D10~11.

Hu20sss30
Hu20sss30a~d

[주관직
사회경제적지위]
D10~12
구현 전
회면

문항 내용

귀 닥의 값이야 할 부채(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와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은 얼마입니까?

구분	금액
1) 부채	총 (Hu20ses15) 만원
2) 월 상환금	총 (Hu20ses16) 만원

현재 귀 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지난 1년간 귀 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부보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기타 보조금(기초노령연금, 통신비 감면, 바우처, 희망키움통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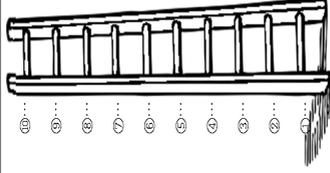
- ① 정부(주민센터)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
- ②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에게서 받은 현금과 물품
- ③ 복지관, 종교·사회단체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학교장학금 포함)
- ④ 화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자녀학자금 보조 포함)
- ⑤ 없음

다음은 주관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문항 내용	
D10-12. Hu20ses35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D10-13. Hu20ses36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정채수혜여부 여부] D10-14	다음의 정책 중 ○(이)가 올해 이용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족체학습 학부모가 명예교사가 되어 가족동반으로 학교외의 장소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 책임하에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프로그램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견학 및 체험을 하거나, 직업인과 대화를 나누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과 같이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예)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현장견학, 강연 및 대화, 학과체험, 진로캠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피해학생 치료, 전문상담교사 배치, 유관기관 협력 등의 학교 폭력에 관한 지원사항 및 예방교육을 말함 예) Wee 프로젝트(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학교단위에서 영양(교)사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리종사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임 예) 올바른 손씻기 교육 등 개인위생관리 교육, 배식방법 교육, 위생수칙 교육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학생 지원제도 특수 학교(급) 신설 및 증설 확대 제도 및 병원 학교 설치 및 원격 수업 지원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을 말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비 지원제도 보장기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성, 체육, 예술 교육 인성교육 우수 학교 및 시범학교, 일부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

번호

문항 내용

종류	이용 여부
1) 가족 체험학습	① 이용함 ② 이용 안함 ③ 모름
2)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프로그램	상동
3)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상동
4)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상동
5) 장애학생 지원제도	상동
6) 교육비 지원제도	상동
7) 인성·체육·예술 교육	상동

[정책수혜여부
만족도]
D10-15

○○(이)가 지원 받은 내용에 대한 이용 만족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책 항목별 상세 설명은 조사원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종류	이용 만족도
1) 가족 체험학습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2) 진로탐색교육/진로체험프로그램	상동
2) 학교폭력예방정책 교육	상동
3) 학교급식 및 안전관리 교육	상동
4) 장애학생 지원제도	상동
5) 교육비 지원제도	상동
6) 인성·체육·예술 교육	상동

번호		문항 내용		
<p>전환</p> <p>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p>				
<p>귀 닥의 가구 구성원 수 및 OO(이)의 출생순위를 응답해 주세요.</p>				
[가구원수, 구성형태, 출생순위에 D11-2.		<p>구분</p> <p>▶ 총 가구원 수 (Hu20dmg19)명 (Ch20dmg02a) 남 (Ch20dmg02b) 녀 ⇒ 총 (Hu20dmg19_k) 명 (Ch20dmg02) (Hu20dmg19g) 명 (Hu20dmg19c) 명 (Hu20dmg19d) 명 (Hu20dmg19e) 명</p>		
Hu20dmg19				
Hu20dmg02				
Hu20dmg02a~b				
Hu20dmg19a~f				
D11-2-1.		<p>OO(이)의 출생순위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 수 및 출생순위 잘못 응답 ⇨ Go D11-2 ② 순위형제 사망 ③ 순위형제 입양 ④ 재혼으로 인한 형제순위 변동 ⑤ 기타(Ch20dmg23)</p>		
Ch20dmg22				
<p>생장</p> <p>가구 구성 형태</p> <p>Hu20dmg20</p> <p>[구성원 성별, 생년월일, 결혼여부, 합가사유] D11-3.</p>				
Hu20dmg31a~d				
Hu20dmg33a~d				
Hu20dmg35a~d				
		<p>1) 출생년도</p> <p>(Hu20dmg31a)년도 (Hu20dmg31b)년도 (Hu20dmg31c)년도 (Hu20dmg31d)년도</p>	<p>2) 성별</p> <p>① 남아 ② 여아 ① 남아 ② 여아 ① 남아 ② 여아 ① 남아 ② 여아</p>	<p>3) 결혼 여부</p> <p>① 미혼 ② 기혼 ① 미혼 ② 기혼 ① 미혼 ② 기혼 ① 미혼 ② 기혼</p>

번호

문항 내용

D11-4. ○○(이)의 동생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3) 입적 사유
동생 1	(Hu20dmg32a)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2	(Hu20dmg32b)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3	(Hu20dmg32c)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4	(Hu20dmg32d)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Hu20dmg32a~d
Hu20dmg34a~d
Hu20dmg36a~d

D11-4-1. ○○(이) 동생은 다둥이입니까?

- ① 네, 다둥이임 ⇨ Go D12-1
- ② 아니오, 다둥이는 아니고 같은 해에 태어난 동생임 ⇨ Go D12-1
- ③ 아니오, 동생의 출생년도를 잘못 응답함 ⇨ Go D11-4

Hu20dmg32_r1

D11-4-2. 귀하의 유배우-초혼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아니오, 결혼상태를 잘못 응답함 ⇨ Go D11-4-3
- ② ○○(이) 동생의 입적 사유를 잘못 응답함 ⇨ Go D11-4

Mt20dmg03_r1

[모-결혼상태]
D11-4-3.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어떠습니까?

- ① 미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Mt20dmg03_r2

[모-결혼일]
D11-4-4. 귀하의 현재 결혼일은 언제입니까?
()년 ()월

Mt20dmg03_r3

[모-생년월일]
D11-4-5. 귀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년 ()월 ()일

Mt20dmg06_r1

문항 내용																																																																
번호 [애인동물] D11-5	귀 닻에서는 애인동물을 키웁니까? 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키우지 않음 ② 개 ③ 고양이 ④ 기타()																																																															
[개인방] D06-12. Ch20hom60	○○(이)는 개인 방이 있습니까? ☑ 개인 방: 혼자만 사용하는 공부방,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① 예, 개인 방이 있음 ②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전환																																																																
[양육환경 안전성] D12-1. Hu20cmm25-32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응 답해 주십시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40%;">문 항 내 용</th> <th style="width: 10%;">전혀 그렇지 않음</th> <th style="width: 10%;">대체로 그렇지 않음</th> <th style="width: 10%;">보통임</th> <th style="width: 10%;">대체로 그려함</th> <th style="width: 10%;">매우 그려함</th> <th style="width: 10%;">잘 모름</th> </tr> </thead> <tbody> <tr> <td>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3) 유해시설(유해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바로 잡아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r> <td>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r> </tbody> </table>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려함	매우 그려함	잘 모름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1	2	3	4	5	6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3) 유해시설(유해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1	2	3	4	5	6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1	2	3	4	5	6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1	2	3	4	5	6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바로 잡아준다.	1	2	3	4	5	6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1	2	3	4	5	6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1	2	3	4	5	6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려함	매우 그려함	잘 모름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1	2	3	4	5	6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3) 유해시설(유해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1	2	3	4	5	6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1	2	3	4	5	6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1	2	3	4	5	6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바로 잡아준다.	1	2	3	4	5	6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1	2	3	4	5	6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1	2	3	4	5	6																																																										

번호		문항 내용	
번호		양육 환경 적절성	
생성			
		Hu20cmm_s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시월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13) 공공복지시설: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의미함.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수련시설도 포함됨.

[교육의료복지
접근편리성 및 만족도]
D12-2.

종류	거리상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매우 불편함 불편함	매우 불편한 편의	보통임	편리한 편의	매우 편리함	이용 안함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1) 놀이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공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신축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영화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관람 및 체험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잔디광장, 수족관, 동식물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공연시설 (문예회관, 음악회, 연극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Hu20cmm09a
- Hu20cmm09b
- Hu20cmm09c
- Hu20cmm10d
- Hu20cmm10g
- Hu20cmm10c
- Hu20cmm09d
- Hu20cmm10f
- Hu20cmm09e
- Hu20cmm09f
- Hu20cmm21a
- Hu20cmm21b
- Hu20cmm21c
- Hu20cmm22a~c
- Hu20cmm23d.g.c
- Hu20cmm22d
- Hu20cmm23f
- Hu20cmm09e, f
- Hu20cmm24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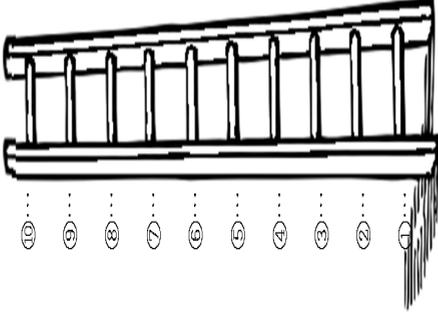
번호		문항 내용											
		종류	거리상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매우 불편함	불편함		편리한 편임	매우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이용 안함	매우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0) 실외 체육시설 (농구장, 축구장 등)	1	2	3	4	5	0	1	2	3	4	5
		11)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	1	2	3	4	5	0	1	2	3	4	5
		12) 교육기관(학원, 대학교 등)	1	2	3	4	5	0	1	2	3	4	5
		13) 공공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1	2	3	4	5	0	1	2	3	4	5
		생성	거리상 접근 편리성: 여가 공간·시설										
	Hu20crmm09	생성	거리상 접근 편리성: 문화시설										
	Hu20crmm10	생성	거리상 접근 편리성: 교육·의료·복지시설										
	Hu20crmm21	생성	이용 만족도: 여가 공간·시설										
	Hu20crmm22	생성	이용 만족도: 문화시설										
	Hu20crmm23	생성	이용 만족도: 교육·의료·복지시설										
	Hu20crmm24	생성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3조 및 제1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SKC 2020 면접조사(아동용)(13차) 질문지

번호	문항 내용
전환 [체중] J01-1	다음은 아동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동의 신체 측정 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 입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년 측정 몸무게: (Ch19hit12 kg) ① 몸무게 미계측 ② 계측 몸무게(kg)
[신장] J01-2 Ch20hit13	현재 키는 몇 cm 입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벽면에 아동의 발, 엉덩이, 머리를 밀착시키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측정해 주세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년 측정 키: (Ch19hit13 cm) ① 키 미계측 ② 계측 키(cm)
[허리둘레] J01-3 Ch20hit25	현재 허리둘레는 몇 cm 입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줄자가 배꼽을 지나 수평으로 재주세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년 측정 허리둘레: (Ch19hit25 cm) ① 허리둘레 미계측 ② 계측 허리둘레(cm)

번호		문항 내용
전환		지금부터는 ○○(이)와 어머니와 분리된 장소에서 각각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사용만족도] J02-2	Ch20dsc31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부족함 ② 충분함 ③ 지나치게 많음
J02-3	Ch20dsc32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부족함 ② 충분함 ③ 지나치게 많음
J02-4	Ch20dsc33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취미, 운동 등)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부족함 ② 충분함 ③ 지나치게 많음
J02-5	Ch20dsc34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부족함 ② 충분함 ③ 지나치게 많음
J02-6	Ch20dsc35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부족함 ② 충분함 ③ 지나치게 많음
J02-7	Ch20dsc36	여가활동 시간(취미, 운동 등)은 충분하다. ① 부족함 ② 충분함 ③ 지나치게 많음
J02-8	Ch20dsc37	숙제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부족함 ② 충분함 ③ 지나치게 많음
J02-9	Ch20dsc38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충분하다. ☐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음식 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등의 가사일 돕기를 의미함 ① 부족함 ② 충분함 ③ 지나치게 많음

문항 내용	
번호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빈도] J02-10 Ch20ses37 [상대적 박탈 지수(가정형편)] J02-11	<p>우리 가족들은 돈 문제로 걱정을 자주 한다. ① 전혀 걱정하지 않음 ② 가끔 걱정함 ③ 자주 걱정함 ④ 항상 걱정함</p> <p>귀 가정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사다리 중에서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못산다, 10: 매우 잘산다)</p> 
Ch20ses38	

번호	문항 내용
[저축권] J02-12	
Ch20sav01	<p>나는 평소엔 저축을 한다.</p> <p>① 예 ⇨ J02-13 ② 아니오 ⇨ J02-15</p>
J02-13	<p>저축은 주로 어떤 돈으로 합니까?</p> <p>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으로 ②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신 돈으로 ③ 집안 일을 돕거나 부모님 심부름·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번 돈으로 ④ 기타(Ch20sav03)</p>
Ch20sav02~03	
J02-14	<p>저축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p> <p>① 저금통에 모은다 ②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한다(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가입) ③ 지갑에 모아둔다 ④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⑤ 기타(Ch20sav05)</p>
Ch20sav04~05	
[카페인음료 섭취] J02-15	<p>최근 1주일 동안 탄산음료(예시: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p> <p>①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② 주 1-2번 ③ 주 2-3번 ④ 주 4-5번 이상</p>
Ch20eat01	
[인스턴트식 섭취] J02-16	<p>최근 1주일 동안 인스턴트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p> <p>①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② 주 1-2번 ③ 주 2-3번 ④ 주 4-5번 이상</p>
Ch20eat02	
[독서량] J02-35	<p>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e-book, 학습 만화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주에 1권을 읽는 경우 '0.5'로 입력해 주세요'</p> <p>① 안 읽음 ② 1주일에 평균 ()권을 읽음</p>
Ch20book01	

번호		문항 내용				
[기사 참여 여부]						
Ch20book01		문항	전혀 하지 않는다	거끔 한다	지주 한다	항상 한다
		1.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1	2	3	4
		2.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밤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1	2	3	4
		3.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1	2	3	4
		4.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1	2	3	4
전환		다음은 본인의 컴퓨터(데스크탑/노트북) 사용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컴퓨터 사용 능력]						
J02-34		나는 필요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삭제/업데이트 할 수 있다.				
Ch20com0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J02-35		나는 컴퓨터에 유선 또는 무선 인터넷을 스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IP 설정은 제외)				
Ch20com0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J02-36		나는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팝업창 차단, 텍스트 크기 설정, 보안 및 시차 홈페이지 설정 등)				
Ch20com0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J02-37		나는 컴퓨터에 다양한 외장기(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스캐너, USB 외장하드 등)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다.				
Ch20com04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J02-38		나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다.				
Ch20com05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내용
J02-39	나는 컴퓨터의 악성코드(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를 검사/치료할 수 있다.
Ch20com06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J02-40	나는 컴퓨터(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문서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Ch20com07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J02-40	나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릴 수 있다.
Ch20com08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전환	다음은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비행] J02-4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Ch20net01	①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②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문제되는 편이다 ⑤ 매우 문제 된다
J02-42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Ch20net02	①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②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문제되는 편이다 ⑤ 매우 문제 된다
J02-43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Ch20net03	①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②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문제되는 편이다 ⑤ 매우 문제 된다
J02-44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Ch20net04	①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②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문제되는 편이다 ⑤ 매우 문제 된다
J02-45	불건전한 정보(폭력적, 성적인 내용, 자살 등)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Ch20net05	①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②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문제되는 편이다 ⑤ 매우 문제 된다
J02-46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Ch20net06	①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②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문제되는 편이다 ⑤ 매우 문제 된다

문항 내용	
번호	
전환	다음은 본인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양육방식- 성취암력] J02-19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1	
J02-20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2	
J02-21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3	
J02-22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4	
J02-23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5	
J02-24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하여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6	
J02-25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7	
J02-26	부모님은 내 공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8	
J02-27	부모님은 "나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Ch20pss09	

번호	문항 내용
J02-28 Ch20pss10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29 Ch20pss11	부모님은 내가 컴퓨터(또는 핸드폰)에 빠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30 Ch20pss1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정해두고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31 Ch20pss13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32 Ch20pss14	부모님은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2-33 Ch20pss15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생성 Ch20pss16	"아동" 성취임력
전환	다음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J02-51 Ch20par1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① 전혀 없음 ②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한달에 한두번 ④일주일에 한두번 ⑤거의 매일

문항 내용	
번호	
J02-52	부모님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
Ch20par2	① 전혀 없음 ② 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 한달에 한두번 ④ 일주일에 한두번 ⑤ 거의 매일
전환	다음 문장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반적 행복감] J03-1	나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Ch20shs06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J03-2	나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Ch20shs07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J03-3	나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Ch20shs08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J03-4	나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Ch20shs09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J03-5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Ch20shs10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J03-6	나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Ch20shs11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생성	
Ch20shs_0	“이동” 전반적 행복감
전환	이제부터는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나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번호		문항 내용			
[집행기능] J03-7	Ch20sel01~1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기름 그린다	자주 그린다
		1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3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①	②	③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9 스스로 일어서 앉아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11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2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 내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①	②	③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14 너무 가칠게 행동한다.	①	②	③
		15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을 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16 글쓰기가 어렵다.	①	②	③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①	②	③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①	②	③		

번호	문항 내용
	20 나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① ② ③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없어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22 내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아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① ② ③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25 잘 참지 못하고 상질을 낸다. ① ② ③
	26 자주 울컥한다. ① ② ③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① ② ③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가 치솟는다. ① ② ③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31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① ② ③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33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① ② ③
	34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 ① ② ③
	35 점심 도시락,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36 잘 잊어버린다. ① ② ③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① ② ③
	38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 ① ② ③
	39 방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40 물건이나 방을 잘 아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① ② ③
생성	"아동" 집행기능

번호	문항 내용
??	
[자이존중감] J03-7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Ch20sfs37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J03-8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Ch20sfs38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J03-9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Ch20sfs39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J03-10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Ch20sfs40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J03-11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Ch20sfs4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생성	
Ch20sfs	"이동" 자이존중감
[삶의 만족도] J03-12	나는 사는 게 즐겁다.
Ch20sfs4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J03-13	나는 걱정거리가 있다.
Ch20sfs4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J03-14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Ch20sfs44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생성	"이동" 삶의 만족도

번호		문항 내용				
Ch20sfs						
[미래에대한인식] J03-20		본인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니까?				
Ch20fut		매우 어둡다 ①	어두운편 ②	보통 ③	밝은편 ④	매우 밝다 ⑤
생성		미래에 대한 인식				
Ch20fut0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신체적 자아상] J03-21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bod01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R)				
J03-22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bod02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				
J03-2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bod03		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J03-24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bod04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J03-25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bod05		“아동” 신체적 자아상				
생성						
Ch20bod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중조절 경험] 000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번호		문항 내용																					
000																							
000		최근 1년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000		①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②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③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④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본 적 없다																					
생성		"아동" 체중조절 경험																					
000																							
전환		지금부터는 공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스트레스] J03-15		나는 학업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Ch20str01		① 그런적 없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3-16		나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Ch20str02		① 그런 적 없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J03-17		나는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Ch20str03		① 그런 적 없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생성		"아동" 학업스트레스																					
[학습태도] ??		문항																					
Ch20str01		1) 교과목 공부를 위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잘 활용한다 2) 내가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지킨다 3) 공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한다 4)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부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내용				
		5) 나는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6)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선생님께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7) 선생님께 공부에 필요한 자료나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8)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다른 학생(친구들)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9)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본다	①	②	③	④
		11)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도서관 등에서 다른 책들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12) 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학생		"이동" 학습태도				
[GRIT-끈기] J03-18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Ch20gri01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J03-19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Ch20gri03		나는 노력기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J03-21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Ch20gri05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J03-22						
J03-23						

번호	문항 내용
Ch20gri06 J03-24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Ch20gri07 J03-25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Ch20gri08 생성	나는 부지런하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 *이동* 끈기
전환	지금부터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교육 인식] J03-30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다. ①예 ②아니오
Ch20pri01 J03-31	몇 개의 학원/과외를 다니고 있습니까?
Ch20pri02 J03-32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의 개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적은 편 ②적당한 편 ③많은편
Ch20pri03 J03-33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니까? ①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②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부담스러운 편이다 ⑤매우 부담스럽다.
Ch20pri04	
전환	지금부터는 주변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구 수] J04-1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Ch20psa40-41	남자친구 (Ch20psa40)명, 여자친구 (Ch20psa41)명,
생성	*이동* 친구 수(총 ()명)

번호	문항 내용
Ch20psa4041	
생성	
Ch20psa4041v	"아동" 친구 수 성비
[이성관계] J04-14	나는 서로 좋아하며 시귀는 이성친구(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Ch20psa55	
[포래 애착] J04-5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psa46	
J04-6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psa47	
J04-7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psa48	
J04-8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psa49	
J04-9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psa50	
J04-10	나는 친구들을 믿는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psa51	
J04-11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Ch20psa52	

번호	문항 내용
J04-12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Ch20psa53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J04-13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Ch20psa54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생성	"아동" 또래예작: 의사소통
Ch20psa_cm	
생성	"아동" 또래예작: 신뢰
Ch20psa_tr	
생성	"아동" 또래예작: 소외
Ch20psa_al	
전환	지금부터는 올해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생활느낌]	
J05-1	나는 학교를 좋아한다.
Ch20scl02	① 좋아하지 않는다 ② 약간 좋아한다 ③ 대체로 좋아한다 ④ 매우 좋아한다
J05-4	나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Ch20scl13	① 열심히 한 적 없다 ② 가끔 열심히 한다 ③ 대부분 열심히 한다 ④ 항상 열심히 한다
J05-5	나는 학교에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다.
Ch20scl07	① 기분 안 좋은 적이 없다 ② 가끔 기분이 안 좋다 ③ 대부분 기분이 안 좋다 ④ 항상 기분이 안 좋다
J05-6	나는 학교에서 피곤할 때가 있다.
Ch20scl14	① 피곤한 적 없다 ② 가끔 피곤하다 ③ 자주 피곤하다 ④ 항상 피곤하다
J05-7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다.
Ch20scl15	① 혼난 적 없다 ② 가끔 혼난다 ③ 자주 혼난다 ④ 항상 혼난다

번호		문항 내용			
J05-8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학교 공부에 관심을 보이신다.	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② 가끔 관심을 보인다 ③ 자주 관심을 보인다 ④ 항상 관심을 보인다			
Ch20sc110	J05-9	나는 학교 담임선생님을 좋아한다.	① 좋아하지 않는다 ② 조금 좋아한다 ③ 대체로 좋아한다 ④ 매우 좋아한다		
Ch20sc111	생성	“아동” 학교생활느낌			
Ch20sc111	??				
[과목 신호도] J05-1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순서대로 두가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국어 ② 과학 ③ 수학 ④ 사회 ⑤ 도덕 ⑥ 음악 ⑦ 미술 ⑧ 실과 ⑨ 체육 ⑩ 영어			
Ch20cla1					
[학교 적용] J05-2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Ch20adj01~21	1.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 숙제를 빼뜨리지 않고 한다	①	②	③	④
	3.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 본다	①	②	③	④
	5.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R)	①	②	③	④
	6.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7.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①	②	③	④
	8.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내용
	9.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10.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1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3.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4.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R)
	15. 놀이나 모듬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16.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7.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8.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19. 우리 선생님께서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20.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21.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생성	"아동" 학교적응: 학습활동
Ch20adj22	
생성	"아동" 학교적응: 학교규칙
Ch20adj23	
생성	"아동" 학교적응: 교우관계
Ch20adj24	
생성	"아동" 학교적응: 교사관계
Ch20adj25	

번호		문항 내용	
[창의적 학교환경]			
J05-10	Ch20sc16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만들면 만들면 관심을 가지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1	Ch20sc17	선생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2	Ch20sc18	선생님은 내 말을 들어주기 보다는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3	Ch20sc19	내 친구(들)는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4	Ch20sc20	선생님은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면 말리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5	Ch20sc21	내 친구(들)은 내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6	Ch20sc22	우리 반에는 지켜야할 규칙이 많이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7	Ch20sc23	선생님은 야단을 많이 치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8	Ch20sc24	선생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5-19	Ch20sc25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내용
생성 Ch20scl_cif	“이동” 창의적 학교환경: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생성 Ch20scl_cit	“이동” 창의적 학교환경: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생성 Ch20scl_cir	“이동” 창의적 학교환경: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전환	지금부터는 본인의 학교에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단과통합] J05-20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다.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없다
Ch20vio01	
J05-21	다른 학생(친구)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 달에 2-3번 ④ 한 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없다
Ch20vio02	
J05-22	다른 학생(친구)에게 험담,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없다
Ch20vio03	
J05-23	다른 학생(친구)이 나를 고의적으로 투척 치고,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해 오라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없다
Ch20vio04	
J05-24	다른 학생(친구)에게 돈이나 물건(학용품, 가방, 시계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없다
Ch20vio05	

문항 내용	
번호	
J05-25	다른 학생(친구)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기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Ch20vio06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없다
J05-26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
Ch20vio07	① 일주일에 여러번 ② 1주에 1-2번 ③ 한달에 2-3번 ④ 1달에 1번 ⑤ 1년에 1-2번 ⑥없다
J05-27	나는 다른 학생(친구)들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Ch20vio08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환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전혀 없음’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선택해주세요.
[사이버폭력] J05-27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Ch20ivo1	① 전혀없음 ② 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 한 달에 한두번 ④ 일주일에 한두번 ⑤ 거의매일
J05-28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Ch20ivo2	① 전혀없음 ② 지난 6개월간 한두번 ③ 한 달에 한두번 ④ 일주일에 한두번 ⑤ 거의매일
전환	지금부터는 본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속어 사용] J06-1	다음과 같은 언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Ch20dsc39	예) 존나, 새끼, 개XX, 험피폰다. 삽가능 등의 비속어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자주 사용한다 ④ 매일 사용한다

문항 내용	
번호	
[결혼관] J06-4	
Ch20cre11	미래에 결혼할 생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자녀관] J06-5	
Ch20cre12	자녀(아이)를 가질 생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공동체이식] J06-6	
Ch20cmt01	나는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6-7	
Ch20cmt02	나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6-8	
Ch20cmt03	나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6-9	
Ch20cmt04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인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6-10	
Ch20cmt05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J06-11	
Ch20cmt06	나는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내용
생성		"아동" 공동체의식
??		
[안전의식 및 대처]		나는 우리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나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 내용이 실제 위험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학교안전교육(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을 의미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생성		"아동" 안전의식 및 대처
??		

PSKC 2020 학교용 질문지[Web]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호	문항 내용
-	조사 참여 설명문
진행	다음은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L01-1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1) 학급 수: 담당 학년 총 (In20iev01)학급 2) 담당 학급 학생 수: 남아 (In20iev07)명, 여아 (In20iev08)명 총 (In20iev_c)명
In20iev01 In20iev07~08 In20iev_c	
[설립 유형] L01-2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국립학교 ② 공립학교 ③ 사립학교 ④ 국제(외국인)학교 ⑤ 대안학교 ⑥ 기타(L20scm02)
L20scm01~02	
[시범학교 유형] L01-2-1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연구학교 ⇨ GO L01-2-2, ② 시범학교 ⇨ GO L01-2-2, ③ 혁신학교 ⇨ GOL 01-2-2, ④ 기타(L20scm04) ⇨ GO L01-3, ⑤ 해당 없음 ⇨ GO L01-3.
L20scm03~04	
L01-2-2.	(L01-2-1의 ①,②,③ 해당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계신 연구학교의 추진(연구)과제명은 무엇입니까? 예) 서울형 작은학교 모델학교
L20scm05	

문항 내용						
번호	문항 내용					
[학교 환경] L01-3.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환경에 대해 가장 기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시시오.					
In20iev49~52	문항 내용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학교) 전반적인 건물상태	①	②	③	④	⑤
	2) 기자재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주변 환경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통학 조건(교통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전환	다음은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 수행 능력] L02-2.	다음 문항을 읽고 ○○(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Ch20acs30	급우들에 비해...					
Ch20acs31	1) [읽기] ○○(이)의 글에 나타난 글쓰이의 주장, 의도, 주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20acs32	2) [듣기/말하기] ○○(이)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듣고 말하는)하는 능력은 어 느 정도입니까?					
Ch20acs44	3) [쓰기] ○○(이)의 목적, 주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글쓰는 능력은 어느 정 도입니까?					
Ch20acs34	4) [영어] ○○(이)의 일상생활의 간단한 영어 대화를 듣고 말하며, 영어로 짧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20acs35	하위 20% 이내	하위 21%~40 %	중간 50% 내외	상위 21%~40 %	상위 20% 이내	상위 20% 이내
Ch20acs45	①	②	③	④	⑤	⑤
Ch20acs46	①	②	③	④	⑤	⑤
Ch20acs37	①	②	③	④	⑤	⑤
Ch20acs49	①	②	③	④	⑤	⑤

문항 내용						
번호	문항 내용					
	급우들에 비해...	하위 20% 이내	하위 21%~40 %	중간 50% 내외	상위 21%~40 %	상위 20% 이내
	5) [수와 연산] ○○(이)의 분수와 소수의 연산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도형] ○○(이)의 도형의 합동과 대칭,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와 성질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7) [측정] ○○(이)의 평면도형의 넓이, 입체도형의 길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Ch20acs50	8) [규칙성] ○○(이)의 비와 비율, 비례식, 비례배분을 이해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20acs41	9) [자료와 가능성] ○○(이)의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20acs42	10) [자료와 가능성] ○○(이)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Ch20acs43	11) [과학] ○○(이)의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Ch20acs39	12) [사회] ○○(이)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 ○○(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4) [예체] ○○(이)의 신체활동 및 운동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예체] ○○(이)의 미술적 표현(미적 체험, 표현, 감상)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예체] ○○(이)의 음악적 표현(표현, 감상, 생활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전반] ○○(이)의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선생님과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아동관계] L03-1.		선생님과 ○○(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의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③	④	⑤
		2) ○○(이)와 나는 항상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다.	①	③	④	⑤
		3) ○○(이)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위안을 받으려 할 것이다.	①	③	④	⑤
		4) ○○(이)는 내가 하는 가벼운 스킨십(머리 쓰다듬기 등)에 대해 불편해 한다.	①	③	④	⑤
		5) ○○(이)는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③	④	⑤
		6) 내가 칭찬을 하면, ○○(이)는 부끄해한다.	①	③	④	⑤
		7) ○○(이)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③	④	⑤
		8) ○○(이)는 나에게 쉽게 화를 낸다.	①	③	④	⑤
		9) 나는 ○○(이)가 느끼는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①	③	④	⑤
		10) ○○(이)는 훈육을 받으면 계속 화를 내거나 반항한다.	①	③	④	⑤
		11) ○○(이)를 상대하면 나는 진이 빠진다.	①	③	④	⑤
		12) ○○(이)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다.	①	③	④	⑤
		13) 나에게 대한 ○○(이)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거나 혼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	①	③	④	⑤
		14) ○○(이)는 나를 영약하게 조종하려고 한다.	①	③	④	⑤
		15)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와 솔직하게 나눈다.	①	③	④	⑤

Ch20tcn11~25

번호	문항 내용
전환	다음은 ○○(이) 부모님의 학교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 L04-1. In20ppe34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한다 ⑤ 항상 참여한다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L04-2. In20ppe32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입니까? 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②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을 보인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전환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 성별] L06-1. In20dmg0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 ② 남
[교사 연령] L06-2 In20dmg06	선생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나이 로 응답해 주세요. 만 ()세
[교사 경력] L06-3. In20dmg04	선생님은 올해 육아휴직, 군경력을 제외한 교사경력 몇년 차이십니까? 총 ()년차 / 육아휴직, 군경력 제외, 교육경력만
[교사 근무 시간] L06-4. In20jce25aa In20jce25ab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응답해주세요. 주중 1일 평균 (In20jce25aa)시간 (In20jce25ab)분 근무

번호		문항 내용																													
[교사 최종학력] L06-5. In20dmrg14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대졸(2, 3년제졸) ② 대졸(4년제 이상) ③ 석사과정 ④ 석사 ⑤ 박사과정 ⑥ 박사																														
[업무 스트레스] L05-1.	선생님께서서는 아래의 각 영역(업무)에 대하여 <u>스트레스</u> 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In20prs16~19	<table border="1"> <thead> <tr> <th>문 항 내 용</th> <th>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th> <th>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th> <th>보통이다</th> <th>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th> <th>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th> </tr> </thead> <tbody> <tr> <td>1) 학부모와의 관계</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생활지도</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수업지도</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4) 행정업무</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문 항 내 용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학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지도	①	②	③	④	⑤	4) 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학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지도	①	②	③	④	⑤																										
4) 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자녀(때낼아동 - 이하 ○○)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스트레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면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8)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 ① 없다
- ② 수면장애
- ③ 일상 생활 (레저 및 운동 포함)의 불편함
- ④ 학교 생활의 불편함
- ⑤ 기타 (_____)

6. OO(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있으면서 눈이 가렵고 눈을 비빈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7. OO(이)는 2017년~지금까지 (초등학교 3학년~현재 6학년 까지) 의사로부터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8. OO(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9. “OO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가려운 피부발진이 얼굴, 귀, 눈주위, 목, 접히는 부위, 몸통, 엉덩이 아래 부위 등에 생긴 적이 있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10. OO(이)는 2017년~지금까지 (초등학교 3학년~현재 6학년 까지)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1. OO(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 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토피피부염은 태열 또는 습진이라고도 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12. OO(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의사로부터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 쇼크”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음식, 약물, 운동 등 원인에 노출 후 수 분에서 수 시간 이내 두드러기, 눈 또는 입술 부종, 호흡곤란, 구토, 어지러움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심한 알레르기반응을 뜻합니다)

- ① 예 ⇨ 12-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설문을 마칩니다.

12-1.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적어주세요)

- ① 식품 _____
- ② 약물 _____

- ③ 곤충독 _____
 ④ 기타 (천연고무라텍스, 방사선 조영제 등) _____
 ⑤ 원인모름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부갈등]

13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배우자)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배우자)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배우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조절곤란-심층조사]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행동유형]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내가 쉽게 흥분한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무엇이든지 경쟁적으로 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잠시 쉬고 있을 때는 어쩐지 죄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채는 면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심한 압력 하에 있을 때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끝내려고 강박적으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 자신을 몰아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일상적 스트레스]

14.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받지 않음 ② 별로 받지 않음 ③ 약간 받음
④ 많이 받음

[삶의 만족도]

15.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주관적 건강상태]

16.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자아존중감]

17.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주관적 행복감]

18.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	→	보통 이다	→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그렇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	보통 이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주]

19.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15번 문항으로

20.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21.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경우,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이상)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흡연]

22.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 ① 피우지 않음 ① 10개비 이하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미디어중독]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5)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한국아동패널 2021(13차) 아버지 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 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대상 질문지를 응답하셨을 경우, 본 질문지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질문지 작성자	① 아버지 ② 기타()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다음은 귀하의 자녀(때날아동 - 이하 ○○)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스트레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시간은 대부분 아이를 위해 소비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이 때문에 나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 대개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이가 태어난 이후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부갈등]

1.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배우자)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배우자)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배우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서조절곤란-심층조사]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행동유형]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내가 쉽게 흥분한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무엇이든지 경쟁적으로 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잠시 쉬고 있을 때는 어쩐지 죄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채는 면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심한 압력 하에 있을 때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끝내려고 강박적으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 자신을 몰아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일상적 스트레스]

2.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받지 않음 ② 별로 받지 않음 ③ 약간 받음
④ 많이 받음

[삶의 만족도]

3.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주관적 건강상태]

4.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자아존중감]

5.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주관적 행복감]

6.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	→	보통 이다	→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	보통 이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음주]

7.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15번 문항으로

8.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9.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흡연]

10.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 ① 피우지 않음 ① 10개비 이하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취/학업상태]

11. 귀하는 현재 취업 중 이십니까?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13번 문항으로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15번 문항으로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13번 문항으로
④ 아니요 ⇨ 15번 문항으로

[직장변동여부]

12. 귀하의 현재 직장, 주 업무는 2019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 ① 2019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1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직장 또는 업무내용이 바뀜 ⇨ 14-1번 문항으로
③ 예, 2019년과 동일함 ⇨ 15번 문항으로

[직업분류]

13-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13-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13-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한식·양식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주로 하는 일: ()

13-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직업지위]

13-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육아지원제도/일가정양립제도]

14. 귀하가 지난 1년간 다음의 항목 중 이용한 지원 제도/방식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출산휴가
- ② 육아휴직
- ③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⑤ 가족돌봄휴직
- ⑥ 모두 이용 안함

[일-가정양립시 이점과갈등]

15.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복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말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써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미디어중독]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5)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기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	①	②	③	④
12)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14)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68 650107

93330

ISBN 979-11-6865-010-7